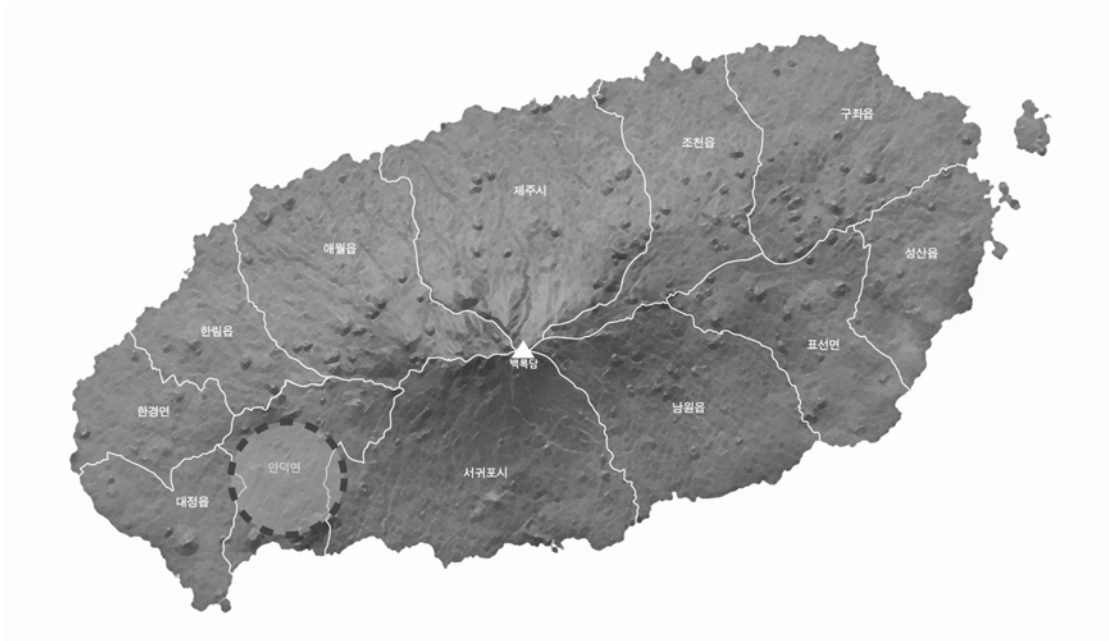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361-01

2016년도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 32

책임연구원: 강영봉
연구원: 김순자
조사지점: 안덕면덕수리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016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과 관련하여 귀 도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의한 2차분 보고서를 아래 목록과 같이 제출합니다.

3차년도(2016)	
조사 지점	조사자
25. 제주시 노형동	안민희
26. 조천읍 신촌리	안민희
27. 우도면	김승연
28. 성산읍 온평리	김순자
29. 표선면 세화리	최연미
30. 남원읍 태흥리	김미진
31. 서귀포시 토평리	김보향
32. 안덕면 덕수리	김순자
33. 대정읍 인성리	김미진
34. 한경면 신창리	김보향
35. 한림읍 옹포리	신우봉
36. 애월읍 구엄리	김성용
37. 제주어 구술 채록 질문지	강영봉·김순자

2016년 12월 30일

책임 연구원 강영봉

2016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 32

목차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7
1.2. 사업 기간	7
1.3. 조사 참여자	7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9
1.5. 기대 효과	10

제2장 안덕면 덕수리 조사 내용

2.1. 제보자	11
2.2. 조사 기간	11
2.3. 조사 항목과 내용	11
2.4. 전사	13
2.5. 장비	13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1. 조사 마을	14	2. 제보자 일생	32
3. 밭일	63	4. 들일	90
5. 바다일	120	6. 의생활	127
7. 식생활	153		

제2절 어휘

1. 인체	218	2. 육아	224
3. 친족	231	4. 의복	235
5. 음식	240	6. 가옥	249
7. 생업	254	8. 수와 단위	266
9. 민속	269	10. 신앙	272
11. 자연	272	12. 동물	279
13. 식물	289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진중한 제주의 언어 자산을 수집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제주어’는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당연 제주어에는 제주정신과 제주문화가 녹아들어 있다. 제주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결국 ‘제주 정체성의 상실’, ‘제주문화의 변이’를 의미한다.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로 분류한 유네스코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우리들 스스로 제주어 보전에 진력해야 할 계제에 놓여 있다.

제주어가 처한 현실은 그리 낙관하지 않는다. 이제 제주도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좋은 제보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제주어의 소실도 가속화되고 있어 제주어 채록 사업이야말로 화급을 요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이 사업을 통하여 제주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될 것이다. 수집, 구축된 자료는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제주어 보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주어가 삶의 언어로서 그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고, 자긍심을 갖는 계기도 될 것이다.

1.2. 사업 기간

-3개년(2014~2016)

1.3. 조사 참여자

<1차년도-2014>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이완국(전 초등학교 교사)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허영선(제주대학교 강사)

-보조 연구원:

한혜원(제주대학교 대학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2차년도-2015>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보조 연구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3차년도-2016>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성용(귀일중학교 교감)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보조 연구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조사 지점	조사자	조사 지점	조사자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의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읍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3차년도(2016)	
조사 지점	조사자
25. 제주시 노형동	안민희
26. 조천읍 신촌리	안민희
27. 우도면	김승연
28. 성산읍 온평리	김순자
29. 표선면 세화리	최연미
30. 남원읍 태흥리	김미진
31. 서귀포시 토평리	김보향
32. 안덕면 덕수리	김순자
33. 대정읍 인성리	김미진
34. 한경면 신창리	김보향
35. 한림읍 옹포리	신우봉
36. 애월읍 구엄리	김성용
37. 제주어 구술 채록 질문지	강영봉 · 김순자

1.5. 기대 효과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도민들에게 기록 사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제주어뿐만 아니라 제주문화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보전 및 전승의 필요성을 고양시키며 소멸 위기의 제주문화를 보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나아가 제보자들에게는 제주어의 소중함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 자긍심을 높이고 제주도민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제2장 안덕면 덕수리 조사 내용

2.1. 제보자

양기옥(여, 1938년생)
 김동권(남, 1938년생)
 허기현(남, 1931년생)
 이윤선(여, 1932년생)

2.2. 조사 기간: 2016. 3. 21.~12. 31.

2.3. 조사 항목과 내용

제1절 ‘구술’은 제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구연(口演)할 수 있는 분야로, ‘조사 마을, 제보자 일생, 밭일, 들일, 바다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신앙, 세시풍속, 놀이, 통과례, 민간요법, 경험담’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세부 조사 항목을 두어 제2부 ‘어휘’ 조사 내용을 보충 또는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질문지에 없는 경우라도 조사 마을별 특색 있는 문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조사하였다.

제2절 ‘어휘’는 ‘인체, 육아, 친족, 의복, 음식, 가옥, 생업, 수와 단위, 민속, 신앙, 자연, 동물, 식물’ 등 13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하위 조사 항목을 배열하고, 필요한 경우는 부분 명칭을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조사하기가 어려운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의 항목은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배치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조사 시간 등은 다음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 구술 채록 내용과 전사 여부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전사
1. 조사 마을	구술 1. 조사 마을	김동권	0:32:03	○
2. 제보자 일생	구술 2. 제보자 일생	양기옥	1:22:10	○
3. 밭일	구술 3. 밭일 1	양기옥	0:50:14	○
	구술 3. 밭일 2	양기옥	0:40:19	○
4. 들일	구술 4. 들일	양기옥	1:06:32	○
5. 바다일	구술 5. 바다일	양기옥	0:11:47	○
6. 의생활	구술 6. 의생활	양기옥	0:51:26	○
7. 식생활	구술 7. 식생활 1	양기옥	1:34:42	○
	구술 7. 식생활 2	양기옥	0:50:46	○
8. 주생활	구술 8. 주생활, 9. 신앙	김동권	1:19:47	×
9. 신앙				

10. 세시풍속	구술 10. 세시풍속	김동권	0:51:57	×
11. 놀이	구술 11. 놀이	김동권	0:56:25	×
12. 통과례	구술 12. 통과례 1	김동권	1:18:23	×
	구술 12. 통과례 2	양기옥	0:29:41	×
13. 민간요법	구술 13. 민간요법	허기현 이윤선	0:44:10	×
14. 경험담, 속담, 금기어	구술 14. 경험담, 속담, 금기어	김동권	0:20:54	×

<표 2> 어휘 채록 내용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정리
1. 인체	어휘 1. 인체 1	양기옥	0:31:04	○
	어휘 2. 인체 2	양기옥	0:14:20	○
	어휘 1. 인체 3	김동권	0:04:05	○
	어휘 1. 인체 4	김동권	0:09:26	○
2. 육아	어휘 2. 육아 1	이윤선	1:02:02	○
	어휘 2. 육아 2	허기현	0:27:42	○
3. 친족	어휘 3. 친족	허기현	0:38:52	○
4. 의복	어휘 4. 의복	이윤선	1:14:50	○
5. 음식	어휘 5. 음식	이윤선	1:30:43	○
	어휘 5. 음식 2	이윤선	0:10:49	○
6. 가옥	어휘 6. 가옥	김동권	1:07:23	○
7. 생업	어휘 7. 생업	김동권	0:35:19	○
	어휘 7. 생업 2	김동권	1:14:52	○
8. 수와 단위	어휘 8. 수와 단위 1	김동권	0:02:13	○
	어휘 8. 수와 단위 2	김동권	0:14:54	○
9. 민속	어휘 9. 민속	김동권	0:20:09	○
10. 신앙	어휘 10. 신앙	이윤선	0:32:46	○
11. 자연	어휘 11. 자연 1	김동권	0:44:34	○
	어휘 11. 자연 2	김동권	0:19:46	○
12. 동물	어휘 12. 동물	김동권	1:26:12	○
13. 식물	어휘 13. 식물 1	허기현 이윤선	1:30:43	○
	어휘 13. 식물 2	허기현 이윤선	0:20:50	○

2.4. 전사

전사는 <제주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1절 ‘구술’은 조사된 음성 자료를 질문지 순서에 따라 앞에서부터 10시간 가량 전사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도 모두 전사하였다. 조사자는 @표로, 제보자는 #를 넣어 구분하였다. 제보자가 둘 이상일 때는 #1, #2식으로 구분하여 전사하였으며, 제보자끼리 말이 겹칠 때도 가급적 제보자를 구분하여 전사하였다. 혹 청취가 불가능하여 전사가 어려운 경우는 음절수 만큼 ****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극히 개인사와 관련된 내용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사를 생략한 부분과 조사 중 전화 통화 내용 등은 전사하지 않고 <중략>으로 표시하였다.

제2절 ‘어휘’는 질문지에 따라 조사된 어휘를 전사하였다. 방언형이 여럿이 나올 경우도 그 전부를 전사하였으며, 제보자가 모르는 경우 또는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로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2.5. 장비

‘제주어 구술 채록’에 이용한 장비는 아래와 같다.

-녹음기: SONY ICD-SX 1000

-캠코더: SONY HDR-PJ 540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 김순자, #1: 양기옥, #2: 김동권)

1. 조사 마을

101001 @ 그 삼촌 그 이 마을 그 형성. 아, 그 전에 삼촌 성함이 어떻게마씨?

101001 #2 김동권입니다.

101001 @ 몇 년생이우과?

101001 #2 삼팔년 십일월 십팔일.

101001 @ 삼팔년 십일월 십팔일예?

101001 #2 예.

101001 @ 그 여기에서 계속 자라고.

101001 #2 여기에서 자라고.

101001 @ 예, 알았수다. 이 마을 형성은 어떻 땀덴 헤마씨?

101001 #2 이 마을 형성은 지금부터 사백년 전에.

101001 @ 예.

101001 #2 어 문씨 강씨 김씨.

101001 @ 예.

101001 #2 이렇게 형성이 뒀었다고 하는데. 문씨 강씨는 엇고 김씨만. 우리가 이 마을에.

101002 @ 음. 그렇게 하고예? 그러면 그 아까 문씨 강씨 김씨. 여기 보난 송칩도 한게예?

101002 #2 송칩은 나중에 들어오고.

101002 @ 아, 나중에 들어오고예?

101002 #2 마을이 형성된 후에.

101002 @ 지금 현재는 이 마을 성씨들은 어떻게 구성된 거라마씨?

101002 #2 이 마을에 지금은 켈 송씨가 많고.

101002 #2 송씨가 많고 그 다음은 김씨, 김해 김씨. 문씨 박씨 이씨. 주 종류 그렇게.

101003 @ 이 마을 사람들은 무신 일들 행 살암신고예?

101003 #2 지금은 과수원이 80%.

101003 @ 예.

101003 #2 근데 옛날에는 뭐 다 밭농사.

101003 @ 예. 밭농사는 어떤 농사들마씨?

101003 #2 밭농산 그 전원 고구마 광작허기 전에는 겨울엔 보리.

101003 @ 예.

101003 #2 여름엔 조, 콩 그 다음 그 메밀도 허고.

101003 @ 예.

101003 #2 또 산디.

101003 @ 예.

101003 #2 밭벼.

101003 @ 예.

101003 #2 산디 그거 허고. 팔 ㄱ튼 건 크게 많이 안 허고 자기 소비량 정도 쪼꼬맻게 해서, 쪼끔 남게 해서 남으믄 풀고. 참깨도 허고 녹두 또 오곡은 다 헛어요.

101003 @ 예.

101003 #2 그 전에는.

101003 @ 우리 제주도말로 곱아줍서예. 이 동네 평소에 곱앗던예.

101003 #2 경허고 이제 그때는 뭐 ** 잇엇쥬. 완전히 밭농사 헐 때는 보리 갈아뵤은에 시월에 보리 싹 갈아뵤은에 시월 중 보리 갈아뵤은에 그 다음에 동짓들 새해경을 헤여.

101003 @ 예.

101003 #2 새 해경엔 헐 건 그날은 딱 금헛다가 그날부뵤 누구든지 새를 비거든. 그 전에 새를 운반허민 걸려.

101003 @ 아아.

101003 #2 동짓들 초하루날 새 해경을 허면은.

101003 @ 예.

101003 #2 해경엔도 허고 해치엔도 허는다.

101003 @ 해치엔도 허고예?

101003 #2 새 해경을 허면은 그뵤 너나 없이 집 일 새 다 비여당은에 이제. 거허민 이제 농한기난 뭐 계속 놀곡 허는데 그 다음 언제부뵤 일허냐 허민 봄 정월 나서 쥬 놆가지고.

101003 @ 예.

101003 #2 집 일어불민 또 한창 놀아.

101003 @ 예.

101003 #2 경허당은에 멘네, 목화.

101003 @ 예.

101003 #2 멘네 갈 때는 뵤면은 이월달에 멘네 갈거근. 이월달엔 멘넌 갈 때엔 그뵤부뵤 쟁기 들런 가끔 하나씩 나상 텡기명 일험 시작허민 그 다음 흐뵤 산뵤왔을 번허야 뵤여.

101003 @ 예.

101003 #2 산디 갈젠 허민 미리 번허영. 산뵤왔 번헐 때 뵤민 밭디선 저 쟁기 일

허는 소리가 나거든.

101003 @ 예.

101003 #2 췌, 밭 번허는 소리. 밭 가는 소리가 나면은 경허민 그때부터 아 일헐 때 돼엿구나. 게연 그 다음 산디 갈앙.

101003 @ 예.

101003 #2 산디 갈곡 허영 그 다음엔 오월중 돼민 박전 농사를 허여. 박전.

101003 @ 박전.

101003 #2 박전엔 현 건 밭이 아주 나쁜 박현 땅에 가는데, 오월 중순 돼면은 하지 오월중 돼민은 박전밭디 농사를 지어. 조 같은 거 갈곡 허영. 그 다음 쪼끔 이시민 콩도 같고. 게영 유월절 돼민은 이 거스름팻이라고 해서.

101003 @ 예.

101003 #2 보릿그르에 그 조를 갈아가지고 이제. 걸 물로 불리거든.

101003 @ 예.

101003 #2 물로 불리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물을 오십 필 육십 필 항상 보유해 잇으니까. 게문 뭐 이 화순 사계 덕수 야튼 그 유월절 돼민 그냥 바빠요.

101003 @ 예.

101003 #2 말 하루에 혼 시간 풀 못 먹게 헤가지고 낮에는 그 농사철이니까 단 기간 일주일 안네거든.

101003 @ 음.

101003 #2 저 밭 거시림팻을 다 조허민은 그게 그렇게 오월중광 한 십오일 이상 이십일 차이가 나도 자라는 게 일주일이른 이만큼 커불어.

101003 @ 아, 여름이난예?

101003 #2 거시림조는. 박전 농사는 뭐 크지 아녀고. 막 ㄱ만이 앓앙 허고.

101003 @ 음.

101003 #2 조 갈면 여름은 나민 검질 보통 삼십일. 안 메는 사름이 삼십일 많이 메는 사름은 사십일 오십일. 산디검질ㄷ지 저 멘네 검질 산디 검질ㄷ지 시작허민 두 달까지 메는 사름이 잇고.

101003 @ 음.

101003 #2 경 여름에 한기나 아녀면은 산뒤 헤먹고. 한기 허민 산된 뭐 완전히 손들어부는 거.

101003 @ 음.

101003 #2 이삭이 그냥 그 고고리가 헤영케 그냥 고고리가 피여도 헤영케 아무 것도 열매 없어.

101003 @ 예, 예, 예, 예.

101003 #2 수량이 안 돼여가지고. 경허영 허곡 또 비가 좋앙은에 물이 좋으면은 산디 허민 산되는 제일 단위 면적당 수확이 많이 나는 거주.

101003 @ 아, 그러우과?

101003 #2 도깃줄레 혼 섬 난덴 허주게.

101003 @ 아 뭐 아까?

101003 @ 예?

101003 #2 도깃줄레.

101003 @ 도깃줄레?

101003 #2 도깃줄레는 그 이 타작허는 도께.

101003 @ 예.

101003 #2 도께를 짹 펴가지고 사름이 사서 이렇게 혼번 뺱 돌민 그 수확이 혼 섬 난덴 허곡.

101003 @ 게난 그 줄레?

101003 #2 도께, 도께바슴까지. 도께엇이 도께아덜허거든.

101003 @ 예.

101003 #2 도께아덜까지 딱 펴가지고서 혼번 팍 돌면은 혼 섬 난덴 허고.

101003 @ 예.

101003 #2 옛날 소두 혼 섬이지 뭐.

101003 @ 예.

101003 #2 메밀도 잘 돼민 그렇게 돼고. 그렇게 켈장히 수확이 많이 나는 작물인데. 안 돼게 돼면은 이것도 번쩍. 혼 말도. 브름 안 불면 조그쁜 거 허민 그자 허영 이제 가을 나민 탁베기 담당은예. 이제 오메기, 오메기 현디. 지금 이만이 현 오메기떡은 오메기떡이 아니고.

101003 @ 예.

101003 #2 통사말오메기라고 해서 이만이 현 거.

101003 @ 아, 통사말오메기?

101003 #2 예. 통사말만이 허영. 게영 가운데로 고망 딱 툇앙 허영 허민 잘 먹는 사름이라야 두 개, 두 개 먹는 사름은 거 식량 아주 좋은 사름이고. 보통 하나 먹으면 다 자빠지고.

101003 @ 음.

101003 #2 통사말.

101003 @ 그 오메기는 조오메기마씨?

101003 #2 조오메기 허영 그거 허영 칭주 담양 허민 겨울에 일헐 때도 떡곡. 또 제사도 지내곡 그걸로.

101003 @ 예.

101003 #2 경허영 그런 댜 그렇게 헛는데 이제 쪼끔씩 쪼끔씩 해서 고구마가 이제 절간이니 뭐니 해가지고 웬 광작을 허게 돼니까 이젠 여름엔 고구마가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허거든. 게서 전분 공장에 문 시경 날르고 다 허다가 절간해서 뭐 절간 공판도 허곡.

101003 @ 음.

101003 #2 경허다간 이젠 또 유채가 생겨났어요.

101003 @ 예.

101003 #2 유십년도, 육십년대에 들어서. 유채 생기니까 유채허곡 헤여서 우리 마을에 유채를 쟁쟁히 많이 갈았어. 유채를 광작으로 재배하다가 그것이 거의 유십년대 말 칠십년대 초 돼가니까 그때부턴 이제 감귤 붐이 일기 시작했거든. 게영 그때부터 감귤 헤여서 그땐 처음엔 춤 재력 있는 사름덜이 묘목 귀허니까 사다 심곡 허다가 칠십년대 중반되니까 뭐 너나없이 다 감귤 시작했거든. 지금은 아마 감귤 안 허는 사름 하나도 없고, 벨로 없고.

101003 @ 예.

101003 #2 겐디 그것에 주 생산허는 사름 80프로 이상.

101003 @ 아아.

101003 #2 게고 옛날은 쉼을 집마다 다 잇엇거든.

101003 @ 예.

101003 #2 집마다 잇어근엿에 농사 크게 지는 사름은 부룽이 맞갈쇄.

101003 @ 예.

101003 #2 맞갈쇄 헤영은에 그거 뭐 흔 십년 이십년씩 질황은에 허면은 거세헤 가지고 춤 중성귀엔 헤근에.

101003 @ 예.

101003 #2 중성귀 헤근에 흔 이십년 쓰무 살까지 질루는 사름이 잇고.

101003 @ 예.

101003 #2 경허곡 집마다 쉼허영 여름에는 한라산에 가곡.

101003 @ 예.

101003 #2 야우. 야우엔 드룽쉼거든. 드르에서 키우는 소 헤영 한라산에 보내곡 저 겨울에는 이제 이 목장에 가근에 허영 출 좀 해당 눈 푸끄면은 출도 주곡 안 그러면 내불민 나무 가지ㄴ튼 것도 다 먹으멍 살아 그 소.

101003 @ 예.

101003 #2 게영 살다가 이제 그것도 이젠 감귤 버스덴 ** 허니까 조금씩. 우리 사촌 어떻허연 야우허연.

101003 @ 예.

101003 #2 몰도 몰 현 사름도 흔 오륙 명 잇엇는데 크게 많이 현 사름은 우리 하르버지허고 여기 우리 마을에 이장도 지내고 면의원도 헛던 분인데 아주 유명허 신 분 그 박경수 씨라고 그분허곡 몰들도 많이 허고. 경허다가 우리 또 우리 하르 버지 동서 웨는 어른도 흔 이삼십 필 몰 허다가 이제 지금은 뭐 덕수에 몰 흔 마리 쯤 이신가. 한 한두 마리 정도 잇고.

101003 @ 음.

101003 #2 또 그때는 집마다 도새기가 뭐 안 질룬 집 서. 뭐 도새기 다 질황은에 허면은 쉼 걸름을 돛통에 담거든.

101003 @ 예.
 101003 #2 쉼결름을 돛통에 담아가지고서 돼지가 밟히고 돼지 똥 싸고 오줌 싸
 곡 허면서 그것이 부식되고 부식되고 허영 그것이 완전히 썩으면은 흑이 돼불고.
 101003 @ 음.
 101003 #2 흑이 안 돼영 결름이 완전히 돼게 허면은 후제 가을 돼영 보리갈게
 웨민 걸 결름을 내는 거라.
 101003 @ 예.
 101003 #2 이제 쉼에 저기 쉼에서 쉼 우막, 쉼막에서 결름 돛통데레 내는 건 결
 림 낸덴 허곡.
 101003 @ 예.
 101003 #2 결름 저 결름 들인덴 허곡. 돛통디레 들인덴 허곡.
 101003 @ 아, 들이는 거고 음.
 101003 #2 그 다음 또 또 보리 갈젠 허민 결름 내는 건 결름 내는 거 결름 낸덴.
 101003 @ 음.
 101003 #2 결름내서 허민 다 그 통허는다. 결름 내민 그걸 결름 헤영은에 이젠
 마당 신, 마당 좋은 집은 마당. 마당 없는 집은 질레 헤영은에 그뎨 차도 하나도 기
 켓해야 우마차 멧 개벳기 엇인 때. 게영 그걸 보리씨 뵘영은에 걸 불러.
 101003 @ 음.
 101003 #2 쉼 허곡 사름허곡 허영. 어디 장화가 셔? 다 맨발. 맨발에 보리씨 뵘
 영은에 그걸 * 딱 허영 그 밧디 멧 말지기 멧 바리 들 걸. 바리엔 현 건 결름착에
 그 저 찍으로 멘든.
 101003 @ 예, 예.
 101003 #2 결름착에 두 개.
 101003 @ 두 개.
 101003 #2 두 개 담알 가지고 딱 시끄면은 혼 바리거든.
 101003 @ 예.
 101003 #2 그 밧디 멧 바리 들 거. 씨는 얼마 들 거.
 101003 @ 음.
 101003 #2 딱허게 허민 닷 말지기 닷 말 씨 허민 씨 닷 말 걸로 말헨. 혼 말지기
 서 말 식 바리 든 덴 허민 닷 말지기 삼오십오 열다섯 바리. 게근에 열다섯 번 쉼
 실러야 돼거든. 게영 그걸 이 밧 갈 때마다 쪼끔씩 쪼끔씩 내는 거라.
 101003 @ 예, 예.
 101003 #2 경헤근에 다령은에 경허영 그걸 탁허게 이제 ** 데며근에 경허영 그
 날 못허민 다음 날부터 쉼석으로 담으멍 쉼에 씨경 강 밧디 강 뿌려. 그뎨 질도 뭐
 좁고 허니까.
 101003 @ 음.
 101003 #2 낭 트멍으로 어떻 어떻 가멍 밧디 강 평 게여 그걸 놓민. 결름 놓는

것도 여자들이 놓거든. 걸름덜 여자들이 골채 앞이 탁 차가지고 골채 높이 탁허게 메어가지고 걸름 담아두서 이제 손으로 타 부지대경 뿌리는 거라. 찢으면서.

101003 @ 예.

101003 #2 뿌리민 걸름에 다 보리씨가 묻어 잇거든. 그것이 기비가 되는 거.

101003 @ 음.

101003 #2 게영 이젠 보리 갈양은에. 또 그 여름에 조 갈면서 질 때 물로 불러 불면은 병에가 나가든. 병에.

101003 @ 예.

101003 #2 병에 나민 곰베엔 현 거 해가지고 이제 밧 간 다음엔 곰베로 다 그 흑을 부쉬야 돼여.

101003 @ 음.

101003 #2 경허곡 골 막은덴 허영은에 고랑에 또 주쟁이만씩 똑똑 끊어낱 보리 썰 놓거든.

101003 @ 음.

101003 #2 게문 걸 발로 막아야 돼.

101003 @ 아 아.

101003 #2 골막곡 헤영. 경허영은에 보리 갈양 허민 그뎨 그 해방 직전에는 뭐 비료가 엇엇주게. 일제시대 뭐 유산암모니아라고 해서 요새 요소현 말이주만는.

101003 @ 음.

101003 #2 그 황산암모니아 유산암모니아라고 암모니아라 해서 나오는데 그거 어떻 허영 배급 타근에 것도 뭐 모름대로 살 수 엇영, 배급 타가지고 경행 뿌리민 거 비료주민 잘 돼고 허단. 그 다음 초산이엔 허영도 나와 나고. 그 다음 말쨌 요소 나와나고 요소 유한. 유한 요소 이렇게 그 비료 종류 나완. 일제시대 흥남질소비료 본부에서 나온 비료라고 **해낱어.

101003 @ 음.

101003 #2 해방 후에는 처음에 춤 기가 맥허낱주. 비료 사기가 힘들어가지고덜. 그 비료 주니까 춤 진짠 요만씩 나던 것이 이만씩 나 곱빼기 자라거든. 수확도 많이 나고. 경허면서 그때, 그때부터 이제 쪼끔씩 이, 저 비료 나옴 시작허니깐 식량 자급이 뵈주게.

101003 @ 음.

101003 #2 그 전엔 식량 자급이 춤 힘들어가지고. 지금도 뭐 항상 밀채 먹는 소릴 허는데 밀 속에 채가 아니고 밀 꺾테기 초벌을 뵈긴 거.

101003 @ 예.

101003 #2 그걸 저 소 사료도 안 먹어. 소가. 그것이 사름이 다 먹엇거든.

101003 @ 음, 쟁 그걸 뵈 행 먹은거라마씨?

101003 #2 그걸로 헤영 범벅도 행 먹고. 또 그것만 주식이 아니고. 그것에 그것이 하나민 또 좁쌀 같은 거 보리쌀 같은 거 하나 허영 서꺼가지고 경헤영 우선 그

저 뭐야 포만감을.

101003 @ 예.

101003 #2 느끼는 거고게. 뭐 영양분 잇건 말건 사름이 먹으니까.

101003 @ 음.

101003 #2 우리 마을에도 뭐 밀채 안 먹는 집의 흔 삼십 분.

101003 @ 음.

101003 #2 나머진 다 밀채 먹었주.

101003 @ 이 동네도 밀채를, 밀을 간 거네예? 옛날에.

101003 #2 밀 간 게 아니고.

101003 @ 예.

101003 #2 그 웨국에서 밀 수입해가지고.

101003 @ 아.

101003 #2 제분허고 남은 이 그 껍데기 그것을 상인이 사다가 걸 풀앗주게.

101003 @ 으음.

101003 #2 그걸 풀민 그걸 사다가 거를 주로 밀채죽 먹었주.

101003 @ 예.

101003 #2 밀채죽.

101003 #2 그 다음에 전분공장에 전분, 전분주시.

101003 @ 음.

101003 #2 거 사다가 말려서 분쇄해서 그것도 먹고. 흉년 때는.

101003 @ 예.

101003 #2 비료 나옴 시작허난 비료로 해서 그때부턴 보리 수확이 많이 나거든.

일곱 바리 흔 착이민. 뭐 아 식바리 흔 착.

101003 @ 무신 거마씨?

101003 #2 보리.

101003 @ 으.

101003 #2 보리도 식 바리 흔 바리가 흔 바리가 멧 못이야. 서 못씩이른 열 못.

쓰무 못. 스무 못이 흔 바리거든.

101003 @ 예.

101003 #2 식바리흔 착 일곱 못이야 일곱 못.

101003 @2 이른 못.

101003 #2 이른 못. 이른 못이른 흔 사름 먹넨 헛거든 옛날.

101003 @ 식 바리 흔 착이면예?

101003 #2 식 바리 흔 착이민 흔 사름 베 들어 먹어 저 그런 소리 허는디. 뭐 그
 댜 식 바리 흔 착 그루후제 보리가 잘 돼고 농사가 잘 돼고 비료 덕택에 뭐 흔 집
 의 보통 보리가 스무 섬 서른 섬 마은 섬까지. 거 백 석 백오십 썩 짜리도. 그 다음
 엔 고구마를 많이 광작허고 유채 광작 허고 허니까 보리 백 석 자량이 안 똥거든.

돈 잘 주는 건 유채가 낫고. 경헨 살다가 이제 그 또 농사짓젠 허민 쉼을 손을 잘 봐사 돼여.

101003 @ 음.

101003 #2 게연 쉼 그리치젠 허민 사릅에 그리치거든. 나릅도 간 그리치주마는 보통 사릅에 그리쳐. 춤 다간도 아주 훌륭한 건 다간도 좀 저 돌 끄언 그리치는디 다간은 거의 안 그리치지 아녀고. 사릅 웨민 그리첸. 나도 쉼 대으섯 개 그리쳐 봤는데. 쉼가 아주 좋은 놈은 한두 번 이경 허민 밧을 갈 수 잇는다. 페라운 건 뭐 드러뵘은에 불로 지져도 안 일어나.

101003 @ 음.

101003 #2 그런 식으로 야튼 소도 춤 질긴 놈 질기고. 게 소 잘 그리쳐 놔두민 그뻐 사릅 부렁이 잘 그리쳐 놔두민 닷 말지기 밧 하나 샅어. 그때는 그렇게 밧 사기가 좋앗엇는다 이젠 아마 쉼 열 머리 풀아도 밧 사기가 힘들어.

101004 @ 알아수다. 이 동네 오름도 신가마씨?

101004 #2 이 동네 오름. 우리 덕수리 지경 안넌 오름 없고.

101004 @ 내는마씨?

101004 #2 내도 없고.

101004 @ 아.

101004 #2 내도 저 이디 냇그랑, 냇그랑 해도 옛날 아, 팔십오년도에 글로 흥번 물이 한번 터정 지적도 다 엇어질 정도로. 밧 경계가 다 헐어져 다 파버려가지고 잇는다. 나 이장 때 옛날에 복구허면서 나 춤 흥 사십일 간 그것에 하루 종일 자기 일 못허멍 다녔는데. 그뻐 내엇지만 옛날 우리 할아버지가 갑오생 이젠 백수물으섯, 으덱 슬 때 글로 항상 물이 내려가지고 즈 저 냇그랑에 목욕을 했다는디 이제는, 지금은 그 내 흔적이 없고. 대충 그자 영 이거 냇그랑이다허는 흔적만 흠져가지고.

101004 @ 그거 하나?

101004 #2 그거 지금, 지금 저 없어진 내 그거 하나 뿐.

101004 @ 바위, 흑시 큰 바위 같은 것도 잇어마씨? 여기.

101004 #2 큰 바위, 큰 동산은 엇고. 저 그 옛날 지금도 뭐 당엔 허주만 당.

101004 @ 예.

101004 #2 당그뻐 디 허면은 큰 바위 큰 나무들이 잇는다 보통 허거든.

101004 @ 예.

101004 #2 큰 바위 영커지고 이런 저 덩벌도 잇꼭 큰 나무도 잇고 현디 그런 디 강 허는다. 웃송물엔 현디 가면은 돌덜 얽혀진디 알송물은 포제지내는 딘디 거기도 암석으로 웬 지반 우에 높은 쪼금 동산 잇는다 그런 디 허고.

101004 @ 웃송그르마씨?

101004 #2 웃송물. 순물. 왜 흥물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101004 @ 송물?

101004 #2 송물. 웃송물 알송물 해갓고.

101004 @ 거기 혹시 물 잇어나신가마씨?

101004 #2 아니.

101004 @ 물은 엇고. 옷순물 알순물예? 굴 같은 거는마씨?

101004 #2 굴, 여기 자연굴은 없고.

101004 @ 자연굴은 없고예? 예. 여기 덕수.

101004 #2 저 그. 천구백 천팔백년대에 뿔고? 토기.

101004 @ 예. 가마.

101004 #2 가마 굴. 굴 현 거 요디도 잇다가 우리 어린 때까지 **디 없어져불고. 저 새동네엔 현디 지금 하나 흔적만 남아 잇고.

101004 @ 계민? 옛날에 여기는 계민 이 불미만 현 계 아니라 가마도 잇엇어예? 황 굽는.

101004 #2 예, 황 굽는. 가마에서 여기 흑이.

101004 @ 예.

101004 #2 가마에 적합지 않으니까 옹기에 적합허지 아녀니까 신평 가서 사오거든.

101004 @ 예.

101004 #2 신평 그쪽에서 사오는데. 옛날 토구루마라고 나무로만 만든 구루마.

101004 @ 예, 예.

101004 #2 그 저 바퀴양 철로 만들엇지마는.

101004 @ 그 이만큼현 거예?

101004 #2 예. 이만이. 그걸로 헨 흑을 실어오는다 흑 실러오다가 씨아버지 메뉴리광 오는다 메뉴리 것만 자빠전, 발차가지고 넘어지니까. 그냥 사름 우의로 구루마 넘어가버려가지고 현장 즉사해연 현 그런 사고까지 나뉘주.

101005 @ 음. 이 기관예, 이 마을에 기관들은 어떤 거 이시코예?

101005 #2 우리 마을에 기관은 옛날은 우리 저 서통 례 보면 계도 뭐 막을 자체도 계가 잇엇는다.

101005 @ 음.

101005 #2 그 서류가 명확허질 못헤갖고 판독을 못허고 잇는다. 그런 계는 잇엇는다 중간엔 우리 마을에 계가 자생 계가 쾡장히 많았주.

101006 @ 어떤 계덜 잇엇수가?

101006 #2 보통 애향친목회도 잇엇고. 그다음 뭐 육십년대 거 개발위원회 건 행정에서 현 지시현 개발위원회 그런 것도 허고. 그 다음 친목계 형식으로 해서 계가 그 되게 많았주.

101006 @ 예.

101006 #2 밧, 밧 그 연자매.

101006 @ 예.

101006 #2 방앗돌도 그 계로 만들어서 계원들만 쓰는 방아도 만들고 그런 식으

로.

101006 @ 그 거 허어나고 화단체같은 것덜은?

101006 #2 화단체도. 화단체 춤 거 사라진 지 뭐 흔 이십년 삼십년 이상 뵈주.

101006 @ 그것도 그 골에서만 허는 거우과?

101006 #2 것도 제에서.

101006 @ 제에서예?

101006 #2 제에서 허는 것도 잇고 골에서 허는 거. 우리 저 동부락은 동골에서만.

101006 @ 음 동골에서만.

101006 #2 또 게고 그때 옛날은 그 관복 같은 것도.

101006 @ 예.

101006 #2 개인이 소지 안 허영. 어디 갑장훼민 갑장훼 ㄹ뎡 디 그 관복 ㄹ뎡 거 다 일괄 준비행 가지고 헛다가 결혼식허는 디 빌려주고 함 ㄹ뎡 거 다 츠러났다가.

101006 @ 음.

101006 #2 그렇게 허고. 우리 마을에서 쥬 잘허는 것이 불무는 뭐.

101006 @ 음.

101006 #2 저 그 송씨 시조 여기 저 우리 마을에 입도헌 분이 원래 진도 쪽으로 내려왔는디.

101006 @ 예.

101006 #2 그 육지에서 그 불무허는 걸 그 기능을 가져가지고 저기 청수엔 헌디 거기서 와서 사는데 흑이 안 맞아.

101006 @ 예.

101006 #2 흑이 안 맞아서 이쪽에 와서 시험허니 흑이 아주 맞거든. 아무리 천도에 가도 흑이 녹지 안 허여.

101006 @ 음.

101006 #2 겨곡 그게 부수민 부서지고. 그게 다른 흑은 그것이 저 뭐야, 사기가 돼여부문디.

101006 @ 예.

101006 #2 사기가 안 돼여. 쥬디 그것이 그 틀.

101006 @ 예.

101006 #2 텅이 만드는데 아주 좋아가지고 게서 우리 마을에서 불미를 허고.

101006 @ 게문 그 흑을 무신 흑이렌 험니까? 이 동네서는.

101006 #2 촌흑, 촌흑.

101006 @ 촌흑예. 신평도 촌흑 아니우과예?

101006 #2 신평은 질흑인디.

101006 @ 아 거는 질흑?

101006 #2 우리가 말 할 때 질흑.

101006 @ 여기에서 말할 때 거긴 질혹예.
101006 #2 질혹.
101006 @ 아 질혹. 여기는 촌혹이 이제 끈기가 없구나예?
101006 #2 무사 끈기 엇어?
101006 @ 아, 끈기는 잇어도?
101006 #2 끈기는 잇는데.
101006 @ 으음.
101006 #2 불에 타면은 그것이 옹기가 돼야 돼는다.
101006 @ 예.
101006 #2 사기가 돼는다 사기가 안 돼고 그 형태로 잇다가 딱 부서져 그것이. 가루가 안 돼여가지고.
101006 @ 예.
101006 #2 겐디 그것을 뿌시면은 또 부서져.
101006 @ 음, 게문 그 재활용할 수 잇어?
101006 #2 재활용도 해가지고 허고. 겐디 텡이는 못 멘들고 다른 건 용 췌 돼고 보섭 알 허고.
101006 @ 음. 예전에 보면 뭐 고냉이혹이여 뭐여 이런 말도 허는데 이런.
101006 #2 이딘 그런 고냉이혹덜 엇고.
101006 @ 그건 엇고예. 그냥 무조건 촌혹.
101006 #2 무조건 촌혹허고. 촌혹으로 불미 만들고.
101006 @ 예.
101006 #2 겐디 여기 땅은 다 검은 땅이라.
101006 @ 검은 땅이고예. 그 다음에 여기 뭐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 이런?
101006 #2 새마을금고는 잇고 새마을금고.
101006 @ 그런 기관은 어떤 거 잇수가?
101006 #2 우리 마을에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가 이젠 원랜 우리 마을 자생. 동부락새마을금고 서부락새마을금고 두 갠 잇었는데 그거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합쳐 잇다가 칠십년대 그 새마을사업 한창 할 때.
101006 @ 음.
101006 #2 새마을금골 두 개 만들엇다가 이제 하나로 합쳐가지고 합병허여서 그 다음 또 어쩐지 새마을금골 정비할 때 모슬포서 새마을금고가 췌 부실해가지고.
101006 @ 음.
101006 #2 모슬포허고 덕수가 합쳐져가지고 남제주새마을금고로.
101006 @ 아, 이제는 남제주새마을금고예?
101006 #2 대정면 안덕면.
101006 @ 예.
101006 #2 해서 이름은 그렇게 췌는다. 겐디 가입은 아무 디 사름이나 다 가입할

수 있고.

101006 @ 예. 학교 있고.

101006 #2 학교는 우리 마을이 뭐 아주 저 향학열이 아주 높아가지고.

101006 @ 예.

101006 #2 일제시대에 일진의숙.

101006 @ 음.

101006 #2 일제시대에 일진의숙을 설립해가지고 허다가 해방 후에 하도 덕수초등학교 국민학교로 개편헐허고 그때는 구월 학기였거든. 해방 후.

101006 @ 예.

101006 #2 구월학기 일본식으로 구월 학기 허다가 몇 년 안 가지고 삼월학기로 바뀌가지고.

101006 @ 아까 일진의숙은 무슨 말이우짜?

101006 #2 일진의숙이라고 해서 학교 이름이지.

101006 @ 아 일진유숙?

101006 #2 의숙 의숙.

101007 @ 아. 의숙. 예, 예, 예. 그 다음에 삼촌, 이 동네 고유한 풍습같은 거는 어떤 거 잇인고예?

101007 #2 풍습. 고유한 풍습은 그 옛날에는 거의 집마다 그 당을 모시거든, 당.

101007 @ 예.

101007 #2 당 모셔가지고. 우리도 할머니 살아계실 때는 저 축일 본향이라고 축일당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입춘 후 첫 축일날. 경행 강 제 지내고 고사해근에 헌 비념허꼭 다 헛는다. 우리 마을 돌아가면서 아주 그 큰 나무 잇고 영, 영덕 잇꼭 헌 데는 거의 다 **이 없는 데가 없어. 돌아가면서 다 이 앞에서 혼 일곱 밧디나 잇엇고.

101007 @ 아아.

101007 #2 저 웃동네도 잇엇고. 또 자기만 다니면서 같이 다니는 디 잇고 혼 밧디라도.

101007 @ 예.

101007 #2 자기 혼자만 다니는, 계산해서 다니는 디 잇고 그렇게 허는 거.

101007 @ 몇 개나 그런 당이 잇어신고예?

101007 #2 혼 삼십 개쯤 뻗을 거.

101007 @ 이 마을에 당이 잇는 거만?

101007 #2 이삼십 개 개인 당, 개인 당이 많았주.

101007 @ 예. 케민 그 당이 지금도 이시카마씨?

101007 #2 지금도 삼년 전인 7진 잇었는데 지금은 하나토 없어.

101007 @ 본향?

101007 #2 본향당이.

101007 @ 본향당도 안 험니까? 마을제는 어떤 걸로 해마씨?

101007 #2 마을젠 우리 마을에 특이헌 게 우리 마을이 형성되고 이제 마을이 구성이 돼니까.

101007 @ 예.

101007 #2 그때부터 이제 이제 혼 삼백년 이상, 삼백오십년 이상 되고 잇는디 그때는 뭐 뭣이 없이 그냥 마을에서 모영 제만 지낸 쪽 허게 내려오다가 이제 체계적으로 잡기 시작헌 게 천팔백년대 후반 그때부턴 이젠 이 제 지내는 디도 잘 만들고 게서 그 전에 7지는 일년 두 번 헛거든. 여름엔 농포제라고 해서 농사 잘 돼게 해 줘센 해서 제 지내고. 또 겨울에는 입춘, 입춘 후 첫정일이나 해일 이럴 때는 일년 대운 다 뭐 국태민안 아니고 백태민안 허게끔 허영 지냈고. 뭐 오곡 다 풍성허게 지내고. 여름에는 그 제 지내곡. 그 다음 가끔 또 그 유행병이 걸리게 되면 그때 말을 잡아가지고 방역제를 지냈어.

101007 @ 방역제.

101007 #2 방역제라고 해야 될까 방, 방쉬제라고 해야 될까 방병제라고 해야 될까.

101007 @ 예, 예.

101007 #2 그렇게 해서 제를 지냈었고.

101007 @2 말을 잡아서예?

101007 #2 예, 말로. 그건 우리가 들음만 허고. 할아버지 할머니네 지내나니까 들음만 허고 그 직접 헌 건 우린 안 보고. 그런 건 안 보고. 우린 포젠 봤는디 포제는 그때 시작헌 것이 사삼사건 때 그렇게 일본 일제시대 그렇게 그런 거 막아도 한번도 한번도 끊이지 않고 쪽 이어왔고.

101007 @ 으음.

101007 #2 사삼사건 때도 그렇게 위험할 때도 어쨌든 마을 사람들 모여가지고 제를 지냈고.

101007 @ 아아.

101007 #2 게서 이 오닐까지 시작허니까 오늘까지 제는 끊어보진 안 허고.

101007 @ 그 제를 무신 제렌 해마씨?

101007 #2 포제, 포제.

101007 @ 포제. 게문 포젯단이 아니예?

101007 #2 포젯단이주.

101008 @ 특산물은 어떤 거 잇인고예? 이 마을에.

101008 #2 특산물?

101008 @ 예, 특산물.

101008 #2 아, 특산물.

101008 @ 음.

101008 #2 특산물이 뭐 옛날엔 보섭. 뭐 아주 거 유명헌 거. 보섭, 제주도에 덕수

보섭 벧 아니라시민 제주도 안네 농사를 못 지었거든.

101008 @ 예, 맞수다.

101008 #2 쟁기 갈 게 없으니까. 게고 솟 만드니까 솟 아니민 밥 헤먹을 수 없었
고.

101008 @ 예.

101008 #2 나중에 해외 물량이 문물이 뵈니까 그 전의야 뭐 덕수 ** 그 솟뚜껍
이고.

101008 @ 계난 그 보섭 같은 경우도 그 다른 지역 보섭하고 멘드는 게 또 트나
지 않아양?

101008 #2 틀리지. 육지서 여깃 걸 아 육지 원래 보섭 현디. 그것광 여기 모양이
틀려. 게문 육지는 땅밭용이고.

101008 @ 음.

101008 #2 제주도는 땅밭보다는 70%가 자갈밭이거든. 자갈밭이, 자갈 없는 밭이
거의 드물어. 고산 한장드르 ㄴ쁜 디 그런 디나 가민 뭐 허주마는 경 아녀민 다 자
갈밭이라.

101008 @ 예.

101008 #2 자갈밭되는 제주도 보섭 아니민 갈 수가 없어.

101008 @ 맞습니다. 그 다음 솟 같은 경우는?

101008 #2 솟도 다 만들어서 제주도에 여기서 일제 때 춤, 우리가 혼 이십 대.
이십 대 후반까지 솟 만들어서 저 제주도에 풀고 헤난디 벧 보섭 만들기는 육십년
대 중반.

101008 @ 음.

101008 #2 아, 칠십년대 초반.

101008 @ 칠십년대 초반. 경운기 나오기 전이.

101008 #2 칠십년대 초중반까지도 보섭은 계속 만들었주.

101008 @ 음.

101008 #2 밭 갈기 경운기 트랙터 나오기 전인 계속 보섭 썼으니까 경운기로 밭
얼마 못 갈주게. 경운기 솔직히 저 자갈밭디 강 어디.

101008 @ 맞수다, 맞수다.

101008 #2 경운기 트랙터 나오니까 헛주. 경 아녀민 계속 쟁기로.

101008 @ 게문 솟도 큰 것부터 작은솟까지.

101008 #2 경허난.

101008 #2 이름덜 잇일 거 아니우과?

101008 #2 쥬 죽은 것이 옹지리. 그 다음 저 아 질 적은 게 잔철.

101008 @ 잔철?

101008 #2 잔철.

101008 @ 음.

101008 #2 잔철엔 현 건 왜냐면 잔철. 저 췌 물 주다가 저 조금 남으면 물이.

101008 @ 예.

101008 #2 췌물이 좀 남으면 질 작은 것에 췌 질어서 잔철이거든. 남은 췌를 가서 쏟았다고 해서 잔철. 그 다음 옹지리. 그 다음 서두, 저 다두테기.

101008 @ 음.

101008 #2 두 돼들이 서두테기 석 돼들이. 말치 혼 말. 혼 말들이. 그 다음 두말 떼기.

101008 @ 음.

101008 #2 혼 말은 말치 두말떼긴 두 말. 그런 식으로 해엿주.

101008 @ 예.

101008 #2 것도 여러 가지.

101008 @ 예. 잔철로도 뭐 해먹고?

101008 #2 예, 잔철로도 즉 말허면 자리 ㄹ튼 거 혼 으남은 개 낭 보깡 지정 먹 고계 조그만 거 작은 거.

101008 @ 저쪽, 저거는 옹지리우과?

101008 #2 옹지리.

101010 @ 저건 옹지리에. 예, 알았수다. 그 다음에 혹시 이 마을과 관련해서 덧 붙이고 싶은 이런 애긴 이시카마씨?

101010 #2 이 우리 마을에는 그 옛날부터 그 방화, 이 저 불밀허기 때문에 다 불 에 그 기능이 있어가지고, 방화허면 그 우리 마을 사름덜은 다 소방대원이거든. 과 거에는.

101010 @ 음.

101010 #2 마을에 우리 마을에서 화제가 낭은에 전소시킨 일이 없어. 마을에 화 제가 낫다 들리면은 너나엇이 다 소방대원이라.

101010 @ 음.

101010 #2 그리고 옆집의 물 오줌통 다 이런 거 다 갖당.

101010 @ 뿌려.

101010 #2 뿌려.

101010 @ 음.

101010 #2 그래서 야튼 우리 마을에는 야튼 그 방화는 아주 철저히 헛는데 이젠 뭐 그런 기능도 다 엇어지고 다 헛주마는. 그게 탄 마을엔 우리 저 옛날 말로 속담 으로, 감산리 양반, 양반 허면서 옹집 불 불나민 확허게 두루막, 멩지 두루막 입영 은에 턱 사냥 ‘허 거 안 돼엇고.’

101010 @2 웃음.

101010 #2 경헌텐 우리 조롱덜 해낫는다.

101010 @ 음.

101010 #2 그런 식으로 허고. 여기서는 벨 걸 입엇다해도 확 벗엉 같중이 확 입

영 강 자기 친척이건 놈의건 관계없이 그자 마을에 불만 낫덴 허면 너나없이 그자 선착순.

101010 @ 역시 불에 대한 이런 거는 예, 예.

101010 #2 그런 기능이 잇으니까. 불에 겁나지 안 허고.

101010 @ 예. 알았수다. 잠깐만예.

2. 제보자 일생

102001 @ 삼촌 이 언제 낳고 어뎡 컷수까? 어렸을 때.

102001 #1 아이고, 우리 너무 너무 고생해수다.

102001 @ 음.

102001 #1 삼월 십칠일날 나고.

102001 @ 예.

102001 #1 난 다섯 설 나난에 다섯 설 나난 성질이 너미 저 바쁘고 너미 저 키도 크고.

102001 @ 음.

102001 #1 열다섯에 큰 키라 마썸게, 나가.

102001 @ 음,

102001 #1 견디 키도 크고 아버지가 막 대키우다게.

102001 @ 예.

102001 #1 아버지는 대키고 어머니는 보통이고 허난에. 그 저 옛날은 그 몰방에 알아집니까?

102001 @ 예.

102001 #1 몰방에 저 소 메왕근에엥 뱅뱅 돌명 그 조코고리도 그 무시거.

102001 @2 못곡.

102001 #1 그 놘근에엥 영영 올리명 다 그거 문 그것에 문 빠져내곡 허는 거. 거 술 몰았수다. 다섯 설 나난.

102001 @ 음.

102001 #1 술 몰명 소 몰고 딱시 쪼끄만헌 두벙들이 알아집니까.

102001 @ 예.

102001 #1 두벙들이 저근엥에 물 저오곡 동생덜 아래 동생덜이 다섯 개마썸. 다섯성제. 저 아덜, 아덜덜만 다섯 성제난에 농장은 너무 널러마썸게. 친, 저 친 저 우리 저.

102001 @ 친정이?

102001 #1 친정에도 농장이 너미 널르난에 아부지 어머니는 매달 밧디 가고 그자 그 농장은 널러노난 옛날은게 조 보리 더 헤엿수가게. 돈 날 것도 뭐 엇고.

102001 @ 음.

102001 #1 그 어린 때부터 나가 부지런했수다. 부지런허영은에 말정을 아녀마씨. 나냥으로도 알아집니다 겐디. 알아집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 쓰물에 결혼허영 왔수 다게. 쓰물에 결혼헤영 와신디 아버지가 와근에 옛말 삼아 ‘야이 님은 아인 엇어.’ ‘야의 님은 아이는 하나도 엇다.’ 사위 신디레 허는 말이.

102001 @ 예.

102001 #1 야이 님은 아이. 야이는 너무 저 뭐 그 밧 막아진 밧도, 질 막아진 밧도 옛날은 많이 잇지 아녀우짜양?

102001 @ 예.

102001 #1 경허민양 우리 성님이 하나 잇수다. 우에 성님이 잇인디, 큰어머니에 성님이난에. 저 큰어머님은 옛날에 들은 말인디 너무 키가 적고 너미 황당허난에 우리 아버지가 저 싫어헛젠마썸게. 싫어허연. 할머니도 깔깔헤놓고 또 우리 아버지도 너무 깔깔헤노난에 그 저 큰어머닌, 우리 성님은 쫓꼬만헛니다게. 카가 쫓꼬만허고 황당허여. 오꼳 아버지가 오꼳 일본 가부난에 큰어머님 가불어마썸게.

102001 @ 아아.

102001 #1 가불난. 양, 저 시에 이 군수 큰 누님이우다게. 우리 큰 어머니가.

102001 @ 으음.

102001 #1 경허여도 우리 아버지가 너무 저 황당헤놓난에.

102001 @ 음.

102001 #1 그걸 저 안 살안 일본 가부니까 일본서 우리 어머니를 딱시 저 이제 만난 데령 오란에 이 초원에 완 살안 나가 첫, 첫똥이우다. 큰똥.

102001 @ 음.

102001 #1 큰똥로 나신디 아래 동생들이 다섯 개라노난 학교 텅기젠 허난 일을 헤졌수가게. 일을 못허난 난 공부도 못허고 학교 저 학교 보냅센 허영 선생덜이 가민 우리 아버지네도 너미 어두운 거 아니우과? 계도 국민학교라도 시겨주주.

102001 @ 계난.

102001 #1 하나도 안 시겨근영에 일, 일이나 허곡 애기나 보렌 허곡 경허여노난 양, 일망 허명 살앗수다. 겨곡 일을 싫어허질 아녀마씨. 성질이.

102001 @ 음.

102001 #1 경허난 이제는 아판에 경험주마는. 산에 강야으 냥 그 쓰물 안네양 산에 저 한라산에 간 남을 행 왔수다. 우리도.

102001 @ 음.

102001 #1 나가. 아버지는 돌구루마 끓고 난 소구루말 끓고 경헤영 강 남을 행 오곡 허난 우리 아버지가 막 와근에 자랑삼아 그 저 사위신디레 이야길헤마썸. 가민 저 나대 차곡 준둥이에 확 베 감아근영에 들어가근영에 냥을 헤도 경 빠르게 허곡 경 어린 뺨주게. 쓰물에 씨집을 오난.

102001 @ 음.

102001 #1 쓰물 아주 전앵주게. 경헨에 허여난거양 어이 엇읍니다. 경허난 나가 병신두엿 아팜심가 경 생각헤져마썸게. 이 집에도 저 완전히 소문난 집이우다게.

102001 @ 음.

102001 #1 저 우리 씨아바님 돌아간 씨아바님 저 이제 저 뭐 이름을 불러야 돼 쿠다. 송만색이 허민 저 셋동네 송만색이 허민 완전 저 소문난 집이우다게.

102001 @ 음.

102001 #1 겐디 아덜이 또 다섯 개라마썸. 으답 오누이마썸. 딸 세 개 허고. 씨집을 오란 보난 딱시 우리집보단 더헌 집의가 와진 거라마썸게. 완 보난 다 아래. 나가 우의가 우리가 종손이고게 질 우의우다게. 우리가. 우리가 질 못이라노난양. 아이고, 집은 돈 벨라진 집 케케묵은 집. 그 저 무신 걸로 인 거 알아집니까?

102002 @2 새로?

102002 #1 새로 일엿 이만이 뚜꺼와마씨. 이만인 뚜꺼와.

102002 @2 예, 예, 예.

102002 #1 경허난 그것이야 종손칩이라놓난 우리 저 씨아버님은 제스 돌아가민 백 멩 백 멩 백 멩을 모인 거라마씨. 제삿날 츠낙. 부억도 흐꼬만 허고 집도 흐꼬만 허곡 이 자린 이 자린디 쪼꼬만허게 헤여놓난 이디 영만 데민 다 버물어마씨. 다 버물엿 살 수가 엇읍디다게. 살 수가 엇으난에, 아이고양, 서른 우리 나가 서른다섯에 이거 집 짓엇수다게. 이 집.

102002 @ 음.

102002 #1 서른다섯에. 돈도 엇고양. 돈도 어떻허영 돈이 이십니까게. 서른다섯 나난에 춤 밧 하나, 밧 단지 하나 물런 살아신디. 어쩔 수가 엇은 거라마썸. 뭇 나도 흐끔 장스도 흐끔 헤봤수다.

102002 @2 아아.

102002 #1 예, 저 뭐 허뜩헌 장스마썸게. 이제 저 이젠 아저썸 군인 가불고, 군인 어린 때 갓수다게.

102002 @ 음, 음.

102002 #1 군인도 저 해병대로 갓수다. 해병대로. 해병대로 아무디나 가지 안 허영 해병대로 가노난 아이고, 진짜양 그뻬 베고프곡양 베고프곡 헤여신디 나 술도 사단 저 술도 사단 폴아보고 자리 장시도 허여보고.

102002 @ 음.

102002 #1 웃음. 장스 헤여봤수다게. 뭐 날, 돈 날 것이 엇입디다게.

102002 @ 음.

102002 #1 원 돈 날 것이 엇언. 게난 그, 그거 저거 헤여봤수다. 헤여보명 농사도 지고. 그자 농사 지젠 허난 농장은 잇수가? 농장은 저 이거 부자칩이난 농장은 잇입니다. 잇인디 그 저 식구덜 하노난양 살기가 힘들어마썸게. 완전 부자엔 헤도, 그 부자엔 허민 더 힘들어마썸게. 초원 부자는, 돈 없는 부자. 저 일 부자, 일 부자.

102002 @ 맞아.

102002 #1 일 부자마썸게. 일 부자. 계난 양 집의 다 일 부자우다. 저 친정에도 일부자 씨집이도 일 부자 경허명.

102002 @ 고생헌에.

102002 #1 고생만 고생만 허당 보난 병신타수다게.

102002 @ 그 삼춘네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어떤 분이란마씨?

102002 #1 아, 키가 우리 아버지는 키가 커노나 그 저 거 양복엔 허지 아넘니까? 옛날은 양복.

102002 @ 예.

102002 #1 그거 입으민 우리 메누리가 다섯 개라마씨. 아덜 다섯 개난에. 막 그 저 메누리신디레 옥을 아녀근엔에 허여노난 메누리덜이 우리 아버지는 저 영국 신사.

102002 @ 음.

102002 #1 영국 신사라고 저 메누리, 씨아버님신디레. 우리 아버지는 영국 신사 영국 신사 막 그치록 경협니다게. 경허곡 또 어머니는 딱시 돈 날 거 뭐 잇수가? 고사리 거꺼근엔에양. 아기덜이양 아기덜 문 유아원 할망이엔 곱습니다. 그 애기덜 게. 그 손지덜.

102002 @ 예.

102002 #1 옷 혜영 입지곡. 미승 놔근엔에.

102002 @ 음.

102002 #1 옷 혜영 입지곡 어린 아기덜은 오줌 싸불민 오줌 젖으민 나신디 오라 근엔게 “저 옷 흐쓸 플라드렌”. 저 아기 입지켄 허민. “양, 어멍 엇수가? 가네 어멍 아방 엇수가? 어멍 아방 이신 디 날그라 옷 플라드렘 험수과? 드르쌍 네뵈서게. 그 거 허젠 말앙. 나가 그치록 곱습주게. 나도 저 지나치게 힘들고게 못전디난 그 옷 아정은에 들르젠을 아녀근엔에 어멍신리데 경헤마씨. 어멍아방 신 걸 그만이 내불민. 오줌 싸난 옷 젖으난에 저 옷 으라 개 아난에 곱텐. 경허여, 경헤도 플라드려마씨.

102002 @ 예, 예.

102002 #1 플라드런 강알 영 터진 거.

102002 @ 음.

102002 #1 강알 영 터져근엔에 그자 텡이멍 오줌 싸곡 똥 싸곡 허게. 겨민 똥코 실냥이 올레에 막 큰 거 잇어마썸게. 그 나무 아래 아기덜 다 뒷 깰앙 앓져근에 뒷 허영 맥이곡. 허영, 어멍은 흐쓸 통통헌게 보통 키.

102002 @ 예.

102002 #1 보통키벳기 안 뒷여마씨. 어머니는 크지 아녀마씨. 아버지는 크고. 일 본서 어머니도 동부락 동부락 살아나고. 동부락 살단에 저 결혼을 허난 어머니도 흐쓸 저 그 아저썸 나무런.

102002 @ 음.

102002 #1 나무런 일본 나간 거라마썸게.

102002 @ 아아.

102002 #1 우리 아버지는 딱시 저 나무런게 저 큰어명을 나무런게 딱시 일본 가 불고. 경혜연 일본서 만난에 오고렌 험디다게.

102002 @ 음.

102002 #1 일본서 만난 오란게 이디 오란게 나 첫뜰로 낳고게 살앗수다게. 산디 에이그 잘도 고생헷수다. 잘도 양. 나도양 양집의 문딱 식구 하고 농장 널르고 헤노 난 그자 일만 일만 드러 허단보난 이치록 늙어지카부넨 안 헷수다.

102002 @ 웃음.

102002 #1 그자 뭘 나무에 올라도양, 어디 뭘 저 도리못 큰 폭낭 옛날 폭낭 그 늘, 저 그늘 폭낭엔 현 거 이신디양. 그 폭낭 우의서 빙빙 바라마썸게.

102002 @ 음.

102002 #1 막 늘크레기 늘크레기 완전.

102002 @ 음.

102002 #1 결혼허연에 산방산에 이디 우리 아저씨영 가난 산방산 저 구질러레 저레 노력가난 막 옥허멍 이레 당장 올라오렌. 어디레 어디레 노력감시넨 허멍. 저 꼬리볼레 타 먹으레 간 거 라마썸. 꼬리볼레 타레. 꼬리볼레 알아집니까?

102002 @ 그 막 큰 거?

102002 #1 꼬리볼레 저 요만씩 요만씩 진 거.

102002 @ 예, 예, 예, 예. 줄 벌엉 현 그 낭예?

102002 #1 줄벌는 낭 그 꼬리볼레를 그치록 잘 읍디다게. 저거 산방산에 계난. 저거 산방산에 간 그 알러레 시난에 그걸 잘잘잘잘 노력강 그거 타레 가난 당장 올라오렌 허멍 막 용심내멍 막 저 막 독허여났수게.

102002 @ 음.

102002 #1 우리 아저씨가 막 독허여. 잘도 독허영 덕수 사름 이길 사름 엇어.

102002 @ 음.

102002 #1 이길 사름 엇고. 또 저 일도 많이 허고마썸게. 이디 덕수 일은 문딱 허연에 나오는 사름이우다.

102002 @ 예.

102002 #1 덕수 경 못 살아도 밧도 사가멍, 밧도 사가멍 또 그 저 처음엔 젊은 맨 소대장을 험디다.

102002 @ 음.

102002 #1 소대장을 허영, 양 이제 불미허는 거 이제 한라문화제 잇지양.

102002 @ 예.

102002 #1 그것이 그걸로 줄이 저 올라온 거라마썸게.

102002 @ 음.

102002 #1 그 저 그 소대장 허여근에 백오십 멩 그 옛날은 경 합디다게. 경 청년

덜이 하근에 군인 가온 사름덜이영 경 하난. 소대장 허연 그 훈련을 혼 들을 그리
쳐마씨. 혼 들을 그리천 목이 바짝 쉬고. 과수원은 그뎨 쪼고만 현 때마썸게. 쪼고
만 현 뎨디 약을 못허난, 약을 못허난 어짜피 저 나는 매날 정심허레 가고.

102002 @ 음.

102002 #1 소 보고. 소, 소는 물 ** 주고. 저 그 어디 매여 두서. 매여두서 소 하
나 키왓수다게. 그 처음엔 하나 키왕. 소 보곡 소대장을 허민 뎨 사름덜은 훈련받는
사름덜은 시간 뎨면은 집의 가는디 이 소대장허고 저 이장은 그리 맞아근영에 그
저 토론허곡 뎨허곡 헤여가민 집의 들어오질 못헤여마썸게. 제 시간에 못 들어왕
밤의사 들어와. 밤이야. 들어왕 혼 들을 훈련을 받으난 일등을 허연마썸게.

102002 @ 방앗돌굴리는 노래예?

102002 #1 서귀포에 간. 저 소대장, 저 소대장.

102002 @ 소대장?

102002 #1 소대장 허연에 서귀포 간 일등허연. 일등허난 이젠 또 저 시에 그 저
그 어디우과? 저. 것도.

102002 @ 운동장?

102002 #1 운동장이 아니고. 위이 위이 월드컵, 위이 월드컵인가?

102002 @ 월드컵 경기장 허는 디? 으으.

102002 #1 그디 가난 오꼴허게게 아침부떠 저 재수가 글런마썸게.

102002 @ 음.

102002 #1 이장네 집의서 저 아침을 먹는디 암퇘이 장팡뒤 알아집니까?

102002 @ 예. 장팡뒤.

102002 #1 장팡뒤로 암퇘이 파드득허게 느라완 국데레, 저 어느 어른 국데레 탁
허게 털어진 거라마썸게.

102002 @ 음.

102002 #1 계난 기분이 막 나뻘디다게. 나뻘게마는 우리 가단양 다천마썸게.

102002 @ 음.

102002 #1 우리, 우리 가는 차가 틀리고 그 훈련허영 훈련헌 사름 가는 차가 틀
렁은에게, 차가 두 개 갓수다게. 나는 소보곡 가지, 저 안 가쿠덴 허난에 우윗 어른
덜이 느가 안 가민 누게 갈 사름 시니? 느네가 가야 뎨텐 경허명 허연 나도 막 집
의 혈 일도 하고 경 아저썸 나산 텡겨부난 막 혈 일이 하신디 가지 말젠 헤가난에
게 이젠 저 느네 안 강, 느 안 강 안뎨텐 허명 허난 가단에양, 저 영 알로 영 돌앙
갈 때 그때는. 그 여기 질이 엇어났수다. 쟈디.

102002 @ 음.

102002 #1 가단 저 어디, 어디 가난양, 차가 그자 난 저 두 번채 맞아신디 차가
화물차가 완게 탁 받으난게 이 동더레 저 영 가는디 절로 완 찰 탁 받으난에 동더
레 확 돕니다게. 그 저 버스가. 확 도난 그디 간 탁 걸어전마썸게. 그 유리창 부서
지명 그디 간 걸어전마썸게. 튀언에. 그디 간 걸어진난 복삭 아픈 거라마썸게. 복삭

아프난, 아이고, 이젠양, 저 그 어디 간 뵈수다게. 거 저 혼련허는 것도 안 보고. ㄱ
만이 수건 더뀔 ㄱ만히 그 저 햇빛 나는 디 강 뵈단에 집의, 집의 들어와가난, 말을
들어신 ㄱ라. ‘오닐 무신 사고 나시넨’ 허명. 어쩌난, 어쩌난 어쩌난 어떻 헤시넨 허
명 들읍디다게. 들언허난 어디 안 거명헌 디가 엇입디다게. 문짝 몸이 다 거명헤부
런마썸게. 문짝 문 명들영 문짝 거명허연 완 뵈수다게. 방에 완 누난에, 죽은아덜신
디레 파스, 파스 강 상오렌마썸게. 그 아방이 파스 상오렌 허난에. 나 허는 말은 ‘파
스도 약이라?’

102002 @ 웃음.

102002 #1 그 말을 언제나 곁는 거라마씨.

102002 @ 어.

102002 #1 파스 말 곁아가민 ‘파스도 약이라. 그거 상오렌 험젠.’

102002 @ 웃음.

102002 #1 파스도 약이라. 게난 짚 사름덜은 병원에 가신디 나만 안 간 거라마썸
게.

102002 @ 음.

102002 #1 나만 안 간에 그냥 경기장엘 가서마썸게. 간에 어두완 돌아오난에 경
소문 들어신 ㄱ라 경 완 경협디다게. 게명, 아이고양, 차에 저 두 번을 크게 사고났
수다게. 또 서귀포 저 아판에 서귀포 또 저, 이 저 맹장 수술을 헤십주게. 맹장 수
술을 허여신디 맹장 수술을 허단 보난 또 담석도 잇젠 허명 저 담석 수술도 허여야
쿠다. 허여야주. 원장님 허는 말이 허여야주 저 언젠가는 이젠 혼번 저 이제 응급실
로 들어오게 됩니다. 경허명 허난 담석 수술이영 맹장 수술이영 저 서귀포의료원에
서 허여신디 그걸 이제 그 알, 어느 날은 막 아픈 거 아니우과? 집의서 막 아프난
에, 하르방은 또 저 **** 요디 잔치허난 놀레 가부런 엇어십주. 경 아판에 완 보난
아판 험시난에 듯날 아척이게 응급실로 가켄 허명 어두룩헌디 저 서귀포 일호 광장
가난에 어두룩협디다게. 어두룩헨 일호광장 영허영 돌안 다 가난디 저 동으로 완에
버스로 탁 받아부난게 차가, 차가 오곳 폐차 허여부럿수게.

102002 @ 음.

102002 #1 게난 폐차헤연에 게난 이디 일로 탁 받으난 이 저 그뻐 겨울입주게.
겨울인디 이 겨울옷 잠바도 다 끊어져십디다게. 게난, 양 순경덜은 어디 잇단산디
순경이 확 모여듭디다. 확 모여들언에 순경은 나 시껴가고 그 사름은 또 체포허고.
경 허연에 헤신디 거 막 어린아입디다게. 어린아이난에 우리가 봐쥬 내불엇수다게.
봐쥬 내불고. 저 무신거 이제 뭐 가근에 물리치료라도 험셴, 물리치료라도 허민 저
물리치료 이제 헨 거 이제 저 보험 치료 허여주쿠텐. 경허연에, 양 사십만 원 ㄱ저
오난 줌줍허연 거 받안 설러불엇수다게. 영 빙신 웰 중은 몰르고마씨. 아이고, 경허
명 양, 어린 때부터 고생허단 보난 결혼허연도 그치록 경, 경 사골 납디다게. 그치
록허명 막. 이것도 사고난 이치록 쥬 거우다. 이디 나완에 이거 이건 오도바이에.

102002 @ 음.

102002 #1 오도바이 팔년 탓수다. 팔년. 팔년.

102002 @ 웃음.

102002 #1 저 아버지 돌아가난에게 잘 걷지도 못하고 어명이 걷는 거에 힘든
작은아덜이 저것도 사오고마썸게.

102002 @ 음, 음.

102002 #1 저, 저.

102002 @ 으. 안마기.

102002 #1 안마기. 저것도 막 비싼 거.

102002 @ 저거 완전 비싼 거 우린 못 샅니께.

102002 #1 이백육십만 원 줘 사고렌 험디다게. 오도바이도 이백만원 쥘 사오고렌
허멍 죽은아덜이 사다주난 그거 끄엿은엿게 농장디레 막 든단에양. 살아나질 안 험
디다게. 것이 안 살아나난 카부 확허게 도난게 저레 간 착 부지데겨부난.

102002 @ 웃음.

102002 #1 그 저 무시거게 농장이 널러노난게 사름이 사근엿에 그 저 작업을 허
난. 산 작업을 허난 강 아침 허고 그 아덜네 저 줘분 후에난. 아방 돌아가 분 후에.
상 작업을 허고 딱시 가근에 아침허곡, 딱시 정심허곡 샅 시. 세 시 웨믄 딱시 먹을
거 허곡. 경허멍 그 미짱 타고 경헛수다게. 경허당 보난 다 병신 웨연.

102004 @ 음, 알아수다. 삼춘 그 어린 때는 게도 막 놀레도 텅겨실 거 아니라예?

102004 #1 아이고, 놀레 일등으로 잘 텅겅수다게.

102004 @ 어떤 놀, 강 놀레 가민 무신 놀이 허멍 놀았수가?

102004 #1 옛날은 화토 치고.

102004 @ 으.

102004 #1 화토 치고 또 큰일 칩인 가민 딱시 노래 불르곡.

102004 @ 으.

102004 #1 저, 누게 불르라, 누게 불르나 허멍 노래 불르곡.

102004 @ 음.

102004 #1 이 잔치집의 가면은. 잔치집의 가민 옛날이사 오죽 놀았수가? 잔치집
의 가민 문딱덜 모여앗아근에 방이 깡떡허게 앗아근엿에 문 노래 불르멍 놀았수게
게.

102004 @ 음, 그뻘 어떤 노래덜 불러마씨?

102004 #1 어떤 노래 뭐. 저 무시 거 뭐 옛날 노래난에 이제 이제 유행가가 아니
고. 옛날 노래 그자 춤추는 그런 노래 불렀수다게.

102004 @ 음.

102004 #1 그 옛날이난, 옛날이난 그런 놀렐 잔치집원 가민 불르곡, 경 아녀민
또 진똥이 알아집니까? 진똥이.

102004 @ 아니, 몰릅니다.

102004 #1 진똥이 몰라마썸? 그 저 진똥이엔 헛 건 잘 듣는 사름은 일등 허는

거.

102004 @ 으.

102004 #1 계민 학교, 학교 마당 강 돌양은에게 오는 거 그 진똥이 그거, 그거 주로 그거 헛수다. 그런 거.

102004 @ 아, 진똥이?

102004 #1 예, 진똥이.

102004 @ 빨리 달려왕은에 오는 거를 진똥이엔 헤예? 예.

102004 #1 예, 진똥이 허곡 그자 막을락허고.

102004 @ 막을락?

102004 #1 막을락. 이거 영허영 질 영영 굿어근앵에 일로 이진 이작허곡 저건 저 작허곡 헤근에.

102004 @ 으.

102004 #1 이제 이레 들어오민, 들어오민 지는 거난 들어오지 못허게. 일로 막곡 일로 막곡 허멍 그치록 헛 거 그런 거 허멍 놀앗수다게.

102004 @ 막을락허고?

102004 #1 막을락허고 진또리 허고.

102004 @ 진또리허곡.

102004 #1 화토 치고.

102004 @ 으.

102004 #1 그자 그런 거마썸게.

102004 @ 게른 어렸을 때 막 공기영 고무줄이영 이런 건 안 헤연마썸?

102004 #1 그거 허연마썸게.

102004 @ 예.

102004 #1 그거 드러 허연. 고무줄도 문딱 허곡. 딱씨 사까다리. 사까다리 알아집 니까?

102004 @ 예, 꺼꿀로헤영 허는 거?

102004 #1 영 허영 저 줄 넘는 거. 줄. 발로 줄 넘는 거.

102004 @ 발로 줄 넘는 거.

102004 #1 그거 문딱 그거 허멍 놀앗수다게.

102004 @ 예.

102004 #1 그런 거나벳고. 옛날은 텔레비전이 시카 매날 츠낙 놀레 강은에 허곡. 어무니는 딱시 저 옛날은 그 미녕, 미녕 그 저 멘네게 목화숨 헤근앵에 미녕 허민 그거 꼬리 감으렌 허민 거 감음이랑 마랑 놀레 돌아나부렁 막 욱도 떡곡마썸게.

102004 @ 예에.

102004 #1 어머니 저 무신 거. 날ㄴ라 산대돌ㄴ찌, 산대돌ㄴ찌 놀레만 감젠. 웃 음.

102004 @ 산대돌은 뭐우과? 삼춘.

102004 #1 산대물은 키가 커두서 놀레만 돌아남젠.
102004 @ 으으.
102004 #1 어머니가 곧는 말이 뚫통에 난 도라지ㄴ찌, 저 뚫통에 난 저 대우리ㄴ찌.
102004 @ 음.
102004 #1 뚫통에 난 대우리ㄴ찌 키만 커근앵에 놀레만 돌아남젠 감젠.
102004 @ 뚫통에도 케난 대우리가 나마씨?
102004 #1 뚫통에게 옛날은게 씨가 많으니까. 씨가 많으니까 옆으로 날 수도 있
어마씨.
102004 @ 음음.
102004 #1 어머니 얘기가 나신디 그치록 경 저 일만 일만 허곡 밤원 놀레 들곡.
102004 @ 밤의 놀레.
102004 #1 아픈 중을 몰랏수다게. 아픈 중을 몰라서. 경허멍 드리 돌아덴겐.
102004 @ 경허곡 그 옛날 일제시대.
102004 #1 예.
102005 @ 여기도 막 공출도 해신가마씨?
102005 #1 아이고, 일본 일제시대에?
102005 @ 예.
102005 #1 공출은게 저 무시거게 그 이장, 이장 농곡 또 저 반장 놔근앵에 저 계
란덜 다 이제 계란덜 다망고.
102005 @ 음.
102005 #1 다망고엔 험니다. 일본말로.
102005 @ 일본말로 으.
102005 #1 다망고 문딱 공출허렌 허영은에 그거 저 다망고 문딱 모여근에 집집
마다 옛날은 그 저 토종독덜 다 질루지 아녜수가. 집에
102005 @ 예.
102005 #1 토종독을 질루난 그거 다망고 문딱 모영당 자기네 먹고. 따시 제청국.
102005 @ 으.
102005 #1 제청국 알아집니까? 제청국.
102005 @ 예, 꾀 피는 거?
102005 #1 제청국 우리도 하영 갈아났수다. 농장이 하난 그거 문딱 지네 모이레
허영 ㄴ져오렌 헤영 다 받아갑디다게. 경허멍 저 아이고, 일제시대 압주게. 알당도
버치곡게. 우리 건디 호달매 타곡 행은에 텅이곡양.
102005 @ 음.
102005 #1 막 스뭇 오라근앵에 문 무신거 자기네 먹지 기룬 건 다 문딱 저 문
거두와들이렌 다 가져오렌 헤근에 다 먹곡 경헌 거 다 알아집니다게.
102005 @ 그 뭇 뉘그릇같은 것도 다 가져간마씨?

102005 #1 늦그릇은 늦그릇 노그릇은 가져가긴 가져가십주. 자기네 먹을 거산디 가져갓수다. 가져갓수다.

102005 @ 그런 식으로 이제. 공출혜부난 막 베고프고 영허지는 안 헛수가?

102005 #1 아니, 우리는 저 너무 농장이 많으니까 베고판은 안 살앗수다.

102005 @ 아, 삼춘네는?

102005 #1 우리는 농장이 하노난 옛날 돈 날 것이 었엇주.

102005 @ 음.

102005 #1 그 농장이게 혼 십오일 아버지가 밭을 갈아야 밭을 다 가니까. 농장이 다 보리밥은. 계난 씨집오랑도 저 막 아기덜크라 ‘밥 먹으라, 밥 먹으라’ 무쭈건 무장 먹으라 먹으라 허민 우리 지비 저 아저썸. 이 뒤칩인 요딘 영 못살아근에 여자가 막 간세허곡 못살앙 허민게 ‘장, 장에 밥, 장에 밥’ 경 드리 그치룩 허여났수다게. 경허난 우리 집의 아저씨 허는 말은, ‘앞집인 먹으라, 먹으라’ 마당에 땡이명.

102005 @ 음.

102005 #1 ‘앞집인 먹으라, 먹으라’ ‘뒤칩인 먹지 말라, 먹지 말라.’

102005 @ 웃음.

102005 #1 우리 아저씨가 드리 경 곶아마씨.

102005 @ 으.

102005 #1 경 곶으명 살앗수다게.

102005 @ 예.

102005 #1 계난 뭐 보리밥이나 뭐 굶진 아녜수다게. 계난 저 뭐 나중에 이제 살아가난 노 대통령, 그 대통령 헛지양!

102005 @ 예.

102005 #1 노 대통령 대통령헛 때 그 당시에 우리 집의 아저씨가 이장 헛수다게.

102005 @ 으.

102005 #1 이장 허난 안락미 막 줘나지 아녜수가? 안락미 먹어납디가? 견디 안락미가 너미 많이 나온 거라마씨. 나오난 우리 안 먹엇수다게. 그거를. 우린 안 먹언에 폴아불언 안 먹어수다. 우린 밥 곳인 거는 아주 윈 먹기가 싫어가지고 안락미 쓸 혼 집의 혼 두 개씩 나와났수다. 우린 폴아부린 안 먹엇수다게. 이 집에 막 데면.

102005 @ 음.

102005 #1 집의 으져단 막 데면에 허여농난에 폴안 안 먹엇수다. 싫어허영 밥.

102005 @ 밥맛이 었영양?

102005 #1 나부떠 싫어허영양. 아저씨는 어떤 때는 미안헤벼근에 아이고, 무신 거 반찬 었수다. 허민 경 매번 반찬 출려줘. 요딘 아무 거나도 먹을 때도 잇어야주. 경허명 헛니다게. 독허긴 허여도 그 음식에는 타발 안 헛수다게. 음식엔 타발 아년. 예, 타발 아년.

102006 @ 그러면은 사삼사건 때는 어떻 허연마씨?

102006 #1 사삼사건 때는 이견 헐 말이 엇수다. 우리는양.

102006 @ 음.

102006 #1 우리는 저 도리못 살아났수다게.

102006 2 예.

102006 #1 도리못 알아지쿠과? 이보단 헝쓸 끊어진 디.

102006 @ 예.

102006 #1 헝 헝 삼백 메다 헝 오백 메다로 헝 스백 메다로 끊어진 그 동네가
있어마썸. 어딜로 읍디가? 우로 왓수가?

102006 @ 들어온 입구, 동부락 위 골목으로 완.

102006 #1 이 바로 우에. 이 바로 우에.

102006 @ 바로 우에.

102006 #1 헝 사십 메다 찢라져났수다. 그디 살아났수다. 그디 사난 양, 이디 영
허여근에 옛날은 담요벧기 엇엇수다게. 경허민 방 하나에 담요 영 치는 거라마썸.
담요 치면은 나오랑 보면은 저 우퇴레 보면은 그 산에양 봉활 비추와게.

102006 @ 음.

102006 #1 봉활 비추민 아이고, 이 저녁은 폭도덜 들어왓직허다. 경혜근에 봉활
비추민 폭도 들어왓직허다 담요 타 치곡 다 굽곡 허는디. 따시 나중에라가난양 굽
을 디도 엇어가난 우리가 내려왓수다게. 우리 어머니 스춘네 집의 내려와신디. 양,
불을 다 부썸분 거라마썸. 집에.

102006 @ 음.

102006 #1 계난 옛날은 산디벧기 엇어근앵에 나룩은 알러레사 허여산디 우리는
산디허연에 그 불 부썸 중은 몰르곡 우리 어머니넌 그 저 ㄱ스락 그 ㄱ스락 소굽
에.

102006 @ 음.

102006 #1 ㄱ스락 소굽에 산디 저 쓸 문딱 그 방에 영 헤여근에 저근에 어디게
공장이 있어났수다게. 공장이 엇으난에. 그 방에 저 소 메와근에 방에 정 막 능거근
앵에 그 쓸을 ㄱ스락 ㄱ스락 소굽에 묻은 거라마썸.

102006 @ 음.

102006 #1 묻고 따시 옛날은 술 많이 질루난. 우리 아버지네가 물, 물은 산에 놓
곡 소는 헝, 헝 대으섯 개썸 질룸디다게.

102006 @ 음.

102006 #1 질루난 출놀이 멧 개라마썸. 그 출놀 빠난 디 옷덜 애기덜 옷덜양. 우
리가 다섯 오누이난에 출놀 소굽에 옷덜토 문딱 간에 묻은 거라마썸. 묻언 놔두난
출놀이고 뵈이고 문작 다 뿌져불언. 우린 내려와불고. 다 불 부썸부난 이젠 아부진
우의 잇고 아부지는 젊아놓니까 그 저 순경 식으로 이제 저 순경 식으로게 영게 포
대 포젯단 영 저 성을 이렇게 들렁.

102006 @ 음.

102006 #1 성을 이만이 혜근에 이만이 넘어. 그거를 막 썬에양 이 동네를 다 싸
근엥게 허민 그 저 포켓단 혼 뗏 메다에 하나씩 포켓단 알아지쿠과?

102006 @2 예.

102006 #1 집을 짓어근엥에 밤에 그디 저 허민 그날 그 번호.

102006 @ 음.

102006 #1 번호를 크게 들어집니다. 기냥 앓앙도 들을 수 있게 이제 그날 츠낙
무시 거 허민 저레 다 연결이 되는 거라마씨. 연결이 웨여근에 무시 거 무시거 허
영은에 그 번호 모른 사름은 폭도라마씨게.

102006 @ 음.

102006 #1 경허여근엥에 허여신디 문딱 테와부난 우리 내려왔수다게. 내려오고.
나 아읍 설에 내려왔수다. 아읍 설에. 아읍 설에 내려와신디 문딱 집 완 불부찌부난
뽕 먹을 것도 그뻐 엇, 오꼳 불부찌부난 엇고. 양, 쓸은 문딱 타부난에 저 그 속에
것만 헨에 밥 행 먹으난 내음살 납디다.

102006 @2 ㄱㄱㄱㄱ내 나지예.

102006 #1 그ㄱㄱㄱㄱ내 막 난에 허연에 그때 흐쉴 엇어나수다게. 우리도 쉴 테와부
난에. 문딱 문엥 놔둔 거 다 테와부난에. 경헨에 속에 거 판에 먹단에 어뻡허연에
농사전에 먹고 혜신디양 그때는 너무 고생헷수다, 우리. 그자양 집 문딱 테와부난게
집이 엇어놓난에 어뻡 말이우파게. 집이 엇어노난에 요 저 스무실 동녱 집 저 서녁
뻑.

102006 @ 음.

102006 #1 서녁뻑을 하나 산 거라마씨.

102006 @ 음.

102006 #1 하나 산에 그디 집을 짓언.

102006 @ 음.

102006 #1 집을 짓언 켜당네 집의 완에 처음에는 켜당네 집의 저 이제 요디 삼
커림 저 동녱, 동녱집이.

102006 @ 으.

102006 #1 저 가까운 켜당 식구가 엇언마씨게. 저 일본 간. 아덜은 하난 일본 가
불고 죽은아덜 하나 살양근엥에 허여신디 식구가 엇입디다게. 짧은 때난. 식구가 엇
어근에 결혼은 혜신디 엇으난 우리가 그디 뻑거리 살앗수다게. 살단 보난에 또 폭
도가 또 든 거라.

102006 @ 음.

102006 #1 그 집의도 또 들언 허난 불 문딱 끼우곡 문 불 부찌부난. 아버지가 막
신체도 좋고 막 저 무시거 키도 크고 혜노난 웬만헌 건 다 이겨마씨게.

102006 @ 어.

102006 #1 어디 강 씨름을 혜도 다 이기곡 경허난 아버지가 다 불끼완에 우리도
살앗수다게. 살안 허여신디 너무 너무 지나청마씨게. 너무 지나천.

@ 음.

#1 너무 지나쳐 아이고, 폭도덜 진짜양, 겐디 덕수 사름덜도 폭도로 올라가근엿에 그 왓사, 왓사 불르는 사름덜은 다 으망진 사름이라마씨.

102006 @ 음.

102006 #1 이 저, 우리 나 양씨우다. 양썸디. 양기만이마썸게. 양기만이가 성은 양기썸이는 성은 일본 가불고 저 자식도 그뻘 저 젊은 때난 엇입디다게. 엇어신디 그 와싸 부대에 든 거라마썸.

102006 @ 음.

102006 #1 와싸 부대에 들언에 문딱 누게 누게 다 알아집니다.

102006 @ 음.

102006 #1 저 와싸부대에 들어근엿에 이제 저쪽인 거. 저쪽에서 죽었다. 이 사름은 죽었는데 왜 돈을 주냐 나 속으로만 생각허는 겁주게.

102006 @ 음.

102006 #1 저 사름들은 나쁜 사름덜 저 사름덜은 안 쥐야 돼는디 다 지금 이제 뭐, 뭐 유가족으로 헤여근엿에 다 허는 거 보면은 이 사름은 이제 안 줄 사름이 쥘다. 나 생각으로만 허는 거 마썸게.

102006 @ 음.

102006 #1 그거 뭐 저 놈신디레 곤곡, 아니 저 이웃집의 그 가까운 사름신디 곱아집니다게. ‘저 누게 누겐양 이제 일름 곱으멍 나가 와싸부대에 들은엿에 저 저 짝으로 이제 허어신디 그치룩 저 돈 주곡 돈 타곡 경 허지 아널 사름덜이 경 허염수덴.’ 경 곱아집니다게.

102006 @ 음.

102006 #1 경허곡 따시 혼 사름은 막 저 무시겨 일름 오꼳 잘못 오꼳 호명헤부난에 아무 췌도 엇은 사름 죽엇수다게.

102006 @ 음.

102006 #1 계난 것도 알아지곡. 그런 거 문딱 알아져마썸게. 계난 너무 고생허게 살단도 돌아간 사름이 막 하마썸게.

102006 @ 으.

102006 #1 계난 으망진 사름은 다 그쪽이라마씨. 이 덕수도. 으망진 사름은.

102006 @ 으망진 사름덜.

102006 #1 뭐 화중이네. 뭐 저 누게네 일름덜 다 알아집니다게. 을근이네 문딱 으망진 사름덜. 이 저 우리 저 양기만이도게 막 똑똑합니다게. 으망지곡 그런 사름덜이 다 그런 부대에, 이 저 누게 인찬이, 이인찬이네 문딱 그런 사름덜이 겨난 요 집윗 오라방이우다마는 깃딱 안 곱읍니다.

102006 @ 음.

102006 #1 우리가 다 아난에.

102006 @ 음.

102006 #1 그런 말 하나도 안 곱아. 오라방, 오라방네 문딱 죽어붙었수다게. 문딱 죽언 하나도 그디도 다섯 성젠디 다 죽언. 다 죽고. 아판도죽고. 그치록 헨에 왓싸 부대엔 이제 하나 이임찬인 키도 크고 얼굴도 잘 나고 헤신디게 그디 들어부난에 그 총으로, 총으로 마환 죽엇수다. 저 알오름 간에.

102006 @ 음.

102006 #1 죽여붙언. 겨난 그런 사름덜은 깃닥 안 곱읍니다. 무슨 말 어염에 사름이라도.

102006 @ 음.

102006 #1 안 곱아. 계난 불쌍허게 허게 죽은 사름도 다 알아지곡양, 다 알아집니다게. 너무 너무양 사는 게 춤 이 저 그냥 부대로 와마씨. 이 저 올 때는.

102006 @ 음.

102006 #1 횡볼 앞의 앞의는 횡볼 들르고.

102006 @ 음.

102006 #1 그냥 부대로 내려와가지고 소 그 저 췌, 췌막에 옛날은 췌막, 췌막 있지 아녀우과? 췌막에 소 내쳐근앵에 그것에 그 양석 문딱 싸근앵에 횡볼 들렁 올라가마썸게.

102006 @ 음.

102006 #1 올라가민 다 곱양 베림벧긴 흘 수가 엇인 거 아녀우과?

102006 @ 음.

102006 #1 우리 곱양 베림만 헛수다게. 경 횡볼 들렁 경 그정. 자기네 먹을 거 다 소도 강 문딱 잡아 먹곡.

102006 @ 음.

102006 #1 계난 우리 아버지네도 그 저 물을, 물을 혼 오십 개씩 허영 산에 낳질루난 하나, 하나 못 몰아와봤수다. 그 당시에는 산에 그 사름덜이 살아노난 산에서 다 잡아 먹어붙었수게.

102006 @ 음.

102006 #1 계난 하나 못 몰아완양, 저 집의 소나 봤주 하나 못 몰아와봤수다. 계난 우리 아버지도 막 저 옛말을 곱아낫수다게. 작산 물털 다 하나 손에 잡아보지도 못허고 다 이제 그 사름네 손에 다 버렷젠 허명 드리 춤 아버지가 너무 그 소 물경 많이 키웠수다게.

102007 @ 알앗수다. 삼춘 결혼은 중매결혼 헛수과? 연예 결혼 헛수과?

102007 #1 연예, 연예, 연예허연. 연예로 헤여신디.

102007 @ 으.

102007 #1 나는 싫어가지고.

102007 @ 으.

102007 #1 어리고 허니까 남즈 보면은 남즈를 따라땡기기가 영 싫영 허는디 이디 아저씨는 막 반허영근앵에 올레 강 불르곡 뒸. 이디 앞집이도 저 육춘이우다게.

102007 @ 예.

102007 #1 앞집의 육춘 육춘인디 나보다 육춘이 막 저 나영 혼디 허영 세 설 우 의라도 그디 갖닥 저디 갖닥 노는 그 앞집의 성님이 '느 이제 결혼허렌'. 저 이제 재현이 이 늘 막 좋아허엄젠 허여도 '그런 말 근지도 맵센'. 나 이제 나이도 나양, 동네 결혼허기도 실프곡 남즈. 경헌디양 경허영 막 그치룩 꼬시단 꼬시단 버친 거 라마썸게.

102007 @ 음.

102007 #1 꼬시단 느시 버친. 어느 날 검질 메레 간 보난 그쁜 밧디 간마썸게. 검질 메레 알녁 집의 육춘이난. 어머니이영 우리 씨어머니이영 육춘이난 검질 매렌 간보난 그쁜 밧디 가진 거 아니우과? 계난 그냥 돌아와부런마씨. 집의.

102007 @ 웃음.

102007 #1 집의 와부런. 와불엇수다게. 와부러신디 허단 허단 버치난양 막 조름 에 놀레 간 디 꼭 따라가는 거라마썸게.

102007 @ 음.

102007 #1 놀레 가는디 겨곡 우리 아저씨만 간 것이 아니고 그 친구덜.

102007 @ 음.

102007 #1 친구덜 그찌 문딱 저 친구덜이 그뻘 합디다게.

102007 @ 예, 예.

102007 #1 이 하근에 헤신디 다 혼디 강은에 어떻허영 혼디 앗앙 또 화토를 치 는 거라마썸게.

102007 @ 음.

102007 #1 화토를 치는 게 나는 더 때려부는 거 아니우과? 또. 더 막 아프게 더 때려불어. 딴 사름신디보단 나를 더 때려롭디다게. 경 막 때려볼고. 아이고, 벨 장난 을 다 헛수다. 계난.

102007 @ 어.

102007 #1 어떻허연 앞집의서 놀단에 저 유지 타먹으레 가겐? 그뻘 유지엔 현 건 엇어나십주게.

102007 @ 예.

102007 #1 멧 집 엇고 밀감도 엇곡 먹을 것이 엇으난에 누게사 꼬셔진지 어떻사 헤신디 유질 타먹으레 가겐 허난 막 으라이 놓니다게. 놀아도. 혼 으남은 남자 여자 허영 으남은 노는디, 여자 놀암시민 남저덜아 다 가마썸게.

102007 @ 음.

102007 #1 다 총각덜이 다 가민게. 어떻 헤연 타 먹으렌 허명, 양 이 집일 온 거 라. 이 이 집의 뵈도 몰르고 온 거마씨. 완에 늘크레긴 진짜 늘크레기우다게. 저 이 디 저 유지낭에 부떠낫수다, 집의.

102007 @ 으.

102007 #1 옛날 초집이 부떠신디. 초집 우의로 올란에 미강을 유지를 타서마씨

게.

102007 @ 삼촌이?

102007 #1 나가 탄 거라. 둘리 올란 나 타신디 저 우영으로덜 다 넘어완 남즈덜 이 환마썸게. 환에 아이고, 이젠 가단에 그 집안네 으전 가진 아녀고. 도로물깡 마당 시난 그레 놔불엇수다게. 놔된 들어가신디 나중엔양 저 저, 나 일름 곶으멍.

102007 @ 으.

102007 #1 유지 탓젠 허멍.

102007 @ 음.

102007 #1 저 무시거 유지 탓젠 곶아부난에 이디 아저썸 저 집 마트렌게.

102007 @ 으.

102007 #1 저 우리 집 마트라. 우리 집 마타야 웬다. 경 곤는 거라마썸게.

102007 @ 으.

102007 #1 경 곶으멍 막 꼬셔봐도 꼬시지 못허난. 어짜피 우리 셋아부신덜로 간에 저 무시거 우리 아버지네신디 곶으난. 우리 아버지넨 이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디 씨어머니 씨아버지 너이가 갑장이우다게. 네 갑장. 네 갑장인디 우리 아버지네가 영 지나보난에 므음이 안 좋덴.

102007 @ 음.

102007 #1 므음이 안 좋난에 저 우리 셋아버지 와시난에 일로 이디 저 우리 셋하르방, 셋하르방 살아낫수다게.

102007 @ 예.

102007 #1 셋하르방신덜로 허연에 셋아부지신덜로 허연에 말 부찌고. 이디 알력 집의 저 언니는 우리 어머니신디 강 드러 곤곡마씨.

102007 @ 음.

102007 #1 ‘양, 삼촌 어떻 험니까게.’ 막 이제 저 나를 이제 기옥일 좋아허난에 저 어떻 저 자이라 곶읍서. 자인 막 정 도망만 가멍 흠치 말도 곤쟁도 안 허곡 막 싫어햐수덴. 자이라 곶양게 집도 황당헌 집도 아니고 이제 저 부자칩이곡 허난 쥐 볍서게 쥐 볍서게. 막 곶아도 아멩 곶아도 나가 안 들은 거라마썸게.

102007 @ 음.

102007 #1 안 들언에 도망 가곡 놀레 가도 피허젠만 헤여봐도 그치룩 쫓아멩기는 거라마썸게. 게난 어느 가갯집의 가갯방에 저 불쌍헌 사름 완 살아낫수다게.

102007 @ 예.

102007 #1 그때는 보리 갈 때난 보리 그 애기를 키우는 거. 애기구덕에 보리낭 곶아낫수다게.

102007 @ 예, 예.

102007 #1 보리낭을 혼 못 들런 비 축축축축 오는다 그 보리낭을 혼 못 들렁 가젠 허단 보난 이디 아저씨가 또 그 집의 가십디다게.

102007 @ 음.

102007 #1 그 집의 간 허난, 양, 들어가질 못허게 허는 거라마썸계.

102007 @ 음.

102007 #1 나를.

102007 @ 음.

102007 #1 들어가질 못허게 허난. 비오는다.

102007 @ 음.

102007 #1 아이고, 어쩌난 웨 못 들어가게 허난. 웨 나가 매날 텅기는 집의 못 들어가게 허난에. '나가 장계 못 가라', '장계 못 가라' 허멍 무신 걸로산디 때리난 에.

102007 @ 음.

102007 #1 아이고, 어이 엇어근앵양, '장계 못 가라.' '장계 못 가라.' 저 말을 나 낮수다게. 저 동부락 나이도 저 나영 동갑이고.

102007 @ 음.

102007 #1 그디 그 저 나영 동갑이고 연세도, 연세 으지레 가젠 허난에 옛날은 그 이수들이.

102007 @ 예.

102007 #1 요만이 큰 거 그거 그거 들렁은앵에.

102007 @ 으.

102007 #1 저 연세 ㄹ지레 가젠 허난 그거를 벌러분 거라마썸. 이 아저씨가. 그 집의 안 가젠 허멍 동네난 다 소문난에 아부지가 들런 나산에 그 집의 안 가젠 그 치룩 나신디망 들영 못 살켤 험디다게. 그것도 다 깨여불영 뵈 험엇저 소문은 들어 지는디 경 안 가난에 허엿수다게. 허여신디게. 어떻허연 완 이치룩 고생헤염점수다 게, 원.

102007 @ 웃음.

102007 #1 아이고양, 오지말렌 험수다게. 우리 아버지네가 ㄹ음이 안 좋덴.

102007 @ 어.

102007 #1 어머니 아버지가 ㄹ음이 좋아야주. 우리 아버지넌 진짜 저 이디 우리 저 돌아간 아저씨는 우리 아버지네 ㄹ라 법 엇은 디 살 어른이엔 험니다.

102007 @ 음, 음.

102007 #1 절대 곳인 소리 아녀곡. 자기신디레 곳은 소리 하나 안 허곡 저 살암 시민 살아진다, 살암시민 살아진다 경허멍 드러 곧곡 허난. 우리 저 처가침의 저 어머니 아버지는 법 엇은 디 살 어른이라고.

102007 @ 으.

102007 #1 드러 경 얘기 험낫수다게. 견디 어머니 아버지는 좋지 아녀텐 막 곶아 낫수다.

102007 @ 음.

102007 #1 경 곶아낫수다.

102007 @ 아까, 삼춘 이수들이?

102007 #1 이수들이.

102007 @ 이수들이인 뭐우과?

102007 #1 이수들이 술.

102007 @ 으.

102007 #1 술 이만이 현 이수들이 옛날은 그거 가정 땡겼수게. 옛날은 저 작은 병이 없고.

102007 @ 으.

102007 #1 작은 병이 없으니까 이수들이 거 이수들이로만 사용했수다게.

102007 @ 이수들이허게 뉘면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마씨?

102007 #1 술이, 술이 그거 저 그 이제 저 이제 그 무시 거 잊지양. 그 저 작은 병 이제 이홉짜리냐.

102007 @ 으.

102007 #1 이홉짜리. 이홉짜리로 다섯 개.

102007 @ 으.

102007 #1 다섯 개, 다섯 개 들어갑니다.

102007 @ 이홉 짜리로 다섯 개에.

102007 #1 이홉짜리로 다섯 개 들어갑니다.

102007 @2 이수들이 뉘병 아니야?

102007 #1 그만인 안 쟁 요만인. 이수들이 저디 하다 잇수다. 저 어디 담고망에 하나 보입디다.

102007 @ 이홉짜리로 다섯 개 들어가예?

102007 #1 다섯 개.

102007 @ 나중에 한번 봐보쿠다.

102007 #1 예.

102007 @ 아까 연세는 뭐?

102007 #1 뭐.

102007 @ 연세 가정간넌 현 거? 연세.

102007 #1 연세.

102007 @ 으.

102007 #1 연세 옛날은 아주 아멩이라도 허영 안 뉘여마씨. 옛날은 딱허게 연세 ㄱ정 가젠 허면은 그 저 무시거 그 글을 이제 어떻 저 나 연세 농곡.

102007 @ 음.

102007 #1 문딱 연세를 놔근앵에 이제는 아멩이라도 허여마썸. 경헌디 그때는 차, 차롱.

102007 @ 음.

102007 #1 차롱에 담아근앵에 무슨 그 저 흥썰. 흥썰 뉘 저 무신 썰 그거 농곡

허여근영에 또 저 뭐 미녕이나.

102007 @ 예.

102007 #1 미녕이나 혼 빌 농곡.

102007 @ 음.

102007 #1 옛날은 뭐 간단허여베도 저 그 속에 담은 거는 이제는 돈 남주게양.

102007 @ 예, 예.

102007 #1 돈 농주마는 그때는 돈을 안 놔근영에 미녕 혼 빌. 전 빌. 건 전 빌이
엔 헤여마씨.

102007 @ 전 빌.

102007 #1 예, 전 빌, 혼 빌이 아니고 전 빌.

102007 @ 음.

102007 #1 옛날은 전 빌 농곡 거기 그 연세 쓴 거 그거 그거 농곡 허영은에 그
거 잘못되면은 가서 이거는 잘못 뒀었다, 이거는 잘못 뒀었다고 허는 따문 그거는
철저하게 잘 썩 놔야뒀어마씨게.

102007 @ 연세렌 허는 거구나예? 나이영 이름이영 썩 가져 가는 것ㄴ라예?

102007 #1 예, 연세.

102007 @ 연세예?

102007 #1 예, 연세.

102007 @ 계난 이제 연예반 중매반 현 격이구다.

102007 #1 예, 예.

102007 @ 웃음.

102007 #1 허단 허단 버치난 디문 거라마씨.

102007 @ 으.

102007 #1 허단 버치난 느시 느시 ㄴ시지 못허난 디문 거라마씨. 다 다른 디 다
문 날짜도 나낫수다게. 날짜 나난 장게 못가라. 장난으로 그치룩 허난.

102007 @ 진짜 못 가붙어신게. 그 집의.

102007 #1 게메마씨. 우리 결혼허는 날이 눈이 눈이 폭 이만은 눈 물곡.

102007 @ 으.

102007 #1 양 이 하큰 동네 으섯 밧디라마썸.

102007 @ 으, 잔치가 으섯 밧디.

102007 #1 누게 누젠고 허민 우리 나 나영 혼디 저 나영 혼디 그 세 사름.

102007 @ 음.

102007 #1 또 아저씨네 또 갑장 세 사름. 나 셋, 나 갑장 세 사름 경허난 으섯
밧디.

102007 @ 음.

102007 #1 계난 물은 어디 잇수가? 물은 옛날 물 엇으난 다 물 시꺼왕 부주로
다 물을 시꺼옵니다게. 물 시끄레 갈 수가 엇인 거라마씨. 눈이 너무 물어놓난 저

구눈에 현 디 저 보성디레 가는 디 허곡.

102007 @ 음.

102007 #1 다시 또 굿물. 굿물. 양쪽엿 물을 시꺼신디 으섯 사름이 물을 시끄젠 허민 잘도 복잡헐 거 아니우과? 계난 물 흐꼬만 시경 먹지도 못헤마씨.

102007 @ 음.

102007 #1 이 집의는 두부를 헛수다.

102007 @ 음.

102007 #1 둬비.

102007 @ 으.

102007 #1 옛날은 둬비. 이젠 두부엔 허주마는 옛날은 둬비. 이 집의는 부자침이 라노난 둬비 헛수다. 손으로 이 집의서.

102007 @ 예.

102007 #1 집의서 둬비를 헤여서마썸. 계난 물은 부주로 다 시꺼신디 삼자루로 눈을 다 치우고 물을 시껏수게게. 계난 나 모실포 갓단 못 오란양, 저 아시날 모실포 갓당 못 오란 막 그 뭐 전화가 잇수가? 뭇이 잇수가? 아무 것도 엇은 때라노난 못 오란에 걸어왔수게. 모실포서.

102007 @ 음.

102007 #1 모실포서 차가 차가 도저히 텅기질 못허난.

102007 @ 게니까 눈 너미 와부니까.

102007 #1 도저히 눈 묻언 다니질 못허난 걸어 왔수다. 걸어 왔수다.

102007 @2 둬빗늘에 손 댄 메뉴런게마씨.

102007 #1 글썸. 아이고 춤. 예게 아이고양, 옛날 헤난 생각허민양 곶을 나위가 엇수다게. 계난 뭇날은 딱시 막 눈이 잔칫날은 눈이 녹지 아념니까? 잘잘잘잘 녹으난 이 집은 막 파저근엿에 알러레 느려얏은 집의난 살 수가 엇인 거라. 옛날은 고무신 신영 결혼 헛수게. 고무신 신영 결혼허난 무시 거 무시 거 놔십디다. 무시거 저 물 느리민 이 저.

102007 @ 젓지 않게.

102007 #1 젓지 아녀게. 무시거 요디 무시거 뉘에 이디서 사진 찍엇수게게. 옛날 경허지 아녘수가?

102007 @ 음.

102007 #1 마당에서 사진 찍엇수다. 식구가 너미 합니다게. 켜당이 잘도 많이 노난게. 집은.

102007 @ 계난 송침이우과?

102007 #1 이거 송침마썸게. 송침인 완전 울르는 침이우다, 옛날부터. 동부락은 김침이가 하고.

102007 @ 음.

102007 #1 서부락은 송침이가 하고.

102007 @ 사주는 보잖아예.

102007 #1 사주는 판 경 험수가게. 그놈은 아저씨가게 날만 따라 땡기난에 사주, 사주 본 거는 몰르쿠다.

102007 @ 으.

102007 #1 거는 뭐 이디 이디 어머니가 아버지가 본 거니까.

102007 @ 예, 예.

102007 #1 아메도게 적당허난에 결혼시기젠 험신가 생각험수다게. 아덜이 당추 다른 디는 원 영 흠치 이수벙 그 술 신 거 다 벌러부리고 안 가난에게 어땡 흘 수가 엇는 거라마썸게. 자식을 이기지 못헐에 나도 잘못 들어와젓수다게. 잘못, 잘못 들어완. 판 디서도 막 골아도양 막 잘도양 중맬 많이 들어와낫수다게. 막 들어와도 영 저 아버지네가 털언 안 보내신디게 아, 이디 아저씨가 딱 나를 심영은앵에 나를 깡빡을 못허게 험디다게. 경헤여노난게 어짜피 춤 강제로 왓수다. 강제로.

102007 @ 강제로.

102007 #1 강제로.

102009 @ 그때 그 결혼헐 때 혼수품은 뭐헐 완마씨.

102009 #1 혼수품?

102009 @ 으. 예물.

102009 #1 저 소굽에 퀘 잇수다. 퀘.

102009 @ 으.

102009 #1 퀘 저 오동나무.

102009 @ 예.

102009 #1 오동나무 알아지쿠과?

102009 @ 예.

102009 #1 저 오동나무 알아져마씨. 오동나무퀘. 아이고, 옛날이사 무시 걸 험니 까게. 저 오동나무 퀘허곡 무슨 뭐 헐 것이 엇수다. 옛날은.

102009 @ 음.

102009 #1 저 미승이나 하나 허고.

102009 @ 음.

102009 #1 미승 하나 허고 이불. 이불허고 거벳기 안 헐 왓수다.

102009 @ 이불은 멧 개나 헐 왓수가?

102009 #1 이불, 이불두 채씩 두 채씩 허곡. 또 부모님 거 무신 것사 헤져신디. 무스 거 썸 허고 헐에 이불 두 채씩 헐 왓수다게. 계난.

102009 @ 오난 저 아저씨는 뭐 줍디가?

102009 #1 아저씨, 아저씨.

102009 @ 경 쫓아다니른 뭐가 줘얏 거 아니?

102009 #1 아저씨 주는 건 하나도 엇고양 퀘 하나 폭나무 퀘. 이디 퀘 두 개 놔 줘수다. 아 속에.

102009 @ 아아.

102009 #1 폭나무께.

102009 @ 음.

102009 #1 폭나무께는게 쪼각쪼각헌 거난게. 우린 오동나무라도 큰 거 그냥 저, 저거 저거 게메 이제 퀘가 두 개난 이젠 문제우다, 이제.

102009 @ 음.

102009 #1 하나는 좋고 하나는 곳어부난 아덜덜 하나씩 주젠 허난 이제 족은아덜은 전의부떠 이제 ‘어머니 퀘 하나 줍서양.’ 경 곶아신디 이제 어느 아덜랑 좋은 거 주곡 어느 아덜랑 곳인 거 주곡 이제 어떻허코 생각 중이우다.

102009 @ 웃음.

102009 #1 경허지 아녀우파양?

102009 @ 예.

102009 #1 양, 오동나무께는 거 아주 그거 중요헌 겹주께.

102009 @ 예.

102009 #1 중요헌 거. 그 저 올레에양 너무 큰 이만은헌 그 저 무시거 나무가 서 낮수다게.

102009 @ 음.

102009 #1 저 그 나무가 시난, 그거 비연에 어디 간 짜완 마씨께. 아버지가. 짜단에 성제가 하나씩 줍디다게. 거 뭐 허연 온 건 옛날은, 게난 이 거 집의는 켤당 하고 허여노난에 옷이 열다섯 불.

102009 @ 음.

102009 #1 열다섯 불 허면은 줄을, 줄을 이렇게 메여근에 그레 문딱 걸칩디다.

102009 @ 예.

102009 #1 구경허렌. 다.

102009 @ 음.

102009 #1 게난 옷도 이제 ㄹ뜨민 입지도 못 헐 옷마씨. 인조, 고동인조가 켈 좋은 거. 경헌디 씨아버님이 돌아간에 저 칠월 열사흔날, 칠월열사흔날 그뻘 소장 대상 헐 때난에.

102009 @ 음.

102009 #1 나 오란에 저 칠월 열사흔날 대상 헛수다게. 게난 그 저 폭 알라. 옛날 요 베개 꺾데기 그 나 저 이 치마허연 놔뒤킵디다.

102009 @ 예.

102009 #1 게난 옛날 거난 막 좋아마씨. 옛날 베난에 종난에 저 저거 베개 꺾데기 헤두서 여름에 그 풀 허명 두 개 헤근앵에 아저씨도 허어나고 허난 두 개 헤두서 굴리명 저 그거 허민 슻락허여근에 좋곡. 문 폭알라 다 헤영 놔뒤킵디다게.

102009 @ 음.

102009 #1 오란 복치메 입엇수다게. 복치메 입언에 선들 선들 초열흘날 결혼허난

에 눈 그치룩 문영 허난. 그 하인, 하인 알아집니까.

102009 @ 음.

102009 #1 옛날은 하인이 그 다 모셔십주게. 모셔신디 하인이 제와근엥에 이거는 양 그 눈 우의 물은 잘잘잘잘 녹고. 눈 우의 하인이 흠치 윈 생각치도 못헌 거라마 씨. 계난 우리 저 오라바님네가 막 저 신체도 좋곡 막 실패낫수다게. 우리 스춘오라 방이 이제 돌아가붙어수다마는 스춘오라방덜이 다 모셔왔수다게. 독개에 저 먼 디 도 아니우다. 저 어디 알아집니까? 요 저 스무실.

102009 @ 예, 예.

102009 #1 스무실 그 저 서넉집마썸게.

102009 @ 음.

102009 #1 서넉집의서 이레 모셔왔수게.

102009 @ 예.

102009 #1 계난 오라바님네가 신체가 좋난 왔주양, 경 아녀민 하인이 흠치 윈 오 질 못허여마씨. 오질 못허여. 물 물 메왓지양. 물 메와신디 우린 들러왔수다.

102009 @2 독개로 들렁.

102009 #1 글로 후에 물 메왔주. 글로 후에 물 메왔주. 우리는 저 사름덜이 따시 여기서 딱시 간 사름덜. 여기서 또 뭐 무시 거 무시 거 허영 갑니다게. 문 강은에 허민게 절로 우시 오곡 일로 우시 가곡.

102009 @ 으.

102009 #1 게문 그 어른덜이 쪽아십주게. 그 우시덜 간 어른덜이 쪽안에 아무도 안 보냅니다. 우시덜토. 든든혜근엥에 머리 춤 얼굴도 잘 나곡.

102009 @ 으.

102009 #1 신체도 좋곡 헤사 강 모셔올 거난에 우리 오라바님도 춤 잘도 얼굴도 잘 나고 막 저 든든혜낫수다게. 계난 오라바님네 성제가 저 오곡 이제 이디서도 딱 시 가고 허연에 문 모셔왔수다게. 계난 아무나 저 그런 딴 저 놓지 아닙니다게.

102009 @ 음.

102009 #1 계난 아이고.

102010 @ 계난 결혼식은 어디서 헌 거라마씨?

102010 #1 마당에서 헛수게.

102010 @ 마당에서?

102010 #1 예. 이 마당에서.

102010 @ 마당에서 옛날식으로 이제.

102010 #1 예게.

102010 @ 어떤 식으로 헛디가?

102010 #1 마당에서게 그 사진도 저 무신거 가족사진도 마당에서 찍고. 가족이 너무 만허여노난양. 마당에서 찍엇수다.

102010 @ 계난 그 결혼할 때는 족두리 썸 헨마씨? 삼춘은 어떤 식으로?

102010 #1 머리 옛전.

102010 @ 머리 옛전. 그런 식으로 하고.

102010 #1 족두리는 글후에 췌주. 우리는 머리 옛져수게. 아, 멘사포 췌. 멘사포 췌.

102010 @ 멘사포 췌?

102010 #1 맞아, 멘사포 췌.

102011 @ 현대식으로 헤신게예?

102011 #1 예, 현대식으로 헛수다.

102011 @ 게른 신흔살림은 어디서 헛수가?

102011 #1 신흔?

102011 @ 예.

102011 #1 신흔이 어디 이수가? 신흔 안 가완.

102011 @ 아니 게란 여행은 안 가왔주마는 결혼생활은 어디서 헛 거?

102011 #1 결혼 생활은 이것이 어머니네 살민 저 밧그레.

102011 @ 밧그레서?

102011 #1 밧그레도 초집 이만이 헛 거 체끄먼 헛 집의 살앗수다게. 췌그먼 헛 집의. 이 집이도 작은디 저 집은 큼니까게. 우리가게 아이고, 집 출리곡 그자. 집이 생편 엇어났수다. 그 저 떡만허곡게 제스가게 으남은 번 넘어가난게. 그 불 슝아근 앵에 떡만 허곡 드러 허여놓난 이런 디가 생편 엇어났수다게. 살 수가 엇언 엇어도 돈 엇어도 짓엇수다게. 우리, 우리 들어오명서라 짓엇수다. 들어오명서라.

102011 @ 들어오명서라.

102011 #1 들어오명서라. 이 디 살단에 탄 디가 저 집의 간 살앗수다게. 저 집의 간 살단에 저 들어오명서라 집을 짓엇수다. 돈 엇어도.

102011 @ 음.

102011 #1 막 빗 삼백만 원 빗도 경 크는 거라마씨. 집 짓단보난 삼백 만원 빗 나난 것도 힘들어. 물기가 엇날은. 그거 나중에 물고 허난게 집도 또 잘못 짓어정 양, 비 막 세는 거라. 비가 세여.

102011 @ 음.

102011 #1 이거 저 흑집 아니우과? 흑.

102011 @ 음.

102011 #1 예, 흑 올려근에양 고대.

102011 @ 음.

102011 #1 고대엔 헛니다. 흑 올린 것ㄴ라. 고대엔 허곡. 돌집이라마씨 돌집.

102011 @ 음.

102011 #1 그때는 뭘 냉가도 없고 브루코도 엇고.

102011 @ 음.

102011 #1 경허난 돌 혼 탱이에 언마. 경허연 깨여근앵에 저 세계서 저 밧거리도

다 돌 아니우과?

102011 @ 음.

102011 #1 저 밧거리 같이 짓은 거난에. 계난 돌 혼 텡이에 얼마? 계난 아이고, 말 헐 나위가 엇입디다. 너무 비싼.

102011 @ 음.

102011 #1 돌이 혼 텡이에 얼마해도. 돌이 니개방장헤야 될 거 아니우과?

102011 @ 음.

102011 #1 니개방장헤야 계난 으섯 사람이 완 담을 답니다게. 으섯 사름이 담을 다고. 집을 짓는디 쓰레뜰 으라이 올라가노난 쓰레뜰 문딱 깨여부난 열다섯 장 빼연에 새로 허여도 비가 세연. 요디 비가 요쪽으로 비 세연에 등기단 이 도비를 못 햄수게. 저거를 튼영은에에 새로, 새로 저거를 저 방을 이쪽으로 일로 저 등것수다 게.

102011 @ 음.

102011 #1 이쪽으로 등기난에 저걸 새로 이제 다 뜯어근앵에 팔십만 원 달랜 험디다게. 저거.

102011 @ 음.

102011 #1 저거 튼영은앵에 저 방 하나 우의 무시 거 다루끼 박고 튼영 봐야 압주마는 저거 다 허여사 웹직 허여. 다루끼 박고 또 베니다 박고. 계난 팔십만 원 달랜마썸게.

102011 @ 음.

102011 #1 계난에 저거 허여 놔사 멩질 전이 허젠 허난게 못허연 허여주지 아년 못허연 그냥, 그냥 곳어도 그냥 멩질허영 먹음벧귄 어쩔 수 엇수다. 이제.

102011 @ 음. 웃음.

102011 #1 계난 아덜, 아덜덜이 이거 큰아덜집 난 아무 것도 엇수다. 단지 난 나 몸뻡이 하나마썸.

102011 @ 음.

102011 #1 다 이전허연 으지렌 허연 다 쥐부난에 엇수다.

102011 @ 아.

102011 #1 이거 큰아덜 집이우다.

102011 @ 계난 큰아덜 왕 고치렌 험서.

102011 #1 아이고양, 난 다 나냥으로 이제깁장. 문도 옛날이라노난 문 다 떼여불 엇수게게. 여름엔 문 떼영 삼니다게. 아덜이 완 탁 완 뻘디다게. 저 문딱 새로 문 다 고졌수다. 나 혼 해는 문 고찌곡, 혼 해는 지붕 더끄곡 비가 세여가니까.

102011 @ 예.

102011 #1 혼 해는 모노름 깎곡 혼해는 또 싱크대 농곡. 혼 해는 또 저 안네 또 변기 농곡 그치룩 허멍 이제깁장 그자 그럭저럭 그자 원 아덜 와도양 저 잔덜 혼번 안 까깝니다게.

102011 @ 웃음.

102011 #1 이 녀 자기 일도 못허니까마썸. 자기 일도 다 못허여마썸. 어명이 강 같이 도와줘야 돼여마썸. 건 농장 너른 것도 구찮은 거우다게 거.

102012 @ 계난 성안 살았수가?

102012 #1 양?

102012 @2 아덜은 성안 살았수가?

102012 @ 시에 살덴? 아니 여기.

102012 #1 시에 살아시민 무사 못헛니까게. 서울 살았수게게.

102012 @ 으.

102012 #1 작은아들은.

102012 @ 여기 잇고.

102012 #1 여기 잇고마썸. 여기 잇고 여기 잇언에 작은아덜이 걱정이 엇읍니다. 원. 너무 춤.

102012 @ 너무 착헛.

102012 #1 너미 착헛노난에 돈도 잘 버슬어마썸게. 초원에 살아도 지금 이제, 이제 아적은 이제 이제 마흔아홉이우다. 이제.

102012 @ 음.

102012 #1 마은아홉인디 그 이제 집 짓은 밧도 사고, 또 동광 땅도 사고, 딱시 십육억 쥘 이제 이제사 시에 집을 사ㄴ헛마썸게, 이제.

102012 @ 십육억 쥘? 웃음.

102012 #1 십육억 쥘마썸. 계난 ‘아이고야, 그거 어떻 허젠 험디?’ 난 막 겁넌, 겁넌다다게. ‘야, 십육억 난 세지도 못허는디 느 어떻허젠 험디? 어떻허연 돈 물젠.’ ‘어머니 걱정 마셔. 나가 알양 험니다.’ 집은 밧 개고 허난 집은 네 개엔 험니다. 네 개.

102012 @ 웃음.

102012 #1 네 개 저 그냥 저 통으로 다 사불엇수덴. 계난 ‘아이고, 나 돈 없다.’ 나 이제ㄴ장 돈을 쥘수다게.

102012 @ 예.

102012 #1 저 집 사도 집을 빌언 살았수다게. 모실포 빌언 살단에 요디 오란 간 단허게 집을 짓어근앵에 우잇 아덜은 이디서 시시허덴 허명 공불 안 허켄 허명. 모 실포서. 모실포 살아났수다게. 성젠 시에 올라갓수다게 이제. 고등학교 저 삼학년애 따시 중학교 이학년애 가부난에게 스나이 하나 마지막 깝은 딱시 시에 안 간에 모 실포 친구가 엇텐 허명 모실포 이제 사학년이우다게. 죽은아덜애 죽은아덜이. 계난 게 계난 메뉴리가 못전디고 아덜도 못전덤수다게. 그 하우스를 문 헤여노난양, 하우스 에서 고생허지 그 비온 날은 미깡 돌아메곡 땀뿌차 끄어근앵에 일을 마타노난 매날 이제 매날 허여노난 돈 벗은덴 소문은 남수다게.

102012 @ 음.

102012 #1 저, 인봉이 송인봉이 날궤라도 막 저 아덜 너미 착허덴 곱습니다. 사름덜이. 곱곡 그자 아무가 봐도 차 우의서라도 웃으멍 꺄딱허난에.

102012 @ 음.

102012 #1 계난 인스 잘허곡게 소문은 납니다게. 헤끔은 험니다. 크지도 아녀마 씹게. 성은 든직허고.

102012 @2 어머니도 큰 데?

102012 #1 성은 든직허고 아덜은 저 흐끔 저 족수다. 흐끔 아, 족진 아녀디 신체가, 신체가 약헤여마씨. 약헤여.

102012 @ 음.

102012 #1 약헤도 큰 사름 경 안 바꾸게 일은 험니다. 시길 나가 엇입니다. 시길 나가 엇어.

102012 @ 음.

102012 #1 계난 어린 때부떠 아버지 산 때부터 총각인 때부떠 그 만 평을 버슬젠 허난게, 아덜 올 디만 기다령. 아덜은 일허레 가불민게. 저 레미콘 놈의 찬 안 꺄칩니다게. 레미콘 차 꺄어근엿에 일허레 가민 요 서광 일허레 가민 일요일 날이나 안 갑주게. 안 가민 일요일날은 약을 세 고지로 허여마씨게. 이백 말 통더레 탕은에 세 고지로 허민. 아니 어느 헨 허단 보난 미깡을 자락 올라부난 허지 못허난에 나가 허는 말이. 야, 족은아덜신디레 도저히 알로 못 허키여. 오라 바깥 허게. 경험서게. 난 동으로 허곡 아방은 우로 허고. 삼거림이 잇수다. 우리 밧 안네서도 삼거림이 이시난 그디서 차 돌리곡 빼곡 겨곡 다 쉼헨 헛수다.

102012 @ 음.

102012 #1 작은아덜이 쉼헨 헤놏수다게. 만 췁에 질 허난 밧이나 버물지 아녓니다. 계난 친구덜이 들어가멍 허는 말이, ‘야, 느네 밧디 가젠 허민 저 신밭 벗엿 가사 췁이.’

102012 @ 웃음.

102012 #1 그치록 곱으멍 막 웃기는 아이가 잇수다. 이제는 꺄밧 뒤볼엇수다. 큰 아덜이 서월 살멍 오란에 허지 못헤노난에 족은아덜은 잘험니다. 잘허곡 이제, 이제 저 천, 천오백 평 짜리 집만 하나 덜렁 짓엿 앗양 작년에 나 저 꺄 아옹 말 그디서 허엿수다게. 밧을 포크레인으로 완 확허게 밧을 굿으난게 그레 간 꺄 뿌리난에, 양 저 노인당에 밥을 허레 땡겅수다게. 작년궤장. 멧 헤 밥을 사년을 헛수다. 사년을 허난게. 그디 강 꺄를 부리난, 양 비온 날벧기 못 갑디다게. 왕 밥허엿 먹엿 오민 덜곡. 빗방울 허는 날 가민 비가 와부는 거라마씨게.

102012 @ 음.

102012 #1 계난 나신디레 막 즌소리허연. 따시랑 허지 맵센. 저 아덜 메뉴리랑은에 놀곡 어머니 일 허는 거, 일허엿젠 허멍 놈덜 옥허지 아녓니께. 누게 옥혈 사름 시냐? 이디 사름 땡겅시냐? 경허멍 헤연에 꺄도 으남은 말 허곡 콩도 검은콩, 검은콩혈 땡 저양 차에서가 어디 강 부닥천에 이 갈빋대 나간마씨. 갈빋대 나가난 벧원

에 셔낫수다게. 저 한라의료원에 시난에 메뉴리가 콩 알아근에 느 문딱 장만혜영은
앵에 으지렌 허멍 허난 검은콩 꺼끄난 손도 다 북물고 저 혼 너 말은 못허곡 서
말, 셔 말은 남은컵디텐. 게난 거 느거 허라. 나 안 보켜 허연에 허곡 꿔 두 말 주
고 지름 빠단 주곡 헛수다. 경 허연에 허난에 글로 혜연양 깎딱 못허게 험수다. 그
레 글로 흥연 흠치 밧 막 놀런 내불엄수게.

102012 @ 웃음.

102012 #1 그디 천오백 평 집만 하나 달랑 짓언 잇수다게.

102012 @ 음.

102012 #1 밧 놀령 내벼도 나도 못합니다게. 이제 허지도 못허곡 허난 그자 흥끔
씩 혼 뉘 혜영 이녀 먹을 거난 아이덜 줄 거난 뉘 말 혜근에 지름 빵 먹곡 허젠 올
히로 허엿수다. 게난. 이 저 작은아덜은 너미 착혜노난에 그 어린 때부터 일을 허는
디양 드르쌍 내불어마썸게. 자기가 그자 우리 늑으로 사근앵에 늑을 사나두서 헛수
다게. 그냥 하나씩 빌영은 헐 수가 엇어마썸게.

102012 @ 음.

102012 #1 아저씨 아척이 으섯 시 뉘민 밧디 갑주게.

102012 @ 음.

102012 #1 난 불살르곡. 아저썸 모실포 시끄레 가곡 경허민. 또 아덜은 딱시 어
두와강 인척 올 뉘 허곡 경아녀근에 일요일날은 오민 아방은 빈 상자 시껴 오곡 아
덜은 딱시 강 데미곡. 미깡 으져당 데미곡 경허멍 이제깎장 살단에 아저씨 돌아가
부난에 따시 성은 서울 살아지난에 ‘저, 느가 알아근앵에 과수원 다 저 허라. 난 저
이디 오랑 어디 허여지커냐?’ 아실 문딱 쉼뵈디다게. 쉼부난, 양, 그거 오년 동안,
오년 동안 매날 강은에 저 삼시 허영 멕이곡. 작은아덜 허는 거마썸.

102012 @ 음.

102012 #1 삼시 허멍 멕이곡 죽은메누린 또 택배허고. 택배 읍의서 타멍 택배허
곡 경허여노난 막 복잡헛디다게. 복잡허연 허는디 혼 오년 허난에 큰아덜이 들어완
에 어느 날 오란에 난, ‘어머니 나도 농사지쿠다.’ 그 아시혜에 미깡이 경 잘 달련
에.

102012 @ 음.

102012 #1 사천오백 원씩 헐에 저 밧으로 막 타멍 풀앗수다게.

102012 @ 음.

102012 #1 폭난 친구덜이 저 아덜덜 친구덜이 막 하노난 작은아덜 친구고 큰아
덜 친구고 하난 무신 말사 들어신디 ‘농사지쿠덴’ 허멍 오난에, “느 농사 어떻 질
디? 이디 오랑 살아사 농살 지주. 어떻 어떻, 어떻이영 어떻 밥 먹으멍 농살 질차?
어떻허멍 농사질이?” 경허멍 허난 ‘아이 저 나 농사 져야쿠다.’ 경허멍. 저 회사에
다념수다게. 회사에 다니멍 허여노난 낭밧 정체가 뉘엄수가? 밧은 막 좋음디다게.
밧은 좋은디게. 흥쓸 곳은 디도 잇어마썸.

102012@ 음, 웃음.

102012#1 굿은 디도 오닐 아척이도 ‘아이고, 어땡허영 약을 허코이.’ 약을 어제도에 비 흐쓸 와부난게, 간보난에 나도 흐쓸 늦게 갓주게. 흐뽀 저 청소도 허여서 멩질을 허여 먹을 거난. 늦게 간 전화로, 전화 이신 때난 좋아마썸.

102012@ 음.

102012#1 ‘야, 어디 뭐 험디?’ 허난, 난 약 헤염시카부덴 허난. ‘뫼 헤염디?’ 허난에. ‘미깡 스퀴단 앓앗수다.’ 허고테라 ‘아이고, 약 허라게. 약 허라게. 수요일날 비온덴 험시네. 약허라게 약을’, ‘이슬 전마썸.’ 허난 ‘이슬 이슬 퀘차녀다게.’ ‘저 미깡 타보난. 나 밧디 왓저. 이슬 퀘차녀다게.’ 경허난에 경 곺안 내불엇수다게. 내부난 미깡 타단 보난 약을 오란 허여가. 어땡 밧부터 오백 평 짜리 허여가난. 줄 흐디 등겨주고.

102012 @ 음.

102012 #1 아척인 ‘아이고, 어땡허영 저 약을 다 허코이. 널깻장, 널 느만 가근엥에 우린 못 갈 거고 느만 가근에 오닐 허당 남은 거 문 믱화야 웰 건디 널른 것도 저 우터. 저 밧 널른 것도 굿다이.’ 경 곺으난게.

102012 @ 웃음.

102012 #1 ‘아이우다게. 굿은 디가 잇어부난에 굿은 디가 셔부난에 경 허지가 굿엇주, 저 큰밧덜은 삭삭 잘 헤집니다.’ 경 곺읍디다게. 경 곺으멍 헤연 아척이 메누리영 헤영 나갓수다. 아척이 인척 일어난 밥 허영 나가 밥을 허여주민 문딱 챙겨근에 문 나갓수다. 물도 막 사당 저 부억에 데명 저 이 집잇 물 안 먹읍니다게.

102012 @ 음.

102012 #1 안 먹영근에 육지 사는 아이라 농곡 허난. 저 막 데면 놔두난에 저번에 문 먹으난 딱시 딱시 완 딱시.

102012 @ 음.

102012 #1 요흐룩이 사단 딱시 요 그지게 사단 그지게 사단 왓수다. 그지게 완 어제 아척이 비와부난게 간 무시거 미깡 타단에 앓고렌 허멍 허난게. ‘앓이민 웨느냐게. 약을 허라게. 약을 허라.’

102012 @ 웃음

102012 #1 ‘약을 오닐 허곡 수요일날 비온덴 험썸. 저 오닐 허곡 널 헤영 믱치라.’ 경허난 약 험디다게. 약허연 허난게 오닐 다 못헐 거우다. 오닐 다 못 허여. 흐.

102012 @ 워낙 널러부난예?

102012 #1 예, 널러부난 다 못허여.

102012 @ 계난 자식은 멧 명마썸? 아이들, 자식은?

102012 #1 자식은?

102012@ 예, 삼춘네.

102012#1 딸 두 개 아덜 두 개.

102012 @2 아.

102012 @ 네 명. 어 계민 딸은 어디 살멘?

102012 #1 다 서울 살았수다게.

102012 @ 아, 딸들도?

102012 #1 예.

102012 @ 으음.

102012 #1 경허난 잘도 굿수다게. 막 젊을 때는, 젊은 때는 아무 분시도 몰라신 디 이제는 나이 들어가난 딸덜이라도 어염에 서시민 허여 점수다게.

102012 @ 맞아.

102012 #1 겐디 이 작은아덜 혼 들에 혼 번도 못 봅니다. 요디 살아도.

102012 @ 음.

102012 #1 혼번 과수원이 가깝수다게. 요 저 탄산온천 알아집니까?

102012 @ 예, 예, 예.

102012 #1 탄산온천 그 우쪽이우다게. 바로 바로 우쪽. 계난 요디 가민 기난에.

102012 @ 음.

102012 #1 그디도 못 걸어강 오도바이 타고 탕점수다.

102012 @ 계난 딸덜은 씨집이 다 여기 제주우과?

102012 #1 아이우다게, 서울마썸게. 하난 하난 하난 이딧 사름. 족은딸은 이딧 사름이고. 이딧 사름, 이딧 사름이고. 하난 저 공무원이라노난에. 경해도 저 맞벌이해 마씨.

102012 @ 음.

102012 #1 다 간호원덜. 저 무시겨 간호원으로 그냥 들어간에 저 이제도록 이제 도 허염수다게.

102012 @ 아.

102012 #1 딸이 이제 이제 쉬은넷이우다. 이제. 딸이 쉬은넷이난 쉬은넷 나도 그 디서 이제도 잡양은엥에 나오질 못햐젠 햐수게. 내치질 아님젠마씨. 계난 삭삭허곡 양 딸이 큰딸도 삭삭헤여논난에.

102012 @ 으.

102012 #1 흠치 원원 내치질 아녕 군인 갓수다. 막 저 씨집도 결혼도 경 제게 안 햐수다. 막 늦게 햐수다.

102012 @ 음.

102012 #1 늦게 헤놓난 아기도 이제사 군인 간에 일년 살고 이제 딸은 따시 이제 무신 이제 공무원, 공무원 시험 뵈젠 햐니다. 이제.

102012 @ 음.

102012 #1 시험 뵈젠 허고 막 늦게 갓수다게. 서른에 가난게. 아이덜이 아직은 어련마씨게.

102013 @ 그치룩허고. 삼춘, 씨집살이도 햐니까? 씨어머니한테 구박도 받아뵈? 웃음.

102013 #1 우리 씨어머님 너무 구박헝디다. 너미 구박헤연. 주는 게 엇어. 주는 게 하나도 엇어. 생전. 옛날에사게 돈 날 디 잇수가게? 아기덜 하놓곡 허난. 아기덜 하놓고 허난. 돼지새끼도 다 돈 받고.

102013 @ 음.

102013 #1 솔입헤단 저 옛날에사 솔입헤당 이디 늘어도 그거 빵 진으레 아녀고. 나냥으로 나무. 나무가 드룻팻디 얼마나 하낫수가게. 나무 허여당 하루 두 짐씩.

102013 @ 음.

102013 #1 하루 두 짐씩 나무 허여근에 이 집이, 이 집의 살민 앞의 저 과짜 세와근에. 나무도 젊은 때부터 난 나무만 헤연 살아노난 냥을 무꺼도 어디 가도 떨어지지 아녀게 곱닥허게 확 허여도 곱닥허게 목경 허민 ‘야인 손재주가 녀 좋덴.’ 아녀 어린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강은에 미승이나 상 쥬 내불렌. 상 쥬 내불민 저 손재주가 좋아놓난 아무 디 강도 살켄 경허멍 드러 곱아낫수다게. 어디 강 들으민 그치록 손재주가 좋안 아무 거라도 잘 헤여근에 옷이라도 허곡 벨 거라도 허여신디 경 저 무시거 춤 저 무시거 그 옛날은게 그 광목으로양.

102013 @ 예.

102013 #1 그 광목으로 씨어머님이 광목으로 허여근에 저 두루막도 광목으로.

102013 @ 예.

102013 #1 또 이디 저.

102013 @2 점뱅이?

102013 #1 바지저고리도 광목으로. 거 아기 들곡 헤도 손으로 문딱 멘들양은에 신랑 입져나수다게.

102013 @ 예.

102013 #1 이 저 구정 정초 돌아오라가민 거 문딱 만들양. 다 만들아근에 손으로 다 만들곡. 첫번에 오난에 저 씨할마님이 미녕 혼 빌 줍디다게.

102013 @ 음.

102013 #1 미녕 혼 빌 주난에 그걸로 갈중의, 갈중의도 나냥으로 다 만들양은에.

102013 @ 음.

102013 #1 만들양 나냥으로 물르곡 나냥으로 만들양 갈중의도 만들양. 옛날은 갈중의벧기 더 입엇수가게. 갈중의도 다 만들양 입지곡. 우의 거. 우의 거는 딱시 광목 짤라단에 저 우의 거를 저 어디 간 가다 떠다근에 가다 냥은에 물라근에 그걸로 물 들여근에 물 들여근에 우의 건 입곡. 경허멍 저 옛날은 푸는 거 엇어낫수다게.

102013 @ 예.

102013 #1 그 이제는 뭐 싼 것덜토 하곡 그 어디 농장에 입을 거 해주마는 옛날은양 그런 거 엇입디다게.

102013 @ 음.

102013 #1 엇으난 그 광목허고 미녕허곡 그런 걸로만 옷허멍 입정은에 나도 입

곡 햇수다게. 경 감 들여근에양 감들영 입곡. 감들영 풀 죽이젠 허민 저 마에 좀 입
어사 흐뎡 풀어지곡 허여낫수다게. 게, 이 더운 때는 못 입어마썸. 더와근에.

102013 @ 음.

102013 #1 겐디.

102014 @ 겐은에 그 자식덜은 결혼 다 시킨 거고예?

102014 #1 예, 게.

102014 @ 음.

102014 #1 결혼 다 시켜도 나는 자식덜 뭐 주는 걸 잘 헤여마썸. 잘 허여.

102014 @ 음.

102014 #1 주는 것도 잘허곡 먹으라, 먹으라. 오늘 아척이도 계란 어제 아척인
열 갠 슻아신디 메뉴리가 안 그정간 거라마썸게.

102014 @ 아.

102014 #1 아덜이 경 좋아힘디다게. 계란을 세 판일 상와서마썸게.

102014 @ 아.

102014 #1 그지게 온 때에.

102014 @ 아

102014 #1 그지게 저 장 아니우과? 모실포장이주게. 그지게 장이나가 십일일장.
게난 가네도 장 보레 왓주마는 나도 바빠근에 그만이 앓아집니까? 그만이 앓질 못
허연 시에 저 병원에 약 받으레 갓당양 초기여 뭐 옥돔이여 무시거영 산에 약 받으
레 가난 또 비가 흐뎡씩 읍디다게. 오난에 또 그걸 또 무리카부텐 딱시 병원에 간
에 저 흐뎡 오래 오뎡 시간이 두 밧디 텅기난에.

102014 @ 음.

102014 #1 열흔 시 뉘난 간보난에 이빠이 저 소님이 차부난. ‘아이고, 이거 큰일
낫저.’ 저 그 간호사보고 ‘냉장고 저 시냐?’ 경허난 ‘잇수텐.’ 허난. ‘이거, 이거 냉장
고에 좀 놔주라. 이거 무시거 저 옥돔영 무신 거라부난 무림직허텐’ 경허명 허연 냉
장고에 낫단에 올 땐 줍디다게.

102014 @ 예.

102014 #1 주난에 흐젠 허난에 우리 메뉴린 ‘어머니, 안 사도 뉘는디 웨 그렇게
샷어요.’ ‘느 어는제 올 텐 얘기를 헤야 허주게 어느 때 올뎡도 아녀난 어명은 경
그만이 앓아지느냐?’ 경 저 무시건 ‘뫓도 샷어요, 뫓도 샷어.’ ‘다 샷저게.’ 다 그런
거 즈 것덜은 다 샷저게.’ ‘잡채에 놓을 거 초기도 샷디가?’ 허난 ‘것도 샷저게. 것
도 사고. 당근이영 뭐허레 샷니까? 거기서. 당근이영 무슨 뫓뫓 저 동태포영 다 떠
뉘에 뫓 으져오젠 허난 초기도 흐뎡만이라도 사주, 막 하영 사난에.

102014 @ 웃음.

102014 #1 으져단 냉장고에 막 담양 지금 잇수다게. 게난.

102014 @ 음.

102014 #1 아이고, 장에 갈 중 알아시민 거 안 상 와도 좋을 건디게 경 안 상와

젓젠 허멍. 허연 장애 강 뉘뉘 나가 안 가민 사지 못합니다게.

102014 @ 예.

102014 #1 나가 같이 가야. 같이 가민 뉘뉘 살 거만 알아근앵에 문 상옵니다게.

102015 @ 메뉴리허고 사위들은 어떻게마씨?

102015 #1 사위. 큰 사위는 막 줍니다게. 전화 잘 와. 이번에 와갓수다게. 여름에 답지 전에. 답기 전에 완에 나도 혼디 여행 간 왔수다.

102015 @ 음.

102015 #1 차양, 그 여행사로만 이젠 전화가 좋곡 컴퓨터 셔노난에 그 여행사 차에 와십디다. 오난에 집의 오란에 흐룻밤 살고 뒷날은 어머니도 글읍셴 헨앵 간보난에 여행사 차 저 작은메누리가 어디 시꺼갑디다게. 저 동, 저 서광, 서광 흐쉴 서팬이 가난에 그 차가 이십디다게.

102015 @ 음.

102015 #1 계난 그 차로 헤연에 문 여행허고 헛수다게. 딱시 또 떨어전에 따시아덜이영 저 춤 뜰이영 그 사위영 이디 오란 또 살안 갓수다게.

102015 @ 음.

102015 #1 살안 혼 일주일 살안 갓수다게.

102015 @ 음.

102015 #1 살안 가고. 또 작은뜰은 또 훼손가 무시겨 놔노난 또 바빠근앵에, 전화 어제도 왓길래. ‘오라게, 왕 흐쉴 살단 가라게.’ 허난에 ‘바빠 못 감수게 바빠’. 계난 ‘야, 저 무시겨 어디 읍디가?’ 경 허크데, ‘야, 나 이제사 왓저마는 저 미깡 너미 올라놓난 미깡 탐쩌게, 미깡 맛은 들엇저마는 윈 이치록 영 풀지 못허염쩌.’ 풀지 못허연에 이거 준 거 따블어사 폰나 무시겨 허주. 약도 오빠 잘 아너부난 막 굿고 허다. 경허난 ‘오빠 올 때랑 흐쉴 보냅서’. 허난 손으로 다 무지렁 바뻥 일도 못허염쩌.

102015 @ 웃음.

102015 #1 손으로 문딱 무지려논 거 계난 으져가지느냐? 그거 좃어와져? 좃어오지도 못허영.

102015 @ 음. 그치룩허여근에 현 거예? 잠깐만예.

3. 밭일

103001 @ 옛날 밭일 하영 헛잖아야예, 어떤 일들 하영 헛수가?

103001 #1 밭일.

103001 @ 예.

103001 #1 밭일 옛날은 그 조 갈곡 보리 갈곡 콩 갈곡 고구마 싱그곡 그 저 콩 밭디 그 꿩도 딱로 갈 중 물랑근에 그 콩씨에 꿩 하나씩 영영 젓어근에 뿌렁 놔두

민 께 하나씩 나민 그거 강 께가 므녀 익읍주게. 콩보단. 그 께 허여당 보깁 먹곡. 흐쉴 하영 나오민 옛날은 저 께지름이 어디 잇수강게. 저 유채지름.

103001 @ 예.

103001 #1 유채지름 먹곡 농장 한 사름은 께지름. 우리는 저 께지름 많이 먹어수 다게.

103001 @ 예.

103001 #1 경허영 허는디 그 검질을 제와근에양?

103001 @ 예.

103001 #1 저 유채, 그 이제 제초제가 안 내놓난.

103001 @ 음.

103001 #1 옛날은 제초제가 안 내놓난 매밭디 강 검질 메젠 허민 고구마 싱근 디는 질 각에 메곡 콩 싱근 디는 질 각에 메곡. 또 조팍디는 빨리 메야돼여마씨.

103001 @ 예.

103001 #1 조는 소파줘야 돼니까. 이 사이로 이 사이로 하나씩 소파줘야 돼니까. 조팍은 안 돼민 노랑허영 돼질 아넵니다게.

103001 @ 예.

103001 #1 게난 조검질 메당 보면은 콩검질도 ㄱ득고 딱시 고구마 싱근 디도 ㄱ득고 경허영은에 강, 또 그 고구마 밧디 강 메다보민 고구마가 드는 것이 나와마씨. 나와. 검질에 나와.

보리농사

103002 @ 알아수다. 게믄, 게믄 하나씩 물어보쿠다예. 게믄 삼춘 그 옛날 여기도 보리 하영 같앗수가?

103002 #1 아이고, 보리 하영 같앙. 어느 집인 멧 바리. 옛날은 멧 바리, 멧 바리 허영.

103002 @ 예, 멧 바리에?

103002 #1 멧 바리.

103002 @ 게믄 그 보리 용시 허젠 여기 용시, 농시? 용시렌 헤? 이 동네도.

103002 #1 보리, 보리 농사.

103002 @ 보리 농사. 그거 하젠 허면 준비 허는 거는 어떤 거 잇수가?

103002 #1 준비?

103002 @ 예.

103002 #1 그 돼지. 검은돼지나 아무 돼지라도 검은 돼지주게. 주로.

103002 @ 예.

103002 #1 돛통. 돛통 이렇게 담 다가지고 또 저 그 저 변 보는 딘, 돌 이렇게 돌 놔근에 이렇게 돌 놔근에 거기 앓앙 저 변 봐가민 도새긴 들어올 거 아니우과?

103002 @ 예.

103002 #1 들어와가민 막덩이로 때리지 아녀민 그 똥 싸는 거 닥닥 털민 옷더레 다 가곡계. 경허난 그디 막데기 하나 놔둬서 때리멍 허여근에 저 소를 많이 질루난.

103002 @ 예.

103002 #1 그 소걸름을 저 돼지 질루는 디레 다 들어마씨.

103002 @ 음.

103002 #1 들어근앵에 그 저 돼지걸름 마당에 내영, 마당에 내여근앵에 보리씨.

103002 @ 예.

103002 #1 보리씨 그레 다 빼영.

103002 @ 예.

103002 #1 그 걸름더레 다 빼여근앵에, 저 물 좀 물르민 물 저당은에. 물 저다근에 그거를 물 맞창은에 물 맞좌근에 물도 어디 물이 씻수가계. 물이 잇영 멀리 강저와야 돼여마씨? 저당은에 걸름데레 물 문딱 뿌리멍 소로 불러마씨. 불러.

103002 @ 예.

103002 #1 불러근앵에 그거를 데며 또.

103002 @ 음.

103002 #1 이렇게 데며 놔근에 소에 시끌라면은 걸름착. 걸름착. 그 이만, 이만씩 현 걸름착에 담아근앵에 이 소가 이거민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부쳐가지고 그 소 두 개민 두 개민 네짜해야 시끌 거 아니우짜? 계난 그걸로 시꺼다근에 그 밧디도 이만이 뿌리민 이만이 푸민 저만이 푸고 그 소로 문딱 시끄멍. 질도 막 적어놓난 질도 적어놓난 죽은질로 막 홀터 텅기멍 밧디 강은에 영 손으로, 그 걸름을 손으로 놓젠 허민 눈 막, 눈 막 눈 많이 와도 얼류지 아념니까.

103002 @ 예예.

103002 #1 얼류난양 기냥 장갑이 어디 잇수가? 옛날에. 그 손으로 영영 비벼야 돼. 비벼. 비벼근에 골체. 골체 이렇게 이렇게 골체를 이렇게 창.

103002 @ 아, 허리에 차, 골체를예?

103002 #1 골체, 골체 이만은현 골체 이렇게 허리에 차근에 거 담쟁 허민 영허영 영허영 이렇게 허영 담아마씨. 담양근에 일어사근에 골로로. 골로로 착착착착 착착착착 이거 영 췌영은에 비병 착착착착 해근에. 경 아녀도 되는 건디 그치룩 경 고생을 헛수다계. 그치룩해근에 보리 갈양근에 허민 이 집의, 이거, 이거 부챗집이라 놓난 이거 뭐 멧 바리, 멧 바리.

103002 @ 예.

103002 #1 옛날은 멧 바리, 멧 바리.

103002 @ 게믄 멧 바리를 헨마씨?

103002 #1 경허민 혼 쉬은 바리 예순 바리 그치룩허여마씨. 경허영 놀당은앵에 문딱 멜라지지기허곡양, 지르르허게 문 그 문 멜라지기도 허곡 허영은에, 허여당 눗빌영 홀타마씨, 눗빌영.

103002 @ 음.

103002 #1 놉 빌영은에 먹을 거 잇수가? 옛날에 순다리.

103002 @ 예.

103002 #1 순다리 헤 놉근에게 저 그 밥헤영 순다리 헤여놉근에, 순다리 안네멍 우리 보리 홀타수다게.

103002 @ 예.

103002 #1 친정에도 보리 하고 이 시집이도 보리하고 허민 나는 보리 췌는 사름.

103002 @ 음.

103002 #1 췌는 사름 허영 시집의 거 췌어나민 또 친정에 강 췌곡. 우리 씨아바님은 따시 메타로 허영 메타로 두드리고. 경허민 저 친정에도 또 저 우리 씨아바님 빌영 두드리곡. 경허멍 저 살앗수다게.

103003 @ 예, 게문 삼춘, 아까 이제 보리밭 걸름허게 뵈면 건 어떻 준비헌 거라 마씨? 걸름 멘들젠 허면 어떻 헛수가?

103003 #1 아까 얘기했는데.

103003 @ 게난 보리 짓 주고 허는 거. 이런 거 곶아줍서? 짓 주는 건 뭘로. 췌

103003 #1 아, 소. 소는 소 맥이는 출은 틀러마씨.

103003 @ 아니, 아니. 그 걸름 멘들젠 허면 무신 걸로 주는 거?

103003 #1 그거 얘기했는데. 그 소, 소는 출 딱로 딱로 헛당은에 출 빠멍 주민 그것도 출 빠멍 주민 출은 떡곡 보리냥.

103003 @ 음.

103003 #1 보리냥 늘엇다근에 보리냥은 그 오줌 싸곡 똥 싸곡 허민 소 누을 디가 엇이민 그걸 다 깎아가민 그디가 막 이만이 노파가민 그거를 저 그 저 돛통더레.

103003 @ 음.

103003 #1 돛통더레 그걸 담아다 놉마썸. 담아다 놓민 그거 그거 헤당 마당에 디레 문딱 내영은에 곶체로 문딱 들러당은에 내영은에 물르민 물 주멍 경허영 물 주멍 만들 문딱 썩아놉근에 거 즈근즈근 밧디 으저다근엔에.

103003 @ 음.

103003 #1 그자 그레저레 곶로로 퍼냥 그걸 착착 허멍. 헌디 경 아녀도 뵈 건디영 허영 갈르민 고장이, 고량이 셔마씨.

103003 @ 예.

103003 #1 고량더레 딱시 그거를 툽툽 줍아놉마씨. 그걸. 아이고, 그치록 답답허게 살아수덴허난. 요만씩, 요만씩 그 저 곶체에 으정 뵈기멍 툽툽툽툽 고량을 쭉허게시리, 양 고량을. 이거 고량이민 이레 툽 놓곡 이레 툽 놓곡 이레 툽 놓곡 허멍 고량이난 곶을 막아. 그거를. 발로양.

103003 @ 예예.

103003 #1 발로, 발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거 그거 거 하나씩 줍아 놓은 거를 곶 막아마씨.

103003 @ 예.

103003 #1 경허민 보리가 좋아근에 거 어디 안 난 디 엇이 전부 다 고량도 나곡.
보릴 많이 나렌 경 현 거마씨.

103004 @ 게문, 보리는 언제 가는 거마씨?

103004 #1 보리는 저 흔 시월 들에.

103004 @ 시월 들에.

103004 #1 시월 들에 갈양 막 추워마씨. 시월 달에는 추워. 바짝 얼류곡.

103004 @ 게문 밭 가는 건 누게가 허는 거?

103004 #1 밭 가는 건게 아버지가. 아버지가.

103005 @ 아버지가 갈곡. 음, 씨 뿌리는 거는 이제?

103005 #1 씨 뿌리는 거는 여자덜이, 여자덜이. 우리 딸덜토 허고 어명도 허고.
경허명 살아수다게.

103005 @ 예.

103005 #1 고생도 진짜 너미 힘들게 살았어.

103006 @ 보리는 어떤 종류덜 알아봐마씨?

103006 #1 보리?

103006 @ 으. 종류?

103006 #1 슬우리도 같고 맥주보리도 같고.

103006 @ 예.

103006 #1 두 가지 같아마씨.

103006 @ 것보리는 안 헤 볍디가?

103006 #1 것보리는 잘 안 헤봤수다.

103006 @ 아 아.

103006 #1 맥주보리허고 슬우리. 예 주로 그거마씨.

103007 @ 여기도 보리밧 볍는 것도 헤 마씨? 보리밧 불르는 거?

103007 #1 저 불르는 거 잘 아냅니다.

103007 @ 아, 여기는예?

103007 #1 예, 불르는 거 어찌다근에에 저 불르레 가 밧수다. 흐썬. 불르레 가도
별로. 밧이 좋아야 보리가 좋은 거. 밧이 좋아야. 영 우리가 허여 보면은 밧 나쁜
디는 보리 안 텡디다.

103007 @ 어떤 밧이 좋은 밧이렌 길읍니까?

103007 #1 좋은 밧은 이 토지에 대혜근에, 이 밧은 좋다 허영은에 저 슬우리갈
갈곡. 나쁜 밧은 딱시 맥주보리 같고.

103007 @ 으음.

103007 #1 경 헤수다게. 겨난.

103007 @ 좋은 밧디가 슬우리예?

103007 #1 예, 좋은 밧디가 슬우리.

103008 @ 검질은 몇 번 메마씨? 보리 검질은?
103008 #1 보리 검질은 한번 메민 곳이라마씨.
103008 @ 음.
103008 #1 한번 메민 곳.
103009 @ 어떤 검질들 주로 맵니까? 보리?
103009 #1 그 겨울에 나는 검질. 겨울에 나는 건 진풀 또 저 무신 거 사스락쿨.
103009 @ 음.
103009 #1 주로 그거. 그거 납디다게. 그걸 그치룩 경 나민 바삭 추운 디 검질
메야돼마씨.
103009 @ 검질 벨 때는 무신 걸로 메마씨?
103009 #1 글갱이.
103009 @ 어.
103009 #1 글갱이로 앓앙 즈근즈근 흔 고지씩 앓앙은에.
103009 @ 예.
103009 #1 흔 고지씩 앓앙.
103009 @ 게민 글갱이를 여기는 글게렌도 험니까?
103009 #1 예, 글갱이.
103010 @ 음, 그 다음에 수확은 게민 언, 보리를 어느 철에 보리는 비는 거라마
씨?
103010 #1 보리?
103010 @ 으.
103010 #1 보리, 오월 들에.
103010 @ 오월 들에.
103010 #1 오월 들에, 오월 들에 빙니다.
103010 @ 거는 무신 걸로 비여마씨?
103010 #1 낮으로.
103010 @ 낮.
103010 #1 호미. 이제는 낮이엔 허주마는 그때는 호미.
103010 @ 그땡 말로?
103010 #1 그땡 말로 호미.
103010 @ 호미. 호미로 비젠 허면 거기 가정 가야 뉘는 것덜도 막 이실 거 아니
라예? 뉘 들렁 가야 돼마씨?
103010 #1 신들.
103010 @ 예.
103010 #1 신들 ㄱ정가근에 아이고 신들 ㄱ져강 곶아도 그렇게 무경 힘이 드는
거라마씨. 힘이 들어. 경 힘이 들영. 계난 우리도 이디 씨집인 춤 부자칩이난에 받
도 좋읍디다게. 저 큰물왓디레 가는디 그 *** 우녝 밧인디 우리 씨아바님이 보리

비여가민 일을 영 못헛디다게. 부자칩이라도 경 못허영 허난. 어머니가 일등에 앓고 나가 이등에 앓고.

103010 @ 음.

103010 #1 씨아바님은 멀리서 담배 피우멍 일어사근에 담배랑 피우멍 영영 영영 스방만 베리멍, “우리 즈부 춤 보리 잘 비지.” 그치룩 그런 말 들어수다.

103010 @ 아.

103010 #1 “우리 즈부 춤 보리 잘 비지.” 우리 아저씨도양 저 어린 때난산디 일 못헛디가게, 그치룩. 일을 못 허영근에 돌이가 보리 비레 요 요디 요디 집 짓언 살 암수다 이제. 보리 비레 그디 혼 천이백 췁인디 보리 비레 가신디 보리 혼 고질 비여 가민 반 고지에 앓아마씨. 앓안 손을 끊엇어.

103010 @ 웃음.

103010 #1 손을 끊으난 그 손 끊으난 차멜 건 이수가? 차멜 건 어디 셔. 뭐 어떻사 헤연 차메저신디 차메난 저 소낭 아래 간 뉘 ㄱ만히 눕디다게. 게난 일도 못허 염젠 허멍 나 일도 그치룩 부자칩의 아덜이 일도 못 헤염젠 허멍 난 그치룩 행은에 저 곤곡 경허멍 살아수다게.

103010 @ 음, 게민 보리 허면은 옛날은 다 손으로 비난 거 무꺼야 텔 꺼 아니라 예?

103010 #1 예, 무꺼야.

103010 @ 게민 무신 걸로 무꺼수가?

103010 #1 보리. 보리 췁영. 보리 진 걸로 췁여가지고. 뿃이, 뿃이 잇어야 뿃는다. 뿃이 진 거를 췁여가지고.

103010 @ 음.

103010 #1 이거 보리냥이면 이거를 이렇게다 놔서.

103010 @ 예.

103010 #1 이렇게 낱은에게.

103010 @ 무경.

103010 #1 이렇게 무꿍니다. 이렇게 무꺼.

103010 @ 아, 보리 고고리 두 개 영 행은에.

103010 #1 예, 예.

103010 #1 게민 그거를 무슨 무께엔 험니까? 여기는 무생이 이런 거 안 험니까?

103010 #1 아니, 그냥 그냥 그자 보리로.

103010 @ 지께?

103010 #1 지께.

103010 @ 으, 지께. 게민 여기 깨도 틀영 허는 것도 잇어?

103010 #1 깨 틀언은 우리 아녀봤수다.

103010 @ 한번도 아녀봤수가? 보리헛 때.

103010 #1 예, 보리헛 때 보리 혼 줌은 너미 하고 흐꼬만 췁여근에 이렇게 돌려

다근에 영 뇌근앵게 이거 두 개민 짝제 헤근앵에 보리 무꺼난.
 103010 @ 게믄 거 지께로만.
 103010 #1 지께로.
 103010 @ 출 빌 때도 지께로 헤마씨?
 103010 #1 출 빌 때는 새 비여당은에 깨 틀렁.
 103010 @ 아아. 깨 틀렁.
 103010 #1 밤의, 밤의 깨 틀렁은에. 예 밤의 깨 틀렁은에 뒷날 무끄레 갑니다.
 103010 @ 게믄 그치룩허영은에 무꺼당.
 103010 #1 예.
 103010 @ 집의 왕은에 놀어마씨?
 103010 #1 집의 와근에 예, 집의 낱 놀어.
 103010 @ 아아, 맞되서 누는 건 아니고.
 103010 #1 맞되 안 눕니다. 집의 와양 ** 거니까 빠멍 **.
 103010 @ 게믄 아까 삼춘, 멧 바리헛저. 멧 바리 헛저 헛잖아예? 흐 바리가 멧
 못마씨?
 103010 #1 마은, 마은 못이 흐 바리.
 103010 @ 아, 보리도?
 103010 #1 예, 마흔 못이 흐 바리.
 103010 @ 게믄 보리 못이 크지 아녀켜예?
 103010 #1 크지 아넘니다게.
 103010 @ 예.
 103010 #1 크민게 늘젠 허민 곳. 늘질 못헤마씨. 늘지 못허여. 마은 못이 흐 바
 리.
 103010 @ 마은 못이 흐 바리에? 예. 아까 걸름착은 흐 바리허민 멧 개?
 103010 #1 걸름착은 나도 걸름착 그 어린 때도 걸름착 그 소 우티레 부짱은에게,
 부짱낫수다게.
 103010 @ 예.
 103010 #1 걸름착은 그거 저 흐번 시꺼가민 그저 흐 번.
 103010 @ 으.
 103010 #1 흐 번 시꺼가민 흐 번.
 103010 @ 두 개를?
 103010 #1 예, 두 개를. 양쪽에 하나씩.
 103010 @ 하나씩 예, 예.
 103010 #1 이 쪼끄믄 험니다게. 하지도 안 허여. 사름, 사름 들렁은앵에 우티레
 부짱. 소 우티레 부짱. 게난 두 사름이 상 부짱야 돼여마씨.
 103010 @ 음.
 103010 #1 양쪽으로.

103010 @ 예, 예.

103010 #1 딱허게 맞게. 걸름도 딱 맞아야 그 중심이 바르니까.. 중심을 발르게시리 허젠 허민 딱 맞게 걸름착에 그 걸름도 담양은에 두 사름이 부찌야 웨여. 절로 아버지 부찌곡 나도 일로 부찌곡.

103010 @ 양쪽으로.

103010 #1 예.

103010 @ 게믄 삼춘, 그거 그치룩허영 집에 보리 행 오면 놀 놀 거 아니라예?

103010 #1 예에.

103010 @ 삼춘네는 멧 놀이나 놀어봤수가?

103010 #1 두 놀.

103010 @ 두 놀. 보리 행 오면.

103010 #1 많이 놀어도 두 놀. 막 크게 누니까.

103011 @ 예, 게믄 그거는 이젠 홀트젠 허믄 어떤 식으로 헨마씨?

103011 #1 홀트젠 허민 우리 이디 어머니넨 클 두 개 낱 홀뜬니다.

103011 @ 아아.

103011 #1 클 두 개 놓면은 장남 둘리 빌곡 췌는 사름 혼 사름 이 뒤침이 할머니가 췌곡 나가 췌곡 또 그 홀타도 아니 홀타진 거 잇어마씨?

103011 #1 예.

103011 #1 경허민 낭 늑이는 사름.

103011 @ 음.

103011 #1 낭 그 저 영 보리 보리 홀튼 거 나오면은 낭 나오면은 고고리.

103011 @ 예.

103011 #1 고고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췌여가지고 췌여가지고 그것도 저레 딱로 낫당 저레 홀트곡. 경허멍 거 낭 늑이멍 덜 그 덜 홀타지니까 낭 늑이멍 경헤수다게.

103011 @ 그걸 낭 늑이텐 곶아예?

103011 #1 예. 낭 늑이멍.

103011 @ 안, 홀타지지 아녕 좃이는 거ㄴ라 낭 늑인다.

103011 #1 낭 늑이는 거.

103011 @ 예.

103011 #1 낭 늑이는 거.

103011 @ 그렇게 해서 낭 늑영은에 홀트면, 아까 보리클.

103011 #1 보리클.

103011 @ 산디클도 딱납니까?

103011 #1 산디클도 딱나곡 보리클도 딱나곡. 산디클은 흐뵂, 흐뵂 즘질아야 웨고 보리클은 흐뵂 훑어도 웨곡. 게난 이 클을 영허영 손ㄴ락가찌 이런 딜로 맥영영영 허니까.

103011 @ 예.

103011 #1 영영 허니까.

103011 @ 그걸 두 개씩 낳은에예.

103011 #1 예, 저 너무 보리가 많으니까.

103011 @ 으음.

103011 #1 그 낱씨나 어떻 굵엄직허민 여라 개 놔근에, 두 개 낳 허엿수다. 두 개 낳 허여봤수다.

103011 @ 예, 보리는 클로 말고 그 저기 도리깨 해갖고 허지 아념니까? 도깨로?

103011 #1 아, 그건 아녀봤수다.

103011 @ 아아.

103011 #1 그건 쪼꼬만헌 보리나 허주. 어디 그거 그거 헐 수가 잇수가? 쪼꼬만헌 보리나 허곡. 모멸이나 두드리곡.

103011 @ 도깨로?

103011 #1 예, 콩이나 두드리곡.

103011 @ 아아, 보리헐 때는 도깨?

103011 #1 보린 안 해봤수다.

103011 @ 삼춘네는 이제 그 클로만예?

103011 #1 우린 클로만 헛주.

103012 @ 그렇게 행은에 보리허면, 쓸 멘들젠 허민 어떻 헛수가?

103012 #1 쓸 멘들젠 허민?

103012 @ 음.

103012 #1 멘탁기 불러근에 멘탁기 불렁은에 보리 문딱 나와근에 보리 문딱 만 돌아낱 따시 이젠 그 기계가 저 무신거 옛날은게 어디 쓸 멘드는 기계가 잇엇수가 게? 엇으난게 소 메왕은에게 이렇게 맷돌. 맷돌 이만이헌 맷돌 잇지 아녀우과?

103012 @ 예.

103012 #1 그걸로 뱅뱅 돌려근엔에 초불, 초불 저근에.

103012 @ 예.

103012 #1 초불 물 서꺼근에 초불 정 따시 물류왕.

103012 @ 음.

103012 #1 물류와근엔에 바삭 물류와근엔에 그거 문딱 퍼뿔 푸는체로 문딱 퍼뿔 은엔에 따시 또 방에에 가근에 따시 따시 그걸 실러마씨. 실르는 거 그건. 두 번허는 거.

103012 @ 두 번 허는 거 실르는 거?

103012 #1 실러근에, 실러근엔에 이제 그 쓸 굵닥허게 만들양은에 밥헤먹어수다 게. 경허영 밥허영 먹어.

103012 @ 처음허는 거는 맷돌로 지는 거렌 허고?

103012 #1 처음엔 초불.

103012 @ 초불.

103012 #1 두불, 두불은 실르는 거.

103012 @ 실르는 거. 세불은 아녀마씨?

103012 #1 두불만 허민 깨끗허여.

103012 @ 아아, 두 번 허민 실르는 거.

103012 #1 두번 허민 곱닥허영은인 우린 경허영 밥헤먹어.

103012 @ 예, 예. 여기는 방에들이 하낫지예? 여긴 방엿돌노래도 잇는 동네난.

103012 #1 예게. 방에 요 안골목에서 서나고. 하지도 아녓수다 경.

103012 @ 음.

103012 #1 요, 요 안골목에 서근에 우리도 저 떡도 그디서 강 떡ㄹ레도 강 그디 강 헤오곡. 흐쉴 떨어정은에 잇곡. 경 헛주. 경 많이 엇어낫수다.

103012 @ 그 다음 경허영 방에지면 집에서 ㄹ레로 헤갓고 또 쪼개기도 해마씨?

103012 #1 예, 글레고, ㄹ레로 그거 거피는 거.

103012 @ 음.

103012 #1 ㄹ레로 저 살살허게 거평은앵에 그걸로 처음에 밥 행 먹어수다.

103012 @ 음.

103012 #1 처음에 밥헤 먹고. 그거 양, 그거 잘 실렁 실르난양 글지 아년, 글지 아년 밥이 더 맛십디다.

103012 @ 으음.

103012 #1 우리가 저 어머니네 집의서 허영은에 저 먹어보난 우린 어머니네 집 의 살 땐 올레에 방에가 시난, 올레에서 그 저 방에를 정 그 소. 나 다섯 슬 뉘난에 그 소 몰앗젠 험니다게. 게난 그치룩 경계 어린 때부터 경 착헛젠마썸게. 어린 때부터 큰 지레고.

103012 @ 음. 웃음.

103012 #1 웃음. 지레가. 지레도 열다섯에 큰 지레고.

103012 @ 게니까?

103012 #1 게난 너미 착헤여근앵에 일만 일만 드리 허단 보난에 영 헛수다마는.

103012 @ 음.

103012 #1 그런 저 곱닥허게 실르난양.

103012 @ 예.

103012 #1 밥이 맛 좋아 잘도. 풀풀헌게 우리 안 글안에 그냥 막 잘 실런 그냥 먹어낫수다.

103012 @ 아아.

103012 #1 소도 많이 질루고 들도 많이 질루난양 산에 간 놘근에 많이 질루단이 저 그 사삼사건 일어나난게 산에서게, 산에서 내부난게 그 사름네 다 잡아먹어 불언 하나 원, 들은 하나 못 봐나수다게. 많이 질환. 흐 멧, 흐 삼십 머리 이상 저 산에서 질루단 내불어수게게. 게영 소도 하영 질뤄마썸게.

103012 @ 으음.

103012 #1 소도 다섯 개씩 옛날에 그 놈의 집인 엇어도 우린 다섯 개 댓 개 대
으섯 개씩 질환 자 소막도 막 크게. 새막엔 험니다. 새막.

103012 @ 쉼막.

103012 #1 옛날은 새막. 이젠 소막.

103012 @ 으.

103012 #1 저 소막하고 이젠 그 소 하영 질루주마는 옛날은 소 경 하영 안 질뤄
낫수다게. 우린 아버지가 저 소를 많이 질뤄나수다게. 계난 걸름도 많아마썸. 걸름
도 만허고 밧도 하고. 겨난 욕심이 썬여가지고, 십오일을 갈아사 밧을 다 갈아마썸
게.

103012 @ 아아.(21:15)

103012 #1 계난 “아버지 밧 갈래 갑서.” 우리 저, 저 기수엔 현 건, 우리 저 우리
저 나 아래.

103012 @ 음.

103012 #1 두 설 차이로.

103012 @ 예.

103012 #1 나 아렌디. 두 설 차이 남즈 나 아래민 나보단 더 힘이 썬고 더 잘 헐
거 아니우과? 경허민 못허영.

103012 @ 음.

103012 #1 못허영. 못허영은에 걸름 내여오는다. 돛통. 돛통으로 걸름 내여오는
던 따시 따시 요만은 이보단 더 크지 아녀주. 경허여 놓난 양쪽으로 들러근에.

103012 @ 음.

103012 #1 저 혼쪽 동생 들르고 혼쪽 나 들르고 경허여근에 마당더레 내여왔수
다게.

103012 @ 음.

103012 #1 내여오민 막 스뭇 우리 동생은 울멍, 이제 생각허민 나가 무사 경헤저
신고. 경 그것도 못뭇 헤염젠 허멍. 가근앵에 쉼스랑으로 저 그 저 어디 강은에 돛
통에 강 쉼스랑으로 나가 곁체레 떠낱은앵에 그 동생이 떠 놓을 겨주마는 나가 떠
뉘근앵에 들르렌 혼착 들르렌 허영은에 그 요만이 현 딜로 나와근앵에 무사 그치룩
멀긴 험광게.

103012 @ 웃음.

103012 #1 옛날은 돛통을, 돛통광 칩간은 멀어사 좋덴 마씨.

103012 @ 예, 예.

103012 #1 그런 말 들어나 봄디가?

103012 @ 예예.

103012 #1 계난에게 돛통을 멀게 허민게, 그거 문 들렁 “아버지랑 밧 갈래 갑
셴.” 밧을 제게 갈아뉘 헉루라도 놀젠양.

103012 @ 예.

103012 #1 노는 시간이 엇어놓난. 놈 똥 좃으레 가는 것도 막 그치록 붙르고. 낭 허는. 낭 강 허여봐시민 막 경도 허어나고. 계난 우린 그 소낭빳이 잇어근에 소낭 해당은에게 멧 놀 놀어근엔에 소낭 빠멍 검질 저 그 밥을 헤 먹으난게. 그 강 낭이 나 헤여봐시민 어린 땐 경헤낫수다게.

103013 @ 음, 게든 삼춘, 그 보리쌀 헤여갓고는 무신 거 허영 먹어수가? 주로 보리 허면은?

103013 #1 보리 허민게 주로 밥게.

103013 @ 예.

103013 #1 주로 밥허곡 옛날은 제스 때에 보리쌀 곶앙근엔게 보리묵.

103013 @ 아아.

103013 #1 보리묵 헛수게게. 보리묵. 보리쌀 곶앙.

103013 @ 보리쌀 곶앙 보리묵예.

103013 #1 보리쌀 곶앙 보리묵헛수게.

103013 @ 보리묵은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과.

103013 #1 보리묵이나 이제 저 무신 거 그게 ㄴ르 카근에 저 물에 적당허게 이거 이거 똤겿다 저 다라에서 카근엔게 지정, 지정.

103013 @ 음.

103013 #1 저 이젠 후라이판이주마는 옛날은 그 저 솟두경.

103013 @ 으.

103013 #1 솟두경 검은 솟뚜경 그거 두집어 낳은에게 그거, 그것에 곱게 허영은에, 곱게 허영은엔에 문딱 찻라근엔에 겨영.

103013 @ 으음.

103013 #1 나가 제스 많이 헛수다게.

103013 @1 경허니까?

103013 #1 친정에서도 제스 많이 헛수다게. 제스가 너무 많아. 친정에도 제사 많이 헛수다게. 허단 보난 제사 한 디 와져수다.

103013 @ 계난 그 보리묵을, 여기는 모멸은 하영 안 갈앗수가? 이 동넨?

103013 #1 ㄴ멸 허기 전에.

103013 @ 아아.

103013 #1 ㄴ멸 허기 전의. ㄴ멸 나가난에 ㄴ멸 허영은엔에 저 묵허곡 허엿수다게. 계난 ㄴ멸 나기 전에.

103013 @ 아아.

103013 #1 그 옛날에. 어린 때에.

103013 @ 어린 때. 계난 그거를 보리 묵이렌 허는 거라예?

103013 #1 보리묵.

103013 @ 경허영은에 적고지에 이렇게 꿩영 허는 거.

103013 # 예게, 너개방장허게 썰영은에 적고지에 꿩영 저 아버지 어머니 저 밧디 가불어도 나가 제사를 출려마씨.

103013 @ 아아.

103013 #1 어린 때부터. 경헨게마는 종손칩의 와젓수다게.

103013 @ 계난 그때 배운 걸로 다 헨예?

103013 #1 나가 제사를 출려마씨.

103013 @ 개역은 안 해마씨? 개역은 언제 허는 거우과?

103013 #1 무시 거?

103013 @ 개역, 개역.

103013 #1 개영?

103013 @ 예, 개역.

103013 #1 개영은게, 그때, 그때 무신 거 셋수가? 무신 거 엇어놓민 뭐 늘래기, 뭐 돼지래기도 개영 해진 거 허연 기억도 나고. 이 같치는 아년덴 험니다게. 비늘 엇은 거난.

103013 @ 예.

103013 #1 비늘 잇어야 돼여. 비늘 신 래기 어찌다근앵 사당도 허곡, 주로 돼지래기 헛수다, 옛날에. 미역 놓고 돼지래기.

103013 @ 음.

103013 #1 주로 경헛수다게.

103013 @ 계민 보리헛 때 허면 그 보리 보깡은에?

103013 #1 미숫가루?

103013 @ 예.

103013 #1 아이고, 그거 주로.

103013 @ 건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과?

103013 #1 그거 저 무신 거 슬우리.

103013 @ 예.

103013 #1 것도 슬우리라사. 슬우리 그거 집의서 보깡. 집의서 보깡은에 곶앙 저 디 우리 줌진체 잇지 아넵디가? 그걸로 청은에. 그걸로 처근앵에 그 아래 거 그거 훑은 거는 딱시 곶곡 또 아래 거 치멍 그거 먹어수다. 옛날은.

103013 @ 옛날은 음?

103013 #1 방엿공장 안 난 때.

103013 @ 예.

103013 #1 안 난 땐 경헛수다게.

103013 @ 그걸 뒤편 해마씨? 요즘은 개역이렌 허주, 요즘은 미숫가루주만 옛날은?

103013 #1 개역. 보리 훑틀 때에.

103013 @ 예.

103013 #1 순다리 개역 그거벧긔 엇어수다. 옛날은. 거벧긔 엇언. 먹을 것이 무신 간식이 뭐 잇수가? 뭐 아무 것도 엇주게.

103014 @ 혹시 이제 그 보리 이제 수확 다 허면 타작 헤나면 예, 보리체도 잇일 거고, 보리쩍도 잇어실 거고.

103014 @ 예.

103014 #1 이걸 보리 그스락이영 이런 건 다 버리진 안 헛지 아녀우과?

103014 #1 아이고양, 그스락은 굴묵 짚고.

103014 @ 예.

103014 #1 그스락은 저 어디 눌엇다근에, 어디 굴묵엔 딱 담곡. 딱시 어디 눌엇 당은엔에 굴묵 짚고 다시 소가 많이 질루난에 그 소똥.

103014 @ 예.

103014 #1 소똥 저 내영은엔에 저 널른 디레 놔두민 뜰릅니다게. 뜰르민 그거에 서꺼근에양 서깁 굴묵 짚엇수다.

103014 @ 아아.

103014 #1 굴묵 짚으멍 살아수다.

103014 @ 계난 보리체는 뭐 헛수가? 체. 보리 굴아난 체?

103014 #1 보리 굴아난 체?

103014 @ 으.

103014 #1 보리 굴아난 체. 보리 굴아난 체 그건 돼지 주고. 돼지.

103014 @ 돼지 주고.

103014 #1 예, 도새기.

103014 @ 예, 도새기.

103014 #1 도새기, 도새기 주고.

103014 @ 그 다음에 보리낭은?

103014 #1 보리낭은 눌엇당은엔에 소 또꼬망에 깔아줘. 소 맨디 깔아줘.

103014 @ 소 맨디 깔아주곡예.

103014 #1 또 저 밥헤먹고 걸로.

103014 @ 아, 보리낭으로?

103014 #1 보리낭으로 밥 행 먹고. 똥으로 험니까? 보리낭으로 밥헤 먹단에 나중 에 또 유채 나난에 또 유채낭 시꺼낭 막 눌어근에, 유채낭 시꺼당 막 눌어근엔에 그거 빠멍. 아이고, 불 불도 못험니다 유채낭은. 일어나지 아녀.

103014 @ 아아.

103014 #1 일어나질 아녀, 잘.

103015 @ 삼춘은 이제 보리농사 지으멍 잊어불지 못허켜 험 기억 잇어마씨?

103015 #1 아이고, 잊어불지 못허켜 기억 그거, 그건.

103015 @ 하지예?

103015 #1 죽어야, 죽어야 잊어불주, 그거는 안 잊어불어.

103015 @ 어떤 거?

103015 #1 그 걸름. 걸름이 손 다 캐여요. 손이 다 캐여. 손이 피가 막 나. 다 캐영.

103015 @ 음.

103015 #1 그 바짝허영은에 얼봐부렇게 아척이 일어남 얼민 바짝허영 걸름을 못 놔마씨. 그것이 너무, 너무 지나치게 헤진 거 닻아.

103015 @ 계난 그 보리 걸름행은에 뿌려난 거예?

103015 #1 예. 예.

103015 @ 보리씨 뿌릴 때예?

103015 #1 그거 저 담젠 헤도 아멩이나 경 담아지카, 아래 땅에 놓은 거니까.

103015 @ 예, 예.

103015 #1 땅에 놓은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닻아. 영 앓앙, 영 앓앙은에 영 허영 담앙은에 일어사근영 그거를.

103015 @ 그 글체에예?

103015 #1 예.

103015 @ 그뎨 무신 글체마씨? 거는?

103015 #1 저 대글체.

103015 @ 대글체로?

103015 #1 글체, 대글체.

103015 @ 으음.

103015 #1 이제는 대글체 엇읍니다. 잘.

103015 @ 기지예?

103015 #1 이젠 췌글체.

103015 @ 췌글체.

103015 #1 췌글체. 췌글체덜 하영 나고 정동으로 즐앙 나주. 대글체 옛날은 그 대왓이 많으니까.

103015 @ 으음.

103015 #1 대왓이 만허니까 그 옛날 하르방덜은게 구덕도 잘 즐곡 대로 저 무신 거 아기구덕도 대로 즐고.

103015 @ 예, 예.

103015 #1 차룽 ㄱ튼 거, 그 저 글체 ㄱ튼 건 대로만 주로 즐읍니다.

103015 @ 아아, 대로예 글체도예.

103015 #1 우리 아버지도 다 글체도 즐고 다 허난에 다.

103015 @ 계민 집에서 다 만들영 쓰는 거구나예?

103015 #1 집의서 만들앙마씨. 만들앙. 구덕도 집의서 만들고 옛날에. 그자 곱진 안 허고마씨. 곱진 아녀고게.

조 농사

103016 @ 게문, 경허영은에 보린 짓고, 그 다음에 조도 하영 갈았지예?

103016 #1 조오?

103016 @ 으, 조 갈젠 허민 무신 게 필요허는 거우과?

103016 #1 조 갈젠 허민 저 들.

103016 @ 으.

103016 #1 그 곳인 밧디는 그렇게 안 불려도 돼는디 거시림조팓.

103016 @ 예.

103016 #1 거시림, 다른 디 어지렁허게 저 밧 곳인 디는 가근엥엥에 갈아근엥에 대강 불령 내부는디 거시림조팓은 이 마 넘어 가사. 마 넘어 가사 나중에양.

103016 @ 예.

103016 #1 나중에 마 나와가면은 그 들 한 집의, 들 한 집의 그 텃들 몰아당은엥에 텃들 빌어당.

103016 @ 예.

103016 #1 이제 흐루 불르민 언마? 경허영 빌어당은에 그 들 저 하나만 심으민 뱅뱅 돌아마썸게.

103016 @ 예.

103016 # 돌민, 벳것딜로 믈는 사름. 안으로 안으로 저 들 어러러러러러러 어러러러러러러 어러러허민 들들이 다 좇아가마썸게. 다 좇아강 그치록 거시림조팓 허영은에게 허민 조도 잘 돼곡 검질도 빨리 메여줘야 돼곡.

103016 @ 음.

103016 #1 경허영은엥에 허고. 곳인 밧된 그자 대강 불령 내불곡. 이녁 소로, 이녁 소 몇 개 허민 영 옛매영.

103016 @ 음. 예, 예.

103016 #1 소도. 큰소 이디 메면은 이쪽에 하나 이 모가지레 메곡 딱시 하나 또 모가지레 메곡 경혜근에.

103016 @ 게민 영 나란히?

103016 #1 나란히 하나씩 영 나란히 허영 앞의 하나 이끄곡 뒤에서 몰곡.

103016 @ 음.

103016 #1 경혜여근엥에 곳인밧은 경혜여근에 대강 불립니다.

103016 @ 예.

103016 #1 대강 불리곡 그 좋은 밧은 잘 불리민 씨가 거슬영 씨가 안 나마씨.

103016 @ 아아.

103016 #1 씨가 안 나근에 저 박 구장엔 현 어른 이제 죽건디 으라 해 뵈주마는 그디가 막 들을 하난 우리 그딧 들 빌어당 거시림조팓 불렸수다게. 게난 들덜토 경 불려나난 말을 잘 들은엥에 그 소리 들으멍 다 그 저 갑니다게. 가. 경허영 직깍 불려사마썸. 직깍 불려.

103016 @ 계믄 아까 거시림조팍이렌 헛잖아 삼춘예? 그 거시림조팍은 어떤 거를 거시림조팍이렌 허는 거마씨?

103016 #1 아, 거 좋은 밧되 허는 거.

103016 @ 예.

103016 #1 좋은 밧되 거시림조팍 허여야 웬다. 경혜영 질 각에사. 다른 디 농스 조도 같고 문 뒤 콩도 같꼭 문딱 헤뒤근에 질 말제에 헉디다. 질 말제에 헉디다. 질.

103016 @ 계믄 그때는 밧을 흥번 갈앙 놔두마씨?

103016 #1 갈앙은에.

103016 @ 으, 나뵤당?

103016 #1 갈앙은앵에 씨 빼영.

103016 @ 음.

103016 #1 저 그때 갈앙. 아시날 갈앙은에 저 씨 빼명 그날 불러마씨.

103016 @ 아아.

103016 #1 그날 불러마씨?

103016 @ 전날, 이제 아시날 헤갓고예?

103016 #1 아시날 갈앙 밧이 크니까.

103017 @ 음, 조팍도 걸름해야 뵤마씨?

103017 #1 아니.

103017 @ 아, 조팍은 걸름 안 헤예?

103017 #1 조팍은 걸름 아넛수다.

103017 @ 예.

103017 #1 걸름 험 게 어디 잇수가? 조팍딘 걸름 아넛니다.

103018 @ 조는 언제 가는 거마씨? 계믄.

103018 #1 조?

103018 @ 예.

103018 #1 존, 존 어 존 삼월들에, 삼월들에 조 갈아 난 거 닙은디.

103018 @ 음력 삼월예?

103018 #1 예, 음력, 음력. 언제나 음력에 그, 저 농사는 음력에 헤마씨.

103018 @ 음력에 허난예?

103018 #1 삼월들에 저 문딱 갈아마씨. 삼월들에.

103019 @ 계난 줍씨는 어떤 식으로 빼여마씨?

103019 #1 줍씨는 손으로.

103019 @ 아, 손으로.

103019 #1 손으로 저 무시거 그 저 그 짝으로 즐은 그 망텡이.

103019 @ 예.

103019 #1 망텡이 쪼끄만헌 거 두러메여가지고 그 손으로 줍씨 빼여마씨.

103019 @ 음.
103019 #1 줍씨 골로로. 영 저 눈으로 보명.
103019 @ 예.
103019 #1 골로로 문딱 뿌려근에.
103019 @ 망텅이에 담양?
103019 #1 망텅이에 담양.
103019 @ 망텅이.
103019 #1 망텅이가 아니고 저 그 저 거 일름을 몰란 다 못 골암저. 것ㄴ라 그 일름이 신디.
103019 @ 밀망텅이?
103019 #1 멜망텅이?
103019 @ 멜망텅이.
103019 #1 멜망텅이.
103019 @ 메는 거예?
103019 #1 메는 거. 쟈그만헌 거. 쟈ㄸ만헌 거.
103019 @ 예.
103019 #1 그런 거에.
103019 @ 거에 줍씨 냇은에 이제.
103019 #1 줍씨 냇은에.
103019 @ 게문 이렇게 빼여. 건 누게가 보통 빼여마씨?
103019 #1 예, 예. 그건 아버지가 빼고 어머니가 빼고, 어머니 잘 안 빼여마씨. 아버지가 잘 빼주.
103019 @ 아아, 아버지가예?
103019 #1 씨집은 오난 나가 다 씨 뿌리고.
103019 @ 씨집을 오니까 삼춘이 다 빼고.
103019 #1 나가 다 뿌리고. 아저씨는 일체 몰르고.
103020 @ 음, 게문 여기에 그 조팻 이제 불를 때에예, 조 씨 빼영 불라알 거 아니우과예? 게문 아까 이제 텃물 빌영 허곡. 텃물 말양 여기 저기 남테 이런 것도 헤낫수가?
103020 #1 냇으로, 저 섬비질, 섬비질.
103020 @ 섬비질?
103020 #1 섬비질. 섬비.
103020 @ 여기는 섬비?
103020 #1 섬비, 섬비는 조팻디 허질 안 허고.
103020 @ 예.
103020 #1 ㄴ 멀씨 뿌령은앵에, ㄴ 멀씨 뿌령 걸로 꺾읍니다.
103020 @ 아아.

103020 # 1 예, 그런 걸로 저 낚으민 뵙니다.

103020 @ 여기는 텃밭이나 그 저리 메왕은에 헛구나예?

103020 #1 예, 예.

103020 @ 계문 여기 혹시 그 나무에 해갓고 영 쌀 박양은에 허는 거는 안 봐판 마씨?

103020 #1 나무에 허영 영 낚는 거?

103020 @ 으.

103020 #1 아, 그거는 아녀봣수다.

103020 @ 여기는 안 해판엔?

103020 #1 예 그건 안 해봣수다.

103020 @ 남테여 들테여 이런 말은 안 들어봣수가?

103020 #1 아, 그건 안 들어 봣수다.

103020 @ 그건 안 들어판.

103020 #1 섬비. 주로 섬비.

103020 @ 섬비?

103020 #1 저 무신 거 그 고랑에, 고랑에 무시거 놔도 저 섬비 그 저 개짱냥 끊 어당은엔에 나냥으로 이 즐마매영근에 즐즐즐즐 고랑으로 낚어마썸게. 경허멍 살아 수다게.

103020 @ 삼춘이 직접 즐마멩은에?

103020 #1 예. 뵘으로 즐마매영은에 등땡이로 영 해근에 저 뵘으로 영 끍, 끍 건 어당은에 뵘 무경은엔에 뵘 두러메여근엔에.

103020 @ 음.

103020 #1 낚으멍 살아수다.

103020 @ 계난 그 섬비에 영 돌도 영 올려놓고 허짱넙니까?

103020 #1 돌도 올려놓고.

103020 @ 올리는 거는 뵘렌 허여? 돌 지둘리는 거?

103020 #1 돌, 돌. 돌멩이 그 세 밧뵘 지둘라야 뵘여.

103020 @ 예.

103020 #1 요만이 섬비가 크니까.

103020 @ 예.

103020 #1 두 고진 낚어. 이디 하나 이디 하나 영 딱허게 알러레 부뜨게.

103020 @ 예. 부뜨게.

103020 #1 무거와마씨?

103020 @ 개짱냥이 좋아양?

103020 #1 개짱냥.

103020 @ 음.

103020 #1 개짱냥 저 늘 거 낚어당은에.

103021 @ 예, 조팃 검질은 쥔 힘든 거 아니예?

103021 #1 조팃 검질?

103021 @ 예.

103021 #1 조팃 검질이고 콩 검질이고 콩 검질은 나중에 매는 따문 질 힘듭니다. 콩 검질 감저 검질이 힘들주, 조팃 검질은.

103021 @ 으.

103021 #1 뜨거와, 뜨거와. 저 조팃이 조가 요만이 헤사사 매는 따문에 뜨거우민 그때 양발이 싣수가? 양발이 없으니까 신을 신으면은 그 줄 다 불러지니까 맨발에 허민 뜨거와가지고 검질메영 혼 줌 놔근에 그레 디덩은에 무너얏고.

103021 @ 음. 웃음.

103021 #1 그치룩헛수다게.

103021 @ 게든 삼춘예? 조팃도 보면, 웨 줍씨 갈면 씨들 이렇게 나오지 아념니까? 하나만 허면 침 박앗져 이런 말도 들어뵈디가?

103021 #1 그런 건 아니.

103021 @ 그런 말은 안 들어보고?

103021 #1 그런 건 안 들어뵈.

103021 #1 게든 조팃 검질은 멧 번 맵니까?

103021 #1 식불도 매고 두불도 매곡.

103021 @ 으. 맨처음 현 거는 스끄는 거?

103021 #1 맨 처음 허는 건 초불, 두불, 두불, 주로 두불 맷수다.

103021 @ 초불 검질헛 때는 어떤 거 매는 거마씨?

103021 #1 초불허는 건 스끄는 거. 요만씩 사이. 게난 그 영허여근에 흐뵈만 헤영 손 들영 매면은.

103021 @ 음.

103021 #1 그 높은 조가 노랑헤근에 누게 멘 거 다 알아져마씨?

103021 @ 아아.

103021 #1 게난 손으로 팍팍허게 이 골갱이 디밀양 팍팍 맨 디는 그 높으 조가 거명케, 다, 다. 누게 멘 거 다 알아집니다.

103021 @ 으으.

103021 #1 저 팍팍허게 팍팍 매줘사 그게 흐뵈 흑도 올려주곡 허영은에 좋은 상이라마씨. 우리가 헤여 보면은.

103021 @ 으으.

103021 #1 경헤근에 누게 멘 거 다 알아집네다. 우으로 영허영 손으로 매는 체만 마는 체만 허는 건양 노랑허영 안 좋아마썸.

103021 @ 아아.

103021 #1 예, 팍팍허게 그 우로 매어줘사.

103022 @ 게든 그 조 헛 때는 검질은 또 어떤 거 нама씨? 그때는.

103022 #1 조?

103022 @ 예.

103022 #1 조는 여름검질. 나 불렀시냐. ** 불르는 생이여. 저 여름검질 그 옛날은 여름 검질은 또 이상헌 검질 이제, 이제보다는 안 낫수다.

103022 @ 음.

103022 #1 이제보다는 안 나고. 그 저 무슨. 으음.

103022 @ 검질 일름?

103022 #1 여름 검질 일름 몰랑 이제.

103022 @ 이땅 뜰내봅서. ** 웃음.

103022 #1 이제 막 낫수다. 나신이 거 일름 몰랑은에.

103022 @ 생각나지 안 허맨?

103022 #1 일름을 몰람신게.

103023 @ 예, 나중에 이제 생각해보고예? 조 수확은 언제 허는 거마씨?

103023 #1 조 수확 가을에.

103023 @ 아, 가을에.

103023 #1 예.

103023 @ 그때는 어떻 수확허젠 허면 준비행 가는 건 또 뭐? 또 호미도 가정가야 돼곡.

103023 #1 호미. 호미. 하나만 ㄴ지믄 돼여.

103023 @ 게믄 그거는 무신 걸로 무껏수장?

103023 #1 그거는 깨 털영.

103023 @ 으.

103023 #1 예, 새 비여당 깨 털영 무꺼야마씨.

103023 @ 이거는 깨 털영 무끄고예.

103023 #1 예, 깨 털영 무끄고예?

103023 @ 무끄면 이거는 밧되서 저기 타작을 허는 거우과 아니면 집에 가져오는 거우과?

103023 #1 집에 다 시꺼와야 돼마씨?

103023 @ 이것도?

103023 #1 집의 다 시꺼당은에 하나 하나 다 이렇게 췌영. 호미는 이렇게 놔가지고 호미를 이렇게 놓면은 호미가 이렇게 올라오지 아녜니까?

103023 @ 거꾸로?

103023 #1 올라오민 영허민 하나씩 이렇게 헤영 찢라마씨. 고고리만 다 찢라놔.

103023 @ 아아.

103023 #1 남뎡이는 이레 두고. 남뎡이를 다 무꺼근에 이 거 소출, 거 소출로.

103024 @ 남뎡이는예.

103024 #1 남뎡이로 소출허는 거마씨.

103025 @ 조 테작힐 때는 어떤 식으로 허는 거?

103025 #1 조 테작힐 때예?

103025 @ 예.

103025 #1 그 저 흐꼬만 헌 거는 이 저 도께로 허고.

103025 @ 예.

103025 #1 불러마씨. 주로 불러.

103025 @ 아, 뭘로?

103025 #1 소. 소 메왕 불리민 그 똥이나 오줌이나 싸젠 허민 손뼉.

103025 @ 예.

103025 #1 손뼉 그 조름에 신 사름은 손뼉 확 받지 아녀민 솔뻍 확 받지 아녀민 그레 오줌 싸 불 거 아니우과?

103025 @ 예에.

103025 #1 경허영 허는 따문 그거 저 힘들어마씨.

103025 @ 예, 그치룩 불린 다음에는?

103025 #1 저 나중에라 가난양?

103025 @ 예.

103025 #1 그 저 뭉뻍이.

103025 @ 음.

103025 #1 뭉뻍이 이렇게 영 저 그 저 이 인칙 곤지 아녘디가?

103025 @ 예.

103025 #1 그디 강은에 솔뻍에, 솔뻍에 혼 고고리 혼 다섯 개만 놔근에 츠지허영 자기가 허젠허민 미리 어평 놔뉘야뉘마씨?

103025 @ 예.

103025 #1 미리 어평 놔뉘다근에 그 뭉뻍이서, 나중에 뭉뻍이서양, 뭉뻍이서 뻍 뻍 돌멍 손으로 영영 올리멍 골로로 저 안네 들어간 거 영허곡 헤영 골로로 그 뭉뻍이서 뻍뻍 돌리멍 그거 문뻍 그거 저 못아근에 그디서 못아근에 담아다근에 그거 저 얼뻍이로, 얼뻍이 이만인 얼뻍이로 청. 따시 밤의 문뻍 그 푸는체로 다 푸 곡.

103025 @ 으음.

103025 #1 경혜수게.

103025 @ 예에. 그런 식으로 이제 행은에 허고, 나중에 덩드렁마께로도 뉘 헤신 가마씨? 조 험 때.

103025 #1 덩드렁마께론 흐뻍씩 헌 거게. 흐뻍씩 헌 거 못앗주 큰 건 못합니다. 하영 헌 건.

103025 @ 그거는 안 허고예? 조는 어떤 종류덜 잇어신고예?

103025 #1 존 모인줍살.

103025 @ 음.

103025 #1 옛날은 주로 모인좁쌀양. 경허단 나중에라가난 흐린좁쌀양. 흐린좁쌀, 흐린좁쌀 허여근앵에 이 저 걸름 낼 때 ㄱ뎡 때에 그 보리쌀 농곡 그 흐린좁쌀 놔 근앵에 밥허영은에 장남덜 안네수다게.

103025 @ 예.

103025 #1 장남덜 안넨. 그 곤쌀이 엇으난.

103025 @ 예.

103025 #1 나중에라가난 또 곤쌀 밧디 허연예양?

103025 @ 으.

103025 #1 산디. 나룩이 아니고 산디. 산디 허영은에 그 저 그치룩 경 힘든 일 헐 때에 ㄴ뎡 저 아버지 ㄴ 그치룩 허여들입디다게.

103025 @ 으음.

103025 #1 보리쌀 농고 곤쌀 농고 흐린좁쌀 농곡 허영 경 허연 허여들입디다게.

103026 @ 계난 좁쌀헌 걸로는 뭘 주로 허영 먹은 거라마씨? 좁쌀로는?

103026 #1 좁쌀?

103026 @ 예.

103026 #1 좁쌀 옛날은 엇으난 감저도 낱은앵에 그 감저 숲당은앵에 좁쌀 낱 밥도 허고.

103026 @ 음.

103026 #1 또 좁쌀로 그자 밥도 보리쌀 놔근앵예 허곡. 밧이 농장이 하난.

103026 @ 음.

103026 #1 저 보리쌀 숲당 좁쌀 낱 허민 뵈 거 아니우과? 경허영 밥헤영 먹엇수 다게.

103026 @ 좁쌀로는 술도 허지 아녜니까?

103026 #1 수울. 그 저 무신 거 흐린좁쌀.

103026 @ 예.

103026 #1 흐린좁쌀헤여근에 오메기. 아이고, 나도 멧 번 헛수다게. 그 저 이, 저 체 지나젠 허민 그거 청주, 청주라고 청주허여야마씨.

103026 @ 예.

103026 #1 청주허여근앵에 그 우의 거, 우의 건 똥라근앵에 유리병에 저 이수팽. 이수팽엔 험니다. 거 옛날에.

103026 @ 예.

103026 #1 이수팽에 이만은헌 평에 질영은에 청주 질어근에 청주허여근에 제 지 네레 가곡.

103026 @ 으음.

103026 #1 경 저 이장이나 허민 큰제를 맡으면은 그 허여사마썸. 그런 거 허곡. 이장을 아녀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거 그거허영 버글버글 퀘여가면은 저 그거 먹어수다게. 그거 저 우리 집의도, 우리 집의 아저씨도 그거 좋아허난에 그거 경허면

서 드리 먹어수다게.

103026 @ 경허영 술도 하고예, 떡도 해여실 거 아니우과? 줍쌀로.

103026 #1 줍쌀로 떡허고 말곡 줍쌀로 허엿수다게. 줍쌀로 떡 허엿주기 춤.

103026 @ 무신 떡 허엿수가?

103026 #1 동글락허게. 동골락떡.

103026 @ 음.

103026 #1 동글락허게 영영영영 동글락허게 멘들양근에 물에 솥양.

103026 @ 줍쌀로도예? 아아.

103026 #1 줍쌀로도 물에 솥양 허고 보리, 보리 곶양은에 딱시 저 돌레떡도 허고.

103026 @ 음.

103026 #1 옛날에 무신 먹을 게 잇수가게?

103026 @ 아까 줍쌀로 동글락허게 멘든 떡 무신 떡이라? 떡 이름은마씨?
(전화 잡음)

103026 @ 그 떡 이름 뭐우과?

103026 #1 돌레떡.

103026 @ 아, 그냥 것도 게문 것도 조돌레우과? 게문?

103026 #1 예, 돌레떡, 돌레떡.

103026 @ 아, 줍쌀돌레? 조돌레 아아, 감주도 해실 거고예?

103026 #1 감주사 옛날 감주게 술 엿어부난.

103026 @ 예.

103026 #1 감주도 허곡게.

103026 @ 계난 조 간 게 이제 소용이 하다예? 이것저것 쓸 게예?

103026 #1 계난 그건 농사 정은에 건 다 먹는 거마썸게. 먹는 거. 다 이거 허엿당 저거 허엿당 먹는 거.

103027 @ 그 조낭뎡이?

103027 #1 아니, 조낭뎡인 소 주고.

103027 @ 건 소 주는거예?

103027 #1 건 췌 주는 거. 건 소가 아니고 췌.

103027 @ 췌?

103027 #1 세 다 저레 막 늘엿당 새 빠멍 다 주는 거마씨?

103028 @ 예, 그 다음에 조 농사 지을 때예, 잊어불지 못허는 것도 잇수가?

103028 #1 양?

103028 @ 조 농사 지을 때 잊어불지 못허는 거. 아이고, 나 이거 지겹다허는?

103028 #1 아, 그거는 전통으로 허는 거니까. 전통으로 허니까 이거 허여사 우리가 먹고 살 거난.

103028 @ 음.

103028 #1 그건 허여야 돼겠다, 이 बात을, 이 बात을 어떻 다 같코? 어떻 검질 다 메코? 열다섯 나난에 남자덜 남즈, 남즈 빌어당 남즈영 다 수눌멍 검질멧수다 나.

103028 @ 음.

103028 #1 장남질허연마씨. 장남질.

103028 @ 장남질허연예?

103028 #1 남즈덜 막 스뭇 어른덜 빌어당은앵에. 어른덜이영 총각이영 총각덜 문 허여당은에 저 수눌영 메엇수다게.

103028 @ 이 아저씨도 완 메연마씨?

103028 #1 이 아저씨 बात 간 बात된 안 갓수다. (웃음). 와불언, 와불언.

103028 @ 와불언?

103028 #1 게난 누게가 흐뭇 흐뭇 베리는 사름 영 이녁 생각으로만 영 생각헤여 근앵에 이 사름은 어떤 뭇엔 곤젠 험신가 허는 사름신딘 가질 아년마씨.

콩 농사

103029 @ 콩농사도, 콩도 하영 같안마씨?

103029 #1 예게. 콩은 도깨로 두드리고.

103029 @ 음, 건 언제 허는 겨우과? 뭇가 필요헤? 콩농사 허젠 허면?

103029 #1 콩농사헐 때엔 그냥 콩씨 뿌렁은에게 बात만 갈민 돼는 거마씨.

103030 @ 건 흐뭇 쉬운 거예.

103030 #1 콩씨 뿌렁 बात만 갈민 돼는 거.

103030 @ 건 언제 갈아마씨? 콩은?

103030 #1 콩 삼월들에 다 갈아.

103030 @ 그것도 삼월에. 아까 콩밭 메는 게 쥔 힘들엇던 허명예?

103030 #1 콩밭은 말째 메난 절완이.

103030 @ 예.

103030 #1 절완이가 스뭇 텅에 틀영은에에 절완이 등기젠 허민 힘들영은앵에 막 커근에.

103030 @ 음.

103030 #1 막경 등겨가민 이거 고구마 드는 것이 나와불어마씨?

103030 @ 으음.

103030 #1 나와 불어. 복콜. 인척 조에, 조에.

103030 @ 조에 복콜?

103030 #1 복콜.

103030 @ 예, 복콜.

103030 #1 복콜이 주로 많이 납디다게.

103030 @ 예, 예, 예.

103030 #1 여름에 가는 거. 이젠 벨 거 다 나옵니다, 검질. 이제가 더 하 검질 씨

가. 씨가 모르는 것이 하.

103030 @ 아아,

103030 #1 옛날은 일름을 다 알아지는 풀이라신디 이젠 모르는 풀이 많아. 모르는 풀이 저 과수원에 간 보면은.

103030 @ 서양에서 들어온 것덜 하영 잇어예?

103030 #1 게난 저 우리 큰아들, 이거양 저 비료에 오는 거 아니우광? 비료에.

103030 @ 음.

103030 #1 비료에.

103030 @ 목초씨영 ㄴ치 나오고.

103030 #1 새가 너미 만허여 놓니까 새 똥 막 싸놓민 맨 검질. 매당 봐도 검질. 제초제 허당 봐도 검질. 이젠 제초제 시난 살암주.

103031 @ 예, 진짜 맞아예. 콩밭디도 걸름은 안 허지예? 콩밭디.

103031 #1 콩밭디 걸름 안 험니다게.

103032 @ 콩밭디도 걸름 안 허고예.

103032 #1 걸름이 어디 잇수가?

103032 @ 아까 콩, 콩씨는 그냥 빼여?

103032 #1 예, 기냥 빼여. 기냥 빼여근에 그냥 갑니다.

103032 @ 예, 그것도 씨맹텡이 헤영은에 험니까?

103032 #1 예, 예. 그 망텡이 언제나 어디 들아멧당 낫당 씨 뿌리는 거.

103032 #1 씨 뿌리는 거.

103033 @ 콩밭 검질은 멧 번 메여마씨?

103033 #1 콩밭은 흔 번.

103033 @ 흔 번. 예, 흔 번허고.

103033 #1 고구마밭도 흔 번.

103033 @ 예.

103033 #1 너미 일이 만허여 놓니까 조 검질에만 저 조만 깨끗이 잘 허여야 웬 덴.

103033 @ 예.

103033 #1 그자 조 검질만 두불.

103034 @ 콩밭 검질 아까 절완이허고?

103034 #1 절완이 주로. 주로 절완이. 절완이허고 절완이허고 복쿨.

103034 @ 복쿨이 **.

103034 #1 복쿨이 경 합디다게, 옛날에.

103035 @ 예, 그다음에 게믈 콩은 수확허젠 허민 어떤 식으로 허는 거마씨?

103035 #1 콩은 손으로. 그 저 호미로 꺼꺼야 돼여마썸.

103035 @ 이견 호미로 꺼끄는 거?

103035 #1 호미로 꺼꺼근에 영 툯툯 낡은에 허민. 그것도 날라오젠 허민 또 그

두드릴 디 밧되서 두드려야 돼여마씨.

103035 @ 아아.

103035 #1 밧되서 두드리젠 허난 날라오젠 허민 힘들어.

(잡담)

103035 #1 양, 지슬 팟수게. 지슬 판.

103035 #2 어떠난 안 으져감신고.

103035 #1 나 으져가젠 허단에 이 소님덜 완 못 으져간.

103035 #2 저번에 와난.

103035 #1 아이고, 그거.

103035 @ 다른 차

103035 @2 빌려 간 거예? 다음에 갖다 주쿠다예.

103035 # 지슬 으져 읍디가?

103035 #2 나도 흔 사발 으져완.

103035 #1 지슬 으져완.

103035 #2 난 궂세사 갖주게. 화순 간에 저 무신 거 화순에 병원에 아판 병원에 간 노인당으로 혜연에 병원에 간 왓주게.

103035 #1 게난 저 떡 먹읍서.

103035 #2 안 떡젠. 아판.

103035 #1 밧되 간 그거 궂이레 가젠 허당 이땅 강

103035 #2 아니. 아프덴 아프덴.

103035 @ 흐뵂 잇당 허게마씨. 웃음.

103035 #1 게든 조용허영 앓아십서.

4. 들일

소 기르기

104001 @ 삼춘, 옛날 췌 하영 질랏덴 허난.

104001 #1 예.

104001 @ 옛날 췌는 어떤 식으로 질환마씨?

104001 #1 췌?

104001 @ 으.

104001 #1 새끼 나는 거.

104001 @ 음.

104001 #1 좋은 거로 허영은에 우리 아버지는 소 장서도 흐뵂 헛수다.

104001 @ 음.

104001 #1 소장서 옛날 그 저 것ㄴ라 뭇엔 현다마는 일름을 곱아야 돼는데.

104001 @ 예.

104001 #1 전대, 전대.

104001 @ 예.

104001 #1 전대, 전대 멘들양은에양. 옛날은양, 이제는 카드 옷곡 허민 얼마든지 장사허곡 돈 물 수 있지 아녀우과? 견디 전대엔 현 거 영 만들안에 돈 담아근앵에 이디 찬 텅깁디다게.

104001 @ 허리에 창예?

104001 #1 전대. 전대에 현 거 만들안에 그거 허리에 창 텅기명 소 장설 허는디, 그 소를 저 가꾸젠 허민 출밭도 많이, 출도양 늙 빌영 많이 허여와야 돼여마씨.

104001 @ 예.

104001 #1 많이 허여 와야 소도 가꾸주. 그거 소도 좋은 걸로 질루와근에 새끼 내와근앵에 그거 너미 많으민 풀곡.

104001 @ 음.

104001 #1 경허영 그걸로 생활허주. 무신 돈 날 것 싯수가? 옛날에사.

104002 @ 혹시 쉼도 종류 알아지쿠과? 어떤 무슨 쉼여, 무슨 쉼여 헤갓고. 암쉼?

104002 #1 종류?

104002 @ 으.

104002 #1 저 종류는게 저 미국쉼덜 옛날은 미국쉼 들어와근에. 우리도 저 그 쉼 쉼. 쉼쉼은 우리도 쉼쉼, 쉼쉼 질환 살앗수다. 처음에.

104002 @ 예.

104002 #1 처음에 저 결혼허연 오란에 쉼쉼은 그 저 부룽이.

104002 @ 음.

104002 #1 부룽이 저 어떻 컴직현 거 허영은에 그거를 질뤄근앵에 그거를 얼마 받안 풀안. 경허영 쉼쉼 멧 개 서너 개씩 질뤄근앵에 저 풀양은에게 과수원도 허고 경헛수다게. 게난 과수원 경 성 안 둘러도 웨는디 돌맹이로 안 싸도 웨는디.

104002 @ 음.

104002 #1 그 제꾼. 영허영 저 돌 싸레 텅기는 제꾼.

104002 @ 예.

104002 #1 그 사름덜 빌영은에양 돌 싸근에 허여봤수다. 경허연 허단 이젠 뭐 다 뭐 텅 내불어도 웨는디. 경헤연 쉼쉼도 우리, 우리도 쉼쉼 질뤄봐수다. 쉼쉼 질루고 그 저 출도 많이 헤야 돼여마썸. 출도. 출도 하영허고 또 먹을 거도 잘 쥐야 쉼쉼가 웨는 거마씨. 먹을 것도.

104002 @ 혹시 쉼 영 빨 모양에 따랑은에 이름 불르는 것도 들어봅디가?

104002 #1 빨 모양에 딸랑은 이름은 몰르고.

104002 @ 건 모르고예?

104002 #1 빨 모양에 딱랑은에.

104002 @ 암쉼영 부룽이영.

104002 #1 부릉이 암쇄 그거 그자. 그거 구분. 구분은 그거고.
104002 @ 옛날도 검은쇄털도 있어난마씨?
104002 #1 검은암쇄. 검은민 검은암쇄. 거 또 부릉이도 검은민 검은부릉이. 노랑 부릉이 그치록 그렇게 불러놔수다.
104003 @ 음, 노랑부릉이에, 예. 쇠는 주로 어떨 때 사용허는 거마씨? 이제.
104003 #1 쇠. 옛날?
104003 @ 예.
104003 #1 밧 갈곡.
104003 @ 음.
104003 #1 밧갈곡 내끼 내우곡. 주로 그겹주게.
104003 @ 짐 시끄곡.
104003 #1 예, 짐 시끄고. 저 구루마, 구루마. 그 옛날 구루마 잊지 아녀우과?
104003 @ 예, 예.
104003 #1 그 구루마 나중애라가난 고무 구루마 나난 좋읍디다마는.
104003 @ 음.
104003 #1 구루마 구루마 허영근앵에 소도 저 나쁜 것도 안 질뤄놔수다. 우린. 좋은 걸로만. 아버지도 좋은 거 질루고 우리도 좋은 거만 질루고. 경 나쁜 건 안 허 영 등치도 좋곡. 곧 걸로만 질뤄놔수다. 노랑암쇄, 노랑암쇄 ㄱ쁜 거 그런 거 질뤄 새끼내와근앵에 잘 멕이곡 허영은에 새끼 내와도 잘 멕여사 잘 멕여사 새끼도 잘 날 거 아녀우과?
104003 @ 예.
104003 #1 계난애 저 즐지도 안 허고.
104003 @ 밧 가는 것은 주로, 것도 암쇄로 갈아마씨? 밧은?
104003 #1 부릉이 시민 부릉이로 갈곡. 암쇄 시민 암쇄로 갈곡. 그 미국쇄. 미국 쇠 오라근에앵 미굴쇄 질뤄수다. 미국암쇄 그거. 저 토종이 아니고 미국암쇄 질루 난. 양 밧 갈카부덴 튀영 돌아나부렁마썸게.
104003 @ 음.
104003 #1 에왕놔두민 계난 아방은 강 심지 못허연 마썸게. 쉘 심지 못허난애 아 들을 보내거라마썸게.
104003 @ 음.
104003 #1 우리 족은 아덜. ‘야, 쇠 돌아나근애 느 강 심으로.’ 경헨애 심언 우리 밧 갈아놔수다게.
104003 @ 으음.
104003 #1 계난 심지를 못허는 거라마썸. 알안. 저 밧만 가골 허는 임체를 알아 근앵애 밧 갈 카부덴 돌아나부렁. 아이고, 돌멩이도 잘 톱니다.
104003 @ 음.
104003 #1 저 소가 커놓난. 잘 튀연 돌아나부난 아덜이 간 심언, 심언애 메연 놔

수넨 허연 밧 갈앗수다게.

104004 @ 옛날 밧 갈젠 허면 췌 질드리지 않아예. 질드리는 건 어떤 식으로 험디가?

104004 #1 그거는, 그거는냥 새췌 ㄹ르치는 거.

104004 @ 음.

104004 #1 새췌 저 돌멩이, 돌멩이 고망 뜯라진 돌멩이.

104004 @ 음.

104004 #1 돌멩이 그거를 꺾어근에 그거를 꺾엉 돌아마씨. 질거리를 돌던가. 이제는 지금은 못 돌게 험 거우다. 아스팔트 먼 저 무시거 기스난덴 허영. 옛날은 그런 질이 엇엇수게. 그런 질을 엇으난 그자 막 아무 디라고 꺾엉 다니멍 그걸 저 질드령은에 그 저 새췌 ㄹ리친덴 험니다. 것ㄹ라. 새췌 ㄹ르쳐근에 우리도 새췌 많이 ㄹ치췌수다. 폴아뵤은에 사도 새췌 사근에 ㄹ리치난. 아이고, 새췌 ㄹ르치는디양, 담은 그 저 늣 빌언 다노난에 그 과수원 담이 좋아마씨.

104004 @ 음.

104004 #1 좋은 디. 이 눈을 막앗수다. 하도 췌가 막 저 막 췌가 경 독허연 허난. 저 잡대 메운냥 앞디레 가민 앞의 강 콧혀게 박아마췌게. 자기냥으로.

104004 @ 음.

104004 #1 콧혀게 박곡. 난 이끄곡마씨게.

104004 @ 음.

104004 #1 앞의서 이끄민 이끄는 사름도 완전 겁납디다게.

104004 @ 아.

104004 #1 예, 막 겁난 마씨. 겁낭은엔에 코 끼고 겁나근에에 아이고, 저 하나 잘도 저 나쁜 췌 우리 질라났수다. 게난 나중에 폴아부럿수다게. 못 허킵디다 것도. 게난양 용심나난에 소낭에 매연 막 때여부런마췌게.

104004 @ 웃음.

104004 #1 췌 막 때려뵤디다게. 이 밧거리에 그 우리 새로 짓으난 육지 사름이 완 살아났수다. 육짓 아지망 아덜 하나 데리고 헤연 완 살아신디 성익이엔 현 어멍 완 살아나신디. 농사 어디 ㄴ물이영 무시 거 저 베추영 갈 디 엇으난 우리 과수원에 강 갈아 먹으랜 허난 막 웃언. 막 웃언. 경 헤가난 막 웃언에 뵤도 몰르고 막 웃은 거라마췌. 소가 막 그치룩게 경 들락퀴멍 밧 갈멍게 담 자락 박곡 헤가난 막 웃으난. 아이고, 춤 우스완. 소도 잘도 나쁜 소 질라났수다게, 우리.

104004 @ 웃음.

104004 #1 소도 크고게.

104004 @ 예, 예.

104004 #1 큼도 허곡 경 나뵤디다게.

104004 @ 췌도 나이 혼 슬 두 슬 췌니까? 어멍 세난 거 알아져?

104005 #1 나이 어멍?

104005 @ 나이 어떻 션니까? 췌 나이?

104005 #1 췌 나이.

104005 @ 으.

104005 @2 금승.

104005 #1 췌 나이는게, 저 무신거게. 다근, 다근송아기. 허민 처음에 날 때 다근 송아기로 허여근에 크민 멧 설. 멧 설 멧 해 웨민 멧 설 경험니다.

104006 @ 혹시 쟁기 이렇게 이시면 쟁기 명칭, 부분 명칭도 알아지쿠과? 잠대?

104006 #1 잠대?

104006 @ 예.

104006 @2 양주머리여.

104006 #1 에이그, 우리 드리 밧 갈아난 거. 양, 우리 잠대 놔두난 엇덴 햄수다 게.

104006 @ 계난.

104006 #1 잠대를 아버지가 우의 질령 놔둔 거 잠대 어디 갓수다. 어제 그지게 왕 들은 거라. 오래지 아녜수다게. 아이고, 나도 모르켜 잠대 셔나시냐? 족은아덜이 잠대, 아 잠대가 삼시에 엇어졌수덴 허명. ‘잠대 어디 갓수젠?’ 경 굴암수다게. 잠대에 보섭. 보섭도 무끼민 사야웨고.

104006 @ 예.

104006 #1 따시 저 무시거 저 벳.

104006 @ 벳.

104006 #1 벳도 비싸.

104006 @ 예

104006 #1 벳도 사야웨고. 경혜영 그거 저 그레 메왕은에.

104006 @ 여기 영 허영은에 메우는 거 잇고예?

104006 #1 예.

104006 @ 이견 뭐우과?

104006 #1 그건 저.

104006 @ 손잡이?

104006 #1 가린석. 가린석도 양쪽으로.

104006 @ 예. 예.

104006 @ 양쪽으로.

104006 #1 일로 등기븐 일로 돌아오곡 일로 등기븐 일로 돌아오곡 가린석.

104006 @ 손영 손잡이는 뭐렌 헤여?

104006 #1 손잡이는.

104006 @2 양줏머리?

104006 #1 아니, 양지, 양짓머리는 저 그 무신 거. 저 이 잠대에 메와진 거고.

104006 @ 예, 예.

104006 #1 이 저 가린석 그 손잡이도 잇수다.
104006 @ 예.
104006 @2 가린석코?
104006 #1 예, 가린석 손잡이도 잇어마씨.
104006 @ 예, 예. 가린석 손잡이도 잇고예?
104006 #1 동글락헌 거 메왕은에.
104006 @ 양짓머린 잠대에 거고.
104006 #1 잠대에 거.
104006 @ 그다음 잠대에 길게 난 그 낭은 뭐렌 허여?
104006 #1 낭?
104006 @ 으.
104006 #1 몽클은 뭐우과? 몽클은.
104006 #1 모클?
104006 @ 으. 모클.
104006 #1 모클. 모클은 그 큰 저 큰 나무. 큰 거 그디.
104006 @ 모클?
104006 #1 모클은 이렇게 진 거 메와지는.
104006 @ 저기 보섭에 영 메우는 거?
104006 #1 예, 예.
104006 @ 성에는?
104006 #1 이견 명에. 이견 명에. 명에가 성에주게. 명에가 성에마씨.
104006 @ 예, 예. 그 다음에 명에 영 씨우면은 좁게.
104006 #1 좁게.
104006 @ 좁게.
104006 #1 좁게. 좁게. 이디 영허영은에 뱅뱅허게시리 저 빛으로 무꺼근에.
104006 @ 예.
104006 #1 좁게.
104007 @ 예. 좁게예. 질메로도 짐 시꺼봄디가?
104007 #1 아이고, 나양. 친정에서 그 쓰물 전이 그 돛걸름착.
104007@ 음.
104007#1 그거 그거 다 부췌수다.
104007 @ 음.
104007 #1 질메로 돌리가. 돌리가 부췌야 텔 거 아니우과? 아버지 하나 나 하나.
104007 @ 음
104007 #1 계난 돛걸름착 요만이 헌 거 허여근에 그디 걸름 담양은에 우티레 착
착허게 저 그 질메 지왕은에 그 질메 우티레 놔근에 그 베로 문딱 무꺼근에. 경혜
여근에 질은 또 얼마나 곳어낫수가? 옛날 질.

104007 @ 음.

104007 #1 죽은 질로 박박 홀트멍 땡겨놔수다게. 똑 ㄴ뜨게 것도 답아야마씨. 똑 ㄴ뜨게 답아야 바를 거 아니우과? 견디 그 저 출ㄴ뜨 거 새ㄴ뜨 거는 시끄민 떨어 질 수가 있어마씨. 어떠한산디.

104007 @ 음.

104007 #1 큰 못 작은 못이 신가. 어떻 혼 못은 더 시끄지 아넘니다. 게난 혼 착 에 쓰무 못씩 마흔 못을 시끄난. 게난 그건 어떠한 떨어지민 돌, 돌멩이로 하나 놔 근앵에 영 돌멩이로 낱. 똑바르게 똑발라서마씨. 경 아녀민 벗어져불지 아넘니까?

104007 @ 음.

104007 #1 혼작디레 쓸러불 거난. 돌멩이로 영 허영은에 하나 어떻허여근에 그 하나 짹짜마씨? 돌멩이로.

104007 @ 게민 그 삼춘네 물질메도 헤난?

104007 #1 하이고, 물질메 허곡 말곡. 물질메 헤놔수다.

104007 @ 게문 물질메허고 쉼질메허고도 트납니까?

104007 #1 흥끔 죽읍니다. 물질메가.

104007 @2 아아.

104007 @ 질멧가지가.

104007 #1 죽아, 죽아마썸. 물질메가.

104007 @ 예. 물질메가예?

104007 #1 게난 아버지는 물, 물을 끄고 나는 소를 끄고. 산에 낭허레 갈 때.

104009 @ 예, 게민 여기에서는 목장은 어떻 관리헤난마씨? 출왓 같은 거.

104009 #1 출왓 가뜬 거?

104009 @ 음.

104009 #1 출왓같은 거 가시케고. (답수과?)

104009 @2 아니.

104009 #1 안 답수가? 저 소왕이 가시. 옛날은 소왕이가시가 경 합디다게.

104009 @ 음.

104009 #1 출왓이 엄청 널러마씨. 엄청 널렁 서광디레 가는디 동서낙착 동 출왓 이 널르난. 매일 아버지가 캐레 가는 거라마썸. 고사리 캐곡 저 소왕이가시 캐곡.

104009 @ 음.

104009 #1 경허여근에 아버지가 모여근앵에 어디레 저 그 출 안 나는 디레.

104009 @ 음.

104009 #1 새왓도 경 많곡마씨게.

104009 @ 음.

104009 #1 집을 일젠 허민. 겨곡 우린 풀앗수다. 친정아버지네 풀앗수다. 너무 많 으난 혼 못에 얼마 헤영 풀고.

104009 @ 음.

104009 #1 또 출은 또 출왓이 너무 널러노니까양 출왓 문짝 이녁 출왓으로 허당도 남아마씨게. 소 맥이당도 남아.

104010 @ 삼춘, 쉼 그꾸레 다니멍 잊어불지 못허는 추억들 잊어마씨? 잊어불지 못허는 거?

104010 #1 잊어불지 못허는 건 뭐 산에 낭허레 뎡기는 거 잊어불지 안 험니다.

104010 @ 출혈 때는?

104010 #1 출혈 때는 나도 출도 비곡 출도 무끄곡. 아이고, 어른 구실 헤연 살앗수게. 어른 구실 어려도.

104010 @ 음.

104010 #1 그 저 출 다 같이 비엿수다.

104010 @ 음.

104010 #1 양, 이녁만 안 비엿수다. 놉 빌영 헛수게. 놉 빌영. 계난양 이녁 출로 모지레난 남챙이오름 저 저 서광 우의 그디 출왓을 산 마씨. 산에 저 큰 출왓 산에 흔 해는 경 헤낫수다. 너무 소가 하노난네. 저디 저 즈숙이 아방엔 현 어른 그제도 그디 부제우다. 딸은 나보다 하나 알. 그디도 단딸 나도 단딸. 우리 성님 잇주마는 성님은 뭐 결혼헤여불고 허난. 우리는 새 깬 털어.

104010 @ 음.

104010 #1 깬 터는디 그디도 단딸. 나보난 하나 알아라도 깨 터는 것도 나영 현 디 털어도 완전 떨어져. 나보단도. 깨도 확확 털영 아버지 허곡 따시 그 어른은 무끄곡. 그 두 어른은 무끄곡. 우린 깨털영 내치곡, 출 모이곡.

104010 @ 음.

104010 #1 그치룩허멍 경 저 아버지네 그 현디 따라뎡기멍 헛수다게. 그뎡 구루마 신 때난. 구루마로 출 시경 왓수다게. 그때 그루마 신 때.

딸 기르기

104011 @ 물은 어뎡 질롭디가?

104011 #1 물은 물은양 우리 아버지가양 드러 무신 거 쫓영 뎡집디다. 물은 어뎡 헤에 물도 산에 논 물도 잇고 질루, 집의서 일허는 물도 잇고.

104011 @ 음.

104011 #1 일허는 물은 무시거 저 구루마 헤영은에 무시거 쫓영 오곡. 쫓어근영에 그뎡 메타.

104011 @ 예.

104011 #1 메타 잇어낫수게양. 메타 저 놉의 메타 빌어단에 그 저 보릴 두두려나 신디 그 메탈 곤다원에 저 그 집의 곳다원 오단에 저 어디서양, 물이 줌작 놀래연에 우리 아버지 죽엇단 살아낫수다게.

104011 @ 음.

104011 #1 물이 줌작 놀래연에 구루마채 막 돌아부난 구루마채 막 돌아부난 구

루마에 뉘싸전에 우리 아버지 문 죽어젯 소문난 허난 우린 보리썰 곱지단보난 어머니영 나영 보리썰 곱지단보난 아버지 문 죽엇젠 허난 가낫수다게. 어멍은 가고 나는 보리썰 곱지고. 경헨에 경해도 니빨도 문딱 상허고 경해도 딱시 병원에 살안애, 병원도 그때 어느 병원 서귀의료원 가나신가. 어디 간에 허연 혼 메틀 입원헤연에 게도 저 퀘차년에 춤 으든셋 나도록, 으든넷 나도록 살아낫수다.

104011 @ 옛날엔 오래산 거주, 그때는예.

104011 #1 으든넷나도록

104012 @ 뭇 종류도 잇어신가마씨?

104012 #1 뭇 종류도 호달매.

104012 @ 예.

104012 #1 호달맨 큰 거. 겨난 이제도 이제도 잇수게. 이제도 종류가 잇주게. 이제도 토종이 잇곡 양종이 잇고.

104012 @ 음,

104012 #1 게난양. 저.

104012 @ 색깔에 따라랑 무신 .

104012 #1 색깔에 딸양.

104012 @ 가라몰이여 부루몰이여

104012 #1 아 그런 거 그런 거 잇어마씨.

104012 @ 어떤 말이우과?

104012 #1 붉은돌이 줍주게.

104012 @ 붉은 돌이 좋은 거?

104012 #1 곱고 이쁜 거만 질루지 기렵지 아넵니까?

104012 @ 예, 웃음.

104012 #1 뉘지나 뉘 소나 돌이나양 색깔도 색깔도 고와야 저 좋음니다게.

104012 @ 예, 예.

104012 #1 득 ㄹ쁜 것도 색깔이 고아야.

104013 @ 색깔이 고와야예? 게난 뭇은 주로 어뎡 이용헌 거라마씨? 여기서는?

104013 #1 여기서.

104013 @ 예.

104013 #1 저 산에 낫수다. 산에 난애 그 폭도덜 잡아먹고. 하나만 하나만 이용헷수다. 하나만 그자 집의서 질루는 거. 저 어디 강은애 낭 허여오곡. 소 셔도. 손나가 꺾영 가곡 아버진 뭇 꺾곡 집의서 그자 질루멍 어디 가근영애 그 저 말톡.

104013 @ 음.

104013 #1 말톡 허영 어디 강 메여마썸. 어디 강 메여근영애 따시 아칙이 강 메딘 낫 뉘민 뭇 맥여근영애 딱시 뜬 데레 메곡.

104013 @ 음.

104013 #1 저 촛 잇는 데레. 저 그디 강 경허멍 살앗수다.

104013 @ 건 뭘로 메여마씨? 뭘 때는?

104013 #1 말톡.

104013 @ 말톡에 앵은에.

104013 #1 말톡 줄대에. 말톡엔 현 건 알러레 박는 거 땅더레 박는 거고 줄대는 이렇게 진 거.

104013 @ 으. 줄대 행은에예?

104013 #1 예, 줄대.

104013 @ 그렇게 줄대로 헤영 허긴 허는데 여기는 뭘 헤영 밧 불리진 아녀수가? 조 불릴 때 어떠 허연?

104013 #1 아이고, 조 불릴 때에 저양 그 뭘 족은 밧들은 거 소로도 불렀수다마는 그 저 무시거 저 나중에.

104013 @ 예.

104013 #1 그 저 그 뭘 박 구장네엔 현 어른들이 몰이 혼 쉬은 개.

104013 @ 음.

104013 #1 쉬은 개 질좌신디 그 텃몰입주게 그건.

104013 @ 예.

104013 #1 건 뭘 밧 불리렌 빌려주는 거마씨. 임제네가 저 그 뭘 질루는 디 장남 하나 돌아근에 그 뭘을 저 이용을 헛수다게.

104013 @ 음, 음.

104013 #1 게난에 그건 밧 아무 밧이라도 안 불립니다. 저 그 무시거 거 곧지 못헨 이제. 저 그 질 말째에 좋은 밧은 말에 갈아마썸게.

104013 @ 음.

104013 #1 말째 마 문딱 걷어불어사.

104013 @ 예.

104013 #1 마 문딱 걷어불어사. 이 땅ㄴ짜 직각허게 불려마썸게.

104013 @ 음.

104013 #1 그치룩 경허영 불릴 때는 사름이 세 사름이 불려마썸.

104013 @ 음.

104013 #1 앞으로 하나 저 석, 석 허영 뭘, 뭘석허영 혼 사름 심으민 뒤에선 그 자 몰아, 몰아주멍 노래허멍 영 몰아취근에. 뭘 몰멍 경 저 그 밧을 불려근앵에 조 갈민 조가 그추룩 종양은에에 아무 밧이라도 아니우다. 좋은 밧.

104013 #1 좋은 밧.

104013 #1 조가 그치룩 좋아근에. 좋은 밧으로 우리도 드러 박 구장네 뭘 빌언 불려낫수다게.

104013 @ 음, 게 그치룩 게문 그, 그 사름은 뭘테우리엔 험니까?

104013 #1 뭘테우리는 딱로 십주게. 그디 들안 살아수게.

104013 @ 아, 들안 살안예?

104013 #1 장남으로 들양 살안.

104013 @ 박 구장이 일허는 게 아니고 거기 장남이 허는 거구나예?

104013 #1 장남이 일도 허곡 그 들도 어디 들양가근에 어디 강 에와근에 에왔당 보민 놈의 곡석 밧디 들영 곡석 다 먹으면 딱시 그거 설어내야 돼여마씨.

104013 @ 예.

104013 #1 우리도 우리 아버니네도 밧 조 같안 놔두난 그 박 구장네 들 들언 다 먹어불어 낫수다.

104013 @ 음.

104013 #1 경허민 설어내여야 돼마씨. 계난 다 받지도 못허고마썸게.

104013 @ 예.

104013 #1 어짜피 다 못 받아.

104013 @ 그거는 몰허영은에 허주마는 낭으로도 영 헤영은에 꺾이기도 허여마 씨?

104013 @2 남테?

104013 #1 아. 건 아녀봤수다. 이디. 그 당시엔 건 안 헤낫수다.

104013 @ 남테엔 현 건 알아지긴 허쿠과?

104013 #1 낭으로 영 허여근에 그 소굽더레 영 들어강 심는 거?

104013 @ 아니 영 낭이 밧 불릴 때 쓰는 거. 영 밧 닦은 거 박아진 거.

104013 #1 아, 건 안 썸봤수다.

104013 @ 건 안 쓰고예?

104013 #1 건 안 쓰고 썸비.

104013 @ 으, 여기는 썸비만 썸예?

104013 #1 썸비. 썸비.

104013 @ 조불릴 때.

104013 #1 썸비 만드아근에 크게 큼직큼직허게 만드앙 소 메왕은에 꺾엇수다게.

104013 @ 음.

104013 #1 소 메왕 꺾언. 계난 나중에라가난양.

104013 @ 음.

104013 #1 사름으로 꺾엇수다. 우리.

104013 @ 예.

104013 #1 우린 사름으로 꺾엇수다. 사름으로.

104013 @ 낭으로 안 헤봤수다.

104013 @ 이만큼현 낭으로예.

104013 #1 그건 아녀봤수다.

104013 @ 보지도 아녀 나고?

104013 #1 이디선 덕수선 그거 아녀봤수다. 썸비만 꺾언.

104013 @ 썸비만 꺾언예.

104013 #1 우리, 우리 세계엔 섬비만 콧아서. 밧디 강 문 만들아근에, 경 아녀민 만들양 놔둬두서 췌수다. 써서.

104013 @ 예.

104013 #1 콧직허게 놔둬두서 잘 만들양은에 직각허게.

104013 @ 건 뭘로 만듭니까?

104013 #1 그거 개짱냥으로.

104013 @ 개짱냥으로?

104013 #1 아무 거나 아넵니다. 개짱냥이 그 이만씩 도돌도돌 허지 아넵니까?

104013 @ 예.

104013 #1 게난 그걸로 땅을 문 콧어지게.

104013 @ 음.

104013 #1 콧어지게 경 멘작헌 걸로 허민 안 뒤여마씨. 개짱냥으로, 저 개짱냥이 췌여마씨. 겨고. 개짱냥 꿔영은영에 섬비 만들아근에 집 안네 어디 놔둬어디.

104013 @ 음.

104013 #1 놔둬두서 그걸로 콧엇수다게.

104014 @ 음, 삼춘, 뭘 그 나이 쉐 때 혼 설 두 슬 험니까 일수 이수 이런 거 알아져? 뭘 나이 세는 거.

104014 #1 나이 세는 건게 일년이민게 혼 슬 허곡, 그 그것사게 일년 허민 혼 설 허곡 또씨 일년 허민 두 설허곡. 그거 그치룩.

104014 @ 혼 설 두 설 세연예? 옛날에도.

104014 #1 뭘이고 췌고 다 멧 헤민 멧 슬 경 그치룩헤여났수다게.

떡이

104016 @ 게문 뭘이나 소는 먹는 거는 뭘 먹엇수가?

104016 #1 출, 출. 주로 출.

104016 @ 어떤 출을 잘 먹어?

104016 #1 출은 저 무신 거 저 목출, 목출, 목출, 목출.

104016 @ 음.

104016 #1 목출이 저 잘 먹읍니다게.

104016 @ 음, 그 다음에 그 출은 어떤 식으로 저기 마련헤마씨? 그건.

104016 #1 출:?

104016 @ 예.

104016 #1 출은 그자 영 시간 보명 시간 보명 다 먹은 거 님으면 또 감젓줄.

104016 @ 예.

104016 #1 옛날은 저 고구말 많이 허니까.

104016 @ 으음.

104016 #1 감젓줄 혼 놀 놀엇당은에 감젓줄도 혼번 강 주곡 출도 그자 영 바근

에 어디 강 왕이라도 출 주곡.
 104016 @ 음.
 104016 #1 출 줏수다게. 어디 강 오민 출 주민 잘 먹음도 허고.
 104016 @ 음.
 104016 #1 소, 저 소세, 소세.
 104016 @ 소세, 예.
 104016 #1 소게가 질 잘 먹읍니다. 소세.
 104016 @ 소세가예?
 104016 #1 소세 문작헌 소세. 우트레 쫓 피곡헌 소세가 잘 먹읍니다. 계난 출도 양 버닥지민 것도 잘 안 먹어.
 104016 @ 음.
 104016 #1 소세. 소세가 질 좋아허여.
 104016 @ 음.
 104016 #1 계곡 그 무시거 콩꼬질.
 104016 @ 콩꼬질.
 104016 #1 콩꼬질도 혼 놀 놀곡 출은 멧 놀 놀곡. 감젓줄도 놀곡. 감젓줄 다 물 려근에 것도 무경.
 104016 @ 음.
 104016 #1 꼭 걸영은에 다 무경마썸.
 104016 @ 음.
 104016 #1 요만씩 꼭 꼬차근에 걸로 다 무꺼근엔에. 무꺼근에.
 104017 @ 게른 그 출덜은 어떻 마련허는 거라마씨?
 104017 #1 경허당 먹당 남읍니다게.
 104017 @ 으, 먹당 남아예?
 (생략)
 104017 @ 그 다음에 옛날 출 빌 때는 언제 비여마씨?
 104017 #1 출 빌 때에?
 104017 @ 으.
 104017 #1 멩질 념영.
 104017 @ 으.
 104017 #1 멩질 념영 하늬브름 삭삭 나가민.
 104017 @ 음.
 104017 #1 하늬브름 삭삭 나가민 에이그 출 비여살컬. 출 비여사컬. 다 놓 마련 허곡 헤여근에 그 보리밥 헤여근에 그 스뭇 차롱착에 거렁은엔에. 옛날은 반착은 잇엇수가?
 104017 @ 음.
 104017 #1 반찬도 엇엇주게양. 지슬 반찬 주로.

104017 @ 음.

104017 #1 계란 농곡 지슬 반찬 주로. 경허영 출도 비곡 출 새 너무 많이 헤엿수 다게.

104017 @ 음.

104017 #1 출 새 너무 많이 헤연.

104017 #1 농장이 널롭디다게. 농장이 그치록 널러.

104018 @ 계란 여기는 출 빌 때는 뭇로 비여마씨.

104018 #1 낮으로.

104018 @ 낮으로?

104018 #1 호미로.

104018 @ 얼마큼 현 거?

104018 #1 호미?

104018 @ 으.

104018 #1 호미 저디 잇는디 그.

104018 @ 이만큼 현 거. 손으로 영 빚니까? 이렇게 긴 큰 낮으로 험니까?

104018 #1 기냥 손으로 북북. 호미 일로 췌여근에.

104018 @ 음.

104018 #1 굽으로.

104018 @ 굽으로?

104018 #1 것도 우론 안 비여. 우로 비면은 것이 살락살락 출이 하질 아녀니까 그냥 호미 대영. 호미 드러 글명.

104018 @ 음.

104018 #1 흐췌 비영 무끼민 곶아줍센 허영 곶양 그 저 아래 출알라 북북 비여 야 탁 놓민 그게 게 몽크려지지 아녕 그냥 잇어마씨. 탁 놓민 탁 헤싸지명 무크러 진냥. 그자 막 췌양 막 비비여마씨.

104018 @ 음.

104018 #1 출 빈 거 알아져마씨.

104018 @ 예.

104018 #1 서툰 사름 빈 거는 놓민 가르삭삭헤불고.

104018 @ 음.

104018 #1 그 저 잔디 부짱 탁 놓민 그냥 그자 살락허게 ㅋ칭허게 잘 비여져마 씨. 누게가 잘 빈 거 못 빈 거 다 알아져마씨?

104018 @ 삼춘은 흐루 출 비민 얼마큼 비여수가? 출도 잘 비여실 거 아니?

104018 #1 아이고, 출도 잘 비고 보리도 잘 비엿수다게.

104018 @ 예.

104018 #1 이디 오란에야 씨집을 오난게. 쓰물에 오난에 밧덜도 느직느직 험디다 가. 가민양 어머니가 일등으로 앓고. 나 두 번 채 앓으면 우리 씨아버님은 술이나

잡수곡 담배 경 잘 테우난 ‘우리 즈부 춤 보리 잘 빈다.’, ‘우리 즈부 보리 일등으로 잘 빈다.’ 그치록 칭찬을 받아수다게.

104018 @ 음.

104018 #1 막 저 보리 비는 거라도 콧징이 비난. 콧징이 비영 혼 줌 비영 농민게 콧징이 어머니 조름에 구작 따라가난게.

104018 @ 예.

104018 #1 어머니도 부제침이 씨집완 아기덜 하영 나노난 고생은 허엿수다게. 고생고생 허연 겨곡 게을러. 어머니가 게을러 나에 맞질 아녕 게을러.

104018 @ 웃음.

104018 #1 막 어떻헌디양 어떻 원 모든 게 다 게을러 거라마씨. 경헌디 입은 막 싸곡.

104018 @ 음. 웃음.

104018 #1 입은 싸곡 게을러디다게. 동전 안 들양은에 입어근앵에 놀레 가가민 ‘어머니, 어떠한 동전 안 돌아근에 옷 입영 땡이는 어른이 어디 잇수젠’ 그거 벗읍센 허영. 고무신.

104018 @ 예.

104018 #1 옛날은 고무신 신영 땡기지 아녀. 고무신도양, 놀레 가는다 시커멍 고무신 신영 가는 거라 마썸. 신 벗읍센 허영 신 다끄곡. 경혜수덴 허난. 집안도 막 게을러양, 그치록 게을러디다게. 뭐 허는 것이.

104018 @ 으.

104018 #1 므음엘 맞지 아녕.

104018 @ 삼춘은 깔끔 허곡?

104018 #1 아이고, 나는 저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경 깔끔허영 아기덜 하영 허영 들양 살아도. 그 손지덜 옷 문 허영 입지곡. 우리, 이디 저 씨어머님은 손지덜 혼번 돌아보지 아녿수다.

104018 @ 음.

104018 #1 손지 돌아보젠 아녀곡 존심허질 아녿디다게. 막 그자 어떻 욱이나 허곡 그자 허드렁허게 원원 지저분만 허여 베여근앵에 아이고, 나양 씨집오란 그 부엌에서양 침떡 문딱 치고 눈이 문딱 땡라지고. 침떡 다 치곡 모든 거 다 알양 문 뭐, 감주, 옛날은 감주 다 허곡. 아이고, 식구덜은 무사 합니까?

104018 @ 웃음.

104018 #1 우리 씨아바님은 백 멩, 백 멩 험니다게. 제사 돌아와가민 백 멩 백 멩 험니다게.

104018 @ 음.

104018 #1 너미 식구덜이 향. 마당에 명석을 다섯 개 깔민. 다 앉으면 뭐 밥, 이결로 하나 메엔 현 거. 옛날은 메엿 헛주기양.

104018 @ 예.

104018 #1 메엔 허는지 그 저 우린 나록, 나록으로 우린 제사를 헛수다. 나록밭이 저디 저 이시난에.

104018 @ 음.

104018 #1 화순. 나록밭이 이시난에 거 갈라단, 놉 쥐근에 갈라단에 제사 때만 그걸로 헤영 허민 그자 혼 손갈씩 허영 사발만 갖다왔다 갖다왔다.

104018 @ 음.

104018 #1 허고양 노인덜 그 저, 그 우리 켤당이 하노난 노인덜이 합디다게. 겨민 나가 어린 때 씨집을 와노난 뒤 전깃불이 쉴수가, 무슨 저 가로등이 하나 잇수가? 저 작은동산엔 헌디 이레 영 들어오는다 그디 동산 막 커났수다게.

104018 @ 음.

104018 #1 경헌디 그디 칸에 집을 짓엇수다. 우리 씨아버님 그디 강 앓읍니다게. 나가 밥을 ㄴ져뎡기난.

104018 @ 음.

104018 #1 제사 해나민 이 집의 거쳐 가고 저디 거린 막 거린 멀어마씨. 켤당 부쁜 켤당 노인벨 집의 거쳐갓수다게. 경허민 아버지가 저 동산에 강 ㄴ만이 앓아십니까. 어떻 ㄴ심이나 허카부텐 으져가는 것도 뭐 잇수다게. 밥허고 국허고 무신 건 채소엔 헌 건 콩늬물, 그거벧긔 엇엇수다게.

104018 @ 음.

104018 #1 고사리 흐뽀씩 놓고. 그거나벧긔 으져갈 거 엇어마씨. 겨곡 묵.

104018 @ 예, 묵.

104018 #1 묵 무신 거 저 밀가루로 그때 엇은 때난 보리쌀 곶아당을 허던가 나중에서 밀ㄴ르 나난에 밀가루 혼 포 몰아사 .

104018 @ 음.

104018 #1 밀ㄴ르 혼 포 몰아사 먹어마썸게. 떡 허여근에 먹젠 허민. 게난 그거 떡허렌 다 읍니다.

104018 @2 음.

104018 #1 떡허렌 그 저 우리 하르버지가, 우리 하르버지가 우윗, 우윗 하르버지가 다섯 성제, 따시 우리 씨하르버지가 씨하르버지가 다섯 성제 오형제씩마썸.

104018 @ 음.

104018 #1 따시 우리 씨아버지가 오 형제. 그치록 자식덜을 나난 합디다게. 따시 오춘덜 따시 오 형제난. 오 형제에서 따시 아기덜 다 오랑 갈라지난게 얼마나 할 겨우파게. 그 옷대가 하노난 다 다섯 성제씩 내려왔수다게. 그 옷대는 완전 대클이라마씨. 막 일곱 오누인디 키가 막 대키라마시. 대킨디 일곱 오누이 나난 그 알려렌 따시 우리 씨하르버집주. 그 아래는 우리 씨하르버지난에 우리 씨하르버지는 또 흐썰 아기덜이 줍디다게.

104018 @ 음.

104018 #1 할망이 작으난산디 우리 씨아버님은 흐썰 죽고, 죽은아지방덜이 셔마

씨. 죽은아버지덜이 잇고. 겨고 젊은 때덜 하영 돌아갓수다.

104018 @ 음.

104018 #1 젊은 때양 우리 저 하르버지 아덜이 다섯 성젠디 쓰무 설에 순경으로 합격허연 쓰무 설에 토벌갓단 죽엇수게. 토벌 간에 저 저 어디 어느 오름에, 어느 오름에 갓단에 오꼴허게 그 사름덜 쏘아부난 죽엇수다게. 죽으난 죽은혼서허고 흥 쏘 죽아전에 문 우리 씨아지방덜 양제허연 문 저 이제 제서허곡 헤염수다게.

104019 @ 음, 알앗수다. 그 다음에 꼴, 출예, 빈 거. 운반헤영 오젠 허민 어떤 식으로 헤여?

104019 #1 운반허영 오젠 허민.

104019 @ 음.

104019 #1 구루마 안 난 땀 소에 시경.

104019 @ 소에.

104019 #1 마은 못, 흥 바리. 흥 바리가 마은 못. 계민 소 두 개에 시끄민 나가 몰아와마씨. 나가 몰아오곡. 저 집의 오라근에 다 마당에 퍼 놓민. 저 나가, 나가 몰아댕겏수다게.

104019 @ 음.

104019 #1 아버지는 문 무끄곡.

104019 @ 실러주곡.

104019 #1 무끄곡 허민 나가 몰아옵니다게. 몰아오곡. 또 나중엔 구루마 나난에 구루마에 잔뜩 실러뵈 흥끄만도 안 실립니다. 우리 아버지는 막 신체가 좋아노난양 막 많이 시꺼.

104019 @ 음.

104019 #1 엄청 많이 시꺼근엔에 고무 구루마 나난 뭘 저 남생이오름 강 출 허여도 뭘 일등으로, 난 올리곡 아버진 시끄곡.

104019 @ 예.

104019 #1 경 헤여근에 베 털어놓민 우리 아버진 막 베도 착착 잘 털어놓민 날만 칭찬헤낫수다게. 야의치록 잘 허는 사름 엇넌 허멍.

104019 @ 웃음.

104019 #1 우리 성님은 작아놓난.

104019 @ 으.

104019 #1 작곡 못허민게 나만 경 나만 헛수다게. 나만.

104019 @ 음.

104019 #1 성님은 결혼헤불고게.

104019 @ 음.

104019 #1 이제 이제 으든, 으든다섯이우다.

104019 @ 예.

104019 #1 으든다섯인디 살아잇수다.

104019 @2 아.

104019 #1 살아계시우다. 저 표선 살압수다. 지금.

104019 @ 표선?

104019 #1 예, 표선.

104019 @ 그치록허영은에 이제 하고. 그 다음 놀 때는 어떤 식으로 놀어마씨?

104019 #1 놀 때에 영 동글락허게. 나도 잘 놀어집니다.

104019 @ 어.

104019 #1 동글락허게 츠레츠레 영 허영 이거 영 허영 농민 영허영 영 동글락허게.

104019 @ 음.

104019 #1 영허영 동글락허게, 동글락허게 돌아가마씨.

104019 @ 으.

104019 #1 출, 출뭇을 착착착착 동글락허게 돌아강. 게난 아랫사름은 올리멍 곁 잘 베려사마씨.

104019 @ 음.

104019 #1 일로 나왓수다, 일로 나오난에 저 흐뭇 들어 눅서. 들어감수다. 아래 사름은 올리멍 베려사마씨. 그걸 잘 베려사 출놀이 깨끗허게 우티레 올라가마씨.

104019 @ 음.

104019 #1 게난 그치록허멍 경 보리 놀 때엔 또 서툰 사름은 헤싸져불영.

104019 @ 으음.

104019 #1 자르르르허게 다 그 저 ㄱ스락이 잇지 아녀우짜?

104019 @ 예.

104019 #1 ㄱ스락이 미끄러워마씨. 보리 놀 때는 놀이 크게 놀당 보면은 잘못 놀민 헤싸져, 쪽허게 나와불어마씨게.

104019 @2 보리낭놀 놀 때도 경허지예?

104019 #1 예?

104019 @ 보리낭놀도.

104019 #1 보리낭놀은 경 아닙니다.

104019 @2 아 그럼니까?

104019 #1 예, 저 ㄱ스락이 엇으난.

104019 @ 음.

104019 #1 보리낭놀도 놀엇다근에 소 또꼬망에 끌아주고.

104019 @ 음.

104019 #1 우리 저 그 밥헤 먹고.

104019 @ 음.

104019 #1 경허헛수게. 그걸로 밥헤먹고. 경허멍 살앗수다게.

104019 @ 아 게니까 보리낭보다는 보리놀이 더 어려와예?

104019 #1 어려와마씨. 무겁고.

104019 @ 음.

104019 #1 올리젠 허민 무겁고 아무나 올리지도 못합니다게.

104019 @ 예.

104019 #1 게난 구루마에 시끌 때엔 나 씨집 오란에 나가 시껏수다. 주로.

104019 @ 음.

104019 #1 아저씨는 올리고. 우리 집의 아저씨는 올려주곡 나가 시꺼마씨. 출도 나가 시끄곡.

104019 @ 웃음.

104019 #1 친정에선 저 나가 올렛주마는.

104019 @ 음.

104019 #1 여기 오란은 나가 시껏수다. 나가 시끄곡 아저씨는 올려주곡. 경헨에 저 살았수다게. 게난 문딱 문 출도 많이 허곡 모든 거 다 많이 허난에양.

104020 @ 삼춘, 게문 세 밧 갈 거나 영허젠 허면 으물도 행은에 쥐? 세 죽도 썩 주곡.

104020 #1 아시날 출 강 흔 짐 행 와야돼마썸.

104020 @ 음.

104020 #1 딱시 먹을 거 저 무신 거 흔 말치 흔 말치 딸려근엔에 뭐 식으민 아시날 식으민 뒷날 아척 맥영은에.

104020 @ 음.

104020 #1 맥영 나갑니다. 맥영 나가근엔에 흔 낮전은 그냥 갈아가당은에 흐끔 썰 때는 출 쥐마썸.

104020 @ 음.

104020 #1 거 출 주곡. 밧디 강도 그거 다 먹으민 또 허레 가야. 출허레 가마썸. 나 출 허레 갖수다게. 출허레 가문. 나 출허레 가쭈다게.

104020 @2 그때는 청출이우과?

104020 #1 양.

104020 @ 그때는 청출로 험니까?

104020 #1 덤벌마썸. 덤벌. 꼭 덤벌 같은 거.

104020 @ 꼭.

104020 #1 청출은 놈의 출 강 비어집니까게. 출비레 출을 빌 디가 엇읍주게.

104020 @ 음.

104020 #1 게난 어염.

104020 @ 예염.

104020 #1 그 어염 그 콩이나 뭐 풋이나 간 밧디 그 어염 흐끔씩 신 거.

104020 @ 음.

104020 #1 그런 거 강은 비여주고 놈의 출은 못 비는 거 아니우과? 게난 덤벌

견었수다. 덤벌. 덤벌 걷고 어염 비곡.

104020 @ 꼭 걷고?

104020 #1 어염 비젠 허민 이제는양 제초제 나난 아무 것도 아니우다게. 그뻐 어염이 너미 짓읍디다게. 어염을 짓어노난 짓어놓난 어염 비곡. 섬비 메곡. 여자 헐 것이 많아. 경 겐디 저 섬비질도 허엿수다. 나도.

104020 @ 음.

104020 #1 섬비질 나냥으로 헤엿수다. 섬비질도 헤엿수다.

104021 @ 경허영은에 허고 출 빌 때 잊어불지 못허는 일 잊어마씨? 출 비레 갖 당은에 뒤.

104021 #1 출 비레 갖다근엿에 눕 빌언 출 비난 그거는 뒤 깨나 털고. 아 출 빌 때는 같이 비고 말령은에에 무꿀 때는 깨 털고.

104021 @ 음.

104021 #1 저 강 어디 강 새 비여당은에. 새 비여당 깨 털곡. 갠 또 아시날 많이 털어마썸게.

104021 @ 음.

104021 #1 아시날 저 새 비여당 아시날 즈낙이. 저녁이 저녁 먹엿 앓장 혼 열 시 까지 깨 털어마씨. 털엿 허여도 작으면은 저 어디 강 새 비여당은에.

104021 @ 음.

104021 #1 자기 밧디 새 시난 우리 밧디 새 시난.

104021 @ 예, 예.

104021 #1 거 비여당 털고.

104021 @ 예.

104021 #1 겨고 털 시간도 엿입니다게. 무시거 그거 저 모이곡 출 모이곡 문 시 꺼오곡 경허여 웰 거 때문에 비온텐 허민 또 빨리 빨리 허여야 돼곡. 밤이라도 다 놓어야 돼난.

104021 @ 예.

104021 #1 밤의라도. 비 온텐 허민 놓어야 돼주게.

멜감

104022 @ 옛날에는 이제 밥덜 다 불 슴양 행 먹으니까에 그 지들케.

104022 #1 에이그.

104022 @ 지들커 허는 거는 어떤 거

104022 #1 지들커. 지들컨양. 우리 저 이 따로 살 때만 지들커 헛주. 농스 많이 헐 뻐 지들커 허레 안 갖수다.

104022 @ 음.

104022 #1 유챗냥.

104022 @ 음.

104022 #1 유챗냥 혼 놀 놀곡 보리냥 놀곡 지들커 허긴 허엿수다. 허긴 여간 여간 헤다근엿에 저 질긴 질엿수다마는.

104022 @ 음.

104022 #1 저 친정에선양, 그 소나무밭이 하난에.

104022 @ 음.

104022 #1 멧 놀 놀어근에 그 소냥으로 질엿수다.

104022 @2 으.

104022 #1 소냥 빠멍. 영 무꺼근에양. 소냥도 무껍 꺾 걷영은엿에 무꺼근에 혼 못 두 못 허멍 멧 놀 놀어놓민 친정에서 지들커 허레 안 가봤수다.

104022 @ 음.

104022 #1 지들커 허레 안 가민 지들커 허레 가는 건 말 불러왕마썸게. 똥 좇으레 가는 거 불롭고. 일은 하영 헛수다마는 똥 좇으레 친정에선 지들커 허레 안 가보고 똥 좇으레 안 가봤수다게.

104022 @ 음.

104022 #1 소 걸름 물렁 굴묵 질곡 허난 그런 건 아녀봤수다. 씨집 오난 많이 헛수다. 씨집인 완에 지들커도 허여오고 저 무시거 똥도 좇어오고. 똥은 저 저 남생이 오름 가민 똥도 하고 여기도 하낫수다.

104022 @ 음.

104022 #1 여기도 저 이 물 ㄱ쁜 거 소 ㄱ쁜 거 메여근엿에 그디 저디 매난에.

104022 @ 으.

104022 #1 그거 주워당 젓으민 물려근에 물려근엿에 굴묵 질영은엿에 살앗수다게.

104023 @ 계문 쉼똥허고 물똥허고 허면 어느 게 더 좋아마씨? 굴묵 때기가.

104023 #1 물똥이 굴묵 때기 줍니다게.

104023 @ 물똥이.

104023 #1 쉼똥은 제게 안 물르고 쉼똥은 이만씩 큰 거 오래 물뤄야 웨여마씨. 어떤 거 헤싸지지 아년 건 굴묵 질기가 꺾어마씨.

104023 @ 아, 물똥이?

104023 #1 나중에라 가난에 그것도 아년에 우리도 그 소 많이 매곡 허난 그 저 걸름 소 걸름도 더러 내영 그거 물량에 그거 질곡 과수원 흐뎡 허난 소걸름 돛걸름은 과수원 이거 냥이민 이런 디 영 팡은에 그레 굴체로 지명양 경 아녀도 웨는디. 그치룩 힘들게 그치룩 허연. 이젠 뭐 비료만 주민 텔 건디 걸름 판 물어낫수다게.

104023 @ 예.

104023 #1 일본서 들어오는 거양. 다섯 사름이 짠에 맨날 서귀포 부두에 간 직허영. 직허연 그거 허연에 그때 이백 본썸 혼 사름이 이백 본썸 갈란에 허엿수다. 그 거 처음에 헛수다. 질 처음에 허난에 이 지금 저 우리허고 저 동부락 저 우리 집의 아저씨영 갑장 이제. 이제 이제 이룬아웁마씨.

104023 @ 음.

104023 #1이제 이른아옴 난 아부버님 저 동부락 잇수다. 이제 각시 죽어불언마씨 게.

104023 @ 음.

104023 #1 이제 드러 일만 험수다. 드러 일만 허곡 사는다. 살아시민 이제 이른 아옴이우다마는 저 다섯 사름 헤신디 다 망허영 동부락 아주버니허고 우리 들리벳 기 엇수다. 나무뻗. 다 폴아불고 안 웨영 죽어불곡. 엇언에 경허난 박**이엔 현 사름이 수의사라 살아낫수다게. 그 사름도 그치 사십주게. 젊은 때 수의사엔 현 어른 키도 말도 잘 허연 말장시 말장시 허여낫수다마는 저 각신 **해연 돌아갓젠. 게난 박**이가 허는 말이. 나무도 아무나 주지 말앙은앵에 헐 사름을 줄 건디 헐 사름을 줄 건디. 경 곶아낫수다게. 게난 우리 허고 동부락허고가 이제지금 많이 곤고 잇수다. 똥 사름덜은 안 웨영.

104024 @ 삼춘도 솔입 걷으레도 텅겨판마씨?

104024 #1 예. 솔입 걷으레.

104024 @ 건 어떤 식으로 허는 겨우과?

104024 #1 글쟁이 으정은에 삭삭 메와근앵에 아래 나무 아래 영 꼭 걷은앵에 이디 영 놓곡 이디 영 놓고 허영은에 그디 나무 멧 개 찢라와근앵에 그레 와근에 뱅뱅뱅뱅 똥민 꺾짱허게 곱닥허게 무껴집니다. 게난 솔입 걷으레 곱으레도 막 저 가고 싶습니다게.

104024 @ 그것이 혼 보달이우과?

104024 #1 예?

104024 @2 텅이.

104024 @ 혼 보달 치는 거?

104024 #1 아 모다치는 것이 아까 얘기했수게.

104024 @2 보달.

104024 #1 모다 치는 건 글쟁이.

104024 @2 글쟁이로 곱영?

104024 #1 글쟁이로 곱영 혼 짐 웨게 곱어당은에 꼭 걷어당 와근에 무끄젠 허민 낭 준 거 멧 개 와근에 아래 아래 바툼 멧 개 와근에 그레 즈근즈근허게시리 그레 안아냥은에 뱅허게 몰앙은에 무끄민 곱닥허게 무껴집니다.

104024 @2 게난 그걸 뒤편 곱읍니까?

104024 #1 솔입 무꾼 거엔 곱읍니다. 똥 말은 안 허고.

104024 @ 보달 치는 거 험니까?

104024 #1 영 모다치는.

104024 @ 보달 안 쓰는 거지.

104024 #1 모여놓는 거고 그거는 솔입 무꾼 거.

104024 @ 예.

104024 #1 무꺼근에 혼 짐. 혼 짐 무꺼 전 왓젠 허는 거.

104025 @ 삼춘, 나무허레도 텡겨난마씨?

104025 #1 나무 허렌 업창.

104025 @2 놀크레기.

104025 @ 남허레 텡것던 얘기?

104025 #1 나무허레게 저 한라산에도 가오고게. 등짐으로도 또 등짐으론 저 머리 여진오름.

104025 @ 음.

104025 #1 거기 가서 낭허영은에 와근앵에 돈이 날 거 엇으난.

104025 @ 음.

104025 #1 그 어린 때에 혼 짐 행 낭 자귀로 나냥으로 깨영.

104025 @ 음.

104025 #1 나냥으로 깨영은앵에. 그거 머리여진오름 안 가도 잇수다. 깨 이 곳디 많이 이시난 이디라도 강은에 허영 오랑은에. 머리여진 오름은 삭은 낭을 행 가민 여긴 가민 놀 거마씨. 놀낭은 자귀로 깨여근앵에 물렁 모실포 폴레가마썸. 경허멍 살앗수다게, 어린 때.

104025 @ 게믄 건 혼 짐씩 헤영 오는 거?

104025 #1 혼 짐씩 헤영 오는 거.

104025 @ 음.

104025 #1 놀 거 혼 짐 언마 언마나 험니까게.

104025 @ 음.

104025 #1 언마 안 허주게. 놀 거는. 또 저 물른 것은 머리엿인오름 가사. 머리여진 오름 가근에 멧 번 쉬여사 읍니다게. 것도.

104025 @ 으.

104025 #1 무거와. 거.

104025 @ 게난 짐으로 험 땀 흑시 두 짐 헤영 영 번갈아가명도 정 오기도 험니까?

104025 #1 누게가 저 집의 이시민 혼디 강 저다 주곡.

104025 @ 음.

104025 #1 혼디 저다주곡 저다 줄 사름 엿이민 자기냥으로 정 집의 와야수다게 마썸. 경헤여.

104025 @ 알앗수다.

104025 #1 아너본 게 엇수다.

104026 @ 삼춘, 여기도 솟은 귀마씨?

104026 #1 솟은 안 귀봐신디.

104026 @ 솟은 안 귀환예?

104026 #1 덕수 솟은 안 귀봤수다. 솟 불미는 하영 헛수다. 불미 우리 씨아버님

이 불미허난.

104027 @ 불미를 허고예?

104027 #1 예.

104027 @ 그 낭허레 강은에 뭐 잊어불지 못허는 거. 뭐 너무 어두왕 못 오거난 너무 하영허여근에 구루마가 얹어지나 이런 거는 엇어마씨?

104027 @ 아이고, 구루마는 얹어지젠 허민 한이 엇게 얹어질 거라도. 사람이 그 소, 소머리에 딱 잡으민 이것이 소 머리민 이렇게 막 저 못 가게.

104027 @ 으.

104027 #1 너미 산판이 굿으니까. 그 옛날에사 얼마나 굿엇수다. 이제사 질 좋앗 주마는.

104027 @ 음.

104027 #1 질이 영 뉘고. 돌맹이가 흐끔만 제게 가민 확 넘어져마썸. 소머리가 이렇게 막 멩겨사 발 버청 멩기지 안 허민 자룩허게 내리민 팍 허게 저 동부져불어 마씨.

104027 @ 동부지는 거예?

104027 #1 동부지민 사름덜이 다 모다들영은에 흐디 간 사름들이 그거 일리지도 못허여마씨. 게문 문딱 클러야.

104027 @ 클러야.

104027 #1 누게네 구루마 돛부젓저. 경 그치룩 곱아낫수다. 이 덕수 사름덜 다 흐디덜 다 가난에.

104027 @ 예.

104027 #1 흐디덜 다 가난. 경헌디 어린 때에 아이는 나 하나벳기 안 멩겅수다 게. 나 하나만 경 멩겅수다게. 또 살명도 헤나고.

104027 @ 아아.

104027 #1 그디 가 흐 메틀 으라 날은 안 살고. 저 우리 스춘 오라방허곡 셋아방 허곡 헤근에 저 나 구루마 하나 아버지 구루마 하나 흥근에 셋아방 하나 스춘 오라 방 하난 허영 구루마 네 개가 가민 거기 가근에 넷물 질어당 나가 밥을 허고, 넷물 질어당 밥을 허영 오라방이영 셋아방이영 다 우리 너의 니 삼춘초케가 다 밥 먹으 명 흐 이틀이나 허여놔근에 흐 이틀이나 허여 놔근에 저오곡 헛수다게.

104027 @2 아 살명예.

104027 #1 그디 강 집 빌영에 집 빌언 살명마씨.

104027 @ 그 낭 허는 거는 다 꼭는 거?

104027 #1 예 집의 왕 옛날은 돈 날 것이 엇입디다게. 그거나벳기. 게난 그거 집의 오민 또 아버지진 따시 일주일에 흐번 가마썸. 일주일에 흐 번.

104027 @ 음.

104027 #1 살앙 혈 뎡 허엿당 사흘 허엿당은에 사흘 이틀이나 허곡. 그자 흐 일 주일에 흐 번 갈 때가 하 마썸. 그자 일주일에 흐 번 강 오민 두 구루마 게민 아부

지가 저 밧이 너미 하노난 아버지 밧 갈렌 협써. 나가 나가 저 모실포 낭 폴레 갓 수다게.

104027 @ 음.

104027 #1 구루마 끓영 나가 낭 폴레 갓수다게. 어이 엇지 안허우과? 나가 아버 지랑 밧 갈레 갑서. 아버지가 시기지 앓고 어머니가 시기질 앓고 나가 허쿠덴 헛수 덴. 아버지가 밧 갈아붙센. 빨리 말젠만 일 나가강 낭 폴앙 오쿠덴. 낭을 폴레 가는 거라마썸. 그치룩. 이젠 쟁피헤도 이젠 막 못 갈 거 아니우과?

104027 @ 웃음.

104027 #1 경헌디 그 옛날은양 뒷도 몰르고 일만 현 거라마썸.

사냥

104028 @ 그런 식으로 이제. 혹시 삼춘네 아버지나 뉘 아저씨나 사농허레도 텅 겨뵈마썸?

104028 #1 사농, 사농허레.

104028 @ 으.

104028 #1 아 사농허레는.

104029 @ 썸사농이나 이런 거.

104029 #1 썸사농은 아덜이 헛는데.

104029 @ 아들이.

104029 #1 작은아덜이.

104029 @ 어떤 식으로 허는 겨우과?

104029 #1 총을 가근에 빌려당 낱,

104029 @2 총으로?

104029 #1 여기 살명. 우리 저 총각인 때에. 자이도 자게 결혼 아녓수다게. 막 새 각실 글렁. 여자를 그치룩 글리명 가지 아녀난에 자이도 서른에 결혼헤신가. 서른에 결혼헤신가 몰르쿠다. 이제 메누리 막 저 무시거 총을 굿다 뇌근앵에 그거 현 들에 언마썸 세금을 내여마썸.

104029 @ 음.

104029 #1 썸 사농을 헤신디 이디 살 때에 어린 때부터 허영 허단에 뉘시 결혼허 영 우리영 삼년 ㄴ썸 살았수다.

104029 @ 음.

104029 #1 겨난 나가렌 헤도 나가지도 안 허곡. 경 집 빌어주켄 헤도 집 아니 허 연. 느시 ‘야, 저 느네 나강 살라, 나강 살아사주 어디 어명 사는 사름이 어디 시 니?’ 허민. ‘저 질레 강 울엄시민 어머니ㄴ라 욱헛니다.’ 허민. 야, 늘ㄴ라 욱헌다. 어디 어명 아방이영 사는 사름이 어디 시니? 늘ㄴ라 삼년 살아도 메누리 흐썸이라 도 요만이 하나도 엇어낫수다게. 썸어머님 상농민 썸어머닌 상 농민 아적 즈낙은 나가 밥 놓고 저 이제 메누리 아기 돌아농난에 아기 돌아두거 낫인 밥 놓곡. 경허

멍은에 삼년을 살안, 살아가난에 아이고, 나가렌만 막 허여가난에, 흐룬 어디레 간 계마는 어디 저 모실포사 가신디사 간계마는, 집의 완에 ‘닐랑 가근에 어머니영 아버지영 가근에 모델집 하나 이십디다. 강 그거 봅서. 좋냐 곳으냐 봅서.’ 경 글읍디 다게. 경 글으난에 간 봤수다게.

104029 @ 음.

104029 #1 간 보난 이제 저 모실포 저 이제 저 그 아파트.

104029 @ 음.

104029 #1 아파트 저 간 보난에 살만 험디다게. 살만 허난에 저 이제 ‘문 짓거들 라근앵에 이제 느네랑 이층에 살라. 이층이 질 좋나.’

104029 @ 으.

104029 #1 너미 노프민게 삼층ㄱ장 가가민 올라가지 곳지 아넘니까게. 우리도 곳도 저 아기덜토 곳곡 허난에 그디 강은에 이층에 이층을 구지베기 허게 웬 거라마 썸게. 구지베기 허난 아이고, 일층이 웬 거라마썸게. 일층은 덤나게. 우리 문딱 갖수다. 문딱 아기덜 아기 하난 일 아이고, 구지베기허난 이층이 질 좋은디게. 이층이. 어떤 할머니가게 바꾸젠마씨게.

104029 @ 음.

104029 #1 바꾸젠 허영 이층에 살앗수다게. 아파는 반석.

104029 @ 반석 아파트예?

104029 #1 반석 아파트에 간 우리가 다 돈 물엇수다게. 우리가 빌려 줘야 웬 거 아니우파게. 우리가 빌어쥬에 그때에 삼천, 아니 삼천백만 원 줘진 거 닻수다.

104029 @ 음.

104029 #1 삼천백 만원에 빌어준 거 닻수다. ㄱ만이 생각해보난 따시 일로 가스레기 흐꿈 잇언에 집을 살앗수다. 살안에. 살단에 따시 또 이제 아기덜 또 그 이디서 세 설 난 아기 집의 가난 울언에 흠치 모실폴 가난 이슬 갖수다게.

104029 @ 음.

104029 #1 가난 울언 살 만이우파게.

104029 @ 음.

104029 #1 이 저 덕수만 할머니네 집의만 왕 살켄 막 우난에.

104029 @2 웃음.

104029 #1 그날 제서우다게. 제숫날인디 나 ㄱ찌 가왔수게. 저녁에.

104029 @ 음.

104029 #1 ㄱ찌 간에 할머니도 갈 거. 할머니도 갈 거난 갖단에 이제 올 거옴. 경 세 설 난 것이 막 울언에 어린 때 버릇이 곳입디다게. 곳이난게 할망 하르방이 저 가네 밥 먹을 땐 할망 하르방이 보곡.

104029 @ 음.

104029 #1 따시 가네 왕은앵에 따시 아기 보민 우리 떡곡. 경허멍 버릇이 곳어신디.

104029 @ 으.

104029 #1 경허명 이젠 막 착해전 고등학교 삼학년. 공부도 잘 합니다게. 저 그 저 어디 잘하는 디엔 험디다. 그디, 그디서 국민학교 허난 시에 갓수게게.

104029 @ 예.

104029 #1 이제 시에 성제 살암수다게.

104029 @ 으.

104029 #1 경헨 나중에 어떻허년 살안에 멧년 살안 막 경 버릇 곳인 아기가 착 허문 허는 거양.

104029 @ 예.

104029 #1 계난 과수원에서 작년에도 하우스 안네 미깡을 날르는데 그 대으섯이 미깡을 타는데 성제가 미깡을 으섯 사름 타는 거 드러 날르난양 날르는 사름덜이 그치룩 칭찬을 허는 거라마씨.

104029 @ 음.

104029 #1 아기덜이 너미 착허덴. 놀젠을 아념젠 허명.

104029 @ 할망 님아신게.

104029 #1 아기, 사름이 아길 낳주.

104029 @ 으.

104029 #1 경 곤는 사름도 잇곡.

104029 @ 예.

104029 #1 따시 아기 돈 쥐뿔 가는 사름 잇고.

104029 @ 음.

104029 #1 저 켤당이난게.

104029 @ 예.

104029 #1 켤당이난 이녁 돈도 문 안 반양 주난. 메뉴리가게 높은 나가 밀고게. 허난 메뉴리가 ‘야, 그냥 내불영은 안 켤다. 뭐 사가렌’ 허난. 저 이백, 저 이백 개 짜리 커피 하나씩 사갑디가게.

104029 @ 음.

104029 #1 상 주난.

104029 @ 음.

104029 #1 따시 재작년에 이백 개짜리 하나 주곡. 올히 커피덜 핫젠 허명 글암 켤. 핫젠 허명 글으난 돈 이만원씩 주난에 이녁돈 부쩍 그 아기덜 쫓저 험디다.

104029 @ 음.

104029 #1 계난 나 이 저 갈빚대 꺼근난에 저 무시거나 허곡. 가근ㅇ.

104029 @ 웃음.

104029 #1 갈빚대 꺼끄난 어 아덜 깃딱도 못허게 헨에 난 간식이나 허곡. 경허난 무시거 든직갱이 잘 헤실 거우다. 아이덜이 잘험디게.

104029 @ 예.

104029 #1 막 저 무시거 하우스 미짱 타난양 더운디 탓수텐 허멍 무시 거 이백 개 짜리 쫓첸허난 막 겁넌디다게.

104029 @ 음.

104029 #1 재작년에. 작년에는 또 돈으로 이만 원씩 쥐불. 주난에 죽은어멍네영 문 빌언 허난게 켜당엔 현 사름은 돈 만원 더 부짱 주고. 아기덜을 그치록 착허덴 허멍. 간세성이 엇읍니다게.

104029 @ 음.

104029 #1아기덜토. 겨꼭 아방이 저 부지런해놓난 아방이양 이것도 공부라고.

104029 @ 으.

104029 #1 이것도 공부니까 이것도 허여야 된다. 너 어린 때부떠 경 곱읍디다게. 밧디 저 농장에 가민 ‘공부를 할래 일을 허영 살래.’

104029 @ 음.

104029 #1 아방이 경 곱으민 ‘공부허영 살켄’ 마썸. 아기덜이.

104029 @ 음.

104029 #1 공부허영 살켄 곱읍디다게. 경허민 어린 때 국민하곤 때에 미짱을 타 레 가민 ‘할머니, 나 열 개, 열 개 허민 돈 언마 주켄 아방이 곱으민 그 콘테나로 열 개 타놓민 돈 얼마 주켄 허여근에 자기냥으로 딱로 놓디다게. 열 겹 딱로 놓민 ‘할머니, 나 것디레 비와 주세요.’ ‘나것디레 비와 주세요.’

104029 @ 웃음.

104029 #1 경허영근에 돈 흐끔씩 쫓수다게.

104029 @ 음.

104029 #1 우리도 경 허엿수다게. 유채 강 비빈 돈 얼마씩 주멍 빌영 헛수다게.

104029 @2 예, 맞수다.

104030 @ 여기 혹시 이 동네서도 노리 사냥덜도 헤낫수가?

104030 #1 노리 사냥은양 코 놉근에양.

104030 @ 예.

104030 #1 코 낱은에 잡는 사름은 슬쩍슬쩍 흐끔씩 잡앗수다.

104030 @2 코 낱은에?

104030 #1 계난 노리 잡으렌 터뵈 땡기진 못헤십주게.

104030 @ 예, 예.

104030 #1 코 놉근에 잡곡. 저 우리 아덜은 경 꿩을 드려 쏘아근에엿 허난 꿩 쏘으단에 이제도 꿩이 너미 많아마씨게.

104030 @ 음.

104030 #1 꿩이 하난 무시거 허여 먹질 못허쿠다게. 허여먹질 못허난에 ‘야, 느, 저 총 으져오랑’. 아이가 막 바쁘난에. 난 아넘시카부덴. ‘총 으정오랑 이 총소리라도 흐쓸 내우라게. 이 꿩 제완 살지 못허켜.’ 경허난 ‘아이고, 난 총 아년에 바쁘고 게 총 아넘수다. 이제 아녀노렌. 일도 바쁘고 총 아넘수다. 저 꿩 쏘아가난 어멍 좋

지 아냅니다. 경 글읍디다.

104030 @ 예.

104030 #1 경험니까?

104030 @ 예, 예.

104030 #1 아, 그것도 알양 경험수다양.

104030 @ 음.

104030 #1 썩 쏘아가난.

104030 @2 좋지 안 험니다.

104030 #1안 좋텐 마썸. 안 좋안 썩 쏘아가난.

104030 @ 예.

104030 #1 총 ㄹ져 가불엇수텐. 게난 총 ㄹ져가불엇텐 이디서부터 총 들런 총 메 연 뎡겝수다게.

104030 @ 음.

104030 #1 일허당은데 트망에 그 저 총 쏘으레 갑디다게.

104030 @ 음,

104030 #1 경허연게마는 으라 해 흔 이십년 으저뎡겝수다. 경허단에 이젠 썩이 너무 많으난 들으난 ‘아이고, 난 이제 아넘수다.’ 모슬포 강도 친구덜이영 썩 쏘으레 읍니다게. 과수원에. 오는 거 보문 와근에 저 무시겨우과? 저,

104030 @ 음.

104030 #1 저 허영은에 친구덜 문딱 모여 앗양 먹엄십니다. 샤브샤브. 샤브샤브 허영 술덜 먹고 험니다게. 친구덜이영 허영. 경허는디 친구덜이 하마썸. 일 한 집의 친구덜 오민 경도 허는 거 닻아마썸게. 일도 못허곡게. 게난 큰아덜네도 뎡기명 글 읍네다. 저 잘 먹지도 못허곡 친구덜은 흐뎡 쉬젠 허민 친구덜만 문 데여들엄젠 경 허명. 우리 메뉴리도 글읍니다. 큰메누리도. 드러 글읍니다게. 언치낙도 불 안 썩저 렌 험디나게. 난 우로 와불고. 알론 가넨 오명 어떠한 차도 가 세 개우다게. 가네 차도 세 갠디 어떠한 차도 하나도 엇곡 불도 안 썩저십디다게. 시에 느렛닥 저녁 시간이난 저녁 먹어야 갈 건디 불 썩질 건디 어디덜 가난 차도 하나도 엇어 경 글 으명 헛수다게.

104031 @ 여기 혹시 지다리도 잡는 거 들어판마씨?

104031 #1 아, 지다리도 코 낭.

104031 @ 아 지달이도 콩낭예?

104031 @2 코 낭예?

104031 @ 거는 굴 앞의 코 노는 거라마썸?

104031 #1 지다리도 우리 과수원에도 잇수다게.

104031 @ 음.

104031 #1 미깡을양, 그 지다리가 미깡을 와근앵에 막 탕 사름 탕은에 저 영 벅 경 먹은 거라마썸게.

104031 @ 음.

104031 # 낭, 낭 하나에 거 문짝 타근에 경헌디 어떠한 요즘은 경 아념수다.

104031 @ 음.

104031 #1 이거 혼 뒤 해 경 아념수다. 누게 코사 난 잡아부런신디 어떻게 허엄신디.

104031 @ 음.

104031 #1 경 아념수다. 지다리가 뒤 개 신 거 닻은디. 밧 두 개에 경 허는 거 보민.

104031 @ 옛날 지다리도 보민 약 헌텐 허멍예?

104031 #1 예, 예.

104031 @ 어떤 디 약 허는 거?

104031 #1 과수원도 춤 저 병원도 경 엇고 약도 경 엇이난 그거 먹으면 사름도 술도 흥쓸 올르고 해가민게 그 약도 뒸는 거 아니우과? 경헌에 잡안 먹엇수게. 또 노리, 노리는 노리빠가 쉼난에 쉼난 그 노리빠에 언만 행은에 딱시 상도 먹고 뒸 물빠 상 먹듯이 허여낫수다게. 켄디 이젠 노리도 술짝술짝 잡아근앵에 그 뒸허는디 가민.

(생략)

104031 #1 몰래 허고. 그 콩밭디영 무신 거 모멸 갈앙 코 난 잡암수게. 코 난 잡암주.

104032 @ 족제비는 어떤 식으로 헤나수가?

104032 #1 족제비는 잘 못 봅니다. 족제비도 덧 놔근에. 건 그건 덧 낱

104032 @ 좃덧? 으.

104032 #1 중이 잡앙 덧 놔. 중일 잡앙 덧을 놓난 고길 놓나. 덧 낱 잡아낫수다. 우리도 덧으로 잡아난.

104033 @ 족제비로는 뒸허는 거마씨?

104033 #1 족제비는 풀아낫수다. 옛날에.

104033 @ 아.

104033 #1 겁테기. 겁테기를 필요허니까. 겁테기 풀고, 그 쪽은 먹지도 아녀신디.

104033 @ 쪽은 안 먹고예? 아. 겁테기만.

104033 #1 쪽은 안 먹고. 겁테기만 싹 뱃겨근에 거 말려근에 말리민 북삭허게 그거 언마나 그 비싸낫수다. 옛날은.

104033 @ 아아.

104033 #1 비싸낫수다. 겁테기. 겁테기 풀아난.

104033 @ 그런 거 말앙 생이를 잡거나 이런 것도 헤난마씨? 생이총 헨?

104033 #1 생이총 허영 그 장난게. 생이총 허영 헤여십주게.

104033 @ 예.

104033 #1 켄디 우리도 허엿수다마는 우리 죽은아덜은양, 농장에 간 생이 잡앙

와신디 또 심언 와신디 또 심어단 놔불언. 그런 베랭이 하나 안 죽입니다.

104033 @ 아아.

104033 #1 안 죽여. 게난 저 베랭이 하나 죽이지 안 합니다.

104033 @ 음.

104033 #1 게난 과수원에 심어가수게. ‘야, 그거 느 문뜩게 무신 코 그 조둥이로 문뜩 무신 거 쏘아부는 거 무사 심어 간디게.’ 허민.

104033 @ 으.

104033 #1 에이그 그거 하나 심어랏자 심어가불엇수다게. 죽이나 어떻게 안 합니다.

104033 @ 옛날은 보면은 초집혈 때 초집 그예, 집가지에 새 잡곡 헤어나시 아녀 낫수가? 생이들?

104033 #1 생이덜?

104033 @ 으.

104033 #1 생이덜 생이집 짓영은에 그 속에. 잡양 먹으, 먹은 사름도 신 거 닭수다. 이 뒤칩의 저 개구리도 잡아당 맥이꼭 아기.

104033 @ 소중의 입으민예?

104033 #1 예, 예. 개구. 너미 아기가 빠지난양.

104033 @ 예.

104033 #1 개구리도 큰 거.

104033 @2 다리만 헤근에.

104033 #1 그거 잡아당 맥이는 것도 잇고. 우리 성담을 빌영 다젠 허난 뒤칩의 사름 죽어불엇수다마는 뒤칩의 사름 베염도 잡아당 권 먹읍디다게. 우리 밧디서. 베염 잡아당 제개 돌아갓수다. 놈의 담 다레 드러 텅건. 놈의 담 다레 드러 텅겅수다.

104033 @ 알아수다. 삼춘 막 버치지예?

104033 #1 아니, 아니.

5. 바다일

105001 @ 아까 그 바당허는 거예? 바다에서 허는 일 어떤 거 잇어마씨?

105001 #1 뭇 허는 거?

105001 @ 바당에서 허는 일들?

105001 #1 아, 바다에서 허는 거?

105001 @ 예.

105001 #1 바당에서 허는 거 우리 이 팡촌에서 무신 바당에 거 허곡대곡 그 옛날에게 그. 몐, 몐 허여다근에 그 바당물이 그 아척이 언마나 추웁니까게. 그거 추운 중도 모르고 경 어린 땀 경허여집디다게. 바당에 강 몐 헤다근앵에 그걸 문 들

려근엥에 큰 승키엔. 반찬이엔 그거 허여당은에 장에, 장에 컷단 먹은 말 아니우과
계?

105002 @ 예, 혹시 듬복도 알아지쿠과?

105002 #1 뭣?

105002 @ 듬복?

105002 #1 듬복이 뭣이과?

105002 @ 듬복은 몰르고. 바당에 나는 감태는?

105002 #1 아, 감태는 잘 압주.

105002 @ 감태도 해반마씨?

105002 #1 감태는 아녀봤수다. 감태는 허여당은에 그 걸름헌덴 허는 거 아니우
과? 감태.

105003 @ 걸름. 그 다음에 바당에 그 강 저기 보말들?

105003 #1 예.

105003 @ 보말들은 잡안? 으, 어떤 것덜?

105003 #1 보말도 잡곡 구제기도 허곡.

105003 @ 예.

105003 #1 구쟁이 하영 잡아봤수다.

105003 @ 강인?

105003 #1 강이 ㄴ쁜 거. 그런 거는 잘 해봤수다.

105003 @ 보말허고 강이들은 어땡 잡안마씨?

105003 #1 강이는 저 영 무는 거난에 무는 거 어염에만 가지 말앙 판 디만 심으
민 어땡 안 허고.

105003 @ 예.

105003 #1 강이는 돌아땡기는 거난양.

105003 @ 예.

105003 #1 돌아땡기는 거난 그건 잡을 수 잇고. 보말도 부쁜 거난 돌멩이 일리민
돌멩이 일리민 보말도 나오곡 소라도 나오곡 험니다.

105003 @ 돌멩이 일렁?

105003 #1 돌멩이 일렁.

105004 @ 그 보말도 종류가 이신가마씨?

105004 #1 예, 종류가 잇입주게. 종류가 저 먹보말도 싯곡.

105004 @ 음.

105004 #1 수두리보말도 싯곡.

105004 @ 먹보말허고 수두리보말예?

105004 #1 수두리보말은 맛있고.

105004 @ 음.

105004 #1 먹보말은 좋지 아녀마씨?

105004 @ 아, 그 다음에 그 ㄹ메기는?
105004 #1 ㄹ메기?
105004 @ 으.
105004 #1 ㄹ메기ㄹ뜨 건 그런 건 아녀봣수다. 보킨 들어봣수다마는.
105004 #1 가막부리.
105004 @ 가막부리?
105004 #1 가막부리는 맞습니다.
105004 @ 돌에 부뜨는 거예?
105004 #1 딱 부뜨는 거 훑은 거만 해당은에 그디서 밀어근에 찬물에서 막 밀어 근엿에 ㄹ 그 저 저 무시거 ㄹ 썻, 허여똥은에.
105004 @ 음.
105004 #1 ㅅ어똥은에 그, 그건 무사 ㅅ엄신고허민 그 저 무시거 몰레마씨.
105004 @ 예, 예.
105004 #1 몰레를 막 밀어야똥마씨. 돌에서 너부작헌 돌에 ㄹ 드러 밀엿은에엿 ㄹ 딱 행과똥 집의 오랑은에 행과근엿에 그 ㅅ아근에 거 건저똥근에 미역 ㄹ 국끓렁 먹고마씨.
105004 @ 아아.
105004 #1 국 끓렁 먹고. 가막부린 그냥 그냥 올라먹고.
105004 @ 예.
105004 #1 그건 아주 좋아마씨?
105004 @ 아, 가막부리 영 생경 동글락헌 저기 현 거지예?
105004 #1 아니 솔랑헌 거.
105004 @ 솔랑헌 거? 히뚜룩헤엿근에.
105004 #1 아니. 요만이헌 소랑헌 거
105004 @ 보말 ㄹ은 거? 검은 거?
105004 #1 검은 거.
105004 @ 검은 거?
105004 #1 그거는 국 끓려도 맛잇어마씨. 미역 ㄹ 국 끓리민.
105005 @ 그 다음 삼춘, 강이는 종류 어떤 거?
105005 #1 강이 종류 막 합니다. 거 강인 그 무신 ㅍ강이. ㅍ강이도 ㅅ고.
105005 @ 으.
105005 #1 또 훑은 강이도 ㅅ곡.
105005 @ 으.
105005 #1 ㄹ 건 ㅍ강이마씨.
105005 @ ㄹ 건 ㅍ강이. 강이로도 똥 행 먹어?
105005 #1 강이, 강이 해당은에 보까근에 ㅄㅄㅄㅄㅄ ㅅ어먹어집니다.
105005 @ 건 어떤 식으로 보릅니까?

105005 #1 존존헌 거 물에 씻어뒀은에 기름 농곡 허영 보까.
105005 @ 보깡 떡곡예?
105005 #1 보깡 반찬으로.
105006 @ 여기서도 옛날 헛불 들영은에 헛바리허레 갖다완?
105006 #1 아 건 아녀봤수다.
105006 @ 건 아녀보고예?
105006 #1 그런 건 아녀봤수다.
105006 @ 이 여기는 바당 가든 어느 바당 가는 거우과?
105006 #1 세계바당.
105007 @ 세계 바당. 세계 바당도 원들도 잇엇우가? 멜 드는 원담들?
105007 #1 아이고, 옛날엔 많이 헤십주.
105007 @ 여기도 원이엔 헤?
105007 #1 원엔 허영 하영 들어나신디 이제는 거 엇어마썸.
105007 @ 것 엇고예? 그 원에는 주로 어떤 퀘기들 들어마씨?
105007 #1 그디, 멜 들엇쟁은에 막 저 멜 들엇저, 멜 들엇저 허민 멜 사례도 가
왔수다. 멜 들엇저.
105007 @ 멜 들엇저.
105007 #1 멜 들엇저.
105008 @ 그 원 보수허는 거 이런 거 안 봐나시켜예? 돌 다고 허는 거.
105008 #1 예, 예. 그건 안 봐나고.
105009 @ 안 봐나고. 멜 들 때는 어떤 식으로 잡읍니까?
105009 #1 멜 들엇젠 허는 건 거리는 거마씨. 막 이레 막 들어왕. 이레 들어오민
거려마씨. 그 그 족박엔 헌 거 만들아근에 그 저 자리ㄴ쁜 거 거리는 거.
105009 @ 예.
105009 #1 그걸로 거릅니다. 거려.
105009 @ 족박? 족바지?
105009 #1족박이엔 험디다.
105010 @ 족박으로 거리고, 여기서도 퀘기 나끄레도 덩겨판마씨?
105010 #1 여기서 우린 안 다녀봤수다마는 퀘기 나끄게 갖당 죽고. 죽은 사름도
잇고. 잘 갑니다.
105010 @ 어렝이ㄴ쁜 거 나끄젠 행도 가곡?
105010 #1 어렝이여 무시거여덜 나까다근에 이디도 저 나까당은에 주민 떡곡 헛
수다.
105010 @ 어떤 퀘기덜 나까신고예?
105010 #1 아, 무신 거. 한치.
105009 @ 예.
105009 #1 주로 한치 많이 나까단에 먹읍센 허멍 ㄴ저와십테다.

105011 @ 여기서도 춤데덜 만들양 가는 거 봐판마씨?
105011 #1 춤대 우리 족은아덜마씨.
105011 @ 예.
105011 #1 족은아덜 춤대 사당은에, 사당은에 고기 나끄레 드리 텡기당 이젠 힘
들엉. 춤대 실 겨우다.
105011 @ 춤대 무신 낭? 뭐 퀘기 뭐 나짱 오는 거?
105011 #1 무신 퀘기 무신 준준헌 거 나까당은에 무시 것사 험신디. 우리 족은아
덜도 무신 거 잘 험니다.
105011 @ 이것저것 막 잘허는 분이구나예?
105011 #1 이젠 바빴마씨. 바쁘고 나이들고 허난.
105012 @ 으, 혹시 그 소살로 퀘기 쏘으는 것도 봐판마씨?
105012 #1 아, 그거는 텔레비전에 본 겁주뵤.
105012 @ 텔레비에 본 거고예?
105012 #1 텔레비전에서 해너덜.
105012 @ 예.
105012 #1 해너덜 소살로 쏘으는 거 봤수다.
105014 @ 해너들은 바당에 가면 삼춘도 바당 속에도 강 해판?
105014 #1 바당속엔. 그냥 숨비여근에 들어가보긴 헛수다.
105014 @ 아, 숨비영. 숨비영 뭐 잡아마씨?
105014 #1 숨비영 저 무시거게. 무신 소라, 소라.
105014 @ 소라 여기서 뭐렌 해?
105014 #1 구제기.
105014 @ 구제기예?
105014 #1 구제기 숨비영 잡앗수다게.
105014 @ 숨비연 잡곡?
105014 #1 젊은 때.
105014 @ 구제기 말고 또 뭐 잡안?
105014 #1 구제기 ㄹ쁜 거. 어떤 땐 기분 좋은 때 저 물꾸럭. 그런 때에 하나씩
물꾸럭도 봐지고.
105014 @ 예.
105014 #1 잘 텡겡수다게.
105014 @ 예.
105014 #1 멀어도.
105015 @ 기구나예? 그 숨비젠 허면 줌녀들 허젠 허면 뭐 들렁가?
105015 #1 기냥 기냥 구덕 하나만 영 들렁가근에 그냥 임시 영 머리 질렁은에
들어 강은에.
105015 @ 눈 썩?

105015 #1 눈도 저기 씻수다마는.
105015 @ 아아.
105015 #1 그 돌맹이도 물 이시난 잘 일어납니다.
105015 @ 아아.
105015 #1 무겍지 아녕.
105015 @ 아아.
105015 #1 큰 것도양 물 힘으로양.
105015 @ 아아.
105015 #1 으라 개 쉽니다. 하나만 씻지 아녕. 가치 노는 그라양, 으라 개 쉽니다.
소라. 으라 개 쉽니다. 경혜영 드러 잡으레 멩겨낫수다. 잡아당 떡곡.
105017 @ 속곳 안 입곡?
105017 #1 아니 그냥.
105017 @ 그냥 강은예?
105017 #1 그냥. 이디 속곳 허고 하간 거 허레 경 다니지 안 헉니다.
105017 @ 뭘 글쟁이도 가정가야 뤼고?
105017 #1 글쟁이허고 호미허고 그거 두 개.
105017 @ 두 개 가정 가?.
105017 #1 두 개만 그져강.
105017 @ 건 글쟁이렌 헤마씨. 이름을?
105017 #1 예.
105017 @ 글쟁이허고예? 게문 그 소중이 이런 거 입은 거는 안 봐실 거고?
105017 #1 애이그, 그런 거 안 입읍니다. 만들지도 안 허고. 이딘 웃드르라부난
그런 거 아넵니다.
105018 @ 툷도 헤반마씨?
105018 #1 예게. 툷 허당은예 이제는 저 툷 막암주마는 옛날은 툷 안 막을 때예.
그거 먹을 걸로 알지도 아녕양. 흥뽀م 해당 흥쓸 먹어뵘 말고양.
105018 @ 음.
105018 #11 미역은 많이 헛수다.
105018 @ 미역은 하영 허고예?
105018 #1 미역은 하영 헤단 먹엇수다.
105018 @ 예.
105018 #1 막을 때. 미역 드러 막을 때.
105018 @ 미역 막안예?
105018 #1 막 막아근에 못허게 스뽀 세계 사름덜 문 못허게 허민 덕수 낭허레
오지 말렌 허곡.
105018 @ 어어.
105018 #1 덕수랑 낭 허영 가당은예 낭 허영 가가민 우리 저 미역이랑 못허게

허곡 무사 낭허영 감수겐 경도 곧곡 허여낫수다게.

105018 @ 예에, 맞아.

105018 #1 경혜신디 이제는 미역은 터 낱 허고 툇은 못허게 햐수게. 거꾸로 뒤연.

105019 @ 그 이 바당에도 우미도 낱니까?

105019 #1 우미?

105019 @ 예.

105019 #1 예게, 우미 낱니다.

105019 @ 우미도 햐당 뭐햐 먹어낱?

105019 #1 나 잘 숲앙 먹읍니다. 우미도, 우미도 옛날에. 이젠 바당에 갈 생각도 아녀고. 이디도 즐바로 못 걷는 사름이 바당에 강 텡겨집니까?

105019 @ 어떤 우미덜 허영 먹는 거라?

105019 #1 게민 우미 사당.

105019 @ 예.

105019 #1 사다근엔엿 드리 딸렁 걸렁은에 저 뇌두민 트랑트랑허는 거난게.

105019 @ 예.

105019 #1 건 얼마든지 햐니다.

105019 @ 예.

105019 #1 건 허영 먹어낱 거난.

105020 @ 옛날 전북도 잡아보고?

105020 #1 전북도 잡아보고.

105020 @ 으.

105020 #1 젊은 때는 드리 바당에만 다녱수게. 늘크레기라노난 못 가는 디 엇어 마씨게. 산방산도 문 올르고.

105020 @ 늘크레기. 게문 삼춘, 뭐가 도대체 늘크레기우과? 삼춘.

105020 #1 나무 우의도 잘 올르고. 밀감 탈 때도 나무 우티레 화륙화륙 올라가 명. 자인 낭 우의 잘 올르는 아이라. 경 곱읍니다. 게난 나냥으로 곱는 말입주게. 아 니, 어머니가 늘크레기엔 곱아낫수다. 저 늘크레기 어디 가신고? 저 늘크레기.

105020 @ 여기 저기 막 잘 다니니까예?

105020 #1 낭 우티레 올라강은에.

105020 @ 놀아다녕은에.

105020 #1 제곡 햐농민양, 제곡 햐여농곡 허민 저 늘크레기 어디 가시? 어명이.

105021 @ 예, 삼춘, 전북허고 구쟁이도 그 종류가 이십니까?

105021 #1 구제기도게 조쿠제기가 싯고.

105021 @ 으.

105021 #1 구제기도 두 가집주게.

105021 @ 예. 조쿠제기 허고?

105021 #1 조쿠제긴 족은 거.
 105021 @ 그 다투?
 105021 #1 전북은 큰 거고. 딱시 그 저 무시거.
 105021 @ 바르?
 105021 #1 아랫 건 거 바르, 바르고.
 105021 @ 예.
 105021 #1 계난 것도 큰 거 족은 거 그 곱 같음으로 경 곱암수게.
 105022 @ 예. 맞아예. 옛날 여기 텃배. 테우. 터위? 테베, 테베. 그런 거 안 봐
 환?
 105022 #1 아니.
 105023 @ 아니, 건 안 보고예. 돛배, 배 초석배 현 것도 봐봬디가?
 105023 #1 아, 초석배 현 거 옛날에 그 땡기명 그 저 바당에 옛날에 그 저 어린
 때에.
 105022 @ 으.
 105022 #1 초석배 혜영 땡겨낫수다게.
 105022 @ 예.
 105022 #1 덕수 사름은 아녀 봤수다게.
 105022 @ 건 아녀고?
 105022 #1 세계 사름이나 허주. 덕수 사름은 아예 농사나 짓주. 옷드르서 그거
 험니까게. 허지도 안 허주.
 105023 @ 맞수다. 잠깐만예?

6. 의생활

옷감

106001 @ 삼춘, 이제는예, 저기 옷. 옷그움은 어떤 것덜 잇어난마씨?
 106001 #1 아이고, 옛날에사 옷그움이 어디 잇수가. 옷그움 우리 어릴 때는 잇어
 근에 어머니가 멘네 갈앙은예 그거 정대로 밀어근앵에 요만씩 질게 허여근에.
 106001 @ 음.
 106001 #1 그걸로 문 썰만들아근에 문 문 놀아냥 딱시 메여근앵에 그걸로 옷 허
 명 입엇수다게.
 106001 @ 예, 그게 무슨 옷마씨? 경허영 만든 천이?
 106001 #1 미녕. 미녕마썸.
 106001 @ 미녕예. 게문, 삼춘 미녕 썰 멘드는 것도 봐판?
 106001 #1 예게.
 106001 @ 미녕썰힐 때?

106001 #1 미녕썰 혈 때. 물레로 좇아근에.

106001 @ 예.

106001 #1 썰 영영영영 놔가는디양 나는 못허여마씨게. 어머님 드러 허당 어디 가불민 허여보젠 허민 못허영 문딱 몽뚝 굴뚝 짚어붙엇수다.

106001 @ 웃음.

106001 #1 경허여근에 베클러레 앓저근에 베클 차당 놔두민 따이 어떻 허는 거 봐근에 아주 어린 때라노난양. 따시 베클에 앓아근에 그거 범벅해부는 거 아니우과?

106001 @ 예.

106001 #1 허여보젠 허당 안 뉘영 범벅허영 막 욱들엇수텐허난.

106001 @ 안웁니까?

106001 #1 못허여마썸. 너무 어려부난양.

명주

106002 @ 멩지, 그 멩지에, 게민 미녕 말고 멩지? 멩지도 이 동네서 차난마씨?

106002 #1 멩지는 결혼허영 오란 질랏수다.

106002 @ 헛수가?

106002 #1 나 손으로 질랏수다. 질화근에 저 어디 저 넓개오름에 가근앵에 무신 거 허여당양.

106002 @ 뽕썸.

106002 #1 뽕허여당은에 주곡. 문 그거, 그거 문 이 저 누리룽허영은에 올리는 걸 알아져마씨게.

106002 @ 누에예?

106002 #1 누에. 게민 무시거게. 저 유채낭 해당은에 과짜 쉼와근에 그 우티레 놔두민 그것이 문딱 그 문 그 베랭이 속에 들어앗아두서 문딱 자기냥으로 멘들앙 고지 짓어근에 허민 그거 따시 그거 저 우리 쉼당할망 시난에 할망 빌어근에 그 썰 빼영.

106002 @ 썰 어떻 빼는 거?

106002 #1 아이, 썰은양 무시거 허는 기계가 십디다게.

106002 @ 음.

106002 #1 게난 그거 흐뚱씩 들이치명 줄줄줄줄 나와근에 그거 따시 문 허영 멩지도 멧 빌 헤여낫수다.

106002 @ 멩지도 직접 헤반?

106002 #1 하영헤연에양 뵈 몰란 문딱 풀안마씨?

106002 @ 잘 낫어야 뵈는데.

106002 #1 이녁 쓸 생각을 아녀고 젊을 때난에 문딱 풀안 써불언마씨.

106002 @ 아아.

106002 #1 잘 돼야마씨. 안 되는 사람은 베랭이 다 죽어불영 안 돼야마씨. 나는 잘 잘 됩시다게. 하영 으라 빌 헛수다.

106002 @ 음.

106002 #1 저 차는 사람은 엇어마씨. 엇으면 하원 강은에 하원 ㄴ정강 차와마씨.

106003 @ 음. 멩지썰 현 걸로예.

106003 #1 멩지.

106003 @ 멩지도 종류가 잇입니까?

106003 #1 아이고, 종류 곳인 거 좋은 거 그거벳기.

106003 @ 토멩지영 이런 말은 안 들어보고예?

106003 #1 토멩지 무사 잇수다게. 토멩지는 이디 거. 토멩지는 이디 거. 육깃멩지 엔 현 거는 좋지 안 허고.

106003 @ 예.

106003 #1 이디 건 모지직헌게 좋아마씨.

106004 @ 멩지로 뭐 멘든 거라마씨?

106004 #1 멩지로 나도 풀안보난에양 그걸로 저 결혼할 때에 남즈덜 아덜덜 결혼할 때에 도복도 허고 바지저고리. 그걸로 나 허는 거 아니우과?

106004 @ 으음.

106004 #1 나도 그거 문딱 아덜덜 산 허여췌수다게. 난 풀아된에.

106004 @ 으.

106004 #1 좋은 멩지 문딱 풀아된에. 나도 도복덜영 다 허여췌수다게. 게난 그런 거 허염수게. 게고 또 죽으면은 입는 거.

106004 @ 예.

106004 #1 도복은 그대로 입고. 그 저 창옷.

106004 @ 예.

106004 #1 창옷도 그걸로 만들어마씨. 그 멩지로.

106004 @ 멩지로?

106004 #1 예, 멩지로 만들어마씨. 멩지로 만들안에 멩지도 하영 드는 겁디다. 현 사람이 으섯 빌 드는 거마씨.

106004 @ 아아 으섯빌예

106004 #1 으섯빌씩.

106004 @ 아, 으섯 빌예?

106004 #1 전부 신발깁장 다.

106004 @ 게문 그 옷을 무신옷 헤여마씨? 여기서는.

106004 #1 그거.

106004 @ 으.

106004 #1 그거는 죽으면 입는 거.

106004 @ 호상이렌 험니까 저승옷엔 험니까?

106004 #1 저승옷.
 106004 @ 여기선 저승옷예?
 106004 #1 저승옷엔 험니다. 저승옷.
 106006 @ 그 다음에 누에 질룰 때 누에 행은에 즘자고 영허지 안 험니까예.
 106006 #1 예게.
 106006 @ 그거 곺아줍서.
 106006 #1 즘잘 때 그만이 헤여마씨. 품작도 아녕은에 그만이 헛당은에 즘자나면
 먹는 소리가 수왕수왕수왕 소리가 나마씨.
 106006 @ 예.
 106006 #1 경 하영 질좌낫수다. 나도.
 106006 @ 음, 계문 보통 어느 정도 질루민 썰 나와마씨? 누에는.
 106006 #1 그거는양. 석 들.
 106006 @ 음.
 106006 #1 그거는 흔 석 들.
 106006 @ 석 들 질좌예?
 106006 #1 석들 흐쓸 못 질룬 거 닻수다. 올르기 웨민 흐쓸 얼랑얼랑 허민 알아
 집니다. 심으멍 올리고. 손으로 심으멍 올렛수다 나.
 106006 @ 유챗냥에 올령 놔두면 고치가 웨는 거?
 106006 #1 자기 냥으로 집 짓영 만들아근앵양, 집짓영 곽닥허게 만들양 허민 그
 거 문딱 타근에 타민 문딱 겹죽 본데기 문딱 벳겨근에 그자 놔두민 놔뵤당 할망 빌
 영 썰 멘들안에 경 옷 멧 빌 헛수다. 멧 빌. 썰 멘들아 옷 멧 빌 헛수다.

무명

106007 @ 멧 빌예. 그 다음에 미녕도 종류가 으라 개 잇입니까?
 106007 #1 미녕. 예.
 106007 @ 으.
 106007 #1 미녕도 좋은 거는 일곱새 미녕은 질 나쁜 거.
 106007 @ 일곱새는 나쁜 거.
 106007 #1 일곱새는 나쁜 거. 썰이 훑어.
 106007 @ 예.
 106007 #1 흑고양. 썰이 흑고양 일곱새깁장은 썰이 흑고 그 우에.
 106007 @ 예.
 106007 #1 그 우에 거는 좋은 거. 좋은 거영 뵤 일곱새만 허주 뵤 멧 새 멧 새는
 아녀.
 106007 @ 으섯 새는 좋은 거마씨?
 106007 #1 그치록 일곱새 안네 것. 안네 것덜은 좋은 거.
 106007 @ 아.

106007 #1 일곱새 미녕은 좋지 아녀텐 경 곶아낫수다.
106007 #1 옛날사 미녕마씨게. 미녕옷.
106007 @ 기준이 일곱새 미녕이라낫구나예. 일곱새 미녕으로 무신 거 허는 거?
106007 #1 일곱새 미녕으로 허민 옛날사 갈중의 드리 입엇수게게.
106010 @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광목은 뭐마씨?
106010 #1 광목은 어디서사 나왔신디 우리는 그거 저 관계해보지도 아녀고 나오
는 디도 모르고 그거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쿠다.
106008 @ 삼춘네는 미녕으로만예?
106008 #1 일혈 때 사당은에 나냥으로 만들앙.
106008 @ 음.
106008 #1 나냥으로 우와기를 만들앙. 만들앙은엥에 저 아저씨도 입곡.
106008 @ 음.
106008 #1 우리도 입어근엥에 일헛수다게.
106009 @ 토목이렌 행도 들어봍디가?
106009 #1 아, 토목. 토목도 십주게.
106009 @ 예.
106009 #1 토목이엔 현 거 잇수다. 멩지도 토목이엔 허고.
106009 @ 으.
106009 #1 예. 그런 거.
106009 @ 건 어떨 거 토목이엔 헛니까?
106009 #1 토목엔 현 거 좋은 거.
106011 @ 좋은 거예? 그 다음에 흥세미녕?
106011 #1 흥세미녕?
106011 @ 으.
106011 #1 흥세미녕은 결혼헛 때에.
106011 @ 예.
106011 #1 그 저 아덜 풀젠 허민.
106011 @ 음.
106011 #1 그걸 흥세엔 허여근에 혼 빌을 놔마썸.
106011 @ 예.
106011 #1 그 저 그 차룽, 차룽착엔 허난 이제는 저 무시거 사당 헛니다게. 옛날
은 그 함.
106011 @ 함.
106011 #1 함 허영 그 안네 흥세미녕엔 허여근엥에 혼 빌 놓고 뭐 흥썰 뭐 무신
썰 헤영은에 그디 놓곡.
106011 @ 썰.
106011 #1 썰 문딱 놓니다. 각각의 썰, 썰 문딱 놔근에 보여여마썸게.

106011 @ 예.

106011 #1 사돈칩더레 보냅니다게.

106011 @ 예장ㄴ똥 거 쓰고.

106011 #1 예장 ㄴ똥 것도 농곡. 경허는 거 아니우과?

106011 @ 썰도

106011 #1 썰도 문딱 놓니다.

106011 @ 썰은 어떤 색깔 놓는 거?

106011 #1 색깔 색깔 흥썰도 농곡 썰 뒤 가지 서너 가지

106012 @ 삼춘, 멘네도 갈아뽑디가?

106012 #1 하이고, 멘네사. 멘넨 우리 완전 많이 갈았수다.

106012 @ 멘네 언제 어떻 가는 거 곶아줍서.

106012 #1 멘네.

106012 @ 예.

106012 #1 멘네 뭐 스월들, 스월들 낭은에 갈민 그 가을 들영은에 그거 탑니다
게.

106012 @ 예.

106012 #1 아이고, 엄청 멘네 갈양 우리 손지덜아올라 다 이불 허여줍수다게.

106012 @ 아아. 아직도 멘네 잇구나예.

106012 #1 결혼헐 거마씨.

106012 @ 아아.

106012 #1 딸손지 큰아덜에 저 딸.

106012 @ 예.

106012 #1 이제 결혼헐 거난. 새해나민 결혼헐 거난 저디 하나 헤연 놔두난 이거
ㄴ저가라 허멍 허난 너른 디 놔둬서 허난.

106012 @ 예.

106012 #1 이제 그 곳세 왔던 아인 거 어려도 쥐불언마씨.

106012 @ 예, 예.

106012 #1 늘랑 가이가 멘네 테우레 갑니다게.

106012 @ 아아. 예.

106012 #1 가이가 시깁. 가이도게 멘네 테우레 갑니다게. 가이도 저 그 친정에서
게 친정 저 창천리라도 사십년 뒤편수다. 저 친정이 시에 간지.

106012 @ 아.

106012 #1 시에 강 여관허멍 살아노난에 여관허멍 사는 도중에 우리 집의 왔수
다게.

106012 @ 예.

106012 #1 가이도 이불이 황당헐디다.

106012 @ 예.

106012 #1 저 토 이불이 저 이덧 소개가 아니.

106012 @ 예.

106012 #1 아니난 어떻허영은에 어멍 흔번 시깁 가민 이불 허나.

106012 @ 음. 웃음.

106012 #1 경허명 이불 막 으라 개 쫓수다. 계난 이불이 딱 그득아마씨. 가이 결 혼혈 때도 허여오지 말라. 우린 이불 놓을 디도 엇고. 허여오지 말렌 허난 아예 딱 막아부난 안 옷도 허여오지 말라. 허난 계난 돈 이백만 원 그져와십테다.

106012 @ 으음.

106012 #1 그 옛날에 우리 천만 원 가져갓수다게.

106012 @ 예.

106012 #1 그때 오백씩 거져감신디

106012 @ 메뉴리가 너무 짹짹허연.

106012 #1 천만 원 그져간 놈신디 안 골읍니다게. 갓수다게. 그때 오백만 원씩 그져갈 때게 우리 천만원 그져갓수다. 으져가난에 무시거 황당 험디다마는. 간에 음식이영 보난 황당허연 경 허여도 되는 건가. 미안한 감이 엇영. 경허는 그냥 살앗순 수다. 그 메뉴리 잘허여지난 아무 생각도 아닙니다.

106012 @ 맞아 예.

106012 #1 계난 이불 세 개 쫓수다게. 이불 우알 채 우알 채로 또 아덜 해주고.

106012 @ 따로 해주고.

106012 #1 따로 해주고. 아덜 해주고. 이불 세 우알 채는 아덜 더끄라 헤근에 따로 해주고. 또.

106012 @ 또 이불은 보통 여자 집의서 허는 건디?

106012 #1 테우지도 못허는 거양. 그 소겐 못 테운텐 험디다. 사근에.

106012 @ 사근에 허는 거.

106012 #1 무신 거 멧 개 허영 오지도 아녀난에 어멍은 이불 하난 그자 흔번 강 오민 이불 하나 해주고. 요번에 요 저 그슬 들어갈 때에 봄에, 저 가을에.

106012 @ 예.

106012 #1 가을에 간에 또 이불 헤여 왓수다게. 이불 허난에 저 손지 하나씩 헤 주켄 허멍 허난에 간에 이디서 산 간에 저 장에 간에 이 저 무신 거. 숨 싸는 것도 큰 걸로 사십주게.

106012 @ 예, 예.

106012 #1 큰 걸로 상 헤신디 그딘 가난 흐뎡 족아뵈디다. 족아베도 막 그 사름 이 용심난에 지네 거 안 산에 상 왓젠. 경허는 거 닳아도 딸 허나 잘못 헤 주난 딸 헤주멍 가왓수다. 가신디 저 이불 손지덜 하나씩 헤주켄 허난에 '느도 왕 하나 글 리'라 허난 '난 겹테긴 안 허쿠다.' 겹테가 아지는 뉘허난에 숨 싸는 거난 사줍센 허 난 숨 싸는 거 산에 가이 그져갓수다. 큰 메, 큰 손지 건 저디 허영 놔뵈수다. 허 영 놔두고 따시 딸엿 손지 거 하나 이제 험 거 놔뵈수다. 이제.

106012 @ 원, 원. 웃음.

106012 #1 계난.

모시

106013 @ 여기 모시?

106013 #1 모시?

106013 @ 아, 모시도 갈앙마씨?

106013 #1 아이고 모시 어떻 촌에서 험니까? 건 육지서 나오는 거 아니우과?

106014 @ 모시론 어떻 옷 멘드는 거?

106014 #1 모시로.

106014 @ 예.

106014 #1 모시로는 그 저 팔월맹질에양.

106014 @ 예.

106014 #1 팔월맹질에 중의 적삼. 중의 적삼 하양헌 모시로 혜영. 하이고, 모시 엄청 비쌌수다게. 중의 적삼 허젠 허민 중의 적삼 입고 모시로 창옷 행연 하양케 입었은에에.

106014 @ 제 지내고.

106014 #1 제 지나는디 제도 맞고. 언마나 좁니까게. 그거게.

106014 @ 맞아.

106014 #1 놈 보기도 좋고양. 팔월맹질에. 경혜근에 그 모시는 육지서 나옵니다. 육지서 나오주 여기서 제주에서는 안 나옵니다.

삼

106016 @ 그 삼베허는 삼도 제주에선 안 혜예?

106016 #1 제주서 아닙니다. 육지에서.

106017 @ 베는 어떤 옷 만드는 거우과?

106017 #1 베에?

106017 @ 삼베로.

106017 #1 삼베는 즘진 베는 우리 그 저.

106017 @ 예.

106017 #1 즘진베 하얀 거는 그 모시가 너무 비싸부난에.

106017 @ 예.

106017 #1 비싸부난에 중의 적삼 만들앙 입곡.

106017 @ 으.

106017 #1 우리도 우리도 허연 입엄수게.

106017 @ 음.

106017 #1 우리도 허여근에 하양 헌 거 우의 입어근에 여름에.

106017 @ 예.

106017 #1 하양현 거 헤여근에 사다근에 나도 두 개나 잇수다.

106017 @ 예.

106017 #1 사당 입고. 경허는 거 아니우과게?

106017 @ 그 다음에 삼베, 노랑현 거는?

106017 #1 노랑현 거 노인이나 입주. 나도 노인인디 경 곶아점수다게.

106017 @2 웃음.

106017 #1 그것덜토 입읍니다게. 무신 거.

106017 @ 옛날 상복도 멘들고.

106017 #1 그 즘진 거?

106017 @ 아니. 훤은 거.

106017 #1 훤은 건게 상복도 만들고게. 상복 비싸지 아닙니다. 훤은 거. 구천 원
게.

106017 @ 아아.

106017 #1 흔 빌에 구천 원.

106017 @ 옛날에 직접 짠 거는 막 비싼 거 아니우과?

106017 #1 비싼 거는양 이제 요지금 그 저 죽으면은양.

106017 @ 예.

106017 #1 거 무끄는 거.

106017 @ 으음.

106017 #1 이 저.

106017 @ 메치베?

106017 #1 예, 메치베.

106017 @ 음.

106017 #1 송장 무끄는 거.

106017 @ 예.

106017 #1 그거 그거 좋은 거라사 무끄주. 좋은 걸 쓰주. 계난 나도 흔 빌은 쓰
고 흔 빌은 잇수다게.

106017 @ 음.

106017 #1 그 메치베로 쓰는 건 좋은 거 해야마씨. 궂은 거 아닙니다.

106017 @ 예.

106017 #1 궂인 거 안 허여.

106017 @ 옛날덜은 다 좋은 걸로예?

106017 #1 그런 무사 아니우과?

106017 @ 음.

106017 #1 복잡허기가양 이제사 얼마나 좋앗수가?

106017 @ 계난.

106017 #1 큰일 헐 때에.

106017 @ 다 돈만 주민 뉘고.

106017 #1 돈만 주민, 문딱 돈만 주민 착착착착 불렁은게 그자. 아이고, 춤 잘도
좋았수다게. 잘도.

도구

106019 @ 맞수다. 옛날에 멘네 가면 멘네 씨 빠젠 허민 어떤 식으로 빠?

106019 #1 물레.

106019 @ 예. 것도 물레구나.

106019 #1 겐디 요즘은양 물레 만드는 사름도 엇고 고치는 사름도 엇고 씨 빠는
디 가민 다 빠줍수게.

106019 @ 옛날은 집의서 다 경허명.

106019 #1 나도 물레로 허단 다 버리고. 저디 가민 문짝 해주는 거. 너미 하영
헤영양 일년에 삼백 근 썩 헛수게게.

106019 @ 아아.

106019 #1 씨채. 씨채 삼백 근썩 헤여근에 하영 갈아노난양, 삼백 근썩 헤근에
이 옥상우의 막 넣어놋수다. 이거, 이거 짓건디 오래지 아녓수다마는. 저 저 그 물
땅크 막 크게 헤놋수다.

106019 @ 예.

106019 #1 게난. 게민 제게 씨 안 빠불민양 벌거지가 나와마씨.

106019 @ 아아.

106019 #1 씨가 검은 씨 잇지양?

106019 @ 예예.

106019 #1 그디 벌거지가 들어앗아마썩. 벌거지 막 합니다게. 그 무시거에.

106019 @ 멘네 씨에?

106019 #1 벌거지가 하는 때문 바싹 물렁 빨리 강 빠와 불어사마씨. 방에나 못
놔둡니다. 벌거지가 나와.

106019 @ 아아.

106019 #1 게난 재게 강 까와 불어사 안 나와마씨.

106019 @ 그 멘네 으름예, 그건 뉘렌 헤?

106019 #1 멘넛드레기.

106019 @ 으. 멘넛드레기도 먹어예.

106019 #1 우리도 드러 먹엇수다. 연헐 뎨 문 먹엇수게.

106021 @ 삼춘, 아까 베클도 헤엿텐 헨 게마는 베클 허민 도구들 잇잔녀우과?
이름들 알아지쿠과?

106021 #1 아이고, 그거 무신 거 알아지커라 어디.

106021 @ 알아지는 거 곱아봍서?

106021 #1 베클은 문딱 우리 어머니가 문딱 허영 놔뒀근에 우리 어머니가 들구
마리 우티레 낡 드러 허여신디. 아이고, 너미 오래부난양 베클벳기 몰라.

106021 @ 예.

106021 #1 베클벳기 몰르쿠다게.

106021 @ 예, 흥짓?

106021 #1 흥짓대. 흥짓대는 그거 저 무시 거.

106021 @ 다듬이허는 거고.

106021 #1 다듬이허는 거, 나도 드러 써나난 그건 아는디게.

106021 @ 음.

106021 #1 아이고양, 그거 잘도 오래여노난 잘도 몰르켜.

106021 @ 흘 수 엇수다. 안 헤부난 어머니가 헤부난 몰르는 거주게.

106021 #1 어머니 허여도 문딱 알앗단 잇어부럿수게. 나도 허어나시민 알긴 알
건디.

바농질

106022 @ 그 다음에 바농질.

106022 @ 바농질?

106022 #1 바농질?

106022 @ 삼춘, 바농질은 하영 허엿덴 허명예? 어떤 바농질 헉니까?

106022 #1 바농질은 어린 때 왓수다마는 그 저 멧지 혼 불 할머니가 그거 낯젠
마썸께. 저 할머니가 농난에 오란에 누게신디 들음을 허카 옷 헐 중은 아난에양.

106022 @ 예.

106022 #1 나냥으로 문딱 만들안에 문 갈중의 문딱 만들안에 그거 문 짓 부변에
저 무시거 갈중이도 만들곡 따시 그 저 아저씨 또 그 이 정월멧질 돌아와가민 문딱
아기 돌아도 풀 허여근에양.

106022 @ 예.

106022 #1 풀허영 메틀 풀허영은에 다듬이 문 허여근에 그거. 경헌디양 그 저 광
목으로양.

106022 @ 예.

106022 #1 광목으로 무신 걸 만들어십디다게.

106022 @ 음.

106022 #1 저 창옷을 광목으로 만들안.

106022 @ 음.

106022 #1 두루마긴가 창옷인가 광목으로 만드난 안 좋읍디다. 바농이 안 듣디
다.

106022 @ 예.

106022 #1 솟도 잇어야 웰 거 아니우과게. 솟 문 만들양근엔에 윤디 귀근에 다리

멍 막 만들멍 드러 입엇수다게. 입단에 그 저 어머니가게 멩진 질봐도 잘 안 웨연 마씨게.

106022 @ 음.

106022 #1 안 웨연에 혼드락허여근에 좋지 아녕 옷을 잘 못헙디다게.

106022 @ 음.

106022 #1 잘 못허난에 그건 헤엇수다. 저 혼 빌 헤연에 어머니 허여준 건 안 놓 고 나 현 건 겹테기 허연에 경 헤연에 옷 헨에 입으멍 허단에 나중에라가난에 좋은 것덜 그건 그자 허영 내불고 따시 저 무시 거 장에 거 사단에 만들안에 입엇수다. 입언에 살앗수다게.

106023 @ 게른 그 바농질헨 때 허면 바농질 종류도 으라 개지예? 영 박는 것도 잇고.

106023 #1 박는 건 미승.

106023 @ 음.

106023 #1 미승에.

106023 @ 손으로 허면 텡침헌 덴 헙니까?

106023 #1 텡침헨 건 텡침허고.

106023 @ 음.

106023 #1 그냥 호을 건 호으고.

106023 @ 예.

106023 #1 경헨수다게.

106023 @ 그 다음에 단 허는 건?

106023 #1 으.

106023 @ 단 허젠 허면?

106023 #1 단허는 거 미승을 썬수다. 처음에, 질 처음에 흐뎡 허여가단 미승, 미승, 미승 썬수게.

106023 @ 게른 아까 단허는, 박는 거는 텡침허고.

106023 #1 예.

106023 @ 그 다음에 이불 ㄱ뜨는 건 호는 거고, 감치는 건 뭐우과?

106023 #1 감치는 거?

106023 @ 음.

106023 #1 감치는 건 영 헤근에 이거 두 개 잡앙 영영 감쳐가는 거.

106023 @ 옛날 그 상복헤도 단허기도 감치기도 헌덴 헨잖아예?

106023 #1 예게, 아버지 죽으민 오그리고.

106023 @ 음.

106023 #1 어머니 죽으민 따시 그냥 그냥 감추고.

옷 종류

106024 @ 경허는 거예. 예. 그 다음에 남자 옷 종류는 어떤 거 있어마씨?

106024 #1 남즈 옷 종류?

106024 @ 남자들은 어떤 옷 입었수가? 예전에?

106024 #1 그 전에 왼쪽 느단쪽 그걸로부터 가려마씨.

106024 @ 예.

106024 #1 우리는 여자는 영허고 남즈는 영허고.

106024 @ 남자는 왼쪽이 올라오고.

106024 #1 계난 남즈옷은 남즈옷대로 만들곡, 여자 옷은 여자 옷대로 만드난예.

106024 @ 계난 그 종류는? 남자덜 입어난 옷 종류?

106024 #1 옷 종류 그거 .

106024 @ 바지저고리허고.

106024 #1 바지저고리나 허고 틀린 거 엇입니다.

106024 @ 바지저고리 입고 그 우에 입는 것은 무시겨우과?

106024 #1 쪼께. 뭐 바지저고리나 틀린 거 두루막 입고 경허낭예.

106024 @ 으.

106024 #1 이젠 쪼께 입어난 이제덜은 간단헙주게.

106024 @ 게른 예전에 제 지낼 때 두루막 우에 창옷 입는 겨우과? 아니면 저고리 우에 창옷 입는 겨우과?

106024 #1 창옷?

106024 @ 으.

106024 #1 창옷은 그 여름옷이난예, 여름이난예 그 저 쪼께 입어낭 조께도 알룬 거 아니우과?

106024 @ 예.

106024 #1 여름 옷이난 조께 입어낭 창옷 입읍니다게.

106024 @ 도복도 입고.

106024 #1 도복. 도복은, 도복은 그 저 창옷 입지 말앙은예 그냥 제 봅니다게.

106024 @ 아아.

106024 #1 도복만 입영.

106024 @ 도복만 입영. 평소에는 창옷만 입영?

106024 #1 우린 하르버지가 다섯 하르버지난 창옷을 그 저 무시것에 싸근예.

106024 @ 예.

106024 #1 저 포따리에 싸근예 영 허영 이디 영허영.

106024 @ 어깨에 들렁예.

106024 #1 하르버지가 키가 완전 큰 하르버지덜 저 일곱 오누인다.

106024 @ 예.

106024 #1 아덜만 다섯 갠디 씨아르버지네 동기간이 다섯 형젠마씨게. 게민 영 허영 읍디다. 옆의 왕 놔뒷당은예 도복 입어근영예 문딱 제봐마씨게.

106024 @ 예.

106024 #1 도복 입곡 이디 유건 쓰곡.

106024 @ 유건 쓰고.

106024 #1 유건 쓰고.

106024 @ 지금도 잇어마씨.

106024 #1 유건 끊어정은 안 웹주게. 이런 집의.

106024 @ 요즘도 식게 때는 유건 썩 제복마씨?

106024 #1 유건 쓰곡 도복이 큰 것이 아니고 푸린 옷 그거.

106024 @ 예.

106024 #1 그거 헐어가난 따시 만들앗수다게. 사단.

106024 @ 아아.

106024 #1 만들안 기지를 잘못 사와전에 좋지 아년 따시 원 따시 하나 헤보카
험수다.

106024 @ 그 푸린 옷은 무신 옷 험니까?

106024 #1 것도 잇어불엇저, 오꼴허게. 그건양 완전 큰제에 입는 거.

106024 @ 제복허는 거?

106024 #1 제복, 제복.

106024 @ 제복, 아아.

106024 #1 그건 빌어갑니다게.

106024 @ 예에.

106024 #1 저 큰제헐 때. 덕수 큰제험니다게.

106024 @ 포제헐 때?

106024 #1 예, 예. 무시거 헐 때 빌어가는 옷. 경 옛날은 그랑그랑그랑허게 헤근
앵에 입지 아넵니까?

106024 @ 예.

106024 #1 겐디 이젠 그건 엇어젧수다.

106024 @ 으, 그건 엇고.

106024 #1 제복은 우리 두 불이우다게. 옛날 그 좋지 아년 안 것도 안 좋수다
게. 게난 우리 아덜 그거 입읍네다.

106024 @ 예에.

106024 #1 이제 씨마씨. ㄱ만이 저디 놔둬두서 거.

106024 @ 음, 식게 때 혼번 와봐사켜. 진짜로 그 옷 입은 거 보레. 요즘 유건 쓰
고 제보는 디가 하주 아녀주마씨.

106024 #1 아이고 우리 씽니다게.

106024 @ 예.

106024 #1 옛날 유건은양.

106024 @ 예.

106024 #1 훤은 베로 즈안 허난에 훤은 베로 즈안에 감 들연. 감 들연 헤십디다
 계.
 106024 @ 으음.
 106024 #1 게난 안 종안에 저 사왓수다 나.
 106024 @ 그 유건은 잇수가?
 106024 #1 예.
 106024 @ 나중에 왕 사진 찍어사쿠다.
 106024 #1 잇수다.
 106024 @ 옛날 거니까 다 사진 찍어야 커라?
 106024 #1 잇수다 셔.
 106025 @ 그 다음에 삼춘, 여자 옷은 어떤 옷 헤?
 106025 #1 제사 때 말이우과?
 106025 @ 한복덜?
 106025 #1 한복.
 106025 @ 치메저고리?
 106025 #1 치메저고리 이제 것광은 틀려.
 106025 @ 음.
 106025 #1 옛날 한복이 곱주양 이제 그 개량한복은 곱지 아넵니다. 나 눈엔 고와
 베지 아녀.
 106025 @ 예.
 106025 #1 나 눈엔.
 106025 @ 옛날 것덜이 고와예?
 106025 #1 옛날 것덜이 곱주.
 106026 @ 아이들 옷 특별허게 만든 거 어떤 옷 만들엇수가?
 106026 #1 아이덜도 개량한복 입은 거 보민 안 좋아마썸게.
 106026 @ 예.
 106026 #1 아이덜 옷은 뭐 어떻 험니까게. 학생은 뭐 학생 옷 헤영 입곡 학생 넘
 어가민 뭐 지대로덜 다 산 입으난 옷들이 틀린 거 잇수가?
 106026 @ 예전에 애기 태어나면 입는 옷?
 106026 #1 아아, 붓데창옷.
 106026 @ 붓데창옷. 삼춘네도 붓데창옷 입전?
 106026 #1 아이고 붓데창옷 헤연 입전 놔두난에 저 요 서넉집의 성님 ‘저 붓땃창
 옷 흐쵸 빌리라?’ ‘무신거 허쿠과? 허난 재판허는 디 간 종덴마씨. 쥘 엇수다게.
 106026 @ 재판허레 갈 때 그 옷 가져가불언?
 106026 #1 예, 재판허레 갈 때 거 으져간덴마씨. 재수가 좋넨.
 106026 #1 경해도 젓덴마씨.
 106026 @ 경해도 젓덴?

106026 @2 아.

106026 #1 경혜연 엇어저불엇수다.

106026 @ 경혜연 엇어저불언예.

106026 #1 예.

106026 @ 애기덜 커가면 강알터진 옷도 입지 아눔니까? 여기서 무신 옷이렌 허여?

106026 #1 그자 강알 터정 옷 짓지말렌 경헨에 입지는 거난 건 건 일름 엇수다.

106027 @ 건 일름 엇고. 강알터진 옷도 입지고. 삼춘 이제 그 바지 흔 번 몰라봅서. 바지. 어떤 식으로 허영은에 바지 만드는 거?

106027 #1 어떤 바지? 남즈?

106027 @ 남자 삼춘 바지 한번 몰라봅서. 어떤 식으로 멘드는 거?

106027 #1 바지 몰르는 건 기지가 셔야 만들주.

106027 @ 말로?

106027 #1 말로.

106027 @ 으.

106027 #1 말로 즐른복은 즐르게 농곡,

106027 @ 음.

106027 #1 진복은 질게 놓고.

106027 @ 음.

106027 #1 게난에 자로, 잣대로. 즐른복은 저 흔 자 멧 치.

106027 @ 음.

106027 #1 딱시 진 건 두 자. 그치록 바근에 즐른복 진복 셔노난 잣대로 바근엥에 돌르멍 헛수다게. 난 나대로 그냥 돌르멍 그냥 옷 헤영 입으난에.

106027 @ 맨 처음에 바지를 만들면 여기 천이 잇일 거 아니우과예?

106027 #1 예, 예.

106027 @ 미녕허면 미녕 뉘부떠 재여?

106027 #1 진복부떠.

106027 @ 진복부떠. 진복은 멧 개 듭니까?

106027 #1 진복 두 자.

106027 @ 진복 두 자. 그 다음에.

106027 #1 큰 사름 죽은 사름도 가곡양.

106027 @ 예.

106027 #1 진복 두 자 즐른복 자 반, 자 반 흐끔 더 바져신가?

106027 @ 음.

106027 #1 게난 그거는 그 과정에 따라은에 입을 사름에 따라은에 허는 거난 미녕 바두서 그자 그 잣대 바근엥에 헛니다게.

106027 @ 예, 게민 진복허고 죽은복허고 이제 몰르면 그 다음엔 뉘허는 거?

106027 #1 그 다음엔 허리 돌르고. 돌릴 것이 합시다게.
106027 @ 예.
106027 #1 줄른복 두 개 진복 두 개 허리 경허민 뒤는 거마썸.
106027 @ 그 다음에 처지는 뭐우과? 남자웃은 처지 이런 거 엇입니까?
106027 #1 처지는 뭇이우과?
106027 @ 이 강알 바대? 아 그런 건 엇입네까?
106027 #1 그런 것은 엇입네다.
106027 @ 그런 건 엇고. 저고리 혈 때는마씨?
106027 #1 저고리혈 때?
106027 #1 으.
106027 @ 저고리혈 때엔 이 저 등땡이.
106027 @ 예, 등땡이.
106027 #1 등땡이 이거부떠 물화놔근에.
106027 @ 예.
106027 #1 다음 스미.
106027 @ 스미.
106027 #1 짓.
106027 @ 짓.
106027 @ 션은?
106027 #1 션도 물라야 뒤고.
106027 @ 션도 돌르고.
106027 #1 저 안션 밧션.
106027 @ 예 안션 밧션 돌르고.
106027 #1 안션 밧션.
106027 @ 그 다음에 곶흙? 곶름은 어느 정도 들어마씨?
106027 #1 곶름은 경 질게 안 듭니다. 경 질게 안 드는 거.
106027 @ 경해근에 이제 하고.
106027 #1 여자 곶름은 막 지는디 남자 곶름은 안 집니다.
106028 @ 남자 곶름은 안 질어예. 예 경허영은에 이제 만드고. 그 다음에 삼춘
예, 부분 명칭 허게 뒤면 바지가 영 생긴 거 아니예? 남자 바지 이렇게 해갓고 여
기 진복 이렇게 행은에.
106028 #1 요건 즈른복.
106028 @ 이건 즈른복.
106028 #1 예.
106028 @ 요건 진복.
106028 #1 예.
106028 @ 여기 영 허면?

106028 @2 허리
106028 #1 허리.
106028 @ 그 다음 여기는 뭐렌 험니까? 단?
106028 #1 이디가 다리뿔 철.
106028 @ 다리.
106028 #1 다리 양쪽이난.
106028 @ 여기도 다리. 이 옆이 뭐렌 험니까?
106028 #1 이거 진복.
106028 @ 진복 이렇게만 허는 거잖아예. 진복. 그 다음에 남자 저고리 영 잇으면
은.
106028 #1 저고리는 저 이 진동.
106028 @ 으.
106028 #1 진동부떠 므녀 므르난에.
106028 @ 진동은 여기우과?
106028 #1 예, 이거 뽕여신게마썸. 이디만 기리민.
106028 @ 진동이 어디?
106028 #1 진동 이 요것이 진동. 올로 요레 진동.
106028 @ 올로 요까지가 이제 진동.
106028 #1 이거는 스미. 요것도 스미.
106028 @ 스미.
106028 #1 이디는 저 무시거 짓. 짓 돌아갈 거.
106028 @ 예 여기는 짓.
106028 #1 짓 돌아갈 거.
106028 @ 또 여기 영 뽕 허잖아예? 짓 돌면.
106028 #1 그거는 동전.
106028 @ 동전.
106028 #1 짓 돌아낱 동전 드는 겁주게.
106028 @ 여기도 이렇게 허영 잇지 아넙니까?
106028 #1 그거는 간단허게 입는 거게.
106028 @ 여기는 뽕우과?
106028 #1 목. 목 간단허게 돌아가는 거.
106028 @ 여기 영허민 잇잖아예?
106028 #1 그거는 안썸. 요디 요디 안썸. 요디 안썸 밧썸 들고 요디 안썸 들고.
106028 @ 여기는 안썸 이건 밧썸. 밧썸. 이 몸통은 뭐렌 헤?
106028 #1 몸통은 무신 거 엇수다.
106028 @ 이몸 이런 말 안 험니까?
106028 @2 이몸.

106028 #1 이몸 그런 말 안 합니다?
106028 @ 안 하고. 스미 뭐 답니까?
106028 #1 거 그거 저 낫주마는 남즈는, 남즈도 노는 거 놔마씨?
106028 @ 꾀동.
106028 #1 꾀동. 꾀동 놓긴 놔.
106028 @ 꾀동. 그 다음 여기 영 무끄믄예.
106028 #1 허리띠.
106028 @ 고름. 옷곰?
106028 #1 허리띠. 이디 허리띠.
106028 @ 여기는 허리띠.
106028 #1 이디 이디가 허리띠 헐
106028 @ 허리띠. 여기는? 여기 매는 거?
106028 #1 골흙. 다림.
106028 @ 음, 골흙이고 여기에 밑에 허는 거는?
106028 #1 다림, 다림.
106028 @ 다림예. 다림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치마 같은 경우, 예, 치마 같은 경우 이렇게 될 거 아니우과예? 여자 치마예?
106028 #1 예.
106028 @ 여기는 뭐?
106028 #1 허리.
106028 @ 허리 무끄는 곰 잇지예?
106028 #1 허리 무껌수과? 이제사.
106028 @ 옛날에?
106028 #1 옛날에.
106028 @ 으.
106028 #1 골름.
106028 @ 골름예.
106028 #1 그건 주름.
106028 @ 주름 하고. 그 다음 여기도 통치마가 잇고.
106028 #1 허리치메가 잇고.
106028 @ 허리치메가 잇고.
106028 #1 허리치메가 잇고.
106028 @ 가림치멘 뭐우과?
106028 #1 가림치멘 깍치메.
106028 @ 가림치멘 깍치메. 가림치메 이제 하고.
106028 @ 그 다음에 보선?
106028 #1 보선.

106028 @ 영 돼잖아예?
106028 #1 예, 예.
106028 @ 여긴 뭐엔 허여?
106028 #1 그건 게 보선 신으는디난애.
106028 @2 보선목.
106028 @ 여기를 뭐렌 험니까? 수늑?
106028 #1 수늑.
106028 @ 여기는?
106028 #1 그건 코지. 코비 보선코지.
106028 @ 보선코지.
106028 #1 으.
106028 @ 여기 영 들어가는 디도 잇어예?
106028 #1 예, 예.
106028 @ 여기는 뭐우과?
106028 #1 그거 문 잇어불언 어디 알아지쿠과?
106028 @ 애틡.
106028 #1 그거 통 안 들어감젠 그 통 안 들어감젠 곱읍니다.
106028 @ 애틡은 뭐우과?
106028 #1 애틡이 이걸 거우다. 잘 들어가지 아념니다게.
106028 @2 벗어지지 못허게 허는 건 어느 거우과?
106028 #1 벗어지지 못허는 것이 이겁주게.
106028 @ 애틡 잇는데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106028 #1 잘못허민 막 벗어져불영마썸게.
106028 @ 그 다음에 질목이렌 현 것도 들어봍디가?
106028 #1 질떡?
106028 @ 질목.
106028 #1 질떡이 잇고 질목이 시난.
106028 @ 질목은 뭐?
106028 #1 질목은 그
106028 @ 발에 막 감는 거.
106028 #1 옛날 신는 건 밧디만 가는 거. 밧디만 가는 거.
106028 @ 질목애?
106028 #1 ‘나 질목 어디셔?’
106028 @ 으.
106028 #1 예. 그런 거 들어낫수다게.
106028 @ 옛날엔
106028 #1 밧디만 주로 신으민 ‘나 질목 어디셔?’ 질목.

106029 @ 질목예? 그 다음 삼춘, 여기는 단추 같은 거 옛날에 허면 어떤 단추들 못앗수가?

106029 #1 단추, 우린 단추 안 못아봤수다.

106029 @ 단추는 안 못아봤수가? 속곳 안 허난예?

106029 #1 속곳 안 허난 단추 못는 게 쉬운게 아니우다.

106029 @ 그 단추를 무신 단추렌 해?

106029 #1 썰로 못앙허는 거 그 못인단추.

106029 @ 못인단추. 거 들메기엔도 험니까?

106029 #1 못인단추엔 험니다. 못앙 들앗주.

재단과 염색

106030 @ 못인단추. 삼춘, 옷 멘들젠 허면 미녕 허면 그대로 못 멘들잖아예? 옷 감 손질은 어떤 식으로 헤난 거?

106030 #1 옷감 손질?

106030 @ 예.

106030 #1 그냥 안 뽕주마썸게.

106030 @ 예.

106030 #1 그거 풀 죽영 물에서 비 쏘양마씨.

106030 @ 아, 쏘양예?

106030 #1 쏘양. 그 저 완전히 잘 허젠 허민 그 저 비누 맥영 쏘양.

106030 @ 예.

106030 #1 쏘양 따시 막 빨아근에 비눗물 다 내왕 빨앙 따시 풀 허영은에. 풀 허여사 옷이 뽕여마씨.

106030 @ 아아.

106030 #1 풀 허여사 옷이 뽕주.

106030 @ 짓들?

106030 #1 짓 보병. 짓 브비는 거엔 험니다게.

106030 @ 짓 브병.

106030 #1 짓 브비는 거엔 험니다.

106030 @ 옷 솟으면 천 줄어들지 아눔니까?

106030 #1 경허는 적어부러. 옷이 작아불어.

106030 @ 딱 줄어드는 때문에.

106030 #1 딱 줄어들영 이제 그 몸빼덜 허여근에 저 사름 죽으면 그 주지 아눔니까?

106030 @ 예, 예.

106030 #1 그거 족양 못 입엄수게.

106030 @ 아아. 아 빨아불면

106030 #1 싹 줄어들어봅니다.

106030 @ 짓 다 보병 놔두지 아녀부난.

106030 #1 계난에 옛날부터 식이 나오는 거라마씨. 경험수게 계난.

106030 @ 옷 멘들 때도 풀 다헤갓고 다리미질 현 다음에 멘든 거예?

106030 #1 예, 예. 경혜야 맞추. 이제 그 저 생 걸로 만들어놓민 옷이 다 족양 못 입엄수다게. 족양 입지 못허여. 나이롱 ㄱ튼 건 안 줄어마씨.

106030 @ 그런 건 아까 삼춘, 푸답 헌덴 헨게 마는 푸답은 뭐마씨?

106030 #1 푸답은 풀 허는 거.

106030 @ 아아 풀 허는 거. 거 쫘아낸 다음에 풀 허는 거.

106030 #1 질 각에서 다 푸답허는 거.

106030 @ 푸답헨 땀 무신 풀로 험니까?

106030 #1 밤 쥼짚양 헛수다. 옛날은 밤 쥼짚양 헛수다.

106030 @ 보리밥?

106030 #1 예, 저디 저 화순 물엘 가나.

106030 @ 으.

106030 #1 어디 흐 짐 정 가민 그디 강 문 숲양 그 물에서 빨양은엥에 빨양 거 기서 풀 맥여근엥에 거기서.

106030 @ 다 몰량 와예?

106030 #1 손 빵 오랑 집의 오랑 두드렘수게.

106030 @ 옛날이야 이불 흘청들도 다 그걸로 현 거 아니라예?

106030 #1 예게, 그걸로. 아이고 그걸로 난 그걸로 안 헛수다. 아주 옛날은 아닌 ㄱ라.

106030 @ 예.

106030 #1 아주 옛날은 아닌 ㄱ라 광목입디다. 것도 굿어엔 우리 어머니 광목 헤 단에. 것도 풀 헤연 계난 것도 허여된에 그것도 버려된에 굿어엔 문딱 틀어된에 끼우는 걸고말 끼우는 걸로 살암수게.

106030 @ 이제는?

106030 #1 살기가 좋아신디 경 죽는 소리 험수다게.

106030 @ 웃음. 맞아 옛날 비허민예.

106030 #1 아이고, 옛날은 너미 지나치게 살앗수다게. 요즘은 일은 일 하긴 하마 씨.

106030 @ 일도 너무 하고예?

106030 #1 그자 날 ㄱ튼 할망이나 놀암주게. 요즘 매일 밀감 타레 감수게.

106030 @ 잘 안 감수다.

106030 #1 안 감수게.

106031 @ 삼춘은 염색은 어떤 거 허연?

106031 #1 염색.

106031 @ 염색, 염색.

106031 #1 염색 아 저.

106031 @ 감물들이고 허는 거.

106031 #1 물감 염색. 그 한참 죽은아덜이 물감만 들여줍센. 경허민 허는 거라. 잘못만 어디 어. 어디 곳셋 아이.

106031 @ 남원? 으.

106031 #1 남원이 아니고. 남원 못 간디.

106031 @ 위미?

106031 #1 위미

106031 @ 으.

106031 #1 위미 간 만들어 읍디다게. 으라 불 헛수다. 으라 불. 광목도 빌로 사다 근앵에 문 푸답허여근에 이 잔디왓이난양.

106031 @ 예.

106031 #1 문딱 못 박으멍. 요디 강 박고 요디 강 박고 잔뜩허게 땡겨지게 못 박 아근앵에. 그 저거 멧 불 실 거우다.

106031 @ 으.

106031 #1 저 옷. 어쩌난 그것만 만들어주렌 헨게 요즘은 입영 땡기는 것도 못 보고 허여드렌 허고. 그거 허단 나중에 또 헤여 드렌 허여도 멧 불 허여드렌 허연. 하이고, 큰아덜은 서울 살멍 이디 와보지도 안 헛수다게.

106031 @ 예.

106031 #1 무늬 쳐진 거 알룬 거라마씨. 여름에 입는 거. 그거 이만이 뽕읍디다 게. 그걸 헤여단에 헨 거 아니우과? 이 잔디왓이라노난에 문딱 못 박으멍 허연에 죽은아덜, 죽은메누리ㄱ라 강 허여오렌 허난 것도 엄창 비싸마씨.

106031 @ 예.

106031 #1 것도 막 비싼에 두 불 헤여오난에 저 큰아덜 흔 빌 죽은아덜 하나 허 연에 두 개 허여오난에 저 큰아덜들은 입어 땡겸시난 가다마이 흔불에 바꾸게 헤렌 마썸게. 경 해도 안 마팍덴.

106031 @ 예.

106031 #1 그거 입영 오라게. 덩게. 어디 실 거우다. 어디 좇아보민 실 거우다.

106031 @ 계난 물 들일 땐, 감물 들일 땐 어떤 식으로 들이는 거?

106031 #1 감물도 막 힘듭니다게. 그거 감 문딱 옷도 아무 거나 못 허여마씨. 막 곳인 옷 입영 저 농장에 강도 매날 농장에 가는 사름이 아무 것에라도. 꼭 덤벌 걷 어나민 막 곳입니다.

106031 @ 예.

106031 #1 꼭 덤벌 걷어난 옷 입영양. 그거 입영은에 감 뿔아냥은에 그거 짱.

106031 @ 예.

106031 #1 무시거에 담양 다마네기찰리에서 짱.

106031 @ 예, 예.
 106031 #1 짜근에 감물 들염수게.
 106031 @ 깨끗하게.
 106031 #1 감물들영 쩌짚아근에 널염수게게. 에이그, 요즘은 안 들염수다.
 106031 @ 예.
 106031 #1 요즘은 허여도렌도 아녀곡 들이젠도 아녀곡 농장 사 푸는 거 하노난 양. 나도마썸. 나도.
 106031 @ 예.
 106031 #1 나도 마찬가지우다.
 106031 @ 예.
 106031 #1 나도 갈몸뻔 으라 개 잇수다게. 것도 다 못 꿩 죽을 거고.
 106031 @ 음, 옛날은 다 그치록 감물 들이멍덜 옷 입은 거 아니라예.
 106031 #1 예게, 무사 아니우과게. 아저씨가 저 밧디 농장에 텅겅수다마는 우의 거는 나가 만들양 저 광목 물들영양.
 106031 @ 예.
 106031 #1 그(보라색) 색깔 물들영.
 106031 @ 이런 색깔?
 106031 #1 그 색깔 물들영 저 만들양 입곡 아래 것 같중의 입곡.
 106031 @ 음.
 106031 #1 경헛수다.
 106031 @ 예.
 106031 #1 우알 같중인 젊은 사름이난 안 미승 셔노난에양 경 만들멍 입겅수다. 만들멍.
 106031 @ 으음.
 106031 #1 우의 거, 저 무시거 놘근에 저 그 저.
 106031 @ 물ㄴ음?
 106031 #1 그 무시거 놘근에 만들어. 놘근에 떠내여근에 기지를 문 떠내영 만 들민 딱딱 맞읍니다. 경허영 같웃 우알로는 안 입저뵈수다.
 106031 @ 따로 따로예.

신발

106032 @ 그 다음에 삼춘, 신예, 옛날 신들을 어떤 신털을 신엇수가?
 106032 #1 옛날은 가막창신게.
 106033 @ 가막창신. 삼춘, 가막창신 언제 신어난 거?
 106033 #1 난 안 신어뵈수다.
 106033 @ 삼춘 안 신어보고.
 106033 #1 난 안 신어반. 난 흰 고무신.

106033 @ 옛날 결혼할 때 가막창신
106033 #1 그 옛날엔 가막창신이고 우리 세대엔 흰고무신 신었수다.
106035 @ 삼춘은 초신은 안 신어봤?
106035 #1 초신 신었수다. 초신 아버지가 저 좋아하는 초신 신어근에 바당에 가
민 닝끄리지 안 허고 좋아마씨.
106034 @ 초신 신곡예, 남신도 신어봬디가?
106034 #1 남신, 남신은 아버지네 신은 건만 보고 우린 아녀고.
106034 @ 삼춘 안 허고. 건 언제 신는 거?
106034 #1 남신은 비오는 날, 눈 오는 날.
106034 @ 눈 오는 날도 남신 신는구나.
106034 #1 우리 아버지네 신었수다. 남신.
106034 @ 직접 그거는 만들어마씨?
106034 #1 직접 만들양마씨.
106034 @ 아아.
106034 #1 직접 그 저 나무 해당은에게 저 무슨 걸로 까꿍니다. 드리 까끄멍 만
들안에. 만들양.
106035 @ 삼춘도 초신 삼아봤?
106035 #1 아이고, 막 장난 헛수다게.
106035 @ 예, 어떤 식으로 삼는 거는. 초신 삼젠 허믄?
106035 #1 초신 삼젠 허민 저 노 새끼 꼬와근에 새끼 꼬아근에 넉 개로 별
겨근에 이디 이디 허리띠 메여근에 발 양작 영 허여근에 이레 문딱 걸곡허연에.
106035 @ 넉 줄로?
106035 #1 여기서 장난헛수다. 장난.
106035 @ 예.
106035 #1 신겐 못 만들고.
106035 @ 아아.
106035 #1 허여봤수다.
106035 @ 그치록헨에 허고 그 다음에 초신도 종류가 으라 개 잇수과?
106035 #1 초신은 종류 엇수다.
106035 @ 그 저기 상 나거나 허면 신는 거.
106035 #1 상 낭 허민 상 낭 허민 대강 그자 대강 그자 걸랑걸랑 흐뎡 만드는
초록만 헤영. 대강 허영 만드는 책 만 헤영 신영.
106035 @ 그 신은
106035 #1 그 신은 상난 디난 신으는 걸로 헤여근에. 뭐 이름이 벨로 엇수다. 초
신덜 문 스뎡 남자덜은 초신 만들저 쓰는 건대 만들저 힘들게 경 헛수다마는. 이제
사 경헛수가게. 다 저 장의사들이 그져오난.
106035 @ 그건 삼각신, 이런 말은 안 헛니까?

106035 #1 삼각신에는 아닙니다.
106035 @ 세각신?
106035 #1 세각신, 세각신이 맞주.
106035 @ 각이 세 개만 이신 거라예?
106035 #1 만드느치록만 해연 신으난게.

모자 등

106036 @ 으, 그치록허고 일허레 텅기니까 모자덜 하영 써실건디. 밧디 텅길 때, 검질 뻐 때.
106036 #1 페랭이.
106036 @ 페랭이.
106036 #1 밀집모즈.
106036 @ 직접 페랭이도 직접 좋아봐마씨, 삼촌이?
106036 #1 막 좋아봤수다.
106036 @ 뭤로 즈는 거우과?
106036 #1 보리낭 그 저 우에 겹테기 툇앙은에 손으로 뭉 다아근에.
106036 @ 예.
106036 #1 우리는 페랭이 헤도 우리는 벌립 썰수다.
106036 @ 여기선 벌립 썰수가?
106036 #1 우린 벌립 썰수다.
106036 @ 벌립은 어떤 식으로 헨 게 벌립이우과?
106036 #1 벌립 산 썰수다.
106036 @ 뭤로 만든 건?
106036 #1 벌립도 곱닥힙니다.
106036 @ 으.
106036 #1 벌립도 줌지롱헨 곱로 곱닥허게 벌립 두 개 헐랏수다. 새 건디 나중에 어디사 버려져신디 엇수다.
106036 @ 그게 정동이구과?
106036 #1 정동 비스름헨디 건디 막 깃늘앙 곱닥힙니다. 우린 산 썰수다.
106036 @ 삼촌네는.
106036 #1 벌립 쓰고.
106036 @ 그걸로 벌립 쓰고.
106036 #1 예.
106038 @ 보통 페랭이는 여름에는?
106038 #1 우린 산 썰수다.
106038 @ 여기 샷갓은 안 써뵈?
106038 #1 덕수 샷갓은 뵈로 안 썰수다.

106038 @ 아아, 벌립혀고.
 106038 #1 벌립이 좋은 거마씨. 벌립이 좋은 걸로.
 106038 @ 여기는 양태니 샷갓이고 이런 말들은 안 혀고.
 106038 #1 그런 건 안 해반.
 106038 @ 음.
 106038 #1 샷갓 말은 들어봐도 건 벨로 안 써보고.
 106038 @ 안 써반예, 예.
 106038 #1 벌립을 쓰니까.
 106044 @ 비올 때 췌 보레 땡길 때는 무신 거 써?
 106044 #1 츠쟁이.
 106044 @ 츠쟁이 입고?
 106044 #1 예.
 106044 @ 모자는?
 106044 #1 모자는 그 저 그 벌립이나.
 106044 @ 예.
 106044 #1 무신 거 췌디다게. 쓰긴 써서. 그 츠쟁이 쓰민게 모자 써야 텔 거난게.
 106044 @ 예.
 106044 #1 츠쟁이도 우리 아버지도 드려 만들안 췌수다.
 106044 @ 음.
 106044 #1 게난 모즌, 므즌 경 물 안 드는 모자는 엇어낫수다게.
 106039 @ 벌립예. 거곡 겨울에는 어떤 모자들 췌 땡겨마씨? 여기서는.
 106039 #1 겨울에마씨?
 106039 @ 예.
 106039 #1 겨울에는 나까오리는 츠곡. 겨울 나까오리가 싯곡 여름 나까오리가 시
 난 나까오리 주로 췌진 거 답수다. 우리 아버지 영 췌 땡기거 보민.
 106041 @ 옛날에 췌나 털 해갓고 그걸 안 뵓디가?
 106041 #1 그거 혀영 모자 현 건 안 봤수다.
 106041 @ 건 안 보고예, 알아수다. 게문 오늘랑 요까지만 혀쿠다.

7. 식생활

밥과 국

107001 @ 밥종류예, 옛날 밥 종류 어떤 거 있어마씨?
 107001 # 에이그, 옛날 밥종류양, 그때는 저 못살 때라노난예. 그 저 모힌조팝양.
 107001 @ 예.
 107001 # 모힌조팝 그거 혀여근앵에 고구마 뇌근예, 고구마 뇌근앵에 밥을 혀민.

그 아이덜 많은 집원 고구마만 등그리곡 밥만 먹젠 허엿수다게.

107001 @ 음.

107001 # 밥만 먹젠 허멍 고구마를 바락 담아낱 허민 밥만 먹젠 허고. 딱시 경허여도 어짜피 거 험벳긴 어떻힙니까게.

107001 @ 예.

107001 # 경허곡 또 아버지네 저 걸름 내는 거 힘든 거는 흐린좁쌀 농곡 곤쌀 농곡 또 저 보리쌀 농곡 허영 아버지 허여 드리곡. 경허멍 살앗수다게. 게난 또 저 무시거 모멸을 그 옛날은 모멸을 많이 헛수다게. 모멸을 많이 허난에 모멸 우리도 농장이 하노난 모멸 허난 또 모멸핼벅 고구마 낱 모멸핼벅 건 맛있어마씨.

107001 @ 음.

107001 # 건 맛이 좋아근에 그거는 잘 먹어지고. 또 그걸로 수제비도 헤영 먹곡.

107001 @ 음.」

107001 # 즈베기 저 급허민 즈베기 저 무시거 수저로 쫄라낱은에 경도 허여먹어 보고. 경허멍 살앗수다게. 게난에 나중에라가난 그 보리영 하영 갈곡. 우리 동생 요 흐룩이 저 제사 먹으레, 아버지 제사 먹으레 완에 ‘에이그, 나 얼마나 고생헌 중 알 암자? 한라산 막 다니곡. 저 어느 밧 아버지 몰구루마 꾀곡 나 췌구루마 꾀곡 다니 멍 저 놈덜은 구루마도 옛영 허는디 아버지넨 구루마 두 개씩 허영은에 나 한라산 이제사 질 좋앗주마는 한라산 그 질 굿은 디 그 질레서 스뭇 이치룩 허난 다리 영 아픈 거 닻다.’ 영 곺으난에. ‘저 도로무짱으로 보리쌀 멧 개씩 무사 허영 먹지 아녜수가?’

107001 @ 웃음. 밥을 잘 먹엇덴.

107001 # 게난에 그 몰란마썸게. 그 옛날은 몰란.

107001 @ 예.

107001 # 몰란에 그 나중에라가난 보리가게 너무 많이 헛수다게. 보리가 춤 일등으로 하영 허연에 춤 그거 허영 드러 보리. 놈덜은 경 굿어도 우린 경은 아녜수다게.

107001 @ 게난.

107001 #1 경은 아년에 곺는 말 뵙서게. ‘도레미짱으로 보리 멧 개씩 앳정 먹지 아녜수가?’

107001 @ 웃음.

107001 #1 경허난 밧 사시니게. 경 곺으멍 헛수다게.

107002 @ 쌀 종류는 어떤 쌀덜은 이신 거우과?

107002 # 옛날에마씨?

107002 @ 예.

107002 # 옛날엔 쳇번엔 그 모힌좁쌀.

107002 @ 예.

107002 # 모힌좁쌀양. 살락허영 물기 하나도 옛입니다. 물기 하나도 옛인디 그거

허영은에 감저 뇌근앵에 감저는 등그려불곡 뿃 허연에 먹단에 나중에라가난 보리쌀 허여근에 또 방에에게 공장이 엇어노난 방에에서 정 오랑허민 따시 체가 막 부떠마 씹게. 반은 벗어정. 또 강 실렁 또 강 실렁은에 거 곶앙.

107002 @ 예.

107002 # 곶민 맛 없는 겁디다양.

107002 @ 아.

107002 #1 곶아근앵에 그거 저 좁쌀 서끄명 밥허영 먹엇수다게.

107002 @ 음.

107002 # 좁쌀 서끄명 밥 허연 먹단에 나중에라가난에 또 츠츠츠 세 번을 지난 에 그 문작헌 게 보리쌀이 맛이 좋앙게 그 문작헌 게 밥이 경 좁디가. 세 번 지난 문작 희고 경 맛종안에 먹으명 살앗수다게.

107003 @ 게문 삼춘, 보리밥. 보리밥 헐 때는 어떤 식으로 허는 거마씨?

107003 # 아, 보리밥?

107003 @ 예.

107003 # 보리밥은 물 맞추와야 돼여마씨.

107003 @ 예.

107003 #1 것도. 쌀 뿃 뿃 뿃 뿃 뿃. 뿃뿃뿃 뿃뿃뿃 뿃뿃뿃?

107003 @ 예. 쪼끌락헌 거.

107003 # 뿃뿃뿃뿃로 뿃 개 언마민 헐 거 쌀 싯영 뇌근앵에 영 물 맞췄근에 그걸 꿰와마씨.

107003 @ 음.

107003 # 바글바글바글 꿰와근에 어느 정도 꿰와근에 두께 더경 뇌뿃뿃. 뇌뿃뿃 뿃뿃 뿃뿃는 거 아니우과?

107003 @ 예.

107003 # 뿃뿃뿃 따시 또 불 슴앙에.

107003 @ 예.

107003 # 불 슴아근에 영 두집어근에 젓어근앵 또 불 슴아근에 뇌뿃뿃 저 밥 뿃뿃니다게.

107003 @ 게문 삼춘네는 그 보리밥 헐 때 뿃뿃뿃뿃로, 뿃 식구가 뿃 개 뿃 먹엇 수가? 흐루 허젠 허민.

107003 # 우리?

107003 @ 예.

107003 # 우리 아옴 식구도 살아보고 우리 성님 엇으난에 으답 식구도 살아보고. 경혜신디 뿃뿃뿃뿃로, 뿃뿃뿃뿃로 네 개사 뇌뿃뿃신디. 뿃뿃뿃뿃가 큼주게.

107003 @ 예.

107003 # 옛날 뿃뿃뿃뿃.네 개 뇌뿃뿃 거 닳수다. 네 개 뿃. 우리 성님은 어떠난산 디 흐꼬만 뿃 허젠허고 하영 뿃 어떠난에 밥 흐꼬만 나 그추룩은 못헤마씨. 하영만

헤져. 하영만 거러냥 허연. 어머니는 벨로 밥 안 헤봤수다게.

107003 @ 아.

107003 # 어머니는 저 아덜 다섯 개 헤여놓고 딸 두 개허난 뉘 딸덜사 자기 먹은 오몽 다 허명 살압주마는 아덜 다섯 개라노난 막 힘들영양.

107003 @ 예.

107003 # 힘들어근에 어머니는 혼 밥 안 허여근에 그자 무신 다른 일이나 허곡 이 저 무시거 아기덜 옷.

107003 @ 예.

107003 # 옷 같은 것만 챙기고. 농장엔 혼웃이 안 강 나가 농장엘 주로 가마썸 게.

107003 @ 음.

107003 #1 나가양 열다섯 나난 장남덜 빌어단에 검질맨 거라마썸. 경허명 살단보 난 영 빙신 뉘엇수다게.

107004 @ 음, 삼춘, 옛날에 반지기밥엔 현 것도 잇어예?

107004 # 반지기엔 현 건 저 무신 거게. 저 그 곤쌀 농곡 보리쌀 놓고 것7라 반지기엔 험니다.

107004 @ 음.

107004 #1 것이 반지기.

107004 # 예.

107005 @ 곤밥은 어떻 헤영 먹엇수가?

107005 # 곤밥은 저 산디.

107005 @ 예.

107005 # 그 밧디 산디 갈양 허민 것도 벨로 맛 엇어마씨. 살락허영 맛 엇입니다. 막 능거근에양 멧 번 멧 번 저사 멧 번 저야 희양허여마씨. 이제는 강은에 공장에 강 누리민 헤영허지 아넘니까? 경헌디 그게 아니라마씨.

107005 @ 음.

107005 #1 막 오래여, 오래여. 하루 종일 그걸 쳐뉘은엔에 뜨시 뜨시 또 실르곡 또 실르곡 그자 소 메와근에 드리 그걸 그 손에서 문 만들어사마씨. 경허민 헤양헤영은엔에 그거를 허명 먹엇수다게.

107005 @ 음.

107005 # 허영은에.

107005 @ 계난 산디쫄로 곤밥헌 거라예. 옛날은.

107005 # 산디쫄로. 산디쫄 허민 벨로 맛 엇입니다게. 옛날 건. 나룩이 맛잇주.

107006 @ 음. 조팝 혈 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우과?

107006 # 조팝, 조팝도 물 맞춰야마씨.

107006 @ 예.

107006 # 조팝은 쫄 영 저 그 밥뉘로 하나 놓민 물 요거민 뉘겏다 그치록 현 식

으로 물 맞춰야 됩시다.

107006 @ 음.

107006 #1 물 맞추지 아녀민 흐랑을 허난 설민 더 못 먹어마씨.

107006 @ 음.

107006 # 계난 것도 물맞추와야마씨.

107008 @ 그런 식으로 이제 허고. 여기도 피썰도 갈아놨수가? 피?

107008 # 피이?

107008 @ 으.

107008 # 우린 안 갈아봤수다마는.

107008 @ 아.

107008 # 우린 안 갈아봤수다.

107008 @ 여기 피썰도 갈아봤수가?

107008 # 가는 사름은 갑니다.

107008 @ 삼춘, 피밥도 먹어봄디가?

107008 # 맛도 몰릅니다.

107009 @ 감저밥은 아까 어떤 식으로 허는 거?

107009 # 감저밥?

107009 @ 예.

107009 # 그 쭈썰에 낱. 살락헌 쭈썰에 감저범을 놓민게 아이들이 먹젠 험니까?
학생들이 우리 아래 아기 저, 동생들이 다섯 개마썸게.

107009 @ 음.

107009 # 다섯 개라노난에 잘 먹쟁을 아녀근에 다 둥구려볶디다게.

107009 @ 감저는 어느 정도 크기로 썰어?

107009 # 감저는 큰 거민 네 깔 썬나 물탕물탕허게 썰렁. 즈질이 썰질 아녀고.

107009 @ 아아.

107009 #1 경 뇌근에 그 저 고구마를 쭈 익어야 썰을 뇌마씨.

107009 @ 아, 감저를 먼저 익인 거?

107009 # 썰영 ㄴ썬 뇌불민 익지 아널 거 아니우과.

107009 @ 예.

107009 # 계난 고구마를 낱 솥양 어느 정도 솥아지면 그 저 쭈썰을 뇌마씨.

107009 @ 아아.

107009 # 경혜영 밥 허여.

107009 @ 요즘 같으면 감저 먼저 먹을 거 님은디양.

107009 # 요즘은 감저가 별미 아니우과?

107009 @ 예.

107009 # 고구마가 벨미주게, 요즘은.

107007 @ 계난 풋밥은 언제 허는 거우과?

107007 # 풋밥?

107007 @ 예.

107007 # 풋밥은 뭐 그자 풋은 주로 허난에.

107007 @ 음.

107007 # 조팏디양 고랑에 하나씩 낱 먹엇수다. 건 하나씩 낱 먹곡 따시 저 동지, 그 동지날은 그 죽 썰 먹곡.

107007 @ 예.

107007 # 거 언제나 옛날양은 계속 빠지지 아녕 동지 돌아왓실 거우다.

107007 @ 예, 이십이일예.

107007 # 예, 이십일일. 동지날이구나. 이거.

107007 @ 옛날은 동지 꼭 혜영먹언예?

107007 # 꼭 혜영 먹읍니다. 동지날 옛날은 아주 잘 좇아마씨. 요즘 아이덜은 뭐 죽 잘 먹지도 아녀곡 허난 쭈지도 아녀곡 먹지도 아녀곡.

107007 @ 옛날은 무사 동짓날 그 죽을 췌텐 험니까?

107007 # 계난 그 저 동지도양 아기동지가 잇어마씨.

107007 @ 예.

107007 # 아기동지날은 죽 안 췌텐 험니다.

107007 @ 아기동진 언제우과?

107007 # 아기동지가. 저 아기동지 그 해에 잇질 아녀고.

107007 @ 으.

107007 # 영 돌아오당 보민 어느 해 올히는 아기동지다 경헌 때는 죽 안 췌니다. 안 죽 안 췌고. 이 동지는 죽 췌는디, 아기동지는 죽 안 췌도 웨여, 웨여 경허명 안 췌고.

107010 @ 음, 그 다음에 이제 늑삐도 낱은에 밥헨마씨?

107010 # 늑삐 낱은 밥 아년 먹어났수다.

107010 @ 여기는 늑삐 낱 밥 안 헨예?

107010 # 우리는 늑삐 낱에 밥 안 헨먹엇수다.

107010 @ 구좌 가면 늑삐도 낱 밥.

107010 # 늑삐 낱도 무 ㄱ쁜 건 우영팏 하노난 하영 같안 먹엇수다마는. 늑삐 낱은 밥 안 헨 먹엇수다. 텔레비전 보민 요즘도 늑삐 낱 밥 먹지 아념수가?

107010 @ 예, 예.

107010 # 무 하영 갈양 텔레비전전도 늑삐 낱.

107011 @ 툷도 낱은에 밥 헨보고.

107011 # 툷은 강 허여와도

107011 @ 이 동네 사름도 안 혜영 먹어신가마씨?

107011 # 이 동네 낱 안 곱읍니다.

107012 @ 건 바당 동네만예. 계민 폐밥도 안 헨 먹어실 거고?

107012 # 폐에?

107012 @ 예.

107012 # 저 바당에 폐 말이우과?

107012 @ 예.

107012 #1 그거는 폐밥은 먹을 생각은 아녀고양 그건 저 무신 거 걸름.

107012 @ 걸름.

107012 # 폐 거, 바당에 거는 다 먹넌 허주마는 그 폐는 그거 저 걸름 아니우과?
감태도 걸름이고.

107012 @ 예.

107012 # 건 먹을 생각 아녀마씨.

107013 @ 게문 국은 어떤 국 헤영 먹언마씨?

107013 # 국은 웬장국마씨.

107013 @ 국은 주로 웬장국?

107013 # 무도 썰어낱 주로 콩국.

107013 @ 콩국예.

107013 # 옛날 느물은게, 좋은 느물씨가 엇엇수다게.

107013 @ 예, 예.

107013 # 경허민 느물이 나쁘민 콩국 드박드박허게 끓여근에 그거에 헤여근에 저
낮이는 고구마에 콩국도 혼 그릇씩 먹곡.

107013 @ 음.

107013 # 경헛수다.

107013 @ 그 콩국 맛 좋는다.

107013 # 예. 콩국 주로 콩국 먹곡 웬장국 먹곡. 제사 같은 때엔 또 바당국 먹곡
경헛수다게.

107014 @ 음. 게문 삼춘, 그 느물국예, 느물국은 어떤 식으로 끓엇수가? 여기서
는?

107014 # 느물은 웬장마씨. 옛날 웬장 두 통개씩 담은 거 그 웬장 느물, 느물 놔
근에 브글브글 케민게 웬장 거러당은에 그거 어느 정도 맞을만이 헤근에 수꾸락으
로 영영 케영은에 그 저 그거 낱은에 국 끌렁 먹엇수가?

107014 @ 느물 낱 다음에 웬장 낱수다?

107014 # 느물 낱 켜 다음에.

107014 @ 아 느물 낱 웬장 놔예. 지금도 국 끓일 때 경헤마썸? 삼춘.

107014 # 아, 지금은, 지금도 경헤집니다.

107014 @ 아 웬장부떠 먼저 끌영 안 허고 느물 낱은에.

107014 # 간 맞춰집니다.

107014 @ 아. 예.

107014 # 버릇이 경 헤난냥.

107014 @ 예.

107014 # 경허영 간 맞게 혜근에 다시말 놓나. 처음에 같이 다시마부떠 물러레 놔마씨.

107014 @ 예, 예.

107014 # 다시마부떠 물러레 놔낱 메리치영 다시마영 그치 낱은에 흐쉴 끌리당은 에 끌리단 거 건져똥은에 건져똥근에 그 낱물 놔근에엥 딱시 그 저 웬장 흐쉴 낱은 에.

107014 @ 맨 마지막에 웬장 놓는 거구나.

107014 # 막 맞셔마씨. 이제 경 끌려도.

107014 @ 예.

107014 #1 경 끌리민 웬장국은 먹고 싶지 아녀도양 웬장국은 닭지 아녀게 맛있게 먹어점젠 곱아집니다. 어디 강. '아이고, 낱물국 먹지 막 맛있게 먹읍시다.' 경 곱아 져마씨. 곱아집니다.

107015 @ 콩나물도 낱은에 국 행 먹어마씨?

107015 # 예.

107015 @ 건 어떤 식으로 끓립니까?

107015 # 콩나물도 물 팔팔 끓령 놔야 줍니다. 그자 물 끓령은에 놓는 거만 좋아 허영 물 끌려근에 그자 시쳐근에 들이쳐근에 간 낱 맛칭.

107015 @ 삼춘은 항상 뒤에 험구나예?

107015 # 간은 뒤에.

107015 @ 예.

107015 # 간은 두에 해야 전부 다 논 후에 간이 맞일 거 아니우과게.

107016 @ 음. 늪뻬국도?

107016 # 늪뻬국도 벨로 안 끌려집니다.

107016 @ 아.

107016 # 영 안 끌려봤수다. 나만이난에. 아이덜 신 때도 계난 늪뻬국은 잘 안 끌려봤수다.

107016 @ 안 끌려났수가?

107016 # 어찌다 늪뻬 봐지민 흐뎡 서경이나 흐뎡씩 허엿주. 원원. 늪뻬 흐웃이 끌려보지 아녜수다게.

107016 @ 아, 낱물을 하영 가니까.

107016 # 예. 낱물도게 아무 낱물이라도 안 허영 속앗인낱물만으로만 혜영은에 데왕도 먹어 보곡 끌령도 먹어 보곡. 저 우리 메뉴리넨 저 시금추도 하영 허여 놓고.

107016 @ 예.

107016 # 무 두 개 때 놓고, 저 그 속앗인낱물 두 개 허영 주난에양, 그만이 썩 영 내부난 막 용심난 이제 아무 거엿도 안 곱양 잇수다게.

107016 @ 웃음.

107016 # 양, 어떤 입산디 그치록 우리 큰아덜도 왕 골읍니다. ‘우리 인봉이넨 뵈 사 떡영 사는디.’ 경 골읍니다게.

107016 @ 예.

107016 # 들어보젠 허멍 험수다. 버런다. 경 곤젠

107016 @ 애쓰게 헤영 쥐신디.

107016 # 아이고 춤 메틀 멧날 혼 열흘 가까이 십디다게. 그 옆이.

107016 @ 예.

107016 # 열흘 가까이 시난. 요거 버리젠 놔뵈저.

107016 @ 예. 맞아.

107016 # 아니 시금추 얼마나 맛좋읍니까게.

107016 @ 맞아마씨.

107016 #1 어멍 혼번 혼번은 시청 주난사 먹어신디.

107016 @ 시청까지 쥘.

107016 # 아이고, 경 저 아무 거나 먹젠 안 험니다게. 입이 까다로와. 입이 완전 까다로와.

107016 @ 우리는 막 풀 좋아허는디.

107016 # 아이고, 나도 막 풀만 좋아험니다게.

107016 @ 예.

107016 # 아무 거라도 저 생것도 좋아허곡 저런 누물 데운 것도 좋아허곡.

107016 # 음.

107016 # 요 미깡 타레 서넉 집의 강 어제도 장에 강 하루 종일 살았주마는. 우리 미깡 타레 가. 누물은 데와농난양 고기고 튀고, ‘야이, 막 누물 잘 먹는 아이여.’ ‘아이고, 누물 잘 먹어집니다. 누물이영 생것도 잘 먹고 이거 얼마난 존 것과. 누물 만 시민 막 베불게 밥 먹어집니다.’ 경 골앗수다.

107016 @ 좋고?

107016 # 웬장이 항상 그자 상 우티레 올라오는 거라마씨.

107016 @ 그게 건강식마씨?

107016 # 계난 건강해점수과?

107016 @ 예, 아니 경허여도 다리만 아프주 다른 딴 아프지 안 허지 아넘니까?

107016 # 양, 이거양 무사 아파 골다공증도 문 뵈엇젠 험디다마는. 저 오도바이 탄 놀아텡기단 문 다천.

107016 @ 경허니까.

107016 # 이거 십년 오도바이 타난게.

107016 @ 계도 잘도 젊은 편. 다리만 아픈 거주.

107016 # 계난 아픔으로 늙주. 경 무신 전원 젊텐 헤낫수다.

107016 @ 예.

107016 # 아팠마씨게. 아팠. 요샌 병원 안 땡겘수다.

107016 @ 누물국 먹으난 좋은 거우다.

107016 # 병원 안 땡겘수다.

107017 @ 삼춘, 콩국을 혼번 맛 좋게 끌러봅서. 콩국은 어떻 끌림수과?

107017 # 콩국?

107017 @ 예.

107017 # 콩국 아무나 못 끌림니다. 우리 메뉴린 큰메누리도 못허고 죽은메누리도 못허곡. 그 저 그 농장에서 콩국 언제나 우린 콩 혼 말 사곡양.

107017 @ 예.

107017 # 어디 혈 디가 엇어놓난에. 그때는 처음엔 저 혼 멧 년은 허엿수다게.

107017 @ 예.

107017 # 막 스방에 흐끔씩 허여간에 말젠양 혈 디가 엇곡 쩡 제완 못 허민 콩 혼 말 사고 쫓 혼 말 사곡 유는 딱시 그디서 갈곡.

107017 @ 예.

107017 # 경허여근엔에 그걸 문 곶아다근에 콩은 콩국은 끌리는데 콩국은 물 흐끔 놔근에 그 물 끌러가망 따시 콩ㄱ를 딱시 젓어마씨.

107017 @ 예.

107017 # 그 물 놓멍 젓어근에 스금 흐끔 좁아놓곡 허영 젓어근에 멧 사름 더 허영주게. 하영 헤점주, 게문 그것도 콩ㄱ르도 하영 놔사 드박드박 맛싯지 안 험니까?

107017 @ 예.

107017 # 하영 낱 두부ㄱ찌 경허영 저 콩ㄱ르 그 저 물 팔팔 끓이민 그레 젓으멍 아래 영영 비와마씨.

107017 @ 예.

107017 # 비우민 그 다음엔 우의로만 꼭꼭 누르뜨멍 젓질 아녀마썸.

107017 @ 예.

107017 #1 젓어불민 지르특허고 그자 우로만 누르뜨고 나중에 또 영 부꺼 올라와가민 ‘아, 이거 퀘염구나’ 허여근에 누물 썬 거 불 느려와근에 불 줄여근엔에 꼭꼭 누들멍 그 저 콩국을 허여마썸.

107017 @ 음.

107017 # 콩국을 허민 싱거웁직허민 소금 흐졸 그 문 불 문 끌 때에 우티레 낱 꼭꼭 누르뜨근엔에 흐끔 헤영 놔두민 드박드박험니다게.

107017 @ 아아.

107017 # 젓어불어도 안 되는 거마씨. 젓지 말앙 우로만 누르뜨. 민 우트리레 누르뜨고 콩국은 아무라도 못 끓여. 거 어린아이덜코 못허곡.

107017 @ 예.

107017 # 우리 메뉴리덜은 허젠도 아녀곡, ‘어머니 허세요’, 우리 큰메누리 ‘어머니가 너무 깔끔헤여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깔끔헤가지고’, 경만 그치록만 곶읍니다

게. 무신말로. 경허명 무시거엔 곧지도 아녀고. 음식 ㄱ쁜 건 허쟁을 안 험니다게.

107017 @ 항상 이제 해주니까.

107017 # 예. 허쟁을 안 험니다. 무시 거 허영 놔두민 막 부꾸왕 저디 뵈고 저디 해불민 뵈고 이치룩 부끄와불언에 허엇젠 허는 따문. 허젠 안 허영. ‘어머니 현 것이 맛있어요. 어머니 현 것이 맛있어요.’ 그치룩만 험니다게.

107017 @ 예.

107017 # 경허명 허젠을 안 험니다게.

107017 @ 삼춘은 나중에 ㄴ는구나. 우리 어머니 혈 때는 콩 나중에 ㄴ니다.

107017 # 아이고, 아니우다게. 건 안 ㄴ는 거.

107017 @ 건 안 ㄴ는 거예?

107017 # 건 안 ㄴ는 거. 콩이 영 콩가루 영영 허여근에 이거민 적당허다 헤여근 앙에 저 맞게 허영 영 부경 올라와가민 그 콩ㄱ르가 부릅니다게.

107017 @ 예.

107017 # 부껴 올라와가민 불 흐끔 줄이곡 헤여두서 ㄴ물 그자 농명 꼭꼭 ㄴ렁은에 ㄴ물 다 익으민 콩ㄱ르도 다 익는 거 아니우과?

107017 @ 예.

107017 # 경허민 그 간을 맞추왕, 간을 맞추와근에 콩ㄱ르도 다 익은 거 아 간을 맞추와근에 흐끔만 놔두민 ㄴ물 먼저 안 ㄴ니다.

107018 @ 그치룩허연 한번 끌러봐야겟구나.

107018 # 예.

107018 @ 여름에 허는 호박입국?

107018 # 아, 호박입?

107018 @ 예.

107018 # 호박입도.

107018 @ 어떤 식으로 끓여?

107018 # 호박입도 물 팔팔 끓리민.

107018 @ 음.

107018 # 물 팔팔 끓리민 신식으로 그 칼대영 썰민 맛 엇텐.

107018 @ 예.

107018 # 맛 엇텐 허민 손으로 북북 찢어근앙에 손으로 북북 찢어근앙 그 물 끓럽니다게. 물 끓리민 그 호박입을 놔마씨.

107018 @ 음.

107018 # 놔근앙에 따시 무슨 저 밀가루나 모밀가루 시민 더 좋고.

107018 @ 음.

107018 #1 ㄱ멸ㄱ르 흐끔 놔근에 젓어근에 어느 정도민 ㄴ겟다 허영은에 모밀가루 놔근에 끌리민 맛십니다.

107018 @ 예.

107018 # 계란 항상 저 물 끓령 놔사. 난 물 끓령 놔집니다.

107018 @ 물 끓령예?

107018 # 예, 호박입도 물끓령 놔사 파리릉허영 좋아마씨.

107019 @ 그 다음에 몸콕도 여기 끓령 먹읍니까?

107019 # 예게.

107019 @ 그건 어떤 식으로 허는 거라마썸.

107019 # 그거는 주로 끌리는 거 옛날은 돼지 잔치할 때에. 옛날은 돼지 하나로 잔치했수다게. 옛날은 하나 큰 거 하나 허영 잔치허민 잔치날은 그 빼 숯양.

107019 @ 음.

107019 # 빼 숯양은에 그 저 몸콕 몸 썰어와근에 경허영 끌리민 막 맛십니다마는. 이제는 너미 몸이 비싸노난양 돼지 잡는 디도 엇고. 엇어마썸게. 돼지 잡는 디도 엇어. 경허는디 우리도 저 몸콕 끓령 집의서 임시 끓령 먹진 아녀고 몸 사다근 앵 무청 먹는 거. 언마나 비쌌수가게.

107019 @ 예, 예.

107019 # 요만이 현 거 이천 원.

107019 @ 맞아.

107019 # 예 계란 그런 거 사당은에 몸치로 무쳐근에 양념 낱 무청. 경이나 허곡. 그 저 그 거 그 돼지 그 빼에 놓민 막 맛십니다게. 거 그 몸. 몸 놓곡 느물 흐썸 놓곡.

107019 @ 몸 놓곡 느물 놓곡예?

107019 # 어떤 집원 느물 놓는 디도 싹곡. 딱시 느물 안 낱 몸만 낱 허는 집도 엇고. 몸이 비싸노난양 키로에 열만 헤영 사당은에게 경 험수게.

107020 @ 여기는 옥돔을 튀렌 험니까? 이 동네서는?

107020 # 옥돔엔도 허고 생선엔도 허곡.

107020 @ 여긴 생선이엔 허지에. 예 게른 옛날에 생선국 끓일 땐 어떤 식으로 허는 거?

107020 # 생선국은 저 기냥 기냥 물에 낱 해도 돼마씨.

107019 @ 아.

107019 # 짧아야 뿔 거난.

107020 @ 음.

107020 # 물에 그자 시쳐근에 물에 놔근에 그자 바글바글 짧아야 뿔 거난 숯아근에 무나 썰어낱 경허영 끌염수다.

107020 @ 생선에는 무 놔야 맛 좋은 거구나예?

107020 # 예, 무.

107020 @ 거는 느물이 아니고예?

107020 # 예. 무, 무. 느물은 안 들어갑니다.

107021 @ 메역국은?

107021 # 미역국은 저 소래기.

107021 @ 예.

107021 # 소래기 썰어 주지 아님쭈과? 썰어 주난에 그거, 그거 저 무시거에 보강게. 참기름에 보강은에 물 놔근에 그거 복삭 삶아지민 미역 놔근에 국 끌렁 먹읍니다.

107021 @ 음.

107021 # 우리 아기덜은 막 좋아허영, 나 귀에 왕 대영 허민 ‘할머니 무신 국’ 허민.

107021 @ 으.

107021 #1 ‘바당국’ 허민 예에.

107021 @ 바당국은 무신 국을 끓이는 거?

107021 # 바당국은 생성이나 돔이나 주로 돔.

107021 @ 돔예?

107021 # 돔 막 큰 거양.

107021 @ 예.

107021 # 맛 엇읍디다게.

107021 @ 음.

107021 #1 벨로 맛 엇으난 아이덜이 안 좋아허는 거 아니우과?

107021 @ 음.

107021 # 게난 메역국만 좋아헙니다게.

107021 @ 음.

107021 # 게난 멩질엔 저 돔 오만 원 쥘 사단에 끌리난에 거 별롭디다양. 별로란게. 가시 문딱 다듬양 아이덜 ㄱ란 가시 문딱 다듬으난에 건 별로난에 좋아허지 아년. 저 놉으 딸 저 손지.

107021 @ 으.

107021 #1 저 큰손지가 귀에 대영왕 ‘할머니, 오늘은 무신 국?’ 경.

107021 @ 웃음.

107021 #1 거짓말 헤불민 ‘할머니 에이그, 거짓말 헤연, 할머니 거짓말 헛네.’ 경 허명 드리 곱읍니다. 미역국만 좋아허여마씨.

107022 @ 그리고 옛날에는 냉국덜도 하영 먹엇지 아녀우파양?

107022 @ 예게.

107022 @ 뵈으로

107022 # 옛날부떠 오이가 아니고 웻 노난에. 오이가 아니고 웨.

107022 @ 예, 예.

107022 # 밧데 웻 놓난에. 오이가 밧데 옛날은 구텡이 그 구텡이에 네 개씩도 살리고 세 개씩도 살리고.

107022 @ 음.

107022 #1 경헌디 요즘은 경 아녀마씨. 경 아녀민 그걸로 주로. 그자 그걸로 허
영은애에 보리밥, 보리밥 우알착 이만이 그 우리 차롱 잊지 아녀우과?

107022 @ 예, 예.

107022 # 그 차롱으로 우알착 거리곡 반찬이 잇수과? 지슬 반찬.

107022 @ 음.

107022 # 지슬반찬 계란 농곡 허영 지슬 반찬허곡. 오이 ㄱ정가근에 칼로 영 허
여근에 너 개로 영 벌렁 영 벌렁 착착착착 썰어와근에 낭푼이레 썰어놔 그레 췌장
젓영은애 췌장 젓어근애에 큰낭푼이 허여근에 멧 사름허민게 그걸 허민 거려놔 거
기 놓당 보민 혼 사름은 확허게 먹어부는 사름도 싯곡.

107022 @ 일허당 허니까예?

107022 # 일허당게 답답허난 그걸 먹는 거라마썸. 경허영 거 그 옛날은 순 저 오
이국, 웨국이우다게. 거곡 느물 데왕은애 집의서 국 허영 먹을 때도 싯고. 뭐 또 특
히 먹젠 허민 자리훤.

107022 @ 예.

107022 # 자리훤가 최고 좋은 겁주게.

107022 @ 예.

107022 # 계난 난 자리 해마다 사집네다게.

107022 @ 아.

107022 # 아덜 때문. 아덜이 와근에 자리훤 좋아허는 때문 오도바이 자리 다단에
끗영 죽게살게 허영은애 놔뒀서 또 이디서만 먹지 못허영 아기덜도 갈라주곡.

107022 @ 음. 웃음.

107022 # 혼 상자.

107022 @ 음.

107022 # 저 혼 상자 상 오민 아무 것도 아이라마씨게.

107022 @ 음.

107022 # 갈라주당 보민. 다듬지도 못허영 못 전당.

107023 @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식으로 허는 거라예?

107023 # 게메마썸.

107023 @ 여기 성계국. 성계는 이 동네 뭐렌 험니까?

107023 # 성계엔 험니다게.

107023 @ 성계예. 성계로도 국허여마씨?

107023 # 우리 미짱 탈 때 성계로 헤엇수다게. 성계 그때는 저 무시 거 일 키로
가양.

107023 @ 예.

107023 # 일 키로가 일 킬로라도 이만벧기 아넵니다.

107023 @ 예.

107023 # 경허민 그때 일 키로에 오만 원 멧 번 못 끝립니다. 경허영 그것도 끝

리곡. 경허영 그것도 미역 낱 끌러사마씨.
107023 @ 건 미역 낱.
107023 # 건 미역 낱 끌러사마씨.
107023 @ 보말로는?
107023 # 보말은 보말은 허여당 올라먹음벤틀 다른 건 아녀봤수다.
107023 @ 보말국은 안 헤마씨?
107023 # 그건 도매 같은 거 바농 ㄱ든 거 올양 먹는 거 헛수다.
107023 @ 녀패도 국 헛니까?
107023 # 예. 녀패는 우리 하영 먹엇수다?
107023 @ 건 어떤 식으로 헤여마씨?
107023 # 녀패 메영 밀영와마씨. 복삭 일어근영에 집의왕 행과근에 것도 ㄱ큰 슽
아야마씨.
107023 @ 음.
107023 # ㄱ큰 슽아근에 틈제왕. 틈제왕은에 그것만 헤영 간만 맞창 그걸로 국
끌려도 맞습니다.
107023 @ 게든 그건 무신 간 헤마씨?
107023 # 그건 간장.
107023 @ 아 간장?
107023 # 예.
107023 @ 음.
107023 # 간허민 맞습니다. ㄱ큰 끌려노난. 그냥은양 세여노난 원체 셴 것이 아
니고 그 종류가 그 저 슽아야마씨.
107023 @ 예.
107023 # 슽아야. 막 슽양. 슽아근에 폭허게 틈제왕 놔두민.
107023 @ 건 녀피국?
107023 # 양.
107023 @ 건 녀피꼭?
107023 # 녀뻬?
107023 @ 녀피, 녀패예?
107023 @ 녀패국예? 가시리도 국 끌러마씨?
107023 # 가시리는 국 안 끌립니다.
107023 @ 프레는?
107023 # 예.
107023 @ 퍼레?
107023 # 파레는 무쳐 먹는 거.
107023 @ 아 거는 무쳐 먹곡. 그 다음에 물훤는 뉘뉘 헨마씨? 물훤들은?
107023 # 물훤?

107023 @ 예.

107023 # 물훤 냉국도 허영 떡국 그냥 저 웬장 낱은에 무쳐근에양 양념 낱. 것도 먹을만합니다.

107023 @ 예.

107023 # 게난 초원에게 뭐 사례 갈 디 잇수과? 사례도 못 가민 주로 그런 거.

107023 @ 음.

107023 # 뭐 다른 거 짝끔 뭐 이 사과 ㄱ쁜 거 배 ㄱ쁜 거 그런 거 햅뎀 농곡 허민 것도 좋아마썸. 매날 먹는 것도 아니고.

107023 @ 예, 삼춘, 아까 자리물훤 하영 헛덴 행게 마는 어떤 식으로 허민 맛 좋아마썸? 자리물훤는?

107023 # 자리물훤 서울 가도 나만 헛니다게. 햅 충을 몰르난. 자리물훤는게 그 거 썸는 것도 틀러마썸.

107023 @ 아아.

107023 # 썸는 것도 틀러마썸. 썸는 것도 츠레로 안 썸민 가시 썸영 못 먹읍니다. 썸는 것도 틀리난 것도 막 으라 가지 듅니다. 것도 뭐 참기름, 참깨, 무슨 뭐 조피, 드는 것이양 설탕 뭐 이거 저거 드는 것이 경 하마썸. 하.

107023 @ 음.

107023 # 막 건 여라 가지 듅니다게. 하영, 하영 놘사 맛잇어마썸.

107023 @ 음.

107023 # 하영 놘사 맛잇어. 게난 그 저 그런 건 나가, 나만 허는 거마썸 건.

107023 @ 예.

107023 # 이디 와도 나만, 서울 으정가도 나만.

107023 @ 그 비법을 전수를 똤야 똤 건디? 웃음.

107023 @ 게문 그것은 웬장으로 양념허지예?

107023 # 웬장으로 예.

107023 @ 으.

107023 # 질 처음에 썸어놘근에예. 그 자리 썸어놓민.

107023 @ 예.

107023 # 식초부터 므녀놘마썸.

107023 @ 아.

107023 # 식초부터 므녀놘마썸. 그거를 식초를 무사 노느냐 허면은 자리가 물랑 물랑 못허게. 저 햅썸 저 토락토락허게. 식초를 놓고 웬장을 놓고. 식초는 짝끔 낮게 농곡 웬장은 약간만 낱은에 버무리만 허주양. 버무리만 허엿당은에 다른 거 문 딱 허여놘 미나리여 무시거여 문 딱 허여다 놘근에 아이고, 그디 드는 것이 너미 하마썸. 겨민 허여 오랜 허민 허여오른 헛니다. 우리 아덜. 저 우영팻디덜 다 시난.

107023 @ 예.

107023 # 미나리영 무신 뭐 쪽파여 무슨 다마네기 ㄱ쁜 거게 그거 문 딱 멧 가지

허여당은에 흐끔씩 흐끔씩 농당 보민 수세가 합니다게.

107023 @ 예.

107023 # 하근에 계난 계난 국이 듬복해야 맛있어마썸게. 후루룩 허지 말앙 기냥 자리도 자리 놀 만이 농곡. 그 노는 것이 하영 뇌사 맛이 셔마썸게. 경허영은에 허민 아덜은 경 좋아근영 경 자리훼만 좋아합니다게. 언제난 그자 해마다 그자 자리.

107023 @ 거기 참기름도 놓지예?

107023 # 예게. 참기름 쥬 처음 참기름 뇌야돼여.

107023 @ 아.

107023 # 예 그 저, 저 버물릴 때.

107023 @ 버물릴 때 식초허영 헐 때 그때도 참기름.

107023 # 식초헐 땐 안 농곡?

107023 @ 나중에.

107023 # 나중에 만들 때에.

107023 @ 예.

107023 #1 자리물훼 만들 때에. 질 처음엔 식초허곡 웬장. 질 자리 썰어 뇌뒤근에 다른 거 문딱 썰어뇌에 냉장고에 다른 거 그거 문딱 농명 같이 무시질 뇌마썸. 무신 거 뇌마썸? 참기름. 빨리 안 농면은 그게 터불어마썸게.

107023 @ 아아.

107023 # 우티레 터부는 때문에 그 양념들 다 뇌근에 참기름영이 뇌은에 헐사 텅은 안 돼여.

107023 @ 예. 게는 여름에도 그냥 이제도 여기 왕은에 자리물훼 먹영 감꾸나? 아덜.

107023 # 여름에 오믈 온 때마다 허여마썸.

107023 @ 예.

107023 # 먹당 잇수다. 먹단에. 추원 이젠.

죽류

107024 @ 그 다음에 죽들도 하영 헐먹어서예.

107024 # 죽은 아이덜 안 좋아허는 때문에양.

107024 @ 음.

107024 # 우린 사십년 동안 미깡을. 그 저 아침헐 는 밋힙니니까? 흐번은 유죽헐다. 그치룩허명 돌아가명 헐수다게. 모실포놉덜 저 가근영에 이디 놓은 택이 엇으난.

107024 @ 예.

107024 # 농장이 뇌러뇌수게. 갈라뇌분안 만 평 만 평 허는디 이젠 저 죽은아덜더 사뇌부만 만 평이 뇌뇌주마는. 옛날은 우리 것만도 만 헐 뇌뇌뇌난 우리만은 뇌뇌은에 흐치 윈. 생각도 안 헐은에, 덕수 놓으로 택도 없곡. 왓닥갓다 허엿당 말앗당

허는 놈 은 아녕 상 놈 으섯 사름 딱허게 혼 덜도 더 다마씨게.

107024 @ 게니까.

107024 # 혼 덜도 더 타난마씨. 아이고, 진짜양. 혼 들 춤 쓸도 푸대로 굿다 낱 먹음벳기.

107024 @ 예.

107024 # 허여볼 수가 엇수다. 푸대로 굿다낱 폭폭 뜨멍 그디서 압력솥디서 낭푼 이 상 네 개 낱은에. 상 세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놓민 게도 부뜨는 사름이 합니다게. 아척이 그 간식을 죽을 쑤민 그 저 중개자도 오랑 또 운전수도 왕 먹곡.

107024 @ 예.

107024 # 부뜨는 수꾸락도 수두락. 즈뵈 수꾸락 통 사당 사당 놔뒀서 먹어수다. 게난 튀 춤 감도양 감을 백 개 사당 싱그난에 부유엔 현 거 백 개 사당 싱그난 돈 안 웨는 겁디다. 감도 그자 걸어놔 내불민 그자 정심 먹영도 먹곡, 비온 날은 놀멍 먹곡 감낭 저 건 농담 말입주마는게. ‘감낭 끊어불민 미깡 타레 안 오켜.’ ‘정심 아녕 주민 저 미깡 타레 안 오켜.’ 경 골으멍덜 험니다게.

107024 @ 잘 헤 주난게.

107024 # 게난 나 신디레 경 골읍니다게. 저 어디, 어디 간에 교육 받안에 그 저 식사허는 것ㄴ란 무신 거엔 험니까? 그 저 식사허멍 어디 강은에 교육받안은에.

107024 @ 요리장습 이런 거?

107024 # 저 무신 어디 들어가는 거?

107024 @ 어디 들어가는 거?

107024 # 어디 그 들어가지 안 험니까? 무사 저 그 식당ㄴ든 디 들어가주게 교육 받안.

107024 @ 어디 간 교육 받안 들어가는 거?

107024 # 아이고, 난양 솥뚜껑 운전수벳기 이제도록 배완. 배운 것이 이거우다.

107024 @ 그렇지.

107024 # 교육 받안 험젠 못 험젠 말은 안 들어봤수다. 생전.

107024 @ 그렇지 집의서 다.

107024 # 예.

107024 @ 종손침의서 그 많은 일을 헛으니까.

107024 # 게난게 놈신디 흐뵈이라도 음식이라도 나쁘덴 흐뵈도 안 들어봤수다. 잘 헤염젠만 들엇주.

107024 @ 예.

107024 # 어디 간 교육 받안 읍디가? 솥뚜껑 운전수 교육받앗수다.

107025 @ 옛날 곤죽. 곤죽들은 언제 쑤는 거마씨?

107025 # 곤죽은 아무 때나.

107025 @ 으.

107025 # 곤죽은 먹고 싶은 때마씨.

107025 @ 뭘로 쭈는 거 곤죽은?
107025 # 흰쌀로만.
107025 @ 흰쌀로만.
107025 # 쌀 씻어놓곡 그자 말 맞춰 놔근에 그냥 그건 쌀만 익으면 곤죽이우다.
107025 @ 겐디 그건 맛 좋아. 이제는 맛 좋습니다.
107025 # 맛좋아마씨.
107025 @ 여기는.
107025 # 아이들 완수가게. 요 흐록인 완 경 ‘할머니’허멍 오란, ‘할머니 자주 텅 길게요.’ 가네도 바쁘난원.
107025 @ 요즘 애기들이 바빠마씨게.
107025 # 작년에야 들어왔수다. 모슬포 살단.
107025 @ 아아.
107025 # 질 잃어분텐 멀지 아넘니다게. 허멍 온천 알아집니까? 온천 저 나가기 전에 서러레 들어간 디우다게.
107026 @ 경허곡 삼춘, 여기 옛날 조축들도 썩 먹어신가마씨?
107026 # 예.
107026 @ 건 어떤 식으로 쭈는 거마씨?
107026 # 조축도 좁쌀죽인디 그것도 저 물 꿰른 놔근엔에.
107026 @ 으.
107026 # 물꿰민 놔근에 그것도 익을만 허민 저 무시거 놔물 썰어놔.
107026 @ 조축할 땐 놔물 썰어놔 허는 거?
107026 # 놔물 썰어놔. 멧 번 먹지 아녀도 혼번씩 먹어수다.
107027 @ 풋죽은?
107027 # 풋죽?
107027 @ 예.
107027 # 풋죽은 풋 숲양은에.
107027 @ 예.
107027 # 걸렁. 걸렁. 무시거 잇지 아녀우과? 샤.
107027 @ 예.
107027 # 그것디레 이만이 이젠 다마네기 찰리 그걸로 걸러근에.
107027 @ 음.
107027 # 걸러근엔에 멧 사름 숲으당은에 저 꿰기 전의.
107027 @ 예.
107027 # 꿰기 전의 놔근에 꿰기 전이 놓민 잘 젓어얹주. 잘 누난에 그 저 꿰영 놓민 흐끔 쉽곡.
107027 @ 으.
107027 # 그 물이영 문딱 걸른 걸 그 물을 저 물은 아래 놓지 아녀마씨.

107027 @ 으.

107027 #1 안 누난에 그것이 흐쓸 퀘여가민 쓸 농민 줍니다. 쓸 낱 퀘민 흐뽀 더
눌어마썸. 퀘기 전인 막 눌젠만 허영 어디레 가지 못허여마썸.

107027 @ 음.

107027 # 죽만 써야. 앓양 죽만 써야. 게난 정심 때사 너무 지나쳐. 너무 지나쳐.
떡어나민 이만이현 다라로 하나고 미짱은 못타고 밧디 가민양. 정신 쉼은에 어떻
원 거령청이 살아진 거 다텐니다게.

107027 @ 음.

107027 # 너미 지나치게.

107027 @ 그 다음에 찹쌀로 행 떡도 멘들양 놔마썸?

107027 # 그거 나 나 그거 만들영 낱 쓸 정신이 어디 잇수가게?

107027 @ 죽만 쏘 거고예?

107027 # 이디서, 이디서 벨미로 경도 혈 수 싯주게.

107027 @ 예.

107027 # 밧디 강은 그거 못 험니다.

107027 @ 동지혈 때엔 그거 험니까?

107027 # 그거?

107027 @ 음.

107027 # 그거 무신 그것ㄴ라.

107027 @ 표준어로는 새알 영 허는디 여기서는?

107027 # 게메게. 표준어로 새알엔 허는디 여기서 그거 즈베기.

107027 @ 즈베기?

107027 # 즈베기 흐뽀 툫아낱 그디서.

107027 @ 그 즈베기는 뭤로 만드는 거마썸?

107027 # 밀가루. 옛날은 밀가루.

107027 @ 밀가루 옛날에는예? 삼춘 아까 콩죽도 썬헛 허멍?

107027 # 콩죽은 하영 썬수다게.

107028 @ 콩죽은 어떤 식으로 종류가?

107028 # 콩죽은 어느 정도 놔근엔에 물 팔팔 퀘민 ㄴ르 ㄴ르 문딱 물 허닷당은
에 병당이 안 지게. 비우멍 아래 영영 젓으멍 비와마썸. 비와근엔에 그거 우터레 젓
어도 어떻 아녀는 거마썸.

107028 @ 아 콩죽은?

107028 # 쓸 싯엇단 거 농곡.

107028 @ 예.

107028 #1 쓸 싯엇단 거 농곡 썬당은에 누물을 놓난 무 경허영 콩죽 맞습니다.

107028 @ 콩ㄴ르만 노는 게 아나가 누물이나 늪뽀낱.

107028 # 늪뽀도 흐쓸 누물은 많이 놔야 맞좋아마썸.

107029 @ 여기 믫물죽 2튼 것도 헤 먹언마씨?
107029 # 믫물죽은 믫물죽만 허지 문 익어가민 모멸쓸 서끄민 맛 좋아.
107029 @ 아.
107029 # 경허영 허민 맛 좋아마썸.
107029 @ 다른 디 가난 믫물로만
107029 # 믫물로만 문 쓸 익어가민 그레 놉근에 젓영.
107030 @ 녹디죽은?
107030 # 녹디죽도 마찬가지로. 녹디죽은 아무 것도 안 놉.
107030 @ 으.
107030 # 아무 것도 안 놉. 그레 쓸 놉근엿에 걸러보지 아녜수다.
107030 @ 아아.
107030 # 걸러보지 아녜수다. 겹데기가 알븐 거난 걸러보진 아녜고 그자 간 맛화근에. 아무 거도 안 놉.
107031 @ 녹디죽은예?
107031 # 쌀만 낱 쭈는 거.
107031 @ 옛날 득죽덜은 허영 먹언마씨?
107031 # 유월쓰무날은 계속 집의서 득 질량양. 득죽양 계속 먹언.
107031 @ 유월쓰무날에 득잡양 먹는 거는 이유는?
107031 # 그거는 그거 이유는 자세허게 몰르쿠다. 그거는 유월 쓰무날은 득 먹넨 허명 득날엔 허영 득 먹읍니다게. 득날엔 허영 득 먹고 그 대죽 그 먹는대죽양.
107031 @ 예, 예.
107031 # 사탕대죽 막 갈앗당은에 이제 혼저 일허라. 어멍네가 유월 쓰무날은 득 잡아먹곡 어멍네가 백중날은 물 맞으레 가곡 경헨 거 아니가? 경 허명 어멍네가 드러 얘기허명 유월 쓰무 날은 득 잡양 놓곡. 따시 저 물 맞으레 갈 때 대죽 끓어놓 곡 또 미숫가루양. 미숙 물 맞으레 가냏수다게.
107031 @ 여기서는 어디 가마씨? 물 맞이레.
107031 # 화순.
107032 @ 화순예? 갱죽엔 허영은에 국죽도 썬 먹언마씨?
107032 # 국죽이 저 무시거 줍쓸로 쭈는 거 아니우과?
107032 @ 국죽이 줍쓸로예.
107032 # 모힌줍쓸에 쭈는 거 아니우과?.
107032 @ 녹물 썰어놓곡 허여근에.
107032 # 모멸쓸 안 놉. 국죽은 믫물쓸 안 놉.
107033 @ 그 다음에 꿩죽?
107033 # 꿩죽은 맛 엇인 거.
107033 @ 맛 엇입니까?
107033 # 득죽만이 그것 샤브샤브 젊은 아이덜 술 먹는다. 꿩죽은 맛 엇읍네다.

기냥 기자 반찬이나 해양 영. 저 그 양념 넣은에 반찬이나 허영양 난 썩 무시거 먹을 거 엇입니다. 맛도 엇어.

107033 @ 맛 엇어?

107033 # 우리 아덜 죽은아덜 그 총 샅 내당은에 멧 해 쓰단 저르지고 바쁘고 썩 쏘아가난에 좋지 아녀텐마씨.

107033 @ 예.

107033 # 으저가붙디다. 것도 혼 들에 얼마? 건 세금 내여사마씨. 세금 내연 이디 살명 그거 허단 저 모슬포 썩 마치레 와낫수다. 경허단 아이고, 이제 바쁘고 아 이덜이영 살젠 허난에 썩 너미 한에 완 썩 흐쉴 소리라도 내우라게. 아이 저 총 으저가부럿수다. 으저가붙ㄴ렌.

범벅과 수제비

107034 @ 삼촌, 아까 범벅도 헤먹엇텐 허는디?

107034 # 범벅은양, 감저 뇌근에 감저 딱딱 흑게 썰어낱 그거 익으면 저 무신 거 믱물ㄴ르.

107034 @ 예.

107034 # 믱물ㄴ른 뇌근에게 배술기로 짓엉. 것도 너미 딱딱헤도 맛 엇입네다.

107034 @ 으으.

107034 # 흐쉴 흘삭헤사 맛이나주.

107034 @ 으.

107034 # 경허영 험니다게. 작년에양 범벅을 허는디 막 죽은아들 하우스 오죽 웃을 말이우과? 어멍 거 범벅을 어느 정도를 허주. 막 하영 헤연 잘도 하영 허난에 다 썩 쫓수텐 허난. 노인덜 가. 사돈 사돈도 사돈 강 안넵서. 허멍 문딱 싸멍 다 쫓. 이거 두 돼 녀은 무기 거영 막 무슨. 너미 하영 허연.

107034 @ 요즘도 그렇게 범벅덜 허고예?

107034 # 예게, 범벅도 이젠 별미라마씨.

107034 @ 옛날엔 못 먹엉.

107034 # 이젠 믱물범벅이 고급아니우과게.

107034 @ 맞아.

107034 #빵떡보다도 더 맛있게 먹읍니다.

107034 @ 음.

107034 # 이거 얼마나 힘들게 험디겐 허멍.

107035 @ 즈베기는?

107035 # 즈베기도게 그 풀 팔팔 끓이민 똑똑허게 캣다근에 것도 저 물 흐끔 저 데왕나사 마씨. 흐쉴 데왕 뇌사 좋아마씨.

107035 @ 아아 반죽험 때 딱뚫험 걸로 허여마씨?

107035 # 늘물 놓민 딱딱허영 맛 엇입네다. 잘라놓민 맛이십니다.

107035 @ 반죽할 때 따뜻한 걸로 해마씨?
107035 # 것도 양 똑 ㄹ쁜 거라도 틀립니텐 허난.
107035 @ 그냥 언물로 허민예?
107035 # 따뜻한 물로 허여사 맛이 나.
107035 @ 따뜻한 물 익어불지 아넘니까?
107035 # 뭐?
107035 @ 반죽할 때?
107035 # 익어도 물을 많이 안 놓민 웨는 거난. 것도 나도게 허는 거 다 해봤수 다게.
107035 @ 영도 해보고 정도 헤여보고.
107035 # 사름덜 치닥거덜 겨고 저 밀가루도양.
107035 @ 예.
107035 #1 그디 강 물젠 허민 힘들지 아넘니까? 이디서 물 흐쓸 데왕.
107035 @ 예.
107035 # 물 흐끔 물 데와근에 막 쩌근앵에 비니루에 담아가는 거라마씨.
107035 @ 미리?
107035 # 비니루에 담양 가근에 그디 강은에 영영 도마에 다 시난에 거기서 밀어 근앵 수제비 행영. 수제비 헤영 늬빠 그치룩 경허멍 그치룩 허멍 스년, 스년 허고 따시 오년 죽은아덜네거 5년 치다꺼리헛수다게.
107035 @ 예.
107035 # 죽은아덜네 쥐부난에 아방 돌아가난에 큰아덜도 느가 다 마탕 허라. 전 부 누게가 헛니까게. 그 사름덜이 따시 미깡을 탈 거난. 오년 따시 치다꺼리 게난 돈 버슨 거 님아마씨게. 버슬엇수다게.
107036 @ 칼국수는 어떤 식으로?
107036 # 칼국수도 경. 그거 저 무시거게 물 흐끔 따뜻하게 헤연 벌러져불어.
107036 @ 벌러져불어예?
107036 # 메밀칼국수도 물 데와근에. 이 저 무시거 저 밀가루나 물을 따뜻하게 데왕은에 허면은 놀러놓민 이 떡도 손에서 잘 놀려사 맛이 좋아마씨. 오래 놀려사 주. 아멩이라고 확확 허민 손에서 맛이 엇어마씨.
107036 @ 으.
107036 # 막 잘 쩌근앵에 밀영.
107036 @ 예.
107036 # 병으로 사흫들이.
107036 @ 예.
107036 # 그거 밧디도 하나 잇수다게. 이디도 버리지 이제 사흫들이 나오는 다 잇수가게.
107036 @ 으.

107036 # 다 잇수다. 그 비니루에 쌍 놔뵈수게. 밀어근에 싹싹 쫄라근에 놔근에 똑똑 썰민 ㄴ르 놔근에 탁탁 털민.

107036 @ 양념같은 경우는 뭐 낱 허여마씨? 그?

107036 # 양념도 별로 놓는 게 엇입니다. 그자 놓지 기루민 다시다나 흐쫂 노나 마나 경헐 거마씨. 메틸ㄴ른 안 놓니다.

107036 @ 국물 그 육수는 뭘로 내는 겨우과? 국물?

107036 # 육수?

107036 @ 으.

107036 # 육수는 그때는 저 아덜이 꿩 잡아오난에 꿩 슯안. 꿩 두 머리 낱 슯으 난 줍니다. 슯아뵈에 그걸로 육수허난 할망덜은 뜯어먹고.

107036 @ 음.

107036 # 육수 줍니다. 경허영 허고.

107036 @ 으.

107036 # 그거 꿩 없을 때엔 그 육수 허젠 허민 저 메리치 흐뵈 딸러근에 흐꼬만 딸러도 뵈여마씨. 하영 놓지 말아도 그때 다시마 우리 헐 때엔. 다시마 하영 나왓주 마는.

107036 @ 맞아.

김치

107037 @ 예, 예. 김치는 헝디가?

107037 # 김치 아년에 어제 간에 그거저거 사오고. 느뵈은 안 사완. 저 느뵈을.

107037 @ 으.

107037 # 느 느뵈 느뵈이 맛이 엇언마썸게. 느뵈은 하영 안 허쿠다. 다 놉 줘불 어지고 큰 통으로 하나 저 교회 ㄴ저가불엇수다게. 강 사올 때랑 나 뵈 포기만 사 다줍서. 약속헐 놔뵈 놔뵈수다.

107037 @ 게은 옛날에 김치들은 어떤 김치들 헤여먹언마씨?

107037 # 탈탈이도 엇언. 구루마뵈긔 엇이난 저, 저, 저 동광 우의, 동광일 거라. 동광.

107037 @ 으.

107037 # 동광 간에 이만씩 퍼진 흐 구루마썸 사당 사흘썸 죽엇수다.

107037 @ 아.

107037 # 사올썸 죽연 그거 김치헐 먹엇수뵈허난. 이젠 무사 그런 걸 먹엇수다. 김치 허영 떡곡 장도 그치룩 하영 담양 먹단 장도 안 담양 떡곡 김치도 좋은 걸로 만 허제.

107039 @ 늣뵈 ㄴ튼 걸로 김치 안 헐 먹어마씨?

107039 # 늣뵈 무사 아녀마씨.

107039 @ 깧데기 허고.

107039 # 깍뎀기 흐뎀석 헤영 먹곡. 먹지 기루민 흐뎀 허영 먹곡. 늣뎀 제게 쉬
여불어마씨.
107039 @ 아.
107039 # 빨리 쉽니다게.
107039 @ 예. 아까 퍼데기도 어떤 식으로 헤어마씨?
107039 # 양 그뎀 맛 엇이 헛수다.
107039 @ 으.
107039 #1 뵈이 셋수가? 그 저 무시거. 이제 무시거 놓을 게 잇엇수가? 다시마도
흔웃이 저 나오지 안 허고 또 저 다시다도 안 나오곡 허난에.
107039 @ 으.
107039 # 저 미원 흐뎀 놈와신가. 미원 흐쫈 농곡 설탕이나 흐뎀 어지련에.
107039 @ 으.
107039 # 맛션 먹엇수가게. 좋은 반찬으로 먹엇수게, 맛 엇어도.
107039 @ 으.
107039 # 마농허고 고춧ㄹ르 허고.
107039 @ 예, 예. 마농은게 우영에 싱그난게.
107039 @ 게뎀 그치룩하고. 아까 열무김치같은 것도 츠마귀 짐치도 헤연마씨?
츠마기 김치는 어떤 식으로 헤마씨?
107039 # 츠마귀김치. 다른 김치나 마찬가자우다.
107039 @ 으.
107039 # 츠마기 열랑열랑 현 거 허민 그것도 맛쉽니다게.
107039 @ 젓갈
107039 # 젓갈 사왓수다게. 젓갈 새우도 산 오고 또 저 뎀, 메레치도 딸려근에.
107039 @ 예.
107039 # 메레치허고 다시마허고 무허고 다마네기허고 딸려근에.
107039 @ 아아.
107039 # 딸린 물에 고춧가루 농곡 생강 ㄹ뎀 거 그런 거 놈근에 김치힛니다.
107039 @ 음.
107039 # 다른 거 놀 것이 엇수다게.
107039 @ 육수를 잘 내갓고 허면예?
107039 # 육수를 헤영 그레 고춧가루 놈야.
107040 @ 그 다음 물짐치도 헤영 먹어마씨?
107040 # 물짐치 허기 나름이우다게.
107040 @ 으.
107040 # 거 오이도 속 까끄곡 꺾뎀기 가끄곡 흐뎀 썰어 농곡. 배에 사과, 그런
거 썰어놋 막 씨원허게 국 대신.
107040 @ 아, 국 대신?

107040 # 국대신 경 허영 떡볶.

107041 @ 우리 이제 동지집치도 하영 먹지 아넘니까예? 동지집치는 어떻 허민 맛 줍니까?

107041 # 꺼꺼당은에 하영 죽이지 아녀민 살아냥 돌 짝 지둘뢰낫당. 그건 간단헤 마썸.

107041 @ 음.

107041 # 건 그자 마농이나 빼져농곡 거 흐썰 하 영 안 허는 거난마썸게.

107041 @ 으으.

107041 # 저 무신 것도 갯느물집치도 헤연 잇수다게.

107044 @ 갯느물집치는 어떤 식으로 헤마썸?

107044 # 막 독허연. 아덜네 사는디 간보난 흐뵂 허연에 아덜덜 먹어판 놔뵂수다 게.

107044 @ 삼춘, 안 허는 게 엇구가?

107044 # 일거리만 나냥으로

107044 @ 보른 안 허지 못허영?

107044 # 일거리마썸게. 일거릴 이녁냥으로 만들멍 험니다.

107043 @ 그 다음에 파김치도 헤마썸 여기?

107043 # 파김친 얼른 헤여야 맛습니다.

107043 @ 거는 뭘로 양념헤마썸?

107043 # 파김친 무신거만 흐뵂 농민 뵂는 거. 그자 췌가르나 흐썰 농곡 저 무시 거 장물이나 흐썰 농곡.

107043 @ 아 장물도 들어가?

107043 # 장물이나 흐뵂 그자 얼른허게 버무령 먹는 거난 경허영 떡볶 따시 또 젓 시민.

107043 @ 예.

107043 # 젓갈 흐뵂 냥.

107043 @ 예.

107043 # 장물 놓지 말앙 그거 아무 것도 안 들어갑니다. 짠 건 우리 싫어허난 짠 건 허지 안 허난.

107043 @ 파김치도 맛했는데 식당가민예.

107043 # 식당에. 냄살나고 허난 젓갈 안 놓니다. 그런 딴.

107043 @ 으.

107043 # 저 단물에 허는 거는 간장이 들어가고 단물에 안 허민 소금 들어감실 거우다. 우린 단물에 허영 먹으난게.

107043 @ 예.

107043 # 놓는 거 아무 것도 엇입니다. 고춧가루나 농곡 깻가루나 농곡 다른 거 는 뭘 마늘도 안 들어가곡 허니까.

107043 @ 파니까예.

107043 # 파난 마늘 안 들어갑니다. 땡이명 쓸데길 엇인 거 원 일거리만 저질러 집니다게.

107043 @ 일 아무 것도 엇텐 일 엇이민 재미. 떡이영 요 집이난게 아이고, 떡이영 영 하영 줍디가? 앓앙 하나 먹영 갑서, 거 무신 먹영 갑서.

107043 # 하이고, 요 켤당 오죽 간세헌 어른이라, 막 간세허영 어디 강 노인당은 무사 안 감수가? 간세 헨 안 감수다. 나 경 꼴안.

107044 @ 꿩마농 짐치도 허엿수가?

107044 # 꿩마농 파보단 더 맛십니다. 단물에 먹단 흐뎡 잇수다, 우영팻디 꿩마농 좋안에.

107044 @ 족은 디 다?

107044 # 헤끄만 헌디양 꿩마농 북북하게 빨리채 씻언에 요만이 허연에 단물에 허연에 먹단 문 먹엇수다. 문 먹언. 그자 저것도 흐썬 허영 먹곡 경험수다게.

107046 @ 그치룩 허연에 먹곡 새우리짐치도 여름에 좋아예?

107046 # 새우리 막 줍니다. 새우리도 구짜 쓸 디가 하마썸. 새우리도 농곡. 마농 엇을 때난. 새우리도 질루멍게 흐꼬만 헌디 새우리 흐착 새우리 비여당 확허게 단물에.

107046 @ 예.

107046 # 단물에 씻으멍 그때 먹어야 맛줍니다. 놔두민 막 굿어마씨.

107046 @ 신 것도?

107046 # 우린 신 거는 좋아허지 아녀마씨.

107046 @ 금방 금방.

107046 # 금방 금방 허연 먹엄수게.

107046 @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젓갈

107048 @ 젓갈은

107048 @ 자리젓이나 멜젓이나 이런 거.

107048 # 나가 담을 때는?

107049 @ 예, 삼춘, 무신 젓갈 담아봄디가?

107049 # 자리만 자리만 젓 담읍센 아덜은 허난게.

107049 @ 예.

107049 # 사지 자리 엇언마썸. 자리젓만 담읍센 허난게. 자리 사지 못허연 젓 안담으켜. 젓 담아도 항상 맛신 때가 언마 엇입니다게. 간 맞추지 못허영. 게난게 혼자리 혼 웨민 소금 언마? 그거를 마련헿 놔야마씨.

107049 @ 예.

107049 # 게난 자리 혼 말이른 자리 혼 말이른 소금 웨승 혼 웨 놔야웨여마씨.

하고 싶지 아녀마썸게.
 107049 @ 옛날에는 하영 허여난 거 아니라예?
 107049 # 막 하여.
 107049 @ 그때 어떤 식으로 해나신디.
 107049 # 그땐 방법이 조금 헤여근에 것도 조금 허영 버무려도 안 되는 거마씨.
 머리 문탁 뺏아사. 조금 낡은에 조금 놀 만이 마께로 머리를 뺏아줘야 념살이 안
 나마씨.
 107049 @ 아아.
 107049 # 머리를 독독독독 허게 뺏아근에 간을 맞추왕 머리가 그냥 내불민 소금
 물 안 들영 내음살 나니까 다 뺏아줘야 계난 삭삭 더운디 것도 그거만이.
 107049 @ 유월에예?
 107049 # 자리훤 허젠 허민양 아이고 이녁만 그거 저 무시거로 콘테나로 하나
 사오민 잘도 오랍니다. 우리 저장고 안에서 헤엿수다게.
 107049 @ 으음.
 107049 # 저장고 안에서만.
 107049 @ 요만큼씩 헐 거 콘테나 한 거 장만허썸 허민.
 107049 # 아덜이 이시민 확확허주 마는 나만이라노난 허지도 못허고.
 107050 @ 뭘엇은?
 107050 # 간은 뭘엇은 흐뎡 낫게 놔야마씨. 소금은 그건 영 보멍 눈으로 보멍 저
 버부려야 됩니다.
 107050 # 뭘엇은 어제 상 왓수다.
 107050 @ 아. 김치 헐 거예?
 107050 # 나 머리 험시난 이디 성님 가선게마는 ㄴ찌 산 왓수게.
 107051 @ 여기도 알게미젓 같은 경우도 먹어났수가?
 107051 # 알게미가 뿔이우과?
 107051 @ 아가미.
 107051 # 아가미?
 107051 @ 그거는 아녀봐수다.
 107052 @ 강이는?
 107052 # 강이는 보짱 먹고.
 107052 # 보짱.
 107052 @ 웃드리는 웃드리우다게.
 107052 # 예게, 짱촌.
 107054 @ 뭘 출레렌 헛수가?
 107054 # 출레. 출레 아무것도 출레. 장ㄴ란 장엔 허는디 이 저 무시거 그자 젓
 ㄴ란 출레.
 107054 @ 음.

107054 # 젓ㄱ란 출레. 그 출레도 내놓라. 출레.
 107054 @ 출레도 내놓라.
 107054 # 장ㄱ렌 장엔 허고 다른 건 출레.
 107054 @ 출레도 영도 헛수가?
 107054 # 적갈ㄱ라 출레엔 헤수가.
 107054 @ 그것이 아니고.
 107054 # 그냥 그저 그것이 아니고. 저 젓ㄱ든 젓ㄱ라 출레.
 107054 @ 으.
 107054 #1 옛날도 벨것도 담고 그걸로게 먹으난에 출레덜도 거러오라, 경 경 글
 읍디다.
 107054 @ 음. 그거 허영 채고 먹은 거 아니라예.
 107054 # 손으로 문 찢어근예.
 107054 @ 찢었은예.
 107054 # 양념은 무신 고깃가루나 흐쌀 낭 먹엇주게. 뭐 놀 거 엇수다.
 107054 @ 자리젓 맛좋아예?

장아찌와 회

107055 @ 삼촌, 여기선 장아찌 지들도 하영 담잖아예? 지시는 어떻습니까?
 107055 # 지슬?
 107055 @ 지마놓지 허듯이.
 107055 # 아, 지는 나도 엄청 하영 담아근예양 그 잔치헛 때에 저 무시거 대산이
 잇수게양.
 107055 @ 예, 대산이.
 107055 # 대산일 우리 큰아덜 풀 때 덕수서 처음으로 해서 마씨게. 몸은 막 아프
 고 아프난에 저 메누리가 완 문 막 다듬앗수다. 장에 간에 하영 사단에. 탈탈이도
 처음 덕수 허여놓고. 낭밧도 처음 헤여 놓고. 하영 사단에 처음으로 허영 그 전 낭
 밧도 다섯 사름이 처음헛수다. 동권이 잇수게양.
 107055 @ 예, 예.
 107055 # 김동권이 우리 하르방이영 갑장이난에. 김동권이 아주버님허고 딱시 박
 동석이 허고, 고인문이 허고. 우리허민 넷 허고 저 김동하허고. 경허영 매날 다섯
 사름이 저 부두에 간 거라마씨. 일본에 오는 매날 간 흐 열흘 부두에 가왔수다게.
 갈란에 흐끔 싱근 것이 다섯 사름. 다섯 사름인디 김동권이 허고 우리. 다 죽어불고
 망허연 엇어불연. ***도 서귀포 간 박동석이엔 사름은 우의우다게. 우인디 그 사름
 은 수의산디 그 사름은 그럭저럭허단 죽어불고. 각신 요왕원에 간 잇덴 허고. 김동
 하도 젊은 때 각시 큰큰헌 게 *** 보성 간 탕이명 놉안히 말이나 먹읍니다마는 우
 리 두 사름 웨연. 질 므녀 싱근 사름마씨. 김동권이 우리가 다 풀아불고 엇어불곡.
 107055 @ 음. 경허여근에 대산이지허고

107055 # 대신이지 허난 이제 그걸 다듬아야 될 거 아니우과?

107055 @ 아.

107055 # 탕가리만 헨에 맛있게 저 메뉴리 하여 허영 오고 정월 그 메튼날이난 추워놓고. 막 몸이 젊을 때 아프난에 가이가 오란 다듬안에. 아들도 혼디 다듬고. 다듬안에 흐꿈만 담은 말이우과? 향아리로 답안.

107055 @ 음.

107055 # 이걸 처음으로 남으난양, 우리 큰메누리 막 욱심 썸니다게. 으저단 곱져불언. 답아단 곱져불언. 답아단 곱져불언. 지 적시 엇일 거난. 그거는 어떻게 저시냐 허면 장아찌덜 잔치 게난 그거를 어떻게여 무시거 물허고 허연에 그냥 등갓단에.

107055 @ 예.

107055 # 등갓단에 물 그레 그레 간맞추완에 따시 간 맞찬에 그 물에 식초에 허여진 거 닻아마씨.

107055 @ 게난 이 동네는 옛날에 대신이지덜은 안 헨 먹어났수과?

107055 # 우리 큰아덜이 그때 첫 번으로 허연.

107055 @ 아.

107055 # 아예 아녕. 어찌다 혼 밧디 섯동넨 허는 디 엇수다. 저디 우리 동생 흐꿈 같고. 막내 동생 혼 서른 집의믄 혼 집 허나마나 헛수다게.

107055 @ 우리 동네 반찬이렌 허민 마농지. 옛날부터.

107055 # 장물 꿩와냥. 맛종덴 허멍 오죽 현 말이우과? 경허곡 또 반추.

107055 @ 반추.

107055 # 반추 우영에 거 과불젠 과수원에 간 싱것수다. 반추지 만들앙. 따시 끊어당은에 반추지 만들앙. 우리 스춘 씨아지방은 반추지 줍서.

107055 @ 음.

107055 # 반추지도 계속 먹엇수다게.

107055 @ 반추지는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과?

107055 # 반추지도 그건 썰지 못허는 거마씨. 톱으로 싸사.

107055 @ 아아.

107055 # 이만이 술진 걸로 허여 오민 문딱 벳겨근에 먹을 거. 연현 걸로만 푹푹 푹푹 썰어근에 멧 불 섯어뒤근에 식초물에 막 딱 허게 저 물에 식초 흐꿈 놔근에 등강 그 돌멩이 지들랑은에 메틀 놔뒳당은에 그걸 만들아마씨.

107055 @ 예.

107055 # 장물 농곡 간 맞창 만들아근에 그것이 좋아근에 큰일칩 ㄱ져뎡것수다.

107055 @ 아.

107055 # 잔치헛 때 드러 먹엇수다. 손님상에도 농곡 막 허여났수다.

107055 @ 반추 자체를 못봐마씨?

107055 # 성님, 밧디 강 보라 막 핫저게. 느 뎡이멍 안 환자? 아침 먹을 때 들어

가는데 ㄹ득아시네게. 아녕 와십디다. 것도 실청 못헤마씨. 그게 그게 그걸 허멍.

107057 @ 그치록하고. 웨로 먹는 건 뭘 사당 먹언마씨?

107057 # 웨?

107057 @ 예.

107057 # 웨 허멍 먹는 건 무신 거 주로 자리가 웨고로 잘 행 먹고. 웨 떠당 아
덜덜 어떤 땐 데령강도 먹고 떠온 사시미 땡 왕 이견 히라스우다. 땡 읍니다. 겨고
고등어덜 곧 잡은 거양.

107057 @ 예.

107057 # 베로 간 허난 건 맛 엇입디다. 것 좋지 아녀다 경 허멍 친구덜이영 ㄹ
치 간 헨 와십디다. 주로 그 방어 히라스 고등어 그런 거 먹어봤수다.

107057 @ 여기는 아무래도 웃드르니까.

107057 # 자리웨가 웨고마씨게. 자리웨가 맞셔마씨.

107058 @ 우리 계절에 따라 봄에 헤 먹은 반찬은 어떤 거 행 먹어마씨?

107058 # 웃드르 봄에 무슨 거 허멍 먹을 거 십니까?

107058 @ 고사리반찬.

107058 # 고사리가 잘도 어려웁니다. 견디 이치록 다리 걷지 못헤도 고사린 꺼꺼
야 웨여마씨.

107058 @ 예.

107058 # 전상이난. 메뉴리 계난 고사리도 어찌다 흥번씩 나만이난에. 우리 족은
아덜네 입이 높양양 뿔사 먹영 살암신디양, 고사리 집의 헤도 ㄹ딱 안 먹읍니다. 육
지서 먹으면 체허곡 제주 오랑 먹으면 체 안 험니다. 빈떡 좋아허고 빈떡 하나 송
펜 이 절벤 하나 먹질 안 험니다. 아예 족은집의 아기덜이 족은 집의 아기덜은 먹
는디 두갯인 먹지 아넵니다.

107058 @ 아.

107058 # 밥도 흥뎡 먹고. 먹지 아녀. 먹지 아녕 줄엄사신디 큰아덜은 잘 먹는
편입주.

107058 @ 여름에 주로 반찬은 뭐?

107058 # 여름엔 그자 원 반찬엔 헨 거 뭐 잇수가? 답곡 사례 가고 쥘 냄살 난
거 사 오민 그거 저디 저 가시 안 나는 거 그 저 흥쓸 비싼 웨.

107058 @ 음.

107058 # 그거 멧 개 사다근에 우트레 올려근에 그거 허여근앵에 그거 버물령도
먹어봐 그럭저럭 허주 반찬 사례 생전 안 가봤수다.

107058 @ 다 ㄴ돌로만예.

107058 # 자리 서너 개 경험니다게. 것도 밤 먹어집니다. 자리 놔뵈수다. 서너 개
웬장 찍영 밥 경 먹어지곡 허주. 반찬 사례 안 갑니다. 나 먹젠 사례 영 안 갑니다.

107058 @ 경허니까.

107058 # 웨지고기영 잇어도 먹어지질 아넵니다.

107058 @ 녹물이 쥘 좋은 거라예.
 107058 # 먹어야 돼는디 걸 안 먹영 그냥 잇수다.
 107058 @ 가을에 호박들 날 거고.
 107058 # 호박도 좋아합니다.
 107058 @ 호박은 어떤 식으로 허영 먹어?
 107058 # 이제 사름덜은 우리 제스 때에 멩질 때에 그 늙은호박 썰어근에 전 지 집니다.
 107058 @ 예.
 107058 # 우리 큰메누리가 막 그 호박을 ㄹ져간에 항상 ㄹ져갑니다. 전을 지져근 에 지네 그 무시거 그 무시거 그 사름덜 먹어뵈 이런 것도 허연 잘도 맞신 거옐 허 멩 이치룩도 허는 거예 허멍 곶아렌마씨게.
 107058 @ 으.
 107058 # 어멍 뿐 뵈에 어디 ㄹ져간 생이라. 그 가게에 가게에 ㄹ져가난 친구덜 이거 잘도 맞신 거예 허멍 이치룩도 허는 거예?
 107058 @ 예.
 107058 # 호박도 좋아합니다.
 107058 @ 삼춘은 여기에서 생산허멍 허는구나예?
 107058 # 과수원에 강. 이디사 흐꼬만 허난에.

장 담그기

107059 @ 그 다음에 장 담아신디 장 담는 거 언제 담아야마씨?
 107059 @ 장은 언제 담아야마씨?
 107059 # 간장 만드는 건 그 옛날은 동지선들에 숲양 동짓들에 숲양 선들, 선들 나민 선들 초흐르날로 헤영 답읍니다게.
 107059 @ 예.
 107059 #1 이제는 뭐 아무 때라도 담아야마씨게.
 107059 @ 예.
 107059 # 장물 빼는 것도 아무 때라도. 이제 장 슴게 뵈 때마씨게. 숲아도 이제 숲아근옐에 저 흐 흐 오월들 스월들에 장물 거리고 장 찌고 허는디 이제 숲아도 뵈 곱 또 막장으로 딱시 허여도 봄 나민 먹고.
 107059 @ 음.
 107059 # 겨난 뵈 장허는 건 아무 때라도 이젠 허는 거마씨. 옛날 님지 아녕.
 107060 @ 장 종류는 어떤 거 잇는 거우과?
 107060 # 독새기콩 파란 거 그거 숲아근에.
 107060 @ 으.
 107060 # 거기서가 곶아줍니다. 흐 말이민 저 장물 빼는 건 그 사름넨 몰랑 안 곶는 거고. 이 저 막장 석 뵈 허민 거기서 재료 얼마 놓니까 허민 아무만이 노렌

끓아줍니다.

107060 @ 삼춘 언마?

107060 # 나 석뒤 흔 돼 반 농렌 험니다.

107060 @ 막장험 때 어떤 식으로 담안? 삼춘.

107060 # 츠설목에 으섯 시에 물 불 케연에 삶안에 비니루 씻언 저 몰려 놔뒀단
에 세 번, 세 번 블랏수다. 세 번 블르난에 다 블라전게마는.

107060 @ 으.

107060 @ 물 소리.

107060 # 문딱 낫수다. 그거.

107060 @ 예.

107060 # 재료 사온 것도 놓고 소금도 농곡 그 흠박허게 삶아사마씨.

107060 @ 예.

107060 # 그 물을 잇어야 그 맛르가 맞을 거난.

107060 @ 음.

107060 # 계난에 이거 물 흥끔 족아베다 허여신디 딱 맞읍디다게. 그 물 다 놓고
다 썸에 저래 담안에 더낀 놔뒀수다.

107060 @ 그 맛르.

107060 # 맛르 콩 톱운 거 큰 거 허고 무시 거 톱운 것덜 사당은에. 익으민 먹어
야 될 거.

107060 @ 옛날은 막장도 담아반마씨?

107060 # 옛날은 그런 재료 푸는 것도 안 나오고.

107060 @ 예.

107060 # 장물 빼는 거. 장물 빼는 거는 이제 삶앗당은에 이제 미깡 타뒀 삶앗단
에 저 장 밧고롱이 익으민 곱닥허민 익으민 썸근에 먹엇수게. 경허영 먹으민 장엔
허영 먹엇수다게.

107060 @ 예.

107060 # 이젠 뒀 경도 헤영 먹고 하영 푸난에.

107061 @ 게문 고추장?

107061 # 아, 고추장?

107061 @ 음.

107061 # 고추장도 담는 게 으라 가집니다. 담으레 텅기는 사름은 그럭저럭 맛
이 놈의 집의 간에 보난에 담는 디간 앓아보난. 찹쌀맛르 나 담는 거 찹쌀맛르 얹
게 막 죽 썸근에 죽 썸근에 팔팔팔팔 끓리게 그거 썸근에 그거 다라레 그레 고춧가
루 놓고 무시거 설탕도 농곡 그디 물엿이영 다 넣은에 간 맞침수게. 솔로.

107061 @ 솔로?

107061 # 물이 영 안 들어가난 냉장도 냉장고에 놓지아녀난게 줍니다게. 그거 저
거 놓젠 허민 배겏디 놔볼어도 뒀곡. 물도 흥끔도 안 들어감니 벤허지 그치룩 허영

담으민 맛도 싯곡.
 107061 @ 예.
 107061 # 곱곡 험니다게. 경허영 솔로 담으민 술 념살이 안 납니다.
 107061 @ 아아.
 107061 # 금방 떡곡.
 107062 @ 음, 케난 다 지혜들이예. 메주는 언제 어떻 쑤는 거마씨?
 107062 # 메주?
 107062 @ 메주 쏴 때 콩으로.
 107062 # 콩 솥양. 이제, 이제.
 107062 @ 아무 날이나?
 107062 # 제일 좋은 날이 믱날허고 득날.
 107062 @ 믱날허고 득날예.
 107062 # 믱날허고 득날이 쟈 좋아마씨.
 107062 @ 한번 솥아봅서.
 107062 # 믱날 솥아수다게.
 107062 @ 요번에도 나 아는 디도 그냥 솥앗수덴 험니다.
 107062 # 제게 솥양 제게 확 솥아전게 마씨.
 107062 @ 메주 솥양 블망 만들양 장 담는 절차를.
 107062 # 아니 그 장물 빼는 거.
 107062 @ 그거를 혼번 해봅서.
 107062 # 장물 빼는 건 물 맞춰 솥아근엥에 물 빠주와사 물 빠주와근에 것도 문
 저 문 뵈으나.
 107062 @ 으.
 107062 # 경 아녀민 블르나 허여근에 메주 멘드는 겁주.
 107062 @ 예.
 107062 # 메주 만들아근에 어디 저, 어디 헛간에 이런 디 놓민 념살 나곡게.
 107062 @ 예.
 107062 # 영허영 혼 줄 검질 길양은에 혼 줄 쪽 허게 뇌냥 우터레 검질 놓고 뒤
 줄 서너 줄 것이 것이 가무롱히 톱니다게.
 107062 @ 예.
 107062 # 가무롱이 트민 내쳐마씨. 이제 물르멍 텃부게. 쟈디 여기는 그것이 복
 잡허니까,
 107062 @으.
 107062 # 복잡허니까 젊은 사름덜 요 띄우는 사름 하나도 없수다.
 107062 @ 으.
 107062 # 이제 어디 돌아맨디 봐집디가? 돌아매질 안 허여. 우리 탈탈이 큰 창고
 에 탈탈이 시난 그 우의 검질 길양 뇌두난 트고 좋습디가 문 을양 내부난 바람 들

르난 싯언에 작년에 물 저 물 빼연 먹었수다게. 장물 빼연에 주곡 아기덜도 주고. 큰메누리 ㄹ라 느 다 먹언다?

107062 @ 무신 날 담아마씨?

107062 # 담는 것도 득날이나 ㄹ날.

107062 @ 득날이나 ㄹ날.

107062 # 혼 들 잇당.

107062 @ 장물 빼는 거?

107062 # 초기 동글동글 그 물 허영은에 그거 빼여먹어똥은에 저 잘 맛있게 먹젠 허민 콩 혼 똥 곶아당 그레 서경 찌나 경 아녀민 난 서경만 찢수다게.

107062 @ 예.

107062 # 서경 경 먹읍네다. 이제 사름덜 장물 허고 아념디다.

107062 @ 그치록 띄와야 장이 맛잇텐.

107062 # 이제 장은 막장 아니우과? 띄운 거 들어가민 그거 익어야 먹을 거 저 것도.

107063 @ 장 담으멍 금기 사항. 장 담글 때 어느 날은 장 담는 거 아니여. 이런 말들 하지예?

107063 # 이디 저 우리영 혼디 뎡이는 그 성님이 아시날은 온 거 아니우과?

107063 @ 예.

107063 # ‘야, 느네 농협 달력 잇지이.’ ‘넬 담을 거마썸.’ ‘넬 무신 날이고 허난 넬 ㄹ날이날 혼디덜 담앗수게. 들으레 흐뎡만 담읍니다게. 임제만 먹영 아기덜도 안 쥬.

107063 @ 아.

107063 # 아기덜도 해주만 이만이 현 거 담양 이녁만 먹영 이녁만 먹영 안 줍니다.

107063 @ 무슨 말은 장 안 담는 거. 메주 쭈거나.

107063 # 계난 양 무신 거 베염날이 쥬 곶넨 험니다.

107063 @ 베염날 쥬 곶고.

107063 # 베염날은 쓰는 날이 엇입니다. 막 나빠마씨. 원송이날도 안 좋곡 베염 날은 안 줍니다.

107063 @ 그 쥬날도 안 현텐 허멍.

107063 # 쥬날은 무사 아녀게. 숨는 건 허주마는 경해도 날이 좋은 날망 봉강허 주 아념니다.

107063 @ 니치름 흘려부난 안 현텐 경 곶디다.

107063 # 것도 맞수다. 그런 날 안 험니다. 쥬 좋은 날은 이틀. 달력 하나에 이틀 썸 잇수게.

107063 @ 음.

107063 # 이틀썸 이틀썸 잇곡. 득날도 이틀썸 잇고 ㄹ날도 이틀썸 잇고. 이날 안

담으민 ㅎ쉴 메틀 셔사 뉘켜. 그날 숲아불엇수게.

107063 @ 므날허고 득날 잇는데 므날이 쉐 좋은 거구나예?

107063 # ㅎ 메틀 셔야 득날이 돌아오니까 빨리 숲아불젠. 경허영 빨리 숲아부겨.

107063 @ 득날은 베렝이 잡아 먹으난?

107063 # 득날이 쉐고 좋은 거. 에이그 이제는 이제는 므날도 좋은 디 옛날은 베렝이가 너미 이니까 그 저 베렝이가 그 득이 베렝이 잘 먹지 아넘니까. 득이 좇아 먹어분덴 그 식으로 득날 담는 거렌 마씨. 득날 허영은예.

107063 @ 음.

107063 # 득날 담곡 득날 슬고 허여신디 것도 아닐 거우다. 우리가 밧거리에 살 아낫주마는 사는디 요웬 집의 장 논 디가.

떡류

107064 @ 삼춘 여기서 해난 옛날 떡 종류부터 곱아줍서. 어떤 종류가 잇엇인지?

107064 #1 옛날 해난 떡마씨?

107064 @ 예.

107064 #1 옛날 해난 떡은 쉐 즈 떡이 옛날 헛인다.

107064 @ 예.

107064 #1 옛날 해난 거 질 처음엔예 그런 떡도 허지 못 헛수다. 거 너무 살질 못 헤 농난에 보리썰.

107064 @ 으.

107064 #1 보리썰 곱아근예 목 허영 목 그거 궤여근예 그거 그거마썸.

107064 @ 으.

107064 #1 목 궤여근예 그거 허여근예 놓민 무시거 적갈도 요만썸 해근예 놓민 그걸 ㅎ 사람이 ㅎ나썸 왔다 갔다 허멍 허민 적고지에덜 다 끼왕 갑디다게.

107064 @ 아, 적고지에.

107064 #1 적고지에 그걸, 음식이엔 적고지에 다 끼왕 갑디다게. 경헨예 쉐 처음예 그거라마씨.

107064 @ 음, 보리목적예?

107064 #1 예, 보리목, 보리목 허여근예 허고 나중예라간에 그 즈떡, 즈떡 나근예 경 저 우리는 종손칩이난 저 들방예 강 경 허단에 막 피곤행양 거 허젠 허민 그거 해당 손으로 다 만들젠 허난양 잘도 피곤행 난 부엌에서만 살앗수다. 부엌에서 시리떡도 다 썸야 텔 거 아니과.

107064 @ 예, 예.

107064 #1 즈떡은 그 저 장에서도 그뻐 뉘 풀지도 안 헛주만은 장에서 푸는 건 뉘 이디 왕 대지 못 헛니다.

107064 @ 음.

107064 #1 이디서 만들앙 만들앙 그 침떡, 아무 침떡이라도 만들앙 그 우터레 다
 채겨 놔야 웨는 거마씨.

107064 @ 겐 존떡 이름은 뭐마씨?

107064 #1 존떡 이름은 질 처음엔 저 솔벤허고 얇게 또시 저.

107064 @ 중께.

107064 #1 중께 저 무시거 저 솔벤, 그 다음은 또.

107064 @ 절벤.

107064 #1 절벤 거 네 가지.

107064 @ 네 가지예. 겐 그 위에, 절벤 우에.

107064 #1 절벤 우에 그 저 무시거.

107064 @ 우짖.

107064 #1 우짖.

107065 @ 그 침떡예, 침떡은 보통 뭘로 멘들아마씨?

107065 #1 침떡?

107065 @ 으.

107065 #1 침떡도 곤썰로.

107065 @ 곤썰로.

107065 #1 예, 곤썰로 그때는 어려운 때난양, 좁썰.

107065 @ 예.

107065 #1 좁썰 허여근에 저 고달입진떡이엔 허영.

107065 @ 고달입진떡.

107065 #1 고달입진떡이엔 헨 곤썰만 흐뎡 낡 좁썰 놔근에.

107065 @ 으.

107065 #1 흐린 좁썰 헨 놔근에 곤썰 우터레 흐썰, 흐뎡만 이 뒤체기 이 뒤테기
 놔근에 경헤여근에 그추룩 헨 썻수다게. 그걸 곤떡으로 쓴 거라마씨.

107065 @ 그걸 곤떡으로예?

107065 #1 예, 곤떡으로.

107065 @ 고달입진떡?

107065 #1 예, 고달입진떡 헤근에 곤떡으로 썻수다.

107065 @ 게문 그 시루떡 아니예, 친떡.

107065 #1 예, 시리떡.

107065 @ 거 멘들젠 허민 어떤 식으로 멘들아? 차례로 썻 물 크는 거부터.

107065 #1 물 크는 거부터 물 돛가근에.

107065 @ 으.

107065 #1 물 돛강 물 빠지와근에 방에 가근에 문 그디 영 영 방에돌 맏돌에서
 문 굴아당.

107065 @ 예.

107065 #1 곶아근에 초불혜영 처근에 또시 무계기 또시 놉근에 또시 치고 또시 치고 허영 막 허여근에 그 저 집이 오라근에 좁쌀은 좁쌀더레 조크루 좁쌀 ㄱ루 놓고 시리, 시리 좁쌀 ㄱ루 놓고 그 그건 무 놉니다. 곶망.

107065 @ 아.

107065 #1 곶망에.

107065 @ 맨 밑에 곶망에예?

107065 #1 예, 곶망에 무우 훑은 거 썰어근에 툯툯 놉근에 그레 저 무시거 영 그 결 웨약세기로 허영 놉근에 또 곶달 입지는 건 요만이, 요만이 거 우터레 낡 경 행 그 곶달입진떡 혜근에 곤떡으로 썬수다.

107065 @ 게민 그 곶달입지민 멧 층을 놓는 것과? 그 사이 사이엔 뭐 놉?

107065 #1 사이사이엔 거 두 가지만.

107065 @ 음.

107065 #1 좁쌀 한 가지 놉나근에 따시 또 또 거 무시거 또 곤쌀 흔 이만이 놉 나근에 또 좁쌀 그 우터레 놉나근에 경허민 툯툯 일어납니다, 거.

107065 @ 아.

107065 #1 또 경혜영 그추룩 혜영 계속 저 시리 ㄱ득게 험니다.

107065 @ 게기엔 풋을 놓거나 경은 안 혜마씨?

107065 #1 아, 건 안 낫수다, 옛날에.

107065 @ 아, 풋은 안 놓고예.

107065 #1 아이 그거 놓민 그거 놓민 안 좋니까.

107065 @ 아, 식게떡이니까.

107065 #1 예. 풋은 안 낫수다.

107065 @ 거기에 대썸 ㄱ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썬 ㄱ루로만?

107065 #1 예, 썬 ㄱ루로만.

107065 @ 아. 경헨 이제 곶달입진떡 허고. 겐 그렇게 혜근에 이제 치면, 그 바깥 디도 다 험 거 아니라예?

107065 #1 영 뒤집을 거 아니과?

107065 @ 예.

107065 #1 그릇 놉근에 영 뒤집으면 차례 차례 썰영 영 식이민 다 떡이 웨여마 씨.

107065 @ 음.

107065 #1 떡이 웨여.

107066 @ 그런 식으로 허영. 그 다음에 여기는 송편도 만들안마씨.

107066 #1 송편도 거 이제사 만들암주.

107066 @ 아, 이제야예.

107066 #1 이제사.

107066 @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107066 #1 송편은 그 저 접는 거 양꼬난 손으로, 손으로.
107066 @ 손으로 만드는 거.
107066 #1 예, 손으로. 손으로 만들양 그 멩질엔 떡을 안 헤 줍니다게.
107066 @ 예.
107066 #1 준떡을 안 헤 줘.
107066 @ 음.
107066 #1 안 헤 주난에 우리도 저 곶아다근에 이디서 준떡, 준떡 그 저 절벤 솔벤 허다근에 손이 모자라근에 아이덜도 헐 충 몰르고 허난 그 멩질엔 송편 헤뵈주 사게.
107066 @ 음.
107066 #1 송편이나 허고 침떡이나 허고.
107066 @ 음. 게민 송편은 동글랑허게 험니까, 아니면은 조개식으로 험니까?
107066 #1 그냥 조개.
107066 @ 아, 여기는 옛날부터 조개 송편?
107066 #1 예, 조개, 조개로 험니다.
107067 @ 아. 그 다음에 빙떡은 어떻 험니까?
107067 #1 빙떡은 그거 저 물에 놔근에 물에 놔근에 후라이판.
107067 @ 으.
107067 #1 물에 놔근에 영 영 허여 보민 어느만이 쉼 거 이만 허민 쉼갓다 허영 그걸 저 무시걸로 사꾸로 그 사꾸로 거려 놔근에 허민 빙떡 쉼니다게.
107067 @ 음.
107067 #1 그거 저 무시거 그 늠뵈, 늠뵈 쉼어가지고 그것에 저 문 그자 파룻파룻허게시리 무시거 마농 쉼어 놓고 쉼 놓고 경헤영 거 물 빠지민 그거 놓멍 빙떡 몰암수게.
107067 @ 음.
107067 #1 경허멍 빙떡 허민 빙떡이 맛 줍니다.
107067 @ 예. 게민 그 빙떡으로도 제사 헐 때 헤마씨?
107067 #1 하이고 그거는 그거는 웨에 험수게.
107067 @ 아.
107067 #1 그거는 빙떡으로 헤여근에 올려근에 제서나 뵈 안 험니다. 그거는 기자 임시 먹저, 먹저 허민 그레 올려 놓는 거뿐이주.
107067 @ 게민 상에 따로 진설허거나 영은 안 헤마씨?
107067 #1 진설은 거 안 험니다.
107067 @ 그냥.
107067 #1 예, 딱로 그자 그 무시것에 놔근에 정반에 놔근에 올려 놓니다. 겐디 그걸 안 험니다게.
107068 @ 그 다음에 여기 상웨떡 그런 것도 헤낫수과?

107068 #1 상웨떡?

107068 @ 으.

107068 #1 상웨떡은?

107068 @ 기주떡.

107068 #1 기주떡. 아이고 기주떡이야 밀가루 흰 포씩 몰았수다. 제서에, 멩질에. 밀가루 흰 포씩 몰앙 이 동네 문 테우고.

107068 @ 음.

107068 #1 기주떡 헤여근에 문 동네에 문딱 테우고 헤낫수께. 게난 이제 떡 잘 먹지도 안 허고. 또 으져가는 것도 좋아라 안 허고 또 으져가는 것도 피곤허난 어드레 으져가지 안 허여. 켜당덜이나 영 갈라 먹영.

107068 @ 켜 기주떡 흰 말씩 몰 때 어떤 식으로?

107068 #1 흰 말? 아니 흰 포.

107068 @ 으, 흰 포 몰 때?

107068 #1 흰 포 떡 몰앙. 큰 다라에 비와 낭.

107068 @ 예.

107068 #1 그거.

107068 @ 만들아 봅서 어떻게?

107068 #1 그걸 만들아 보라고?

107068 @ 으. 말로.

107068 #1 말로. 그거 비와근에 그때는 저 무시걸로 헛수다게. 그 저 막걸리로.

107068 @ 예.

107068 #1 막걸리로 헛인디 막걸리로 그걸 만들앙 허민 막 잘 피여마썸.

107068 @ 으.

107068 #1 게민 그건 동글락허게 안 행.

107068 @ 예.

107068 #1 그건 올리젠 허민 영 헤영 영 니귀 방장 허게.

107068 @ 예.

107068 #1 영 니귀 방장허게 헤근에 준떡 올리게.

107068 @ 아.

107068 #1 경허영 준떡 올리게 허고 또시 반 정도 또시 써지민 또시 동글락허게 만들앙 불고양.

107068 @ 예.

107068 #1 동글락허게 만들앙, 그거 먹을 거. 경허명 헤여근에 동네 다 으져가고 헛수다.

107068 @ 게민 그 준떡 만들젠 이렇게 길게 니귀방장허게 만드는 거는 무슨 떡 이렌 헤마썸?

107068 #1 그건 저 침떡으로. 침떡 대신 쓰는 거.

107068 @ 겐 그 일름은 뭐렌 헤?

107068 #1 일름은 거 무시거게 밀가루로, 밀가루로 침떡 만들엇텐 허는 거.

107068 @ 밀가루로 침떡예? 기증펜이렌 험니까, 것ㄴ라?

107068 #1 예, 기증펜, 기증펜이 맞추게.

107068 @ 아, 기증펜으로예. 그 다음에 제사헐 때 떡 종류?

107069 #1 제사헐 때 떡 종류?

107069 @ 어.

107069 #1 제사헐 때 떡 종류는 뭐, 우린 산은 안 헤봤수다. 집에서 만들엇만.

107069 @ 예, 집에서 만들엇.

107069 #1 저 무시거 옛날은게 그 저 무시거 믰물 많이 헐 때엔 믰물 가루 헤여 근에 저 무시거 동글락허게 평, 무시걸로 떠근에게 그걸로 헤여근에 그거 쉬 낱 줍 앙, 쉬 낱 줍앙도 허고.

107069 @ 게민 그 떡은 무슨 거, 쉬 낱 줍은 거?

107069 #1 그 떡은 새미떡.

107069 @ 아, 새미떡.

107069 #1 예, 새미떡 거 맛 십니다. 저 믰물ㄴ루로 허난. 새미떡 허단에 나중예 라 가난 것도 원체 좋아 보지 안 헤근에 또 저 흰ㄴ루 뿔아단에 새미떡 허단에 것 도 안 좋난 이제 송펜마씨.

107069 @ 음.

107069 #1 경 헤 왓수다. 송펜 이제 손으로 다 만들엇 자기대로 만들아근에.

107069 @ 음.

107069 #1 경헤영 헤 왓수게.

107069 @ 이제 식게 때도 아까 헤 왓던 솔벤, 절벤 중케 약케는 계속 허고예?

107069 #1 건 아무 제사라도 안 허는 거.

107069 @ 아.

107069 #1 아무 제사라도 안 험니다 건.

107069 @ 어느 제사에 허는 것과?

107069 #1 제사가 좀 생각허여근에 좀 이거는 안 뉘겐다 허여근에 준떡 헤야 뉘 겐다 허는 제사에 험수게.

107069 @ 게민 그 준떡 허는 게 중케, 약케, 솔벤, 절벤을 준떡이엔 허는 거라 예?

107069 #1 예, 예.

107069 @ 새미떡을 준떡이엔은 안 험니까?

107069 #1 새미떡은 준떡이엔 안 험니다.

107069 @ 아. 준떡 속에는 아까 네 가지?

107069 #1 예, 거 네 가지. 거 네 가지. 건 틀린 거마씨.

107069 @ 예, 예. 그 다음에 게민 떡은 보통 멧 종류 올려마씨?

107069 #1 떡은 준떡만 다 허여되근에 다 케여되근에 그 무시거게. 문 튀김.
107069 @ 으.
107069 #1 튀김 헤가민 막 어지러웁니다. 튀김도 서너 가지.
107069 @ 음.
107069 #1 서너 가지 허민게 그거 허곡 허민 상이 문 ㄱ득아마씨.
107069 @ 음.
107069 #1 게난 튀김도 멧 가지과 으라 가지 들어감주.
107070 @ 예전에 그 상예, 상 난 때 그 성복에 올리는 떡덜은 어떤 거라마씨?
107070 #1 성복떡은 막 급허게 허젠 허민 이제 금방 상을 낫이면은 절 혈 거 아
니과?
107070 @ 예, 예.
107070 #1 절허민 하영은 안 험니다게. 침떡.
107070 @ 침떡.
107070 #1 침떡허고 준떡. 언젠난 준떡은 들어가야마씨. 상 난 뎨.
107070 @ 상 난 때는?
107070 #1 예, 상 난 때는 두 뉘치 헤여 오라. 뉘 석 뉘치 허여오라 헤도 요즘은
입덜이 종양 안 먹웁니다게.
107070 @ 음.
107070 #1 흐뎡 저 그 장사뵈디렌 헨 잘 먹젠 안 험니다. 올려난 것도 다 버리
고.
107070 @ 예.
107070 #1 올려난 것도 다 버리고 아니 올려난 거나 먹고.
107070 @ 예.
107070 #1 경허영 상 난 때는 그자 그 저 성복제 허젠 허민 두어뉘 허여단 성복
제 헤나민 또 또 뉘날은 또시 흐 멧 뉘 헤다근에 또시 뉘이건 또 허고 성복젠 하영
안 험니다. 성복젠 하영 허지 안 허여.
107070 @ 예.
107070 #1 경헨 그 준떡으로만 계속 들어갑니다. 그 저 무시거.
107070 @ 상 난 뎨예.
107070 #1 상 난 뎨 준떡으로만 들어가.
107071 @ 그 다음에 여기 하얀 제펜. 침떡?
107071 #1 침떡?
107071 @ 예. 그거 만들 때는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험수과, 옛날에는 아까 좁쌀
놓고 곤쌀 뵈 허고, 요즘은?
107071 #1 요즘은 그냥 하얗게.
107071 @ 하얗게만?
107071 #1 그냥 하얗게.

107071 @ 그 뭘 안 놓고?

107071 #1 뭐?

107071 @ 쉬 같은 거 안 놓고?

107071 #1 쉬 같은 거는 이 시제 떡은 아무것도 안 놉니다.

107071 @ 아.

107071 #1 시제 떡은 아무 것도 안 놓고.

107071 @ 음.

107071 #1 이 공장에 강 맛있게 해 줘서 허민 그거 저거 낱 험니다.

107071 @ 으.

107071 #1 그거 저거, 콩도 낱 허고 그거 저거 낱 허여마씨.

107071 @ 겐 상에 놓는 거는 풋 들어가는 건 안 올립니까?

107071 #1 겨난 옛날식이주 풋도 들어가마씨. 풋쉬.

107071 @ 풋쉬.

107071 #1 풋쉬 놔근에 헤마썸.

107072 @ 예. 그 다음에 여기 인절미도 헤? 이 동네?

107072 #1 인절미 우린 안 헤 봤수다. 인절민 안 헤 받.

107072 @ 예.

107072 #1 인절미 허는 집이도 잇영 저 미깡 타레 가난에 인절민 제사떡마썸 험 내 놓난 막 속으론 하이고 이거 인절미 제사 험구나.

107072 @ 으.

107072 #1 우리 먹으멍 곶앗수다.

107072 @ 게난 저쪽 서쪽더레는 인절미 허민 아까 중궤, 약궤처럼 네모나게 험 허거든예.

107072 #1 예, 알아져마썸.

107072 @ 예, 거기는 그 인절미렌 허는데, 여기는 그냥 약궤로.

107072 #1 예, 예. 그런 존떡 귀 맞췌근에 귀 맞췌 네 가지 허주 그런 거 험은 안 올려봤수다. 우린 그런 건 안 헤 받.

107073 @ 예. 그 다음에 절벤은 어떻 멘들앗수과?

107073 #1 절벤?

107073 @ 으.

107073 #1 이렇게 비병 두 개 비병, 하나 비병 꼭 허게 누뜨렁 내불어덩 또시 하나 비병 꼭 허게 내불어덩 허민.

107073 @ 으.

107073 #1 걸 두 개 부췌, 두 개 부췌근에 영영 손 놔근에 그거 누뜨는 거, 누뜨는 거 잇지 안 허여. 누뜨는 거 꼭 허게 누뜨민 흐꿈만 처음엔 흐꿈만 누뜨렀단.

107073 @ 음.

107073 #1 또 뒤집영 꼭 허게 누뜨민 경 됩니다.

107073 @ 아, 양쪽으로 누르느 거예?

107073 #1 으. 처음에 흐뎡만 누뜨릿당 두 번차엔 꼭 허게 누뜨민 올라옵니다.

107073 @ 아. 게민 그거는 그 오메기 헝 숲아근에 만드느 것과, 아니면 어떤 식으로 만들야?

107073 #1 집이서 헝 땀 오메기, 오메기로 숲양.

107073 @ 아, 오메기로 숲양.

107073 #1 오메기, 오메기로 숲으민 오래난애.

107073 @ 예.

107073 #1 그 나풀나풀 허게 헝에 저 물에서 그 숲아마씨.

107073 @ 예.

107073 #1 물에서 숲아근에 그걸 저 문딱 숲진 안 허고.

107073 @ 으.

107073 #1 헝 반 정도 숲아근에 그걸 헝디 ㄱ루에 헝디 쩡.

107073 @ 으.

107073 #1 ㄱ루 찌단 것에, 찌단 것에 헝디 찌근에 떡을 멘들양 기름 불량 또시 쩡수게.

107073 @ 아, 기름 불른 다음에 찌마씨?

107073 #1 예, 무사 기름 불량신고 허민 부뜨카부덴.

107073 @ 아.

107073 #1 부뜨카부덴 기름 불량 또시 즈근즈근 낱 쩡수게.

107073 @ 그 바드랭이에 낱?

107073 #1 예, 바드랭이에 낱 찌는 거.

107073 @ 아, 찌는 거예?

107073 #1 으, 찌는 거마씨.

107073 @ 겐 반 익혀 낱 만들양 다시 익히는 거?

107073 #1 예, 예. 반 익히지 말양 그자 그자 확허게 췌는 물에 삭삭 췌는 물에 낱 흐썰 영 것영 동글동글 트면은 같이. 경허민 거 벌러지지 안 허고 떡이.

107073 @ 예.

107073 #1 고우렌 경 헝니다. 고우렌.

107074 @ 아, 고우렌. 겐 그렇게 허고 솔벤은마씨?

107074 #1 솔벤?

107074 @ 으.

107074 #1 솔벤도 그 식.

107074 @ 음.

107074 #1 솔벤도 그 안반에서 밀어가지고.

107074 @ 예.

107074 #1 밀영 터근에 것도 기름 불량근에 조근조근 놔근에 것도 쥐는 거마씨.

107074 @ 아, 계문 솔벤도 절벤헐 때처럼 그처럼 반 오메기 헤근에 헵니까, 아니면 거는 ㄱ루로만 허여? 반죽?

107074 #1 그냥 반죽은 마찬가지로.

107074 @ 마찬가지로?

107074 #1 똑 마찬가지로.

107074 @ 흐뎡 영 솟아낸 다음.

107074 #1 예, 예.

107074 @ 겐 다 절벤도 안반에서 허는 디 솔벤은 밀어야 뜯 거니까?

107074 #1 예, 다 밀어야, 다 밀어야 될 거. 니 가지 다 밀어야 되는 거마썸.

107075 @ 겐 삼춘 우찍은 어떻 만들멘?

107075 #1 우찍은?

107075 @ 으.

107075 #1 우찍은 그 저 계란에 헤근에 계란 풀어근에 계란 풀어근에 손구락으로 영 니 고망 나게. 니 고망 나게 그거 우리 메뉴리 그거 막 잘 헵니다.

107075 @ 예.

107075 #1 나 허단에 그거 가이, 가이신더레 허렌 허민 가이 막 잘 헤마썸. 겐 우찍 경 만들엄수게.

107075 @ 겐 우찍 만들고. 혹시 여기는 지름떡은 안 멘들어놔수과?

107075 #1 무사 아니마썸게.

107075 @ 지름떡은 언제 멘드는 거?

107075 #1 지름떡은 뭐 제서에 피곤허지 안 허민 그 찹쌀로 만드는 거.

107075 @ 예.

107075 #1 찹쌀 곶아당 찌근에게. 찌근에 지름떡 헐만씩 허여근에 그 저 누뜨는 걸로 꼭 꼭 누뜨멍 지름 놔근에 저 그 후라이팬에 지름 놔근에 거 누뜨렁 거 지름떡.

107075 @ 음.

107075 #1 그거 헤나민 막 곱읍니다게, 지름도 그레 비우젠 허민 막 곱어.

107075 @ 계민 그 지름떡은 어디에 올리는 거우과.

107075 #1 그건 먹젠 허는 거마썸.

107075 @ 아, 상 우에 안 올리는 거?

107075 #1 예, 상에 올리젠 허는 건 아니마썸.

107075 @ 아.

107075 #1 거난 특히 그건 그런 건 그자 이녁 떡곡 쥼시에 거 올리는 거마썸.

107075 @ 거는 떡 우에 올리는 게 아니라 별도로 올리는 거예?

107075 #1 건 떡 우에 올리는 거 아니.

107075 @ 예, 예.

107075 #1 건 먹젠 허는 거.

107075 @ 그 다음에 예전에는 고사철 때라든가예, 이럴 때도 떡을 허지 안 헵니까?

107075 #1 예, 예.

107075 @ 어떤 떡 헵니까, 그때는?

107075 #1 고사철 때도 큰떡.

107075 @ 음.

107075 #1 큰떡이엔 허민 준떡입주게.

107075 @ 아, 큰떡이엔 허민 준떡 들어간 거예?

107075 #1 예, 큰떡이엔 허민 준떡.

107075 @ 그 친떡에다가 올리는 거?

107075 #1 예.

107076 @ 경허면 그 다음에 그 당에 가정 다니는 떡은?

107076 #1 예?

107076 @ 당에 갈 때?

107076 #1 예?

107076 @ 당에, 당에.

107076 #1 당에 갈 때?

107076 @ 으.

107076 #1 당에 갈 때엔 저 무시거. 대죽.

107076 @ 예.

107076 #1 옛날에 대죽떡 올린덴 헵니다. 당에 갈 때.

107076 @ 예.

107076 #1 계난 대죽떡 올린덴 헵니다. 당에 갈 때.

107076 @ 여기 도체비당 잇이난예?

107076 #1 예, 그 당에 갈 때, 그 대죽떡 저 무시거 막 썸근에 동글락 동글락허게, 동글락 동글락 멘들양 동글락 동글락허게 숲양. 물에 낱 숲양.

107076 @ 예.

107076 #1 그건 물에 무사 물에 놓면은 그것이 풀이 너미 좋아놓난 부평양.

107076 @ 예.

107076 #1 대썸 잇지 안 헵니까, 대가지.

107076 @ 으, 으.

107076 #1 댓가지 체여다근에 체여다근에 그딧 거 킬킬 털어뒤근에 물 팔팔 끌러민 그 댓가지에 놔근에 댓가지 우터레 그 물 많이 놓니까.

107076 @ 예.

107076 #1 댓가지 우터레 그걸로 영 영 댓가지 등글여 가민 부뜨지도 안 허고 해영 나중에 건주민 익으민 건지는 거마씨.

107076 @ 아, 대죽썰로예?

107076 #1 대죽살로.

107076 @ 계민 그건 무슨 떡이런 헤?

107076 #1 그건 대죽떡.

107076 @ 대죽떡?

107076 #1 예, 대죽떡. 거 저 어디 당에 가젠 허난 대죽떡 헛덴. 그추룩 경.

107076 @ 대죽떡 헛덴.

107076 #1 예.

107076 @ 겐 동글랑허게 이런 식으로 동글랑허게 만드는 거?

107076 #1 예. 동글락, 동글락허게 요만이 동글락허게 행.

107076 @ 아, 계민 영 넵작허게 헛니까?

107076 #1 예.

107076 @ 넵작허게.

107076 #1 넵작허게 행 동글락허게.

107076 @ 거기에 뭐 다른 거 풋을 놓거나는 안 허고.

107076 #1 아무 것도 풋도 안 놓고.

107076 @ 아.

107076 #1 계난 이제 그 대죽이 어디 잇수과게. 기냥 그 곤떡, 곤쌀 곶아다근에 그냥 당에 가는 사름 그냥 헛실 거우다.

107076 @ 음.

107076 #1 그냥 동글락허게 헤근에 그냥 슣앙 물에 낵 슣앙.

107076 @ 그거, 그거 혹시 다대렌도 헛니까?

107076 #1 다대, 다대.

107076 @ 다대. 대죽떡도 다대렌 곶아?

107076 #1 예, 다대.

107076 @ 예, 다대렌 허고예?

107076 #1 예.

107076 @ 그 다음에 그 계민 영장 때 그 돌레떡허고 다대허고는 어뎡 트난 거? 영장 밧디 갈 때?

107076 #1 영장 밧디 가는 돌레떡은 옛날에, 그 옛날에?

107076 @ 예, 예.

107076 #1 그건 질수용, 질수용 너미 저 거리가 머니까양.

107076 @ 예.

107076 #1 이녁 가족 공동묘지도 엇고 어디 저 당오름인가 어디 가젠 허민 그 그 그것도 돌레떡도 막 두덱게 헛니다.

107076 @ 예, 예.

107076 #1 막 두덱게 허여근에 질수용 건.

107076 @ 건 질수용.

107076 #1 가다근에 쉬여근에 거 테웁니다. 쉬영 테와근에 먹는 건 그건.
107076 @ 아.
107076 #1 술, 술이영 그 떡이영.
107076 @ 음.
107076 #1 두 개씩을 테우나 경혜근에 그건 테왕 먹는 거마썸. 그건.
107076 @ 장 밧디 강 거 주진 았고?
107076 #1 장 밧디 강은 안 줍니다.
107076 @ 아, 질 가당 질수용으로.
107076 #1 질 가당 질수용으로 예, 힘드니까.
107076 @ 이쪽에 뭐 등절비도 헛덴 헨게만은?
107076 #1 등절미가 그집주게.
107076 @ 아.
107076 #1 등절미가 그거.
107076 @ 등절미는 떡 모양이 트나지 안 험니까?
107076 #1 등절미도 거 동글락 현 거우다게. 등절미도 동글락현 거.
107076 @ 동글락 현 거예. 돌레떡허고.
107076 #1 예.
107076 @ 이건 질수용으로 허고.
107076 #1 예.
107076 @ 여기 다 피력 끝나면 장 밧디 가갓고 그때도 떡 주지 안 헤마씨?
107076 #1 피력 끝나민?
107076 @ 예, 피력으로?
107076 #1 피력으로?
107076 @ 으.
107076 #1 피력으로 떡 옛날은 허단에.
107076 @ 예.
107076 #1 이젠 저 피력 안 험니다. 이젠 그런 거 아녀근에.
107076 @ 음.
107076 #1 이 저 자기네 허지 기룬 거 무신 뭐 후라이판 허여 가단에 후라이판도 허고 냄비도 허여 가단 이젠 또 저 커피 같은 거, 잘 먹는 거.
107076 @ 예.
107076 #1 커피 같은 거 험니다.
107076 @ 계난 옛날은 장지 다 끝나고 허면 피력 다 주지 안 헤낫수과?
107076 #1 예, 예. 거 떡 헤나십주게.
107076 @ 그때는 무신 떡 헛던 거?
107076 #1 그때도 그런 떡.
107076 @ 그때도.

107076 #1 그때도 그런 떡이나 험베끼 뭐 험니까게. 험 것이 엇주.
107076 @ 멀리 가명 질소용으로도 떡 허고.
107076 #1 예.
107076 @ 다 끝낭 피력 허영도 허고.
107076 #1 예. 건 질소용으로 건 먹는 거.
107076 @ 예.
107076 #1 당오름 가젠 허민 얼마나 힘듭니까게. 거, 거 영장 메여근에 그 저 어
느깁장 가민 으라 번 곶아마씨.
107076 @ 예.
107076 #1 사름을 곶아.
107076 @ 사름을?
107076 #1 예, 사름을 곶지 안 허민 어떻게 갑니까?
107076 @ 그.
107076 #1 예, 혼 번 곶면은 혼 번 먹고 또 혼 번 곶면은 혼 번 먹고 경허명 갓
수다게. 옛날에. 아이고 경허명 간 거라, 옛날에.
107077 @ 게문 곶 험 때, 집에서 곶 험 때는 어떤 떡 허여?
107077 #1 그거. 거 동글락 험 떡.
107077 @ 음.
107077 #1 거 동글락 험 떡 맞추민 거 행 옵니다.
107077 @ 음.
107077 #1 맞추민 거 행 와마씨.
107077 @ 게민 그 다대 그거 하나만 헤여.
107077 #1 으, 다대 혼 가지.
107077 @ 혼 가지만?
107077 #1 혼 가지만 허영 세 개씩 올려.
107077 @ 아, 세 개씩.
107077 #1 예, 세 개씩 올려.
107078 @ 예,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말고 평소에 헤 먹는 거, 뭐
속떡을 헤 먹는다거나 이런 건, 뭐 췌기떡 이런 거는 안 들어 봤수과?
107078 #1 제서에 말이과?
107078 @ 아니, 일반.
107078 #1 아, 우리?
107078 @ 으.
107078 #1 우리 헤 먹는 떡?
107078 @ 으.
107078 #1 췌떡이 최고, 췌이 최고 존 거마씨.
107078 @ 으.

107078 #1 썩 허여근에 무시거 밀가루에라도.

107078 @ 음.

107078 #1 버물러근에 무시거 후라이판에 여름에 드러 행 먹었수다. 허연에 썩 떡 허영 후라이판에 허민 막 맛좋아마씨.

107078 @ 음.

107078 #1 후라이판에 지정.

107078 @ 지정.

107078 #1 지정 먹으면 우리 할망신디도 으저가민 막 좋아해근에 먹읍니다게.

107078 @ 음.

107078 #1 무사 막 줍니다. 속 행 놔두민.

107078 @ 음.

107078 #1 속 행 놔두민 잘도 좋아.

소와 고물

107079 @ 음. 그런 식으로 이제 허고. 그 다음에 삼춘 떡 허젠 허면 쉬들예, 쉬 들 무슨 쉬들 씹니까 여기서?

107079 #1 아, 우리 떡 허젠 허민?

107079 @ 으.

107079 #1 송편허젠 허민 저 께, 께 볶으고, 께 볶양 놔 두고 설탕 낱.

107079 @ 음.

107079 #1 설탕 놔근에 그거, 그거 거러 놓명 험수게. 그거 거러 놓명 송편 만들 아씨.

107079 @ 음, 다른 뭐 풋을 허거나 녹디 허거나 안 해?

107079 #1 아, 그거는 그 옛날이고 이제는 맛있게만 먹젠 허는 따문에.

107079 @ 옛날에는 어떤 것덜 해?

107079 #1 그 옛날엔 저 무시거 그 저 보리콩 같은 거 그거 삶아근에 그거 삶앗 수다게. 겐디 맛이 엇어.

107079 @ 음.

107079 #1 맛 엇으난에 설탕허고 그 무스거 낱수게.

107079 @ 께.

107079 #1 께허고.

107079 @ 그걸 여기선 쉬렌 험니까?

107079 #1 예, 쉬.

107079 @ 건 쉬렌 허고예.

107079 #1 쉼 무시거, 무시거 놓구과. 경 아이덜 허민.

107079 @ 으.

107079 #1 무시거 놓구과 허민, 무시거 놓느니 맛 신 거 놔사주.

107079 @ 음. 경혜근에 이제. 그 쉬 놓는 거는 송편에만, 아까 새미떡?
107079 #1 예, 예.
107080 @ 그 다음에 떡 칠 때 그 우에 영 쉬 놓는 거는?
107080 #1 우에?
107080 @ 친떡, 친떡 할 때 영 놓지 안 됩니까?
107080 #1 침떡 할 때는 그냥 그자 층층이만 놓는 거 침떡은.
107080 @ 음.
107080 #1 층층이만 놓고 또시 송편이나 무시거 치젠 허민 바드랭이.
107080 @ 으.
107080 #1 바드랭이 두 개 허여근에 아래 혼 바드랭이 놓고 우에 혼 바드랭이 놓고.
107080 @ 음.
107080 #1 경허영 칩니다.
107080 @ 계난 칩 침떡 할 때는 시리에 헤 갖고 그 사이에 풋들 이런 건 안 놓고 그냥?
107080 #1 아, 풋도 놀 때 잇어마씨.
107080 @ 아, 풋도 놓고예.
107080 #1 예, 놀 때 잇고.
107081 @ 그런 식으로 하고. 이 떡 치젠 허민 옛날에 삼춘 완전 힘들은 거 아니라예, 침떡 할 때?
107081 #1 예.
107081 @ 그 말을 곱아줘 봅서, 그 말을.
107081 #1 이 무똥으로 나갓다 들어왔달 못 헤마씨.
107081 @ 음.
107081 #1 떡 안 익넌 허영.
107081 @ 으.
107081 #1 떡 안 익넌 허영 들어오면은, 나갓다 들어왔다 안 됩니다. 계민 들어온 사람 나가지도 못 허고. 영 행 돌양이나 나가주. 경혜여근에 침떡을 잘 익여야마씨.
107081 @ 으.
107081 #1 그 설 때가 합니다게.
107081 @ 겐 그 설 때는 어떻습니까?
107081 #1 양 설민 거 익지도 안 허는 거라마썸. 쳐도 익지 안 허여. 겨난 건 멩심허영 쳐야마씨. 계난 설어보진 안 헛수다 계난.
107081 @ 음.
107081 #1 설지 안 허게 잘 헤야주. ‘
107081 @ 것도 떡 칠 때 큰일 같은 거 할 때 떡 치는 할망이 따로 잇덴 허멍예?

107081 #1 떡 치는 할망 나.

107081 @ 아, 삼촌이 떡 치는 할망이우과?

107081 #1 저, 저 제서힐 때 누게 험니까게, 제사힐 때 나가 첫수다게.

107081 @ 예.

107081 #1 떡 천.

107081 @ 음.

107081 #1 그 부엌에서만 살았수다. 부엌이사 이제사 종주만은 떡 허고 하간 거 허고 무슨 연기 남수과?

107081 @ 음.

107081 #1 그 스몫 불 솜아근에 떡 치젠 허민 누게가 칩니까게 나가 첫주게. 치민 떡 익은 거 선 거 무시거 허젠 허민 어디 강 요만이 진 거 대가지라도 체여다근에 영 찢러보민 알아져마씨.

107081 @ 음.

107081 #1 영 찢러 보민 영 올라온 거 보민 익어신가 설어신가 알아져. 경허멍 떡 첫수다게.

107081 @ 계난 경 치단도 무사 그 밖에 시루떡 막는 걸 뭐렌 헤?

107081 #1 아, 건 저 옛날은 그 저 보릿가루.

107081 @ 예.

107081 #1 보리, 보리 그 저난 가루로 헛수다만 이제는양.

107081 @ 음.

107081 #1 그 보릿가루가 어디수과? 저 무시거 저 밀가루.

107081 @ 음.

107081 #1 밀가루 먼 범벅허여근에 그걸로 그걸로 막읍니다.

107081 @ 음.

107081 #1 걸로 막으민 튼튼헝 좋아.

107081 @ 건 시리마개?

107081 #1 예, 시리마개.

107081 @ 으.

107081 #1 짐 흥꿈도 나지 말아야 돼는디.

107081 @ 계난 그거 짐 나 불민 떡이 안 익는데 허멍예?

107081 #1 짐 나가 불민 떡 안 익어마씨.

107081 @ 음

107081 #1 계난 요번에 요 솔벤 처난에 그, 그거 저 마당에서 텡굴이멍 우리 손 지허고 큰 메누리허고 그걸 트지 못 허영.

107081 @ 으.

107081 #1 어멍은 잔뜩 막아부난 트지 못 헤영 스몫 발로 디디멍 험십디다.

107081 @ 음.

107081 #1 건 잘 막지 안 허민 안 되는 거난.

107081 @ 계난 그거 헐 때 또 절벤 같은 경우에 그거 떼영 먹으면 안 웬덴 그런 말도 이십디다.

107081 #1 아, 그것도 잇어마씨.

107081 @ 건 뭐우과?

107081 #1 떼영 먹으면 그런 자기가, 먹은 사람이 아이 좋덴 허는 거라마씨.

107081 @ 예.

107081 #1 거 떼영 먹으면게 영 생각해 보민 그 두 사람이 사는 건디 거 떼영 먹으면 안 좋다. 그거에 대해 큰는 거 닳아마씨.

107081 @ 으.

107081 #1 거 둘이가 결혼헤영 둘이가 살면 떼영 먹으면 안 좋덴. 계난 떼지 안 험니다 거.

107081 @ 음.

107081 #1 떼영 먹을 때. 이제는 떼영 먹지 안 헌데 허여 놓난.

107081 @ 게고 막떡 ㄱ튼 것도 먹지 안 헌덴 허멍예?

107081 #1 막떡 ㄱ튼 것도 저 할망덜이나 먹주. 할망덜이나 먹주.

107081 @ 겐 아이덜 안테는 그 막떡 안 준덴.

107081 #1 예, 예. 막 웬 사람이나 먹읍주게.

107081 @ 하하.

107081 #1 막 웬 사람이나.

별식

107082 @ 삼춘 이제는 별식 행 수웨. 수웨도 하영 담아봅디가?

107082 #1 순대?

107082 @ 예, 순대.

107082 #1 하 순대사 무시거 담고 못담고 헐 거 잇수과게?

107082 @ 무시거 놓민 맛 좋은 거?

107082 #1 순대?

107082 @ 음.

107082 #1 순대, 아 뒤집어근에 나 쿨쿨이 씻영 두루 안 씻읍니다.

107082 @ 음.

107082 #1 막 저 밀가루로 막 씻고 밀가루로 멧 번 씻당 소금으로 멧 번 씻영 막 씻어근에 그거에 거 양념을 잘 해야마씨.

107082 @ 음.

107082 #1 양념을 그자 돼지도 말곡 헤근에 그 저 무시거 그 저 그 순대에 기름 나온 거.

107082 @ 음.

107082 #1 것ㄴ라 무시거엔 무시거엔 허민 돼크니 거? 그거, 그것ㄴ라 미역귀, 미역귀간쌈. 그거, 그거 다져놔마씨.

107082 @ 으.

107082 #1 다져 놓고 그 양념을 잘 행마씨.

107082 @ 예.

107082 #1 저 무신 거 뭐 파여 뭐 무신 거여, 무시 거여 막 양념을 해야 줍니다. 막 양념허고 밥.

107082 @ 으.

107082 #1 밥 흐쓸 놓고. 밥 흐쓸 놔근에 막 짓엉 손으로 막 짓엉 잘 허영근에 허여사 오죽 맛 줍니까. 집어서 헌 건 막 맛 잇어마씨. 저디서 푸는 거 그거 비니루 아니과?

107082 @ 예.

107082 #1 집어서 허는 건 맛 좋양 실평덜 험수과 이젠 안 험주게. 안 혀.

107082 @ 게민 그 순대 만들젠 허면 그거는 큰 베설로 허는 것과 작은 베설로 허는 것과?

107082 #1 큰 베설 헌 거는 맛이 엇고 작은 베설 헌 것이 맛 좋아.

107082 @ 작은 베설예?

107082 #1 예.

107082 @ 작은 베설 허면 그 양념을 쓸 놓고 아까 미역귀는 뭐마씨?

107082 #1 미역귀간쌈.

107082 @ 미역귀간쌈 하나.

107082 #1 미역귀간쌈은 하나 듭니다게, 돼지 하나에 하나.

107082 @ 으.

107082 #1 그것도 흐뵂 널러마씨.

107082 @ 으.

107082 #1 그거 문딱 뵂아 낱. 그거 문딱 썰어 낱. 문딱 썰어 낱 다져근에. 다져 근에 글로로 가게 다져놔근에.

<중략>

107082 @ 게근에 그 미역귀간쌈도 놓고 파 놓고 그 다음에 저 뭐도 놓지 안 험 니까?

107082 #1 대사니 ㄴ튼 거 거 많이 놔야 맛이 잇어마씨.

107082 @ 그 다음에 그 피도 놓는 거 아니, 선지?

107082 #1 피 놔야 맛 십주.

107082 @ 으.

107082 #1 피 놔야 피 ㄴ치 서꺼근에.

107082 @ 서경.

107082 #1 서꺼근에 문땅 반죽허여근에. 또시 저 영 잘 행 먹젠 허민 또 저 무시

것도 놓고. 그 저 뭣고 잊어불영 잘 곤지 못허여. 저 뭣고 그거 흐뎡 잘. 그것도 허젠 허민 힘들어근에.

107082 @ 음.

107082 #1 우리 드러 허영 먹으멍 몰랑 안 곶암서.

107082 @ 어떤 겨우과?’

107082 #1 우리 저 무시겨 허영 먹읍니다. 저 멩질에도 행 먹고 제사에도 행 먹고.

107082 @ 두부?

107082 #1 아니

107082 @ 저 당면?

107082 #1 당면. 당면도 흐뎡 놓고 경허민 맛 좋아마씨.

107082 @ 음. 경허영 거 다 담는 거 아니라마씨.

107082 #1 예, 예.

107082 @ 겐 거 슣젠 허민 어떻게 슣아마씨.

107082 #1 슣으는 건 물 팔팔 꿩여놔근에 그레 고기 들이청 그 슣는 과장도 막 힘들어마씨.

107082 @ 게니까, 예.

107082 #1 슣는 것도 너미 많이 놔도 안 똬고 많이 담아도 아이 똬고.

107082 @ 음.

107082 #1 너미 많이 담으민 터져볼고.

107082 @ 음.

107082 #1 게난 슣는 과정이고 담는 과정이고 잘 헤야마씨.

107082 @ 게민 어느 정도를 담아야 잘 똬는 거라마씨?

107082 #1 게난 요만이 지러기 허민.

107082 @ 음.

107082 #1 요만이랑 념겨. 념기민 그것이 영 퍼져근에 곶로로 가게.

107082 @ 음.

107082 #1 거 익어가민 거 벅찰 거 아니과?

107082 @ 예, 예.

107082 #1 경허난 거 늘 겨로난. 겨난 그 담는 것도 수빱 답지 말앙.

107082 @ 으.

107082 #1 덜 답앙마씨. 덜 답앙.

107082 @ 으.

107082 #1 덜 답앙 슣으민 아이고 그만이 맛 존 것이 어디 잇수과?

107082 @ 음.

107082 #1 난 잔치허민 요즘 잔치허민 그거 하나 잡앙 허민 그냥 그자 가근에 그 뷔페덜 강 허는 거 보민 우스와 침.

107083 @ 음. 삼춘 둠비도 직접 해 판마씨?
107083 #1 예, 나 결혼할 때 두부헛수게.
107083 @ 으, 그 옛날에예.
107083 #1 그 옛날에게 양 이디 으섯 밧디 잔치마씨게.
107083 @ 으.
107083 #1 양 하르방 갑장에 우리 갑장에 헨에 으섯 밧디 잔치난 물이 어디 잇 수과, 물 안 날 때.
107083 @ 으.
107083 #1 물 안 날 때 수돗물도 엇은 때난 저 군물허고 저 쿠눈.
107083 @ 으.
107083 #1 쿠눈이엔 현 디 요 보성사에 가는 디. 눈은 이만이 묻으난 그거 장남 델이 옛날은 장남델도 경 하곡 허난 그거 문딱 그 저 눈 무시결로 삼같이로 다 그 눈 다 치와근에양, 치왕 도로미깡 혼 집이 두 개씩 시 개씩 그거 다 빌어다 낱.
107083 @ 음.
107083 #1 그것도 양 그 부주로 다 그 물 시꺼다 쥐마씨. 부주로 물 시꺼다 쥬 저 두부 헛수다, 나 시집, 결혼할 때.
107083 @ 예.
107083 #1 우리 집이만. 이 집이만, 이 집이만.
107083 @ 음. 쥬 그거 만들쥬 허민 어떤 식으로 만들어, 두부는?
107083 #1 그거?
107083 @ 예.
107083 #1 그거 콩 물 컷다근에.
107083 @ 음.
107083 #1 저 ㄱ래에 곶양. 곶아근에 그걸 저 삶는 거마씨.
107083 @ 예.
107083 #1 삶양 저 익게끔, 익게끔 드리 젓으멍 삶으민 그거 또시 또 그 포따리 이만이 큰 거 허여근에 그거 소곱더레 그걸 문딱 담아마씨.
107083 @ 예.
107083 #1 담양 누뜨렁, 누뜨렁 놔두민 물은 나와 불고 두부가 쥬는 거.
107083 @ 물 좍 빼근에.
107083 #1 게난 두부라도 멘들양 먹어시민 생각도 납니다게. 집이 들어성
107083 @ 예. 옛날 그 두부가 맛있어예.
107083 #1 예, 예. 너무 맛좋아마씨.
107083 @ 그럼 그 비제기들은 어떤 식으로 쥬?
107083 #1 비제긴 뭐 쥬지도 주고 또 ㄱ져갈 사름은 가져도 강 무신 국도 끌렁 먹고 경헛수다.
107084 @ 음. 경허고예. 모멸묵은 어떻 쥬는 거우과?

107084 #1 모멸묵도 간단합니다게. 모멸묵은 우린 항상 허난 간단합니다 건.
107084 @ 음.
107085 #1 저 모멸도 만딱 반죽헤여근에. 반죽허영. 모멸묵은 쭈는 것도 으라, 으
라 종류 아니과.
107085 @ 예.
107085 #1 저 청묵도 쭈고.
107085 @ 예.
107085 #1 청묵은 쪼지랑.
107085 @ 으.
107085 #1 저 샤 헤근에 쪼지랑 쭈는 거고 또시 또 저 어떠한 청묵은 문들락문
들락 안 좋아 보입니다.
107085 @ 아.
107085 #1 게고 우린 못수가 하 노난에 좋아 뵈지 안 허여.
107085 @ 음.
107085 #1 경헤근에 또 곱아다근에 그냥 묵을 쭈고.
107085 @ 으.
107085 #1 묵 쭈근에 먹음도 허고 올림도 허고.
107085 @ 음.
107085 #1 너무 많이 허는 따문마썸게, 많이 허는 따문. 영 혼 위에 세 개 세 고
지.
107085 @ 아. 위마다 다 트로트로 올려예?
107085 #1 우린 딱로딱로 합니다.
107085 @ 아.
107085 #1 전부 다 딱로딱로 합니다게.
107085 @ 게민 고기적 같은 경우에도 다 딱로딱로 올립니까?
107085 #1 쪼기적은 딱로딱로 안 합니다. 두 어른에 하나.
107085 @ 아. 두 어른에 하나 허고.
107085 #1 두 어른에 하나. 것도 다 짹 거르게.
107085 @ 짹 거르게.
107085 #1 저 소백이깁장 행 일곱 고지. 저 혼 쟁반에.
107085 @ 혼 쟁반에.
107085 #1 혼 쟁반에 일곱 고지.
107085 @ 쟁 멧 쟁반 올리는 거?
107085 #1 게난에 어 세 쟁반.
107085 @ 세 쟁반 올려예?
107085 #1 세 쟁반, 두 어른씩 허영. 쟁 으섯.
107085 @ 으섯.

107085 #1 으쓱하고 문전이 일곱하고.
107085 @ 문전까지예. 그러면은 아까 묵은 딱로 올린덴 허민 묵은 멧 개, 멧 개?
107085 #1 세 가지. 저 세, 세 개 굽에 놔가지고.
107085 @ 예.
107085 #1 따시 그 우터레 무시걸 올리는 거라마씨. 저 그 적갈.
107085 @ 적갈을?
107085 #1 예, 그 적갈을 그 우터레 일곱 고지 올려마썸.
107085 @ 음.
107085 #1 게난 다 그거 짝 거르게 허는 거.
107085 @ 짝 거르게 묵 세 개, 정반마다 세 개씩 행.
107085 #1 예예 세 개씩 놔나근에, 다 짝 거르게.
107086 @ 게근에 허고 게역은 언제 허는 거?
107086 #1 게역?
107086 @ 으.
107086 #1 게역은 으름에.
107086 @ 여름에.
107086 #1 여름에.
107086 @ 게역 흔 번 만들어봅서 어떻 만드는지.
107086 #1 게역 뭐 그냥 푸는 건 저 무시거 그 보리만 근 거주만은. 보리, 보리
썰이 아니고 보리.
107086 @ 예.
107086 #1 보리 보까근에 곶아오는 거고. 우리가 잘 행 먹젠 허민 그디 저 검은
콩에 꿰는 농면 안 좋아마씨.
107086 @ 으.
107086 #1 검은 콩에 또시 그 저 보리썰에 또 찹쌀에.
107086 @ 으.
107086 #1 경험 세 가지. 세 가지 허민 거 맛 줍디다.
107086 @ 음. 거긴 보린 안 놓고?
107086 #1 보리도 놓고.
107086 @ 보리도 놓은디 콩도 놓고예?
107086 #1 그레 문 세 가지 난에 허난. 찹쌀에.
107086 @ 예.
107086 #1 찹쌀도 저 보깡 다 보깡 낱. 게난 그건 저 나가 무사 헤 봐신고 허민
큰아덜에 손지가 밥을 잘 먹으난에.
107086 @ 으.
107086 #1 경험에 으정간에 벵이명 살앗수다게, 서울 간에.
107086 @ 아, 서울 강.

107086 #1 경희영 키왕 놔두난 이제도 막 멕업나, 나 그처럼 곱아줍니다.

107086 @ 하하. 삼촌 손지 보레 서울 갖다 완?

107086 #1 아니, 요즘은 안 가난.

107086 @ 요즘은 안 가고.

107086 #1 저 아털이 갖다왔다 허난 난 안 가왔수다. 아이 갖다완.

107087 @ 그 다음에는 지지미?

107087 #1 지지미가 무시겨 뭐 밀가루로라도 그 저 으름에 다닙서 으름에 다니
민 막 힘들어양. 저 무시 것이 엇어. 숙이 엇어.

107087 @ 음.

107087 #1 여름에 막 여름엔 먹엇수다게.

107087 @ 으.

107087 #1 여름에 헤다근에 확허게 데우청 허민양.

107087 @ 예.

107087 #1 거 흔 번 먹을 거만씩 데우청 놔 뒷다근에 그거 밀카루레 타근에 지
지미 허민 막 맛 좋아.

107087 @ 아, 썩을?

107087 #1 예. 그것이 떡보다 더 맛좋아. 지지미가 그겁주게.

107087 @ 음.

107087 #1 지지미. 아무 지지미도 그자 뭐 밀가루만 지져도 지지미.

107087 @ 음.

107087 #1 뭐 다른 거 놔도 지지미. 다른 걸로 지져도 지지미. 뭐 지지미는 마찬
가지주.

107088 @ 지지미는 마찬가지. 삼촌 오메기술도 헤 받마씨?

107088 #1 오메기술?

107088 @ 으.

107088 #1 오메기술은 하르방이 이장 탱겨놓난 그걸 허여사 저 무시거게 그 강
제 지낼 거 아니과게.

107088 @ 예, 아.

107088 #1 강 제 지낼 거.

107088 @ 그 오메기술을 한 번 만들어 봅서.

107088 #1 오메기, 오메기술은 그 저 검은 좁쌀 사다근에.

107088 @ 예.

107088 #1 검은 좁쌀 사다근에 시쳐근에 강 곱아다근에 그걸 썬근에 동글락허게
멘들양 가운데 고망 툀라지게양.

107088 @ 음.

107088 #1 만들아근에 그것도 댓가지 놔근에.

107088 @ 예.

107088 #1 댓가지 뇌근에 부뜨지 말게 댓가지 영 뇌근에 그걸로 영 흔들민 안 부뜨니다.

107088 @ 아.

107088 #1 경 허여근에 그걸로 술 만드아근에 그거 저 청주.

107088 @ 예.

107088 #1 우터레 골라 앓저근에 두 불, 또시 두 불 헤영, 초불 헤영 퀘민 다시 또 헤 낱 다시 또 두 불 허영 그거 혼 두어 돼 서넉 돼민 먹읍니다게.

107088 @ 예.

107088 #1 그 큰제 지내젠 허민.

107088 @ 예.

107088 #1 저 포제단에 큰제 지내젠 허민. 경헨 헤 낫수다게.

107088 @ 음.

107088 #1 경허멍 드리 경허멍 살앗수다.

107088 @ 그럼 우에 거는 청주, 청주로 제 지내는 거 아니마씨?

107088 #1 청주로 제 지내는 거. 우이로 거러똥, 거러똥근에 아래 건 먹고.

107088 @ 게민 아래 건 똥렌 곱아?

107088 #1 아래 건 건 똥술.

107088 @ 똥술. 청주 거러근에 남은 술이 똥술이우과?

107088 #1 예. 똥술 그거 확확하게 젓어근에 저 놀레 온 하르방네도 안네고 저 먹엇수다게.

107088 @ 음. 겐 건 청주고 그 다음에 오메기술은 그냥 탁베기 밑에 건 탁베기 렌도 헤?

107088 #1 탁베긴 거 거러나지 안 허민 탁베기주.

107088 @ 아, 거러나지 안 헨 거.

107088 #1 예.

107088 @ 거러불면 나머지는 똥술이고?

107088 #1 예, 예. 똥술.

107088 @ 우에 거는 청주.

107088 #1 예, 청주마씨. 그건 쓰젠, 쓰젠 옛날에 똥병으로 세 개만 허영 뇌 두민 겐로 씩니다게. 큰제 지내젠 허민.

107089 @ 음. 그 다음에 삼춘. 순다리, 씌다리?

107089 #1 순다린 막 좋아허난 밥만 잇이민 헤져마씨.

107089 @ 아, 건 어떤 식으로 허민 돼는 거우과?

107089 #1 그건 거 쉬웁니다게. 게난 저 노인당에 똥길 때 밥 남으민게 나 줍니다게, 나 주민 ㄱ저 오라근에 막 하영 헤영 ㄱ저가마씨.

107089 @ 예.

107089 #1 게난 저 누룩, 저 장에 강 누룩 사다근에.

107089 @ 음.

107089 #1 사다근에 독 독 독 독 뿔아근에 놔 뿔다근에 그거 물 흐뎡 매지근이 데와사 것도 좃디다.

107089 @ 아.

107089 #1 매지근이 데왕 저 제기, 하영 데와불면은 건 누룩이 죽어불고.

107089 @ 음.

107089 #1 그 발이 죽어불고, 이제라도 매지근이 데왕 허민 으라날 헤사 켈니다 게 추워부난.

107089 @ 음.

107089 #1 경혜근에 그거 허여근에 저 무시거 막 물 재왕 놔 두민 거 순다리 뉘는 거 아니과.

107089 @ 경허민 그대로 그거 먹는 거마씨, 아니며 데왕 먹어?

107089 #1 아니, 그냥 먹어.

107089 @ 그냥.

107089 #1 시원히 그냥 먹어.

107089 @ 시원히, 아.

107089 #1 설탕 놓고.

107089 @ 설탕 놓고. 켈여야 먹는 거우과?

107089 #1 켈여야 먹는 거. 둥그랭이 우터레 올라왕 켈여야마썸.

107089 @ 누룩은 어느 정도 놓민 켈는 거우과?

107089 #1 누룩은 그자 적당히 놀 만이. 요거민 뉘겿다 허영 적당히 놀만이.

107089 @ 삼춘은 적당히주만은 나는 모를 거 닻은디. 밥 어느 정도에 얼만큼 허는 거.

107089 #1 아, 계난 하영 놓민 좋지 안 허곡게. 죽영 놔도 켈지 안 허고. 계난 옛날양 그 보리 홀틀 때에 먹어볼 것이 엇이난.

107089 @ 으.

107089 #1 그 저 순다리 허멍 먹엇수게, 옛날에 보리 홀틀 때. 눅 빌영 보리 홀트난. 눅 빌영 기계, 저 기계 두 개도 대영 홀트고.

107089 @ 예.

107089 #1 그냥 거 알아집니까 보리 홀트는 거?

107089 @ 영, 보리클.

107089 #1 보리클 허영 영 영 허는 거.

107089 @ 예, 예.

107089 #1 그거양 이디 기계 두 개씩 뎡 홀타났수다. 홀탕 영 먹을 것이 잇수과 게. 먹을 것이 엇이난에 그 순다리 저 그 무시거 밥은 경 하영 헤져.

107089 @ 음.

107089 #1 무시거 저 그 저 무시거 헤다근에 미숫궂루 헤다근에.

107089 @ 예.

107089 #1 미숫가루 해당 강도 먹고 순다리도 허고.

107089 @ 음.

107089 #1 겐 그걸로, 그걸로 간식이라마씨 옛날은.

107089 @ 음.

107089 #1 이제사 먼 간식이 벨 거 다 나와도. 옛날이사 간식할 것이 있어났수과?

107089 @ 그때 밥 할 때 옛날에는 흐뎡 쉬어야 순다리 현텐 허지 안 헛수과, 이제는 그런 거 아니.

107089 #1 아니. 그냥 험니다.

107089 @ 그냥 해도 잘 돼예.

107089 #1 쉰 거는 그거 어짜피 쉰 거 이거 순다리나 헤 붙주 경허주.

107089 @ 음.

107089 #1 이제사 뭐 순다리 험 바에야 싱싱헌 거 헤 붙주.

107090 @ 맞아마씨. 그 다음 누룩도 직접 만들어 반 삼춘?

107090 #1 누룩도 만들앗수다게.

107090 @ 예, 누룩은 어떻 만듭니까?

107090 #1 누룩은 그거 저 손으로, 손으로 만드나.

107090 @ 으.

107090 #1 그 물 놔근에 손으로 만드나 그 사발러레.

107090 @ 예.

107090 #1 사발러레.

107090 @ 예.

107090 #1 사발에 뭐 곶아근에. 뭐 험벅이나 뭐 비니루사 옛날에 셔셔.

107090 @ 어.

107090 #1 험벅 곶아근에 그걸 꼭꼭 누뜨리근에 비우민 거 곱닥허게 됩니다.

107090 @ 게난 거 무신 걸로 멘드는 거라?

107090 #1 거 저 보리 곶아논 거.

107090 @ 예.

107090 #1 거 옛날엔 거 보리 곶양도 헛주만은 보리 깎아난 ㄱ루.

107090 @ 예.

107090 #1 헤양헌 거 나옵니다. 헤양헌 거 말째. 말째 나오민 그걸로 멘들앗어.

107090 @ 예.

107090 #1 그걸로 만들안에 순다리 저, 거 누룩 험 놔 뒷수다.

107090 @ 게른 그것만 만들면 반죽만 헤 두면 누룩이 되는 거라마씨?

107090 #1 반죽헤여근에 티와사 텔 거 아니과.

107090 @ 아, 티와근에.

107090 #1 떡왕 떡와근에 쿨쿨 씻어근에 물령 놔둬서 그거 뺏앙.
107090 @ 음. 그거 어느 정도 허면 거 만들 수가 잇어마씨?
107090 #1 뭣을?
107090 @ 만들아근에 허면 메칠 지나면은 누룩이 나오는 거?
107090 #1 그건 저, 이 겨울철에는 오래가고 오래 셔사 트고.
107090 @ 음.
107090 #1 여름엔 빨리 터마씨. 빨리 쉬지 안 험니까?
107090 @ 예.
107090 #1 빨리 쉬난 그걸. 봄 가을에가 만들기가 좋습니다.
107090 @ 봄 가을에.
107090 #1 그 가을 들민 저 보리덜 막 멧 도로무씩 지지 안 험니까. 거 저 오민
거 곱닥헌 걸로 거령 놔 뒫당 거 누룩헛수다게.
107090 @ 음.
107090 #1 누룩 행 드려 보리 훑틀 때도 먹곡 헛수다게.
107090 @ 게민 그 누룩 허면 곰팡이가 날 거 아니과게. 어떤 곰팡이 나?
107090 #1 붉은 곰팡이가 나사 존 거마씨.
107090 @ 아, 붉은 곰팡이.
107090 #1 붉은 곰팡이가 나사 줍니다.
107091 @ 옛도 만들아봤수과?
107091 #1 아아고 옛이사 만들당도 버쳐주.
107091 @ 어떤 옛 만드는 거?
107091 #1 옛, 돼지옛도 허곡게.
107091 @ 음.
107091 #1 저 득옛도 허고.
107091 @ 옛은 보통 어느철에 멘들아마씨?
107091 #1 옛은 이제마씨, 이제.
107091 @ 아, 이제.
107091 #1 이제가 철이 좋앗수다게.
107091 @ 으.
107091 #1 더웁지 안 허고.
107091 @ 옛 하나 만들아 봅서, 돼지, 돼지고기 옛이 쥬 좋은 거?
107091 #1 돼지고기 옛 좋은 거주게.
107091 @ 거 만들어 봅서 순서대로 물, 밥 헐 때부터.
107091 #1 밥 저 무시거, 이젠양 줍설이 너무 비싸농난게. 줍설이 너미 비싸 농
난에. 그 저 골 혼 돼민, 골 혼 돼민 줍설 두 돼.
107091 @ 음.
107091 #1 줍설 두 돼혜근에 사다근에 그 줍설로 밥을 헤마씨.

107091 @ 으.

107091 #1 흐랑허게 그 죽보단 아주 알롭게.

107091 @ 예.

107091 #1 아주 알롭게 헤여근에 거 좀 식어야마씨.

107091 @ 예.

107091 #1 식으면은 그 골을 놓는 거라마씨. 골을 놔근에 젓영 놔 두면 것도 부락락허근에.

107091 @ 으.

107091 #1 것도 올라와근에 것도 퀘여사.

107091 @ 예.

107091 #1 퀘면은 쨍지랑근에.

107091 @ 음.

107091 #1 쨍지랑근에 문딱 쨍지랑근에 앓아뒤근에 퀘기 썰어근에 슥으멍 놓는 거마썸.

107091 @ 음.

107091 #1 슥으멍. 그 좀 슥당 노난양 과들락행 퀘기가 안 돼깝디다.

107091 @ 으.

107091 #1 그 혼디 놓면은 혼나 그냥 익고.

107091 @으.

107091 #1 경허난 이거는 옛 허는 사름덜이 알아근에 이건 그자 슥으멍 그자 곧 슥으멍 놔야 돼겟다 경 생각해집디다.

107091 @ 게문 그 슥으는 거는 물에 슥아근에 거기 놓는 거 마씨 아니면 옛에 ㄴ치 딸리는 거?

107091 #1 옛에 낱 ㄴ치.

107091 @ 아, 옛에 낱 ㄴ치 익히는 거?

107091 #1 예, 옛에 낱 딸리는 거마씨.

107091 @ 예.

107091 #1 옛더레 곧 슥을 때.

107091 @ 슥을 때에.

107091 #1 예. 문딱 쨍지라근에 그 주쟁인 버리고 주쟁인 버리고 그 옛더레 ㄴ치 놔근에.

107091 @ 음. 게민 그 옛 허젠 허민 아까 골도 멘들아야 헐 거 아니예?

107091 #1 골?

107091 @ 예.

107091 #1 골 프는 거 잇수게.

107091 @ 아, 풀고. 삼춘은 직접 안 만들어 받.

107091 #1 아이고 만들어봤수다게. 만들단도 버섯주, 옛날에.

107091 @ 골은 어떻게 만들어?

107091 #1 골은, 골은 그 저 시리 잊지양, 시리.

107091 @ 예.

107091 #1 시리에 그 저 물 듬갓당.

107091 @ 으.

107091 #1 그 저 보리를 물 듬갓당. 맥주 보리 물 듬갓다근에 물 험박이 듬가근에, 거 물 듬가근에 그만 허민 웨켜 헨에 시리굽에 무시거 깰양마씨.

107091 @ 으.

107091 #1 거, 험박, 험박을 깰양 담양마씨, 담아근에게 그거 나뉘서 돌르민 물 주고 돌르민 물 주고 허민 요만은 나옵니다게.

107091 @ 으.

107091 #1 경허민 너는 거 건.

107091 @ 아.

107091 #1 경허민 널영 몰라근에 바싹 몰르민 강 골아다근에 그걸로 옛 험수게.

107091 @ 음. 그게 골예?

107091 #1 예. 그걸로 옛 허는 거.

107092 @ 예. 이것 말고 또 이 동네에서 헤 먹어난 음식 특별한 음식 잇이카마씨. 덕수리에서만 헤 먹엇던?

107092 #1 특별헌 음식은 몰르쿠다.

107092 @ 음. 특별헌 음식은 모르고.

107092 #1 특별헌 음식 뭐 허여 보질 안 헛인디.

107092 @ 삼춘네 집이서 특별헌 음식은 무시거?

107092 #1 우리 뭐 특별헌 음식 안 헤 봤수다. 그 아까 골은 거 그런 거나 허주.

107092 @ 예, 알앗수다 잠깐만예.

제2절 어휘

1. 인체

얼굴과 머리

201001	머리	머리
201002	대가리	대가리
201003	크다[大]	크다
201004	숫구멍	숨통
201005	제비초리	생이총데기
201006	머리털	머리꼴, 머리
201007	머리카락	머리꼴
201008	길다[長]	질다
201009	짧다[短]	졸르다
201010	빗[梳]	얼레기
201011	얼레빗	얼레기
201012	참빗	청빗
201013	땡다	땡다
201014	비녀	빈네
201015	고수머리	ㄱ스락머리
201016	가마[旋毛]	가메
201017	쌍가마	쌍가메
201018	가르마	앞가른 거
201019	이마	이마, 이맹이
201020	넓다[廣]	넓다
201021	이마빼기	마뺨
201022	숨털	간세터럭
201023	얼굴	양지
201024	낯[面]	낯
201025	웃다[笑]	웃다
201026	그리다[寫]	기리다
201027	세숫대야	세멘기
201028	씻다[洗]	씻다
201029	거울	색경
201030	보다[見]	보다
201031	빤	삐얌
201032	빤따귀	삐얌

201033	때리다[打]	때리다
201034	불	불빼
201035	불따구니	불빼
201036	불거리	*
201037	광대뼈	불빼
201038	보조개	보지개
201039	주름살	주름술
201040	눈[目]	눈
201041	흰자위[目]	흰공자
201042	검은자위	검은공자
201043	눈꺼풀	눈통이
201044	거적눈	*
201045	눈썹	눈썹
201046	질다[濃]	지트다
201047	속눈썹	속눈썹[쑹눈썹]
201048	양미간(眉間)	*
201049	수침(垂針)	바놓
201050	거머리	*
201051	폐롭다	폐랍다
201052	눈곱	눈곱
201053	눈초리	*
201054	사팔눈	스삼팔이
201055	눈웃음	눈웃음
201056	코	코
201057	만지다[撫]	문직다
201058	כות마루	코몰리
201059	세다[強]	쎄다
201060	כות구멍	כות고망
201061	코딱지	코푼제기
201062	כות물	כות물
201063	닦다[拭]	썰다
201064	כות수염	כות쉬염
201065	인증	인증
201066	입	입
201067	쓰다[苦]	쓰다
201068	참말	춘말
201069	거짓말	거짓말

201070	바르다[正]	바르다
201071	뉘달하다	답두리ㅎ다
201072	입술	입바위
201073	헐다[毀]	헐다
201074	입놀림	입놀림
201075	말하다	말근다
201076	입방아	*
201077	허풍	허풍
201078	뇌다	노이다
201079	침[唾]	츄
201080	삼키다[呑]	슴지다
201081	가래침	게츄
201082	뱀다[吐]	바끄다
201083	느침	니치름
201084	턱받이	턱받이
201085	혀	세
201086	핥다	할라먹다
201087	헛바늘	셋가시
201088	이[齒]	니, 니빨
201089	앞니	앞니
201090	송곳니	걸니
201091	덧니	덧니
201092	버드렁니	*
201093	어금니	어금니
201094	사랑니	사랑니
201095	옥니	옥니
201096	옥다[曲]	오그라지다
201097	돋다[出]	나다
201098	옥물다	즈그물다
201099	턱	턱가리
201100	턱살	턱가리솔
201101	빨다[稍峽]	빨아지다
201102	수염	쉬염
201103	귀	귀
201104	귓바퀴	귓자락
201105	귓볼	*
201106	귓구멍	귓고망

201107	귀청(고막)	귀창
201108	귀지	긱밥
201109	귀이개	긱봉
201110	가는귀	ㄱ는귀
201111	귀밑	*
201112	구레나룻	늑대쉬엄
201113	목	모가지
201114	굶다[飢]	독지다
201115	모가지	야가기
201116	먹살	야가기
201117	잡다[執]	잡다
201118	뒤통수	뒤통수
201119	꼭뒤	뒗더멩이
201120	뒗덜미	뒗모가지

상체

201121	어깨	어깨, 독지
201122	어깨뼈	어깨뼈
201123	어깨죽지	어깨
201124	겨드랑이	저갱이, 겨드랭이
201125	팔	폴
201126	팔뚝	*
201127	새기다[刻]	*
201128	팔심	폴힘
201129	힘줄	심줄
201130	답살	득술
201131	팔꿈치	폴꼭지
201132	팔목(=손목)	홀목
201133	뼈	팡
201134	뼈다귀	팡
201135	손	손
201136	왼손	웬손
201137	오른손	늑단손
201138	왼손잡이	웬등이
201139	손등	손등떼기
201140	손바닥	손바닥
201141	손톱	손콧

201142	들다[擧]	들르다
201143	흔들다[搖]	흔들다
201144	거스러미	거슴
201145	할퀴다	극주다, 굶다
201146	손가락	손가락
201147	엄지손가락	상손가락
201148	검지손가락	출람생이
201149	가운뎃손가락	상손가락
201150	약손가락	*
201151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201152	손살	손거림
201153	가슴	가슴
201154	뛰다[跳]	튀다
201155	젓가슴	젓가슴
201156	명치	오목가슴, 복장
201157	명자리	오목가슴
201158	젓	젓
201159	젓꼭지	젓고고리
201160	젓명울	젓명얼
201161	짜다[擻]	짜다
201162	울다[鳴]	울다
201163	배[腹]	배
201164	기다[匍]	기다
201165	고프다[餓]	배고프다
201166	배꼽	배똥
201167	옆구리	옆갈리
201168	갈비뼈	갈빗뼈
201169	등	등뎡이
201170	밀다[推]	밀다
201171	굽다[曲]	굽다
201172	등때기	등뎡이
201173	가렵다[癢]	ㄱ렵다
201174	긁다[抓]	긁다
201175	결리다	절리다, 숨바쁘다
201176	등목(=목물)	등뎡이 밀어드라
201177	찬물	실려운 물
201178	등마루	등물리

201179 등뼈 등뼈, 등짱

하체

201180 허리 허리
201181 잔허리 *
201182 가늘다[細] ㄱ늘다
201183 엉덩이 엉덩이
201184 살집 슬집
201185 볼기 볼기
201186 엉덩이뼈 엉치뼈
201187 궁둥이 궁둥이
201188 궁둥이뼈 *
201189 살 슬
201190 새끼똥구멍 새끼또꼬망
201191 더럽다[汚] 더럽다, 추잡하다, 지지하다
201192 가볍다[輕] 게볍다
201193 무겁다[重] 베다
201194 살 조금테기
201195 가래뚝 멧얼
201196 다리[脚] 다리
201197 서다[立] 사다
201198 허벅다리 허벅다리
201199 넓적다리 넓적다리
201200 무릎 독모릅
201201 무릎뼈 절벤티짱, 독모릅짱
201202 뼈다[脛] 뼈다, ㄱ무끄다
201203 정강이 정갱이, 준갱이
201204 정강뼈 정갱이짱
201205 종아리 종아리
201206 장판지 쥐솔
201207 오금 오곰테기
201208 복사뼈 귀마리짱
201209 발[足] 발
201210 걸다[步] 걸다
201211 굵다[凶] 굵다
201212 헛발질 헛발질
201213 발목 발목

201214	겹질리다	ㄴ무끄다
201215	발등	발등
201216	발바닥	발창
201217	발부리	발부리
201218	차다[蹴]	차다
201219	간지럽다	ㄴ롭다
201220	간지럼	*
201221	발가락	발가락

201221-1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
201221-2	둘째발가락	두번째발가락
201221-3	가운데발가락	상발가락
201221-4	넷째발가락	버금발가락
201221-5	새끼발가락	새끼발가락

201222	발살	발거림
201223	까치눈	발눈
201224	티눈	갱이
201225	고린내	꼬랑내
201226	발톱	발굽
201227	발뒤축	발뒤치기
201228	쓸개[膽]	실게
201229	허파	복부기
201230	마음	ㅁ슴
201231	곱다[麗]	곱다
201232	창자	창지
201232-1	큰창자	큰베설
201232-2	작은창자	족은베설
201233	목숨	목심
201234	빼앗다[脫]	앗다
201235	한숨	한숨

2. 육아

발달

202001	서다[孕]	설다
202002	시다[酸]	시큼허다
202003	기쁘다[喜]	지꺼지다
202004	입덧	입덧
202005	낱다[媿]	낱다
202006	태(胎)	붓
202007	텃줄	베또롱줄
202008	나이	나
202009	어리다[幼]	두리다
202010	터울	묻이
202011	갓난아이	물애기
202012	싸다[包]	싸다, ㅍ리다
202013	어린아이	옥은애기
202014	사내아이	스나이
202015	계집아이	지집아
202016	아깁다	아깁다
202017	아이보개	아기엿개
202018	엿저지	엿게
201019	품다	쿰다, 득안다
202020	오줌	오줌
202021	오줌독	오줌단지
202022	오줌버캐	오줌께
202023	오줌싸개	오줌썰기
202024	누다[便]	누다
202025	나무라다	나무리다
202026	지린내	지른내
202027	마렵다	므렵다
202028	꾸지람	욕
202029	배냇저고리	붓땃창옷
202030	기저귀	지성귀
202031	배두렁이	배부레기
202032	포대기	뜨대기
202033	보자기	포따리
202034	보따리	포따리, 포데기
202035	풀다[解]	클르다
202036	끄르다	클르다
202037	처네	걸랭이

202038	띠	걸렁이
202039	개구멍바지	강알터진바지

재롱과 놀이

202040	죄암죄암	조매조매, 줌매줌매
202041	곤지곤지	곤지곤지
202042	따로따로	선데선데
202043	도리도리	마니마니
202044	짜짜꿍	던데던데
202045	부라부라	*
202046	걸음마	걸음발
202047	걸리다	걸리다
202048	곤두박질	근작사다
202049	곤두서다	근작서다
202050	가동가동	가동가동
202051	안다[抱]	안다
202052	안기다	안기다
202053	목말	청고게
202054	흉내	숭
202055	흉내질하다	숭털다
202056	엄살	엄살
202057	쌈	시토, 시튀
202058	자라다[成長]	질다
202059	부아	부에
202060	참다[忍]	춤다
202061	심술	시토, 시튀
202062	밉다[憎]	밉다
202063	옛말	옛말
202064	자치기	자치기
202065	구슬치기	다마치기
202066	딱지치기	떼기치기
202067	통차기	*
202068	숨바꼭질	굽읍제기, 굽읍내기
202069	숨다	굽다
202070	소꿉놀이	흑밥, 소꿉장난
202071	놀다[遊]	놀다
202072	실뜨기	바둑 띄는 거

202073	풍계문이	*
202074	줄넘기	베뿔락
202075	줄다리기	줄달리기, 줄등길락
202076	수수께끼	예숙
202077	공기	공기
202078	공깃돌	공기
202079	던지다[投]	데끼다
202080	고누	꼰
202081	땅뺏기	*
202082	사금파리	사그마치
202083	말놀음질	말탈락
202083-1	생말타기	*
202083-2	죽은말타기	말탈락
202084	대말[竹馬]	대막뎡이
202085	달음박질	달음베기
202086	겨루다[競]	심백흐다
202087	채기차기	떼기차기
202088	헤엄치다	히다
202089	웃놀이	넉동베기
202090	웃가락	웃가락

202090-1	도	한 짝만 젓혀졌을 때	토
202090-2	개	두 짝 젓혀졌을 때	개
202090-3	걸	세 짝이 젓혀졌을 때	걸
202090-4	웃	네 짝 모두 젓혀졌을 때	웃
202090-5	모	네 짝 모두 엮어졌을 때	모

202091 동무니 지

202091-1	외동무니	한 동만으로 가는 말	웨동매, 외지
202091-2	두동무니	두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두동매, 쌍지, 두지
202091-3	석동무니	세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석동매
202091-4	넉동무니	네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넉동매

202092	막동	막지
202093	보리웃	보리웃
202094	줄목	*

202095	이기다[勝]	이기다
202096	승강이	싱갱이, 썩앵이
202097	싸우다[鬪]	드투다
202098	패싸움	패싸움
202099	모다기렁	모다치기
202100	편벽하다	편백하다
202101	팽이치기	팽이치기
202102	팽이	팽이
202103	돌다[回]	돌다
202104	바람개비	브름도레기
202105	연	연
202106	방패연(쟁연)	정연
202107	가오리연	가오리연
202108	연달	연대

202108-1	머릿달	연의 머리에 붙인 대	웃대
202108-2	꽂달	연의 가운데에 길이로 붙인 대	장대
202108-3	곶달	연의 네 귀에 ‘×’자 모양으로 엮인 대	*
202108-4	허릿달	연의 허리에 붙인 대	*

202109	방구멍	달, 연구멍
202110	꼭지	*
202111	갈개발	*
202112	벌이줄	벌이줄

202112-1	머릿줄	연의 머릿달 양 끝에 매는 벌이줄	*
202112-2		연의 방구멍 위쪽 꼭지에 매는 벌이줄	*
202112-3	꽂줄	연의 꽂달구멍에 꿰어서 꽂달에 잡아매어 비스듬하게 올라와 가운데 줄과 한군데로 모이는 벌이줄	*
202112-4	활벌이줄	연의 머릿달 양쪽 뒤로 돌아가 활시위처럼 잡아당기어 맨 벌이줄	*
202112-5	가운뎃줄	연의 방구멍에 매는 벌이줄	*

202113	얼레	얼레
202114	두모얼레	짜얼레
202115	네모얼레	통얼레

202116	감다[捲]	감다
202117	개미[연놀이]	굴리
202118	퇴김	푸끄는 거
202119	그네[鞦韆]	굴메, 브랑꼬[일]
202120	밀신개	*
202121	굴령쇠	와[일]
202122	구르다[轉]	등그리다
202123	썰매	*
202124	자전거	즈영개, 즈전개
202125	키[身長]	지레
202126	키다리	격대

생리와 질병

202127	하품	하위염
202128	선하품	선하위염
202129	기지개	질
202130	기지개하다	질트다
202131	경기하다	정기허다
202132	놀라다[驚]	놀라다
202133	졸음	즘
202134	졸다[眠]	졸다
202135	졸리다	조랍다
202136	잠	즘
202137	귀잠	한즘
202138	자다[眠]	자다
202139	잠꼬대	헛말
202140	잠귀	즘귀
202141	잠꾸러기	즘무충이
202142	몸부림	몸질
202143	몸부림하다	몸질치다
202144	트림	게트름
202145	말꼭질	털구지
202146	채채기	헛쟁이
202147	개치네췌	털췌
202148	방귀	똥
202149	방귀뀌다	똥뀌다
202150	방귀장이	똥피기

202151	구린내	똥내
202152	노린내	노린내
202153	사레들다	살레들다
202154	감기	감기, 고뿔
202155	기침	지침
202156	홍역	마노라
202157	학질	날걸리/학질
202158	천연두	큰마노라
202159	곰보	엷배기
202160	비듬	비듬
202161	기계총	이발총
202162	독창	독짓
202163	두부백선	*
202164	웁	칠
202165	버짐	버즘
202166	마른버짐	군버즘
202167	진버짐	츄버즘
202168	주근깨	프리짬
202169	기미	지미
202170	사마귀[黑子]	만축
202171	여드름	여드름
202172	멍	멍
202173	퍼렇다	퍼렇허다
202174	굳은살	꿩이
202175	부스럼	부스럼, 허멸
202176	종기	종기
202177	습종	십종
202178	나다[生]	나다
202179	붉은발	허멸발
202180	다대	딱지
202181	고름[膿]	고름
202182	고장물	피고름
202183	낫다[癒]	낫다
202184	아물다	아물다
202185	표적	본치
202186	생인손	생손
202187	앓다[痛]	알리다

202188	두드러기	두드레기
202189	땀띠	땀뚜드레기
202190	소경	봉스
202191	칭맹과니	튼봉스
202192	면산바라기	*
202193	애꾸눈이	웨눈베기
202194	사팔뜨기	스팔뜨기
202195	다래끼	개썸
202195-1	아래	개썸
202195-2	위	들럿
202196	언챙이	얼챙이
202197	외언챙이	웨얼챙이
202198	쌍언챙이	쌍얼챙이
202199	귀먹다	귀막다
202200	귀머거리	귀막쉬
202201	병어리	모르기
202202	말더듬이	*
202203	혀짤배기	세다든사름
202204	입비뿔이	입떼웨기
202205	구안괘사	와살풍
202206	가납사니	말장시
202207	곰배팔이	폴즐레기
202208	곶사등이	곶새
202209	절뚝발이	전태
202210	얇은뱅이	얇은베기
202211	문둥이	문둥이빙, 용다리

3. 친족

203001	아버지	아버지, 아방
203002	어머니	어머니, 어멍
203003	아비	아방
203004	어미	어멍
203005	할아버지	하르방
203006	할머니	할망
203007	남편	서방, ~아방

203008 아내 우리집사름
 203009 부부 두갓, 두가시
 203010 싫다[厭] 실러다
 203011 좋다[好] 좋다
 203012 아들 아덜, 아들
 203012-1 큰아들

203012-1	큰아들	큰아덜
203012-2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3	셋째아들	말젯아덜
203012-4	막내아들	족은아덜

※아들이 다섯인 경우

203012-5	큰아들	큰아덜, 큰거
203012-6	둘째아들	셋아덜, 셋거
203012-7	셋째아들	말젯아덜, 말젯거
203012-8	넷째아들	족은아덜, 작은거
203012-9	막내아들	막둥이

※아들이 여섯, 일곱, 여덟인 경우도 가능하면 조사

203013 친아들 친아덜, 우리아덜
 203014 의붓아들 다슴아덜
 203015 딸 딸
 203016 친딸 딸
 203017 의붓딸 다슴딸
 203018 자식 즈식, 새끼
 203019 없다[無] 엇다
 203020 자손 즈손
 203021 어비딸 에비딸
 203022 어비아들 에비아덜
 203023 닮다[相似] 닮다
 203024 어이딸 잇딸
 203025 어이아들 이세끼
 203026 맏이 문이
 203027 막내 막내
 203028 형 성
 203029 누님 누님

203030	누이	누이
203031	언니	성
203032	아우	아시
203033	외아들	웨아덜, 단아덜
203034	외딸	웨딸, 단딸
203035	쌍둥이	쌍둥이, 글레기
203036	다르다[異]	틀리다
203037	같다[如]	ㄱ뜨다
203038	양자	양제
203038-1	양자가 되는 것	양제가다
203038-2	양자를 데려오는 것	양제들다
203039	처녀	처녀, 비바리
203040	총각	총각
203041	혼인	혼스, 잔치
203042	날[日]	날
203043	사주보다	스주보다
203044	중신	중매
203045	권당	퀼당
203045-1	덤덜	우던
203045-2	방상	방상
203046	앉은잔치	*
203046-1	암창개	암창개
203047	사위	사위
203048	며느리	메누리
203049	시아버지	씨아방
203050	시어머니	씨어멍
203051	장인	가시아방
203052	장모	가시어멍
203053	외할아버지	웨하르방
203054	외할머니	웨할망
203055	삼촌	삼촌, 큰아버지
203055-1	삼촌	(동네어른) 삼촌
203056	아주버니	씨아지방
203057	아주머니	아지망
203058	환갑	환갑
203059	늙으신네	늙신네
203060	꾸정꾸정하다	정광허다

203061	살다[生]	살다
203062	고로롱팔십	콜랑팔십
203063	병추기	*
203064	거동하다	오몽허다
203065	손자	손지
203066	손녀	손지
203067	친손자	성손지
203068	외손자	웨손지
203069	친탁	성탁
203070	외탁	웨탁
203071	내척	성펜켄당
203072	외척	웨펜켄당
203073	종내기	종네기
203074	시누이	씨누이
203075	올케	아지망
203076	큰아버지	큰아방, 삼촌
203077	큰어머니	큰어멍
203078	작은아버지	족은아방, 삼촌
203079	작은어머니	족은어멍
203080	조카	조케
203081	고모	고모
203082	고모부	고모부
203083	이모	이모
203084	이모부	이모부
203085	외삼촌	웨삼촌
203086	넋할아버지	넋하르방
203087	넋할머니	넋할망
203088	넋손자	넋손지
203089	홀아버	홀아방
203090	홀어미	홀어멍
203091	친아버지	친아방
203092	친어머니	친어멍
203093	의붓아버지	다슴아방
203094	의붓어머니	다슴어멍
203095	웁딸	다슴딸
203096	누구	누게
203097	남[他]	눔

4. 의복

옷감과 세탁

204001	옷감	옷 ㄴ슴
204002	끓다	끓다
204003	명주	맹지
204004	명주실	맹지실
204005	명주옷	맹지옷
204006	줄다[縮]	*
204007	무명	미녕
204008	무명실	미녕실
204009	닷새무명	*
204010	옛새무명	*
204011	생목	깃챗미녕
204012	광목	광목
204013	베	베
204014	베옷	메옷
204015	베치마	베치메
204016	숨	소계
204017	풀숨	맹지숨
204018	숨틀	숨틀
204019	숨틀집	멘네 테우는 디
204020	목화	멘네
204021	목화다래	멘넛드레기, 멘넛드레
204022	누에	누에
204023	누에채반	즘박
204024	번데기	본데기
204025	고치	누에고치
204026	뽕잎	뽕
204027	뽕나무	뽕낭
204028	산뽕나무	드룻뽕
204029	오디	뽕낭으름
204030	다듬잇돌	안반
204031	다듬잇방망이	마께
204032	펴다	폐우다

204033	빨다[滌]	빨다
204034	거품	계꿈
204035	물거품	계꿈, 부글레기
204036	빨랫돌	빨랫돌, 광돌, 세답광돌
204037	빨랫방망이	물마개
204038	빨랫바구니	세답구덕
204039	행구다	해우다
204040	빨랫줄	세답줄
204041	마르다[乾]	들르다
204042	바지랑대	세답작데기
204043	널다	널다
204044	걷다[收]	들이다
204045	바래다[褪]	바래다
204046	험걸	험벽
204047	찢다[裂]	브리다
204048	나부랭이	험벽초랭이

복식

204049	바지	바지
204050	바짓가랑이	바짓가랭이
204051	저고리	저구리
204052	치마	치메
204053	치맛자락	치메깍
204054	풀치마	깍치메
204055	옷고름	골름
204056	옷깃	옷짓
204057	옷섧	옷섭
204058	단추	단추
204059	매듭단추	못인단추
204060	동정	동전
204061	소매	스미
204062	중의	중의
204063	갈중의	갈중의
204064	적삼	적삼
204065	도포	도복
204066	두루마기	두루메기
204067	장옷	장옷

204068	고쟁이	고장중의
204069	토시	폴도매
204070	누더기	누비옷
204071	거지	동녕바치
204072	구두쇠	뿔쟁이
204073	잠방이	점벙이
204074	허리띠	허리띠
204074-1		허리띠
204075	주머니	주멍기
204076	호주머니	계와
204077	넣다[入]	손질르다
204078	버선	보선

204078-1	버선목	발목이 닿는 부분	보선목
204078-2	버선꿈치	발꿈치가 닿는 부분	뒤치기
204078-3	버선등	발등이 닿는 부분	*
204078-4	버선코	앞쪽 끝에 뾰족한 부분	보선코

204079	길목버선	길목
204080	버선발	보선발
204081	대님	다림
204082	감발	*
204083	홀옷	홀옷
204084	겹옷	겹옷
204085	숨옷	소게옷
204086	얇다	얇다
204087	입다[着]	입다
204088	이불	이불
204089	이불깃	이불깃
204090	이불잇	*
204091	홀이불	홀이불
204092	겹이불	겹이불
204093	사이	사이
204094	누비이불	글레이불
204095	이불보	이불포
204096	보풀	주죽, 뭇치레기

204097	홀청	홀청
204098	요	요
204099	옷잇	옷시끼
204100	눅다[臥]	눅다
204101	누이다	눅지다
204102	담요	담요
204103	방석	방석
204104	앉다[座]	앗다
204105	베개	베개
204106	베갯잇	베갯입
204107	베갯머리	베갯머리
204108	베갯모	*
204109	목침	낭베개, 목침
204110	삿갓	삿갓
204111	패랭이	패랭이
204112	유건	유건
204113	병거지	*
204114	밀짚모자	밀낭패랭이
204115	미사리	*
204116	짚신	초신
204117	제총박이	*
204118	딴총박이	*
204119	미투리	미토리
204120	삼다[造履]	삼다
204121	나막신	남신
204122	가죽신	가죽신, 가막창신
204123	부르트다	북물다
204124	벗다[脫]	벗다
204125	설피	*
204126	문수	몽수
204127	부채	선제, 부채
204128	미선	선제
204129	부치다[扇]	푸끄다

바느질과 도구

204130	반짚고리	바농상지
204131	가위	ㄴ새

204132	마르다[裁]	몰르다
204133	골무	골매
204134	실	썰
204135	실꾸리	모둥이
204136	실패	썰패
204137	바늘	바농
204138	찌르다[刺]	찢르다
204139	바늘겨레	바농절레
204140	바늘귀	바농귀
204141	꿰다	꾸다
204142	깎다	줍다
204143	실밥	썰밥
204144	접다	줍다
204145	곱치다	곱이치다
204146	휘잡치다	감치다, 감추다
204147	재봉틀	즈뵘틀
204148	다리미	다루웨
204149	다리다[熨]	다리다
204150	인두	윤디
204151	인두판	윤디판
204152	누르다[壓]	누르뜨다
204153	씨아	물레

204153-1	(씨아 기둥)	가락을 끼우는 좌우에 있는 두 개의 기둥	*
204153-2	췌기	가락과 장가락이 마주 붙어 돌아가도록 밑에서 받치는 나무	*
204153-3	(깔개)	씨아질을 할 때 씨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타 앉는 앉을개	*
204153-4	씨앗귀	가락 끝에 파배기처럼 생긴 톱니	물렛귀
204153-5	씨아손	손잡이	물레차경
204153-6	가락	씨를 빼는 톱니	*

204154 물레 물레

204154-1	괴머리	물레의 왼쪽 가로대 끝 부분에 놓는 받침 나무	*
204154-2	괴머리기둥	괴머리에 세워진 기둥	*
204154-3	설다리	물레의 바탕 위에 세우는 두 개의 기둥	*
204154-4	가로대	물레 몸통과 괴머리를 가로지른 나무	*
204154-5	물레바퀴	물레의 바퀴	*
204154-6	꼭지마리	물레의 손잡이	*
204154-7	동줄	물레의 바퀴와 바퀴를 이은 줄	*
204154-8	가락고동	괴머리의 두 기둥에 가락을 걸기 위하여 고리처럼 만들어 박은 물건	*
204154-9	가락(옷)	실이 감기는 쇠꼬챙이	가레기
204154-10	굴뚝	물레의 몸이 실린 중심의 굴대	*
204154-11	물렛줄	물레의 바퀴와 가락을 걸쳐 감은 줄	*

204155 차새 즈수웨

5. 음식

주식

205001	밥	밥
205002	쌀	쌀
205003	쌀독	쌀통개
205004	담다[入]	담다
205005	보리밥	보리밥
205006	끓어오르다	끓다
205007	빠다[湯水]	빨르다
205008	조밥	조팝
205009	덜다[減]	덜다
205010	흰밥	곤밥
205011	팥밥	팻밥
205012	반지기	반지기
205013	고두밥	선밥
205014	먹다[食]	먹다
205015	누룽지	누녕이
205016	눌은밥	승농
205017	더운밥	더운밥
205018	식은밥(찬밥)	실려운밥, 식은밥

205019	툇밥	툇밥
205019-1	괘밥	*
205019-2	괘래밥	*
205020	밥보	밥푸대
205021	밥술	밥적
205022	밥알	밥방울
205023	끼니	때
205024	늦다[晩]	늦다
205025	이르다[早]	이르다
205026	공밥	공밥
205027	놀다	놀다
205028	승냥	승냥
205029	화독내	그끄렁내
205030	국	국
205031	나물국	낙물국, 웬장국
205032	콩국	콩국
205033	춧국	춧국
205034	냉국	냉국
205035	건더기	건지, 건데기
205036	국물	국물
205037	굶다[飢]	굶다, 때걸르다
205038	죽	죽
205039	덥다[暑]	덥다
205040	흰죽	곤죽
205041	팥죽	팥죽
205042	섞다[混合]	서끄다
205043	콩죽	콩죽
205044	갱죽	국죽
205045	깨죽	깨죽
205046	녹두죽	녹디죽
부식		
205047	반찬	출레, 반찬
205048	데우다	데우다
205049	김치	짐치, 짐끼
205050	배추김치	배추짐치, 낙물짐치
205051	무김치	늬뻬짐끼

205052	열무김치	츠마귀김치
205053	물김치	물김치
205054	나박김치	나박김치
205055	갯김치	갯물김치
205056	파김치	패마농김치
205057	깍두기	깍데기
205058	메주	메주
205059	담그다	담다
205060	간장	물장
205061	장물	물장
205062	된장	웬장
205063	소금	소곰
205064	소금버캐	소곰절언
205065	소금장수	소곰장시, 소곰바치, 소곰줄래기 딸(놀리는 표현)
205066	간	간
205067	맛	맛
205068	간하다	간하다
205069	콩나물	콩질름
205070	숙주나물	녹디질름
205071	무나물	늬뻬채
205072	고사리	고사리
205073	고사리나물	고사리보끔
205074	고사리밥	고사리손
205075	꺾다[切]	꺼끄다
205076	곶[場所]	바둑
205077	고비	베염고사리
205078	미나리	미네기
205079	부추	세우리
205080	상추	부루
205081	시금치	시금추
205082	푸성귀	송키
205083	오이	웨
205084	물외	물웨
205085	참외	츄웨
205086	수세미외	스가웨
205087	말물	초물
205088	끝물	막물

205089	개똥참외	간질귀
205090	원두막	웨막
205091	갯잎	유입, 께입
205092	고추	고치
205093	푼고추	폴고치
205094	고춧가루	고춧ㄱ르
205095	맵다[辛]	맵다
205096	작다[小]	족다
205097	호박	호박
205098	청등호박	베또롱 튀어난 거
205099	호박잎	호박입
205100	시들다	시들다, 유올다
205101	더덕	던덕
205102	젓	젓
205103	자리젓	자리젓
205104	멸치젓	멜젓
205105	아감젓	*
205106	짜다[鹽]	짜다
205107	초(식초)	취

별식

205108	흰떡	곤떡
205109	백설기	곤침떡
205110	부스러기	보스레기
205111	송편	송편
205112	소[떡소]	쉬
205113	고물	쉬
205114	도래떡	돌레떡, 다대
205115	설다[未熟]	설다
205116	만두	만뒤
205117	가루	ㄱ르
205118	국수	국쉬
205119	칼국수	칼국
205120	삶다[烹]	숯다
205121	수제비	즈베기
205122	물다[淡]	얄브다, 물르다
205123	범벅	범벅

205124	미숫가루	개역
205125	볶다[炒]	보끄다
205126	봉지	봉투지
205127	과줄	*
205128	옛기름	골
205129	감주	감주
205130	달다[甘]	들다
205131	술	술
205132	막걸리	탁배기
205133	붓다[注]	비우다
205134	기울다[傾]	주우리다
205135	주다[授]	주다
205136	마시다[飲]	먹다
205137	준(罇)	추니
205138	엎다	어프다
205139	술고래	술푸대
205140	술독	술통개
205141	술심부름	술부름씨
205142	술장사	술장시
205143	숨기다	굽지다
205144	찾다[索]	춧다
205145	들이켜다	들으쓰다
205146	갑시다	ㄱ끼다
205147	지짐이	묵
205148	누름적	묵
205149	산적	적

부엌과 그릇

205150	부엌	정지, 정제
205151	부엌문	정짓문
205152	불때다	불습다
205153	불등걸	불잉겅이
205154	불뚱	불께미
205155	부엌비	정짓비차락, 정젯비
205156	내[煙氣]	네
205157	낮다[低]	애프다, 야프다
205158	높다[高]	노프다

205159	그을음	그스렁
205160	검댕	숫끄스렁, 그슬떡
205161	아궁이	숫강알
205162	채	불채
205163	모으다[集]	모두다
205164	부뚜막	화덕
205165	봇돌	숫덕
205166	솔	숫
205167	옹달솔	옹조리
205168	무쇠솔	무쇠숫
205169	끓다[沸]	퀘우다
205170	솔뚜껑	숫뚜껍이
205171	솔귀	*
205172	솔전	숫천
205173	솔바닥	숫창
205174	솔밑	숫창
205175	솔검정	그슬떡
205176	부삽	불갈레
205177	군손	헛손
205178	군일	헛일
205179	살강	살레
205180	부지깻이	부지땡이
205181	짚방석	짚방석, 즐은방석, 즐방석
205182	성냥	곽, 불곽
205183	성냥개비	곽살
205184	성냥갑	곽통
205185	부시	부시
205186	부싷돌	부싷돌
205187	부싷깃	불쩍
205188	부시쌈지	부싷주땡이
205189	부시통	불쩍통
205190	등잔	각깃불
205191	관솔	슬각
205192	호룽	초룽
205193	남포등	호얏불
205194	접싷불	젍싷불
205195	불켜다	불싸다

205196	숯	숯
205197	검다[黑]	검다
205198	숯가마	*
205199	뜬숯	계수미[일]
205200	숯검정	숯끄슬먹
205201	불타다	불카다
205202	탄내	그끄렁내
205203	불태우다	불케우다
205204	불티	불깨미
205205	끄다[消火]	끄다
205206	화로	화리
205207	돌화로	돌화리
205208	청동화로	정동화리, 놋화리
205209	붕당	붕덕
205210	화룻불	화릿불
205211	불찌다	불초다
205212	화상(火傷)	디여분 거
205213	부손	불순가락
205214	부젓가락	불젓가락, 불하시[일]
205215	다리쇠	시발췌
205216	석쇠	적췌
205217	물독	물통개
205217-1		츄
205217-2		츄황
205218	담배	담배
205219	피우다	피우다
205220	용고뚜리	담배초관
205221	담뱃대	담뱃대
205222	빨다[吸]	빨다
205223	물부리	물부리[물뿌리]
205224	담배통	담뱃봉지
205225	담배설대	설대
205226	담배쌈지	담배쌈지
205227	재떨이	재떨이
205228	벼루	베리
205229	상	상
205230	그릇	그릇

205231	비다[空]	비다
205232	주발	눗그릇
205233	사발	사발, 통사발
205234	뚜껑	개깃껍이
205235	접시	젍시, 접시
205236	굽달이	반굽
205237	대접	대접
205238	보시기	보시
205239	종지	종지, 좃제기
205240	간종지	종지
205241	숟가락	숟가락
205242	젓가락	즈뵈
205243	수저통	젯통
205244	설거지	그릇 씻는 거
205245	구정물	긧인물
205246	도시락	도슬기
205247	주전자	주젠지
205248	냄비	냄비
205249	바가지	박세기
205250	박	쿨락, 쿨왓
205251	뒤옹박	*
205252	조롱박	쿨락
205253	쪽박	큑락박세기
205254	양푼	냥푼이
205255	조리	조리
205256	단지	단지
205257	뚝배기	독사발
205258	시루	시리
205259	시룻밑	시룻고망
205260	시룻번	시룻마개
205261	경그레	바드렝이
205262	함지박	도고리
205263	바구니	구덕
205264	소쿠리	소쿠리
205265	대[竹]	대
205266	이대	족대
205267	왕대	왕대

205268	숨대(분죽)	*
205269	제주조릿대	ㄱ대
205270	굳은대	매운대
205271	무른대	무른대
205272	항아리	항, 통개
205273	물동이	허벅
205274	뒤주	두지
205275	도마	돔배
205276	칼	칼
205277	식칼	돔배칼
205278	빼다[拔]	빼다
205279	무디다[鈍]	무끼다
205280	갈다[磨]	골다
205281	숫돌	신돌
205282	날카롭다	늑슬다
205283	행주	상빼
205284	번철	빈철
205285	국자	남자
205286	밥주걱	우금
205287	죽젓광이	베술기
205288	수세미	수세미
205289	떡살	떡본
205290	밀판	안반
205291	밀개	미레깃대
205292	소줏고리	고시리

205292-1	(고리 위통)	소줏고리의 위통	*
205292-2	(고리 알통)	소줏고리의 아래통	*
205292-3	귀때	술이 내려오는 부리	코
205292-4	(받이쟁)	부리로 떨어지는 술을 받는 병	두벙들이

205293	빚다	다끄다
205294	풍로	*
205295	삼발이	시발췌, 시발소
205296	달이다	딸리다

6. 가옥

형태와 배치

206001	집터	집터
206002	초가	초집
206003	길[路]	길
206004	골목	올레
206005	좁다[峽]	좁다
206006	낡다[古]	헐다
206007	기와집	지에집
206008	흙집	흑집
206009	돌집	돌집
206010	오막살이	(초)막살이
206011	외채	단거리, 독채
206012	안채	안거리
206013	바깥채	밖거리
206014	안팎채	안팎거리
206015	문간채	이문간집
206016	곶채	모커리
206017	짓다[作]	짓다
206018	장독	장황뒤, 장팡뒤
206019	덮다[蓋]	더끄다
206020	장독대	장황뒤
206021	헛간	헛간, 곶팡
206022	외양간	쉐왕, 쉼막
206023	잃다[失]	일르다
206024	마구간	물막
206025	변소	통시
206026	부춘돌	디딜팡, 디딜황
206026-1	부출	*
206027	기척	인기척, 촌지침
206028	맞서다[拮]	맞사다
206029	냄새	내우살
206030	말다[臭]	마트다, 마추다
206031	울담	우영담
206032	울안	울안, 우지왓

206033	터알	우영팻
206034	가리	눌
206035	보릿가리	보릿눌
206036	짚가리	짚눌
206036-1	출눌	출눌
206037	틈[隙]	트멍
206038	가리다[積]	눌다
206039	사닥다리	사드레, 산태
206040	이영	느람지
206041	주저리	주쟁이, 주지
206042	엮다[編]	여끄다

내부 구조

206043	차양	풍체
206043-1		*
206043-2		*
206044	디딤돌	광돌
206045	난간	난간
206046	마루	마리, 마레
206047	마루문	대문
206047-1	‘호령창’	호령창
206048	마룻널	마룻널, 마렛널
206049	구들	구들
206050	구들장	구들돌
206051	종이	종이
206052	얹다	얹롭다
206053	구들직장	고망우럭
206054	큰방	큰구들
206055	들다[入]	들다
206056	윗목	밧자리, 밧목, 바갈목
206057	아랫목	안자리, 안목
206058	천장	천아반
206059	닿다[觸]	닿다
206060	웃바람	우풍
206061	안방	큰구들
206062	방문	지겟문
206063	비[帚]	비차락

206064	빛자루[柄]	빛즈룩
206065	쓸다	썰다
206066	버리다[棄]	데끼다
206067	바람벽	백브름
206068	걸다[掛]	걸다
206069	벽장	백장
206070	시렁	시렁
206071	선반	선반
206072	헛대	훤
206073	도배	도비
206074	귀알	비알
206075	풀비	풀비
206076	찾방	청방
206077	광	고광, 안방
206078	두다[置]	놓다
206079	광문	안방문
206080	간수하다	가냥ㅎ다
206081	안뒤결	집뒤, 뒷우영
206082	지붕	지붕
206083	함석	도당집[일]
206084	지붕물매	물매
206085	이다[蓋]	일다
206086	평고대	거왕
206087	처마	집가지
206088	처맞기슭	집가지
206089	낙숫물	지순물
206090	맺돌	잇돌
206091	흙	흑
206092	진흙	질흑
206093	찰흙	출흑
206094	흙덩이	흑병덩이
206095	새벽	개벽, 개백
206096	흙질	흑질
206097	이기다[沍]	이기다
206098	산자(撒子)	서슬
206099	기둥	지둥
206100	상기둥	입쟁이

206101	뿔기둥	뿔지둥
206102	세우다	세우다
206103	주춧돌	주춧돌
206104	서까래	서리
206105	용마루	상마루
206106	보	포
206107	대들보	장포
206108	반자틀	빈짓널
206109	귀틀	귀클
206110	외(椽)	*
206111	인방	장지방
206112	문설주	드리
206113	문곶도리	문드리
206114	문얼굴	*
206115	문틀	문틀
206116	문머리	문입쟁이, 옷입쟁이
206117	문흙	문흙
206118	문지방	지방
206119	지계문	지갯문
206120	닫다[閉]	더끄다
206121	창문	창문
206122	잠그다	중그다
206123	창호지	창오지
206124	뛰창문	창문곰, 창곰, 문곰
206125	구멍	고망
206126	미단이	밀문
206127	여단이	으단이, 으는문
206128	살문	쌀문
206129	널문	널문
206130	덧문	덧문
206131	문틈	문트멍
206132	돌쩌귀	도철귀
206133	암톨쩌귀	암토절귀
206134	수톨쩌귀	수토철귀
206135	문고리	문고리
206136	배목	*
206137	궤	궤

206138	열다[開]	올다
206139	장식	장석
206140	자물쇠	통쇠
206141	열쇠	열쇠, 게철
206142	부수다[碎]	부수다
206143	서랍	설합

연장

206144	툽	툽
206145	양날툽	양날베기
206146	거도	거두
206147	틀툽	줄툽
206148	툽밥	툽밥
206149	자귀	자귀
206150	옥자귀	곡자귀, 편자귀
206151	노루발장도리	못빼기망치
206152	못뽑이	못빼기망치
206153	박다[釘]	박다
206154	배척	못빼기, 빠루(일)
206155	끌	끌
206156	망치	마غه, 망치
206157	방망이	(덩드렁)마غه
206158	대패	대패
206159	개탕대패	돛좃뽑이
206160	송곳	송곳
206161	뿔다[鑿]	뿔우다, 뿔루다
206162	굽자	굽은자
206163	먹통	먹통
206164	먹줄	먹술, 먹줄
206165	먹칼	먹칼
206166	흑손	흑손
206167	쇠흑손	쨌손
206168	나무흑손	낭손
206169	흑받기	흑바대, 흑바대판
206170	돌물레	호랭이(?)
206171-1		줄호랭이

7. 생업

농업

207001	농사	농시, 용시
207002	밭	밭
207003	밭가	밭에엎
207004	밭담	밭담
207005	밭빼기	도르갱이
207006	병작(竝作)	병작
207007	갈다[耕]	갈다
207008	쟁기	잡대

207008-1	양지머리	쟁기의 좌우 손잡이	양깃머리, 양짓머리
207008-2	쟁깃술	쟁기의 몸 아래로 비스듬히 뺏어나간 나무	무클
207008-3	한마루	쟁기의 성에와 술을 꿰뚫어 곧게 선 나무	설칫
207008-4	성에	쟁기의 윗머리에서 앞으로 길게 뺏은 나무	성에
207008-5	좁생이막대	쟁기의 위 덧방을 누르는 나무	설치코
207008-6	보습	쟁깃술 바닥에 끼우는 쇧조각	보섭
207008-7	벧	보습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쇧조각.	벧
207008-8	물추리막대	쟁기의 성에 앞 끝에 가로로 박은 막대기	들벥이코
207008-9	‘뚝’	좁생이막대 아래에 끼워서 쟁깃술의 각도를 조절하는 막대	뚝

207009	육보다	속다
207010	겨리	저리
207011	벧밥	병에
207012	곰방메	곰베
207013	밭머리	밭명에
207014	밭두둑	밭두둑
207015	밭고랑	고랑
207016	밭이랑	이렁
207017	거웃	고지
207018	극쟁이	*
207019	씨레	*

207019-1	손잡이	씨레의 손잡이	*
207019-2	찍게발	씨레의 손잡이와 몸통을 이어주는 2개의 기둥	*
207019-3	몽둥이	씨레발을 박을 수 있는 굵은 막대	*
207019-4	씨레발	씨레 몽둥이에 박힌 뾰족한 살	*
207019-5	나루채	씨레 몽둥이 앞 양쪽에 박은 나무	*

207020	번지	*
207021	괭이	괭이
207022	곡괭이	곡괭이
207023	파다[堀]	파다
207024	쇠스랑	쉐스랑
207025	삽	가래죽, 수굽푸
207026	따비	따비
207027	거름	걸름
207028	걸다[肥]	걸다
207029	씨앗	씨
207030	알씨	*
207031	백씨	백씨, 썬씨
207032	뿌리다[撒]	뿌리다
207033	망태기	망탱이, 망데
207034	꿈계	섬비
207035	남태	*
207036	돌번지	*
207037	김[雜草]	검질
207038	김매다	검질매다
207039	애벌매기	초불검질
207040	두벌매기	두불검질
207041	세벌매기	세불검질
207042	가다[去]	글라(밭디 글라)
207042-1		가다(집의 가게)
207043	호미	굴갱이
207044	홍아기	사디, 사대
207045	놉	놉
207046	시키다	시기다
207047	품삿	쿰, 일쿰

207048	비싸다	비싸다
207049	결두리	중석, 간식
207050	폼앗이	수놓음
207051	삼태기	글채
207052	낫	호미

207052-1	낫자루	낫의 자루	호미즈룩
207052-2	슴베	자루 속에 들어박히는 뽕족하고 긴 부분	*
207052-3	낫갱기	낫자루에 슴베가 박히는 부분을 단단히 하기 위하여 둘러 감은 쇠	*
207052-4	낫놀	슴베가 빠지지 않도록 낫자루에 구멍을 뚫어 박는 쇠못	호미늘
207052-5	낫공치	낫의 슴베가 휘어넘어가는 덜미의 두꺼운 부분	*
207052-6	날	풀을 벨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늘

207053	베다[刈]	비다
207054	새 꽤기	소독
207055	새끼	스끼, 새끼
207056	꼬다[索]	꼬다
207057	매듭	막작
207058	노	노
207059	끈	끈
207060	참마(바[索])	베, 쉼베
207061	짐바	짐페
207062	질빵	질뽕
207063	잇다[承]	잇다
207064	길마	질메
207065	소길마	쉼질메
207066	말길마	물질메

207066-1	길맞가지	길마의 몸을 이루는 말굽 모양의 나뭇가지	질멧가지
207066-2	앞가지	길마의 앞부분이 되는 민등산 모양의 나무	앞가지
207066-3	뒷가지	길마의 뒷부분이 되는 편자 모양의 나무	뒷가지
207066-4	궁글막대	길마의 앞가지와 뒷가지를 꿰뚫어 맞춘 나무	셋낭
207066-5	등우리막대	궁글막대 아래 댄 나무	*
207066-6	경거리	소의 궁둥이에 막대를 가로 대고 그 양 끝에 줄을 매어 길마의 뒷가지에 좌우로 잡아매게 되어 있는 물건	고들개
207066-7	경거리끈	경거리막대의 양 끝에 매어 길마의 뒷가지와 연결하는 줄	고들개끈
207066-8	경거리막대	경거리끈에 매어 소의 궁둥이에 가로 대는 막대	고들개
207066-9	배뎛끈	길마를 엮을 때에 배에 걸쳐서 졸라매는 줄	오랑, 오랑뎛

207067 멍에

멍에

207067-1	목대	멍에 양쪽 끝 구멍에 꿰어 소의 목 양쪽에 대는 가는 나무	좁게
207067-2	붓줄	멍에 양 끝에서 비겨미까지 연결된 줄	숨비줄
207067-3	한태	붓줄을 마소의 등 위로 잡아매는 줄	등쾌
207067-4	(오리목)	붓줄 끝에 맨 비겨미와 쟁기의 물추리막대를 연결하여 매는 줄	오리목줄
207067-5	비겨미	붓줄이 소 뒷다리에 닿지 않도록, 두 끝을 턱이 지게 하여 붓줄에 꿰는 막대기	버을레

207068 지게

지게

207068-1	지겟다리	지게 몸체의 맨 아랫부분에 있는 양쪽 다리	지겟다리
207068-2	지겟가지	지게 몸에서 뒤쪽으로 갈라져 뺨어 나간 가지	지겟가지
207068-3	지게세장	지게의 두 다리 사이에 가로 박아 맞추어 놓은 나무	지겟셋낭
207068-4	지겟등태	지게를 질 때 등이 배기지 않게 붙인 등태	등쾌, 등태
207068-5	지게꼬리 (밀뻘)	지게의 짐을 잡아매는 줄	지게친
207068-6	지겟작대기	지게를 버티어 세우는 긴 막대기	지게작쉬

207069 바지게

바지게

207070	밭채	마지게
207071	물지게	물지게[물찌게]
207072	이삭	고고리
207072-1		이석
207073	짚	짖
207074	익다[熟]	익다
207075	개상	*
207076	벼훑이	툃개, 훑태
207077	그네	클

207077-1	보리 이삭(등근 살)	가래기클(벼)
207077-2	밭벼 이삭(넓고 모난 살)	관장클(보리, 산디)

207078	타작하다	태작허다, 장만허다
207079	땀	땨
207080	진땀	진땨
207081	젖다[濕]	젖다
207082	죽을힘	죽을힘, 젓먹은 기운
207083	겨를	저르
207084	도리깨	도께

207084-1	도리깨채	도리깨의 자루로 쓰는 긴 막대기	도께어시
207084-2	도리깨열	도리깨채의 끝에 달려 곡식의 이삭을 후려치는 곧고 가느다란 나뭇가지	도께아덜
207084-3	도리깨꼭지	도리깨장부 끝의 구멍에 끼워 도리깨열을 잡아매게 된 작은 나무 비너	도께틀레

207085	여물	쉐것
207086	쭈정이	줄레
207087	꿀	출
207088	꿀밭	출왓
207089	꿀꾼	출눔, 출 비는 늑
207090	꿀단	출뭇
207091	신다[載]	시끄다, 실르다
207092	마차	구루마
207093	복두	도로깃베

207094	명석	명석
207095	덕석	독석
207096	거적	거적
207097	체	체
207098	가는체(고운체)	그는체, 합체
207099	굵은체	대체
207100	말총체	총체
207101	챗바퀴	챗망
207102	챗다리	*
207103	어래미	얼멩이
207104	키[箕]	푸는체
207105	키질	푸는체질
207106	까불다	푸다
207107	드리다	불리다
207108	‘솔박’	솔박[솔빡]
207109	풍구	풍기
207110	흡	흡
207111	흡되	흡제기
207112	되	뱃박
207113	관되	관뒤
207114	사샷되	*
207115	말[斗]	말
207115-1	통말	통말
207115-2	모말	귀말
207116	가웃	가웃
207117	끓다[不充滿]	끓르다, 끓다
207118	고무래	당그네
207119	불당그래	굴목당그네
207120	떡등구미	멕
207121	가마니	가멩이
207122	끗다[引]	끗다
207123	곡식	곡석
207124	흩다[散]	근다
207125	차루[袋]	찰리, 차대
207126	부대(負袋)	푸대
207127	거두다[收]	거두다
207128	계으름	간세

207129	노라리	노토메
207130	보리	보리
207131	보리밭	보리왓, 보리밭
207132	누리다[黃]	누렁허다
207133	밟다	블르다
207134	까끄라기	ㄱ스락
207135	보리쌀	보리찰
207136	보릿겨	보리체
207137	겉보리	겉보리
207138	쌀보리	슬오리
207139	맥주보리	맥주보리
207140	보릿짚(보릿대)	보릿낭, 보리짚
207141	매끼	깨
207142	감부기	감비역
207143	귀리	대우리
207144	조	조
207145	조밭	조팓
207146	차조	흐린조
207147	메조	모인조
207148	슈다	소끄다
207149	조이삭	조코고리
207150	서속(黍粟)	서속
207151	비비다	부비다
207152	허수아비	허제비
207153	좁쌀	좁찰
207154	조짚	조직
207155	벼	나록
207156	벼이삭	나록고고리
207157	볍씨	나록씨
207158	못자리	*
207159	밭벼[山稻]	산디
207160	밭벼 이삭	산디고고리
207161	밭벼밭	산디왓
207162	밭벼쌀	산디찰
207163	밭벼짚	산디짚
207164	멧돌	ㄱ레

207164-1	맷돌짜	맷돌의 위아래 돌	ㄴ레
207164-2	윗돌	맷돌의 위짜	우착
207164-3	아랫돌	맷돌의 아래짜	알착
207164-4	매암쇠	맷돌 위짜의 한가운데 뚫린 구멍	조쟁잇고망 ㄴ레썩
207164-5	맷수쇠	맷돌의 아래짜 한가운데 박힌 물건	조쟁이
207164-6	맷손	맷돌의 손잡이	ㄴ렛즈룩

207165	맷방석	ㄴ렛독석
207166	매함지	*
207167	풀맷돌	풀ㄴ레
207168	풀매	풀ㄴ레
207169	썰기	뜸
207170	방아	방에
207171	쌍방아	두콜방에
207171-1		세콜방에
207171-2		네콜방에
207171-3		*
207172	방아확	돌혹, 방엿혹
207173	방앗간	방엿공장
207174	븀비다	비피다
207175	방앗공이	방엿귀
207176	남방아	남방에
207177	연자매	돌방에, 돌ㄴ레
207178	방앗돌	방엿돌
207179	연자맷간	돌방엿집
207180	절구	절구
207181	절긋공이	방엿귀
207182	뺨다	뺨다
207183	뉘	니, 머흘
207184	고르다[擇]	골르다, 골리다
207185	씹다[嚙]	씹다
207186	겨	체
207187	콩	콩
207188	콩잎	콩입
207189	기름콩	즂진콩
207190	콩깍지	콩깍지

207191	콩짚	콩낭
207192	꼬투리	콩깍지
207193	두부	둠비
207194	두붓물	둠빃물
207195	뜨겁다	지접다, 디여불다
207196	비지	비제기
207197	찌꺼기	주시
207198	완두	보리콩
207199	강낭콩	두불콩
207200	동부	둠비
207201	팔	폿
207202	팔알	폿방울
207203	팔밥	폿밥
207204	녹두	녹디
207205	깨(참깨)	츄께, 께
207206	들깨	유
207207	참기름	츄지름
207208	깻묵	츄지름주시[쭈시]
207209	고소하다	ㅋ시롱허다
207210	메밀	모멸
207211	메밀밭	모멸팟
207212	나깨	느쟁이
207213	메밀껍질	모멸체, 모멸거죽
207214	메밀국수	모멸국수
207215	메밀수제비	모멸조베기
207216	메밀칼국수	모멸칼국
207217	메밀떡	모멸떡
207218	메밀묵	모멸묵
207219	무르다[軟]	얄루다
207220	고구마	감저
207221	절간고구마	절간
207222	찌다[蒸]	치다, 솨다
207223	썰다	썰다
207224	감자	지슬
207225	마늘	마농
207225-1	마늘대	마농대
207225-2	마늘밀	마농뿔리

207225-3	마늘중	마농도레기
207226	마늘장아찌	콥대산이지시
207227	과	꽤마농, 마농
207227-1	과밀동	마농불휘
207228	무	늪삐
207229	무청	늪삐썸
207230	시래기	씨래기
207231	장다리무	늪삐 씨 세운 거
207232	열무	츄마귀
207233	배추	늪물
207234	고깡이(배추)	썩
207235	나물	늪물, 승키
207236	채소	늪물
207237	겉대	유으레기
207238	다듬다	다듬다
207239	값	값
207240	옥수수	강낭대죽
207240-1	옥수수	대죽부레기
207241	수수	대죽
207242	쌀수수	쌀대죽
207243	비목수수	비대죽, 살레대죽
207244	사탕수수	새당대죽, 사탕대죽
207245	수수깡	대죽낭

어업

207246	잠녀(潛女)	잠네
207247	물질	물질
207248	물옷	소중이
207249	물안경[水鏡]	눈
207249-1		*
207249-2		*
207250	테왁	테왁
207251	망사리	망시리
207252	비창	비창
207253	작살	소살
207254	어부	보제기
207255	뜰채	*

207256	그물	구물
207257	돛단배	돛단배, 초석단배, 풍선
207258	이물	이물
207258-1	이물간	이물칸
207258-2	이물사공	*
207259	고물	고물
207259-1	고물간	고물칸
207259-2	고물사공	*
207260	돛	초석
207261	마룻대(돛대)	돛대
207262	마룻줄(용총줄)	*
207263	활대	*
207264	외대박이	웨돛대
207264-1	두 대박이	*
207264-2	세대박이	*
207265	노(櫓)	노, 네
207266	결노	*
207267	상책(노착)	*
207268	노잎(노깃)	*
207269	노앞	*
207270	노뒤	*
207271	노손	*
207272	돛구멍	*
207273	돛줄	*
207274	돛	돛
207275	돛가지	돛가지
207276	돛줄	돛줄
207277	돛들	돛들
207278	돛걸이	*
207279	키[舵]	치
207280	킷구멍	*
207281	키잡이	*
207282	강다리	*
207283	상앗대	사울대
207284	떼[浮筏]	테우, 테배

기타

207285	이웃	이웃
207286	더불다[與]	더불다
207287	마을	므슬
207288	고을[村]	고을
207289	누리[世]	*
207290	윗마을	웃드르, 웃동네
207291	옮다[移]	옮다
207292	아랫마을	알동네
207293	마을가다	므슬카다
207294	밤마을	*
207295	가게	가게
207296	구멍가게	고망가게
207297	다녀오다	땡겨오다, 갔다오다
207298	심부름	부름씨
207298-1	부름씨	부름씨
207299	잔돈	쑤돈, 풀돈, 즌돈
207300	남다[餘]	남다
207301	거스름돈	우수리
207302	있다[有]	잇다
207303	에누리	에누리
207304	우수리	우수리
207305	받다[受]	받다
207306	나머지	남제기
207307	흥정	흥성
207308	빚	빚
207309	빚지다[負]	빚지다
207310	변리[邊利]	벤리
207311	늘다[增]	늘다
207312	대장간	불미항
207313	풀무	불미, 풍로
207314	손풀무	똑딱불미, 청탁불미
207315	모루	모루
207316	모루채	모루망치, 모루메
207317	갓양태(양태)	*
207318	망건	망건
207319	망건골	*
207320	탕건	탕건

207321	견다[編]	줄다
207322	사냥	사농
207323	사냥개	사농개
207324	사냥꾼	사농쟁이
207325	쏘다[射]	쏘다
207326	핑잡이	사농쟁이
207327	고	코
207328	올가미	코
207329	덧	덧
207330	나누다	느뇌먹다
207331	갖다[持]	ㄴ지다

8. 수와 단위

수

208001 하나~열

208001-1	(1)	흐나
208001-2	(2)	둘
208001-3	(3)	셋
208001-4	(4)	넷
2080015-	(5)	다섯, 다섯
208001-6	(6)	으섯
208001-7	(7)	일곱
208001-8	(8)	으답
208001-9	(9)	아홉
208001-10	(10)	열

208002	세다[數]	세다, 시다
208003	알다[知]	알다
208004	스물~백	

208004-1	(20)	스물
208004-2	(30)	서른
208004-3	(40)	마은, 마흔
208004-4	(50)	쉰
208004-5	(60)	예순
208004-6	(70)	이른
208004-7	(80)	으든
208004-8	(90)	아흔
208004-9	(100)	백

208005 한~엿

	단위	되	말
208005-1	(1/한)	흔 돼	흔 말
208005-2	(2/두)	두 돼	두 말
208005-3	(3/서, 석)	석 돼	서 말
208005-4	(4/너, 녀)	녀 돼	너 말
208005-5	(5/닷)	닷 돼	닷 말
208005-6	(6/엿)	웃 돼	웃 말

208006 한두

		개	되	말
208006-1	(1-2/한두)	흔두 개	흔두 돼	흔두 말
208006-2	(2-3/두세)	두세 개	두석 돼	두서 말
208006-3	(2-3-4/두서너)	두서너 개	두서너 돼	두서너 말
208006-4	(3-4/서너)	서너 개	서녀 돼	서너 말
208006-5	(4-5/네댓)	너댓 개	너댓 돼	너댓 말
208006-6	(5-6/대여섯)	대웃 개	대웃 돼	대웃 말
208006-7	(6-7/예닐곱)	예슬곱 개	예슬곱 돼	예슬곱 말
208006-8	(7-8/일고여덟)	일고으답개	일고으답 돼	일고으답 말
208006-9	(8-9/여덟아홉)	으다아홉개	으더아홉 돼	으다아홉 말

208007 여남은 으남은

208008 서른남은 설남은

단위

208009	뺨	뺨, 뺨
208010	집게뺨	조리
208011	밭[單位]	밭
208012	밭다	밭다
208013	필(무명/명주)	필, 빌
208014-1		*

208014-1	무명	40자
208014-2	명주	40자
208014-3	광목	*
208014-4	베	20, 25

208015	마지기(평)	말지기
208015-1		(보리씨 한 말) 120평
208016	못	못
208017	묶다[束]	무끄다
208018	나르다[移]	날르다
208019	동	단
208019-1		(솔가리 묶음) 보달
208020	조짐	줄레
208021	바리(종류)	바리

208021-1	보리	20못
208021-2	조(이삭 있음)	6못, 12못
208021-3	콩	6못
208021-4	밭벼	20못
208021-5	꿀	40못
208021-6	띠	20못, 12못
208021-7	각단	20못
208021-8	어욱	*

208022	모금	굴레(물), 적(밥)
208023	섬	섬
208023-1		15 말
208024	덩이	덩이

208025	포기	풀기
208026	그루	그루, 개
208027	돌이(양태)	돌레
208028	마리	머리
208028-1	두[頭](소)	머리, 두, 수
208028-2	(말)	머리, 두, 수
208029	축	*
208030	퀘미	퀘미
208031	쌍(돼지)	자리
208032	채(집)	거리
208033	장(무덤)	자리, 기
208034	컬레(신)	베
208035	바퀴(운동장)	바퀴
208036	뭇	뭇
208037	죽	죽

9. 민속

통과의례

209001	꿈자리	꿈사리
209002	아이서다	애기설다
209003	삼신할머니	삼승할망
209004	깃저고리	봇땃창옷
209005	배넛머리	*
209006	돌	돌, 돛
209007	새색시	새각시
209008	새신랑	새스방
209009	가마	가매
209010	시집가다	시집가다
209011	시집보내다	시집보내다
209012	장가가다	장계가다
209013	장가보내다	장계보내다
209014	함	함
209015	위요(우시)	우시
209016	대반(對盤)	대반
209017	신부상	새각시상

209018	휘다[樛]	휘여지다
209019	이바지	이바지
209020	부조	부지
209021	사돈	사돈
209021-1	안사돈	안사돈
209021-2	바깥사돈	밖사돈
209022	겹사돈	겹사돈
209023	상갓집	영장집
209024	수의	저승옷
209025	상복	상복
209026	상제	상제
209027	상주	큰상제
209028	맡상제	큰상제
209029	두건	두건
209030	복치마	복치메
209031	상장(喪杖)	방정대
209031-1	(아버지상)	왕대
209031-2	(어머니상)	머구냥
209032	짚동	짚등
209033	일포제[祖奠]	일포제
209034	조문하다	조문가다, 고렘가다
209035	뒗자리	산자리
209036	지관	정시
209037	패철	췌, 큰췌
209038	관	관
209039	상여	상예
209040	보장(寶帳)	화단
209041	계(契)	제, 집
209042	상두꾼	운상꾼
209043	장삿날	영장날
209044	장지	영장밧
209045	광중	개광
209046	횡대	개관
209047	호충	호충, 충
209048	무덤	봉분, 산
209049	산담	산담
209050	돌장이	돌챙이, 답상꾼

209051	토롱	토롱
209052	산역	봉분 싹찌
209053	마치다[終]	므치다
209054	벌초	벌초, 소분
209054-1	소분	*
209055	묘위전	제월제
209056	고총	골총
209057	제사	식계
209058	제삿집	식갯집
209059	편틀	펜틀
209060	퇴물	텃물
209061	메	멧밥, 메
209062	갱(羹)	게영
209063	제육	제숙
209064	제편	제펜
209065	인절미	인절미
209066	절편	절벤
209067	옷기떡	우 짝
209068	반기	반
209069	반기하다	반놓다
209070	몫	적시
209071	면례(緬禮)	천리

세시풍속

209072	설날	정월명질, 명질날
209073	세배	서배, 세배
209074	명절	맹질
209075	걸립	걸궁
209076	금줄	금줄
209077	매다[結]	매다
209078	장구	장귀
209079	설장구	살장귀
209080	쟁과리	쟁메기
209081	영등할머니	영등할망
209082	단오	단오
209083	물맞이	물맞이
209084	모래찜질	모살침

209085 추석 팔월명절

10. 신앙

210001	점	점
210002	점쟁이	점쟁이
210003	안택	토신제
210004	당	당
210005	무격	심방
210006	굿	굿
210007	굿판	*
210008	명두	맹두칼
210009	추다[躡]	추다
210010	소지(燒紙)	소주
210011	사르다[燒]	스루다
210012	살(煞)	쌀귀
210013	삼살방(三煞方)	삼살방
210014	도깨비	도체비
210015	낮도깨비	낮도체비
210016	허깨비	허깨
210017	어둑서니	그슨새
210018	무섭다	무섭다
210019	겹쟁이	겹쟁이
210020	고사(告祀)	꺄시
210021	고수레	*
210022	포제	포제

11. 자연

들

211001	들	드르, 들
211002	풀[草]	풀
211003	방화(放火)	방에
211004	불다[點火]	부찌다
211005	내[川]	내창, 내

211006	넷가	넷곳되
211007	물가	물바위, 물통바위
211008	따르다[從]	들르다
211009	건너다[渡]	넘어가다
211010	낭떠러지	기정
211011	다리[橋]	드리
211012	가깝다[近]	브디다
211013	멀다[遠]	멀다
211014	덤불	더월, 덤벌
211014-1	가시덤불	가시자왈
211015	돌무더기	작백, 잣
211016	갈림길	~커리
211017	묻다[問]	듣다
211018	비탈길	빅데기
211019	벼랑길	기정질
211020	내리막길	느릿질
211021	오르막길	오롯질
211022	길가	질에염
211023	큰길	한질, 큰질
211024	분화구	움부리
211025	꼭대기	꼭대기
211026	오르다[登]	오르다
211027	기슭	*
211028	산바람	산느룻
211029	산꼬대	*
211030	상고대	*
211031	구렁	구덩이
211032	고랑창	골챙이
211033	건너가다	넘어가다
211034	넘어지다	지울어지다, 쓰러지다
211035	자빠지다	누다
211036	천상수	봉천수
211037	숲	고지
211038	성(城)	жат

바다

211039	바다	바당
--------	----	----

211040	바닷가	갯갯
211041	바닷물	바당물
211042	바닷바람	바당브름
211043	깊다[深]	지프다
211044	얕다[淺]	야프다
211045	물먹다	복먹다
211046	모래	모살
211047	모래밭	모살밭
211048	자갈	작지
211049	갯가	개갯
211050	펼	펼
211051	먼바다	먼바당
211052	파도	절
211053	파돏소리	절소리
211054	듣다[聞]	듣다
211055	너울	누
211056	굵늬	즌절
211057	물결	물결
211058	잔물결	즌절
211059	무수기	물때

	무수기	방언형	날짜
211059-1	한무날	흔물	10일, 25일
211059-2	두무날	두물	11일, 26일
211059-3	서무날	서물	12일, 27일
211059-4	너무날	너물	13일, 28일
211059-5	다섯무날	닷물, 다섯물	14일, 29일
211059-6	여섯무날	웃물, 으숫물	15일, 30일
211059-7	일곱무날	일곱물	16일, 1일
211059-8	여덟무날	으답물	17일, 2일
211059-9	아홉무날	아홉물	18일, 3일
211059-10	열무날	열물	19일, 4일
211059-11	열한무날	열흔물	20일, 5일
211059-12	열두무날	열두물	21일, 6일
211059-13	(열서무날)	아끈조기	22일, 7일
211059-14	아끈채기	한조기	23일, 8일
211059-15	한조금	부날	25일, 9일

211060	여	여, 숨은돌
211061	곶(串)	코지
211062	물밀다	물들다
211063	밀물	들물
211064	물싸다	물싸다
211065	쌀물	쌀물

시후

211066	오늘	오닐
211067	내일	닐
211068	모레	모리
211069	내일모레	닐모리
211070	글피	글피
211071	그글피	저낙날
211072	어제	어제
211073	그저께	그지께
211074	그끄저께	그직아시날
211075	새벽[曉]	새백
211076	꼭두새벽	동세백
211077	해[太陽]	해
211078	빛	빋
211079	아침	아직
211080	낮	낮
211081	저녁	저낙
211082	저녁거리	저낙ㄹ슴
211083	초저녁	초저낙
211084	밤[夜]	밤
211085	한밤중	한밤
211086	하늘	하늘
211087	땅	땅
211088	구름	구름
211089	푸르다	푸리다
211090	별	벨
211091	은하수	미릿내
211092	달	들
211093	차다[充滿]	차다

211094	달무리	달갓
211095	초승달	초싱들
211096	보름달	보름들
211097	그믐달	구믐들
211098	햇무리	해갓
211099	무지개	황고지, 향고지
211100	쌍무지개	쌍황고지
211101	봄	봄
211102	여름	여름
211103	가을	가슬
211104	겨울	저슬
211105	입춘	셋절드는 날
211106	동지	동지
211107	초하루	초하르
211108	보름	보름
211109	그믐	구믐

211110-1	하루	하르
211110-2	이틀	이틀
211110-3	사흘	사흘
211110-4	나흘	나흘
211110-5	닷새	닷췌
211110-6	엿새	웃새
211110-7	이레	일레
211110-8	여드레	으드레
211110-9	아흐레	아흐레
211110-10	열흘	열흘

211111	사나흘	사나을, 사나흘
211112	너댓새	너닷췌
211113	대엿새	대웃췌
211114	지나다[過]	지나다, 냉기다
211115	삭망	초하루보름
211116	저물다	즈물다
211116-1	‘구물다’	구물다
211117	지다[落]	지다
211118	이월달(영등달)	영등들

211119	선달	선들
211120	올해	올리
211121	내년	새해, 내년
211122	내후년	우맹년, 내후년
211123	작년	넘은해
211124	재작년	재작년

날씨

211125	별	벧
211126	별살	벧살, 햇살
211127	따스하다	드뜻ㅎ다
211128	땡볕	웬벧
211129	가을볕	ㄱ슬벧, ㄱ슬벧살
211130	양지받이	해남석
211131	아지랑이	*
211132	그늘	그늘
211133	그늘대	그늘케
211134	나무그늘	낭그늘
211135	쉬다[休]	쉬다
211136	그림자	굴메
211137	바람	브름
211137-1	바람위	브름우의
211137-2	바람아래	브름알, 브름아래
211138	맞바람	맞브름
211139	바람받이	브름받는다, 브름코지
211140	바람살	브름쌀
211141	회오리바람	돛꺽이주제
211142	동풍	셋브름
211143	남풍	마프름
211144	서풍	서갈브름, 갈브름
211145	북풍	하늬브름
211146	비[雨]	비
211147	굳다[堅]	굳다
211148	빗줄기	빗살
211149	장마	장마, 마
211149-1	봄장마	풀돋잇마, 고사리마
211149-2	가을장마	ㄱ슬마

211150	곰팡이	곰생이
211151	소나기	췌네기
211152	여우비	넘어가는주제
211153	가랑비	ㄱ랑비
211154	이슬	이슬
211155	시원하다	씨원허다
211156	도롱이	츄렁이
211157	가물다	ㄱ물다, 한기허다
211158	가뭇	한기
211159	흉년	승년
211160	비바람	비브름
211161	안개	으남
211162	번개	편개
211163	천둥	천두룽
211164	벼락	베락
211165	홍수	큰물
211166	눈[雪]	눈
211167	함박눈	험박눈
211168	오다[來]	오다
211169	싸락눈	쓰레기눈
211170	도둑눈	아기물른눈
211171	내리다[降]	느리다
211172	희다	허영ㅎ다
211173	춡다	얼다
211174	떨다[慄]	털다
211175	고드름	동곳
211176	녹다[融]	녹다
211177	얼음	얼음
211178	얼다[氷]	얼다
211179	곱다	곱다
211180	진눈깨비	무눈
211181	우박	우박

방향

211182	앞	앞
211183	뒤	뒤
211184	곁	즈곁뒤

211185	옆	옳
211186	위	우의
211187	아래	알, 아래
211188	밝다[明]	밝다
211189	어둡다[暗]	어둡다, 어둡다
211190	왼쪽	웬착
211191	오른쪽	느단착
211192	밑	알
211193	흐르다[流]	흘르다, 느리다
211194	안[內]	안
211195	밖	바깳디, 바깳디
211196	구석	구석
211197	모서리	모사리
211198	가[邊]	어염, 에염
211199	가장자리	긋디
211200	가운데	가운디
211201	곧다[直]	곧다

12. 동물

가축

212001	소[牛]	쉐
212002	막다[防]	막다
212003	암소	암쉐
212004	수소	부룽이
212005	흰소	속쉐
212006	불까다	불즐르다, 불치다
212007	불알	불
212008	황소	부룽이
212009	얼룩소	어럭쉐
212010	부리망	망울
212011	쇠고삐	쉐석
212012	끌다	긋다, 이끄다
212013	송아지	송에기
212014	배넛소	멤쉐, 어울림쉐
212015-1	하룻~열룻	

		소	말
212015-1	하릅(1)	금승	금승
212015-2	이듭/두습(2)	다간	이수
212105-3	샤릅(3)	샤릅	삼수
212015-4	나릅(4)	나릅	스수
212015-5	다습(5)	다습	오수
212015-6	여습(6)	으습	육수
212015-7	이릅(7)	일곱	일곱
212015-8	여듭(8)	으답	*
212015-9	아습/구릅(9)	아웁	*
212015-10	열릅/담불(10)	열	*

212016	작두	작뒤
212017	쇠죽	쉐것
212018	구유	쉐것통, 낭도고리
212019	말[馬]	말
212020	죽다[死]	죽다
212021	많다[多]	하다
212022	암말	즈매
212023	수말	웅매
212024	망아지	몽생이
212025	가라말	가래말
212026	청총마/총이말	청총
212027	절따말/적다마	적대
212028	얼룩말	스월래
212029	유마	유마, 유매
212030	백마	백매
212031	고라말	고래
212032	곰배말	화등이
212033	조랑말	조랑말
212034	달리다[走]	들리다
212035	마소	마쉬
212036	글경이	(진독)글경이
212037	털[毛]	터럭
212038	말고삐	말석
212039	당기다	등기다
212040	낙인	낙인

212041	개[犬]	개
212042	짖다[吠]	주끄다
212043	쓰다[用]	씨다
212044	수캐	수캐
212045	암캐	암캐
212046	강아지	강생이
212047	비루	도롱이, 비리
212048	비루떡다	도롱이 인다, 도롱이 붙었찌
212049	고양이	고녕이
212050	암고양이	암코녕이
212051	수고양이	수코녕이
212052	도둑고양이	도둑고녕이, 들고녕이
212053	살쥬이	식
212054	닭	득
212055	암닭	암득
212056	수닭	장득
212057	멀떠구니	멀터거니
212058	산맥	산맥
212059	닭의어리	득서렁
212060	닭장	득장
212061	달걀	득세기
212061-1	노른자위	노랑득세기
212061-2	흰자위[卵]	흰득세기
212062	끓다[腐]	고리다
212063	빙아리	빙에기
212064	까다[剝]	까다
212065	돼지	도새기, 돛
212066	수돼지	수툏, 수토새기
212067	암돼지	암툏, 암토새기
212068	추렴하다	추렴허다
212069	가르다[分]	갈르다
212070	고기[肉]	퀘기
212071	일شم씨	일수, 일شم씨
212072	생둥이	서툏바치
212073	새끼 돼지	자릿도새기
212074	돼지우리	통시, 돛집, 돛통시
212075	돼지고기	돛퀘기

212076	적	적갈
212077	적꼬치	적꼬지
212078	굽다[炙]	굽다
212079	무판(푸줏간)	무판
212080	기르다	질루다
212081	들치	지시랭이
212081-1	들암소	쉐지시랭이
212081-2	들암말	들지시랭이
212081-3	들암돼지	지시랭이
212081-4	들암캐	지시랭이
212082	거위	거위
212083	오리	올랭이

벌레와 곤충

212084	벌레	버랭이
212085	파리	프리
212086	쉬	쉬
212087	쉬슬다	쉬일다
212088	가시	장버랭이
212089	구더기	차세들린버랭이
212090	쉬파리	쉬프리
212091	쇠파리	쉐프리
212092	똥파리	똥프리
212093	모기	모기
212094	물다[咬]	물다
212095	각다귀	극데기
212096	장구벌레	장굴레비
212097	벼룩	베룩
212098	빈데	빈데
212099	이[蟲]	니
212099-1	서캐	쉬
212100	서캐훅이	청빳
212101	지렁이	게우리
212102	회충	게우리
212103	거머리	거말
212104	바구미	남쉬
212105	콩바구미	콩버랭이

212106	굼벵이	굼벵이
212107	땅강아지	하늘강생이
212108	그리마	검은수에기
212109	쥐며느리	*
212110	노래기	마퍼랭이
212111	지네	주냉이
212112	진딧물	진쉬
212113	진딧물내리다	쉬 일다, 진쉬 일다
212114	하루살이	흐루살이
212115	눈에놀이	눈에눈이
212116	달팽이	집들벵이
212117	민달팽이	민들벵이
212118	거미	거미
212119	개미	게염지
212120	왕개미	물게염지
212121	불개미	*
212122	메뚜기	만축
212123	방아깨비	심방만축
212124	여치	큰공중이
212125	사마귀[螳螂]	극취기
212126	귀뚜라미	공중이
212127	풍뎅이	두메기
212128	장수풍뎅이	떠렁췌
212129	무당벌레	*
212130	쇠똥구리	췌똥구리
212131	딱정벌레	도깨버랭이
212132	집게벌레	줍제기
212133	하늘소	하늘췌
212134	노린재	노린재
212135	나비	내비
212136	호랑나비	호랑내비
212137	날다[飛]	날다
212138	사슴벌레	*
212139	잠자리	밥부리
212140	고추잠자리	고치밥부리
212141	장수잠자리	왕밥부리
212141-1		*

212142	매미	재열
212143	매미허물	(왕)재열봇
212144	말매미(왕매미)	왕재열
212145	쓰르라미	구제기재열
212145-1		*
212146	소금쟁이	소금쟁이
212147	방개	물췌[췌]
212148	반딧불이	불한지, 불한디
212149	벌	벌
212150	꿀벌	꿀벌
212151	꿀	칭
212152	땅벌	땅벌
212153	말벌	말벌
212154	붓다[腫]	붓다
212155	진드기	진독
212155-1	(진드기새끼)	서미역
212155-2	(늪은것)	부구리
212156	송충이	소낭버렁이
212157	개구리	글개비
212158	올챙이	멘주기
212159	맹꽁이	맹마구리
212160	두꺼비	두테비
212161	뱀	베염
212161-1	뱀띠	베염헤치
212161-2	뱀허물	베염옷, 베염흘
212162	용	용, 미리
212162-1	용띠	용헤치, 미리헤치
212163	도마뱀	독다구리
212164	구렁이	구렁이
212165	살무사	물폐기, 독사

들짐승

212166	여우	여시
212167	노루	노리
212168	염소	염췌, 염송아기
212169	토끼	튀끼
212170	족제비	족, 족제비

212171	쥐	중이
212172	값다	굽다
212173	쥐구멍	중이고망
212174	박쥐	드랍쥐
212175	다람쥐	*
212176	오소리	지달이(?)
212176-1		*
212177	지달(이)	지달이
212178	지달피	지달이가죽
212179	멧돼지	산뿔
212180	원숭이	원생이, 준나비
212181	원숭이띠	준나비띠, 준나비혜치, 납혜치
212182	호랑이	호랭이
212183	호랑이띠(범띠)	범띠, 범혜치
212184	꼬리	꼬랑지, 꼴랑지, 출리

날짐승

212185	새[鳥]	생이
212186	꿩지	출리, 생이풀리
212187	깃[羽]	깃
212188	새총	생이총
212189	새가슴	생이가슴
212190	참새	참생이
212191	비둘기	비둘기
212192	제비	제비
212193	매	매
212194	참매	참매
212195	솔개	소로기
212196	까치	까치
212197	까마귀	가메기
212198	딱따구리	*
212199	뼈꾸기	뼈꼭새
212200	종달새	총대기
212201	올빼미	옥밤
212202	꿩	꿩
212203	까투리(암꿩)	암꿩
212204	장끼	장꿩

212205	평알	평독세기
212206	꺼병이	평빙에기
212207	두루미	*
212208	기러기	기레기, 기러기
212209	갈매기	바당가메기

바다 동물

212210	고등	보말
212211	개울타리고등	ㄱ메기
212212	명주고등	*
212213	눈알고등	*
212214	밤고등	떡보말
212215	팽이고등	수두리
212216	각시고등	*
212217	두드럭고등	메옹이
212218	대수리	*
212219	타래고등	*
212220	대롱빨고등	*
212221	제주개오지	*
212222	애기삿갓조개	*
212223	거복손	*
212224	따개비	*
212225	군부	군벗
212225-1	종류	*
212226	진주담치	가막부리
212227	소라	구제기
212227-1	종류	문둥구쟁기, 살구제기, 조쿠제기
212228	전복	전복
212228-1	암컷	*
212228-2	수컷	*
212229	전복갑	거평
212230	오분자기	오분제기, 바르
212231	게	강이
212232	바위게	*
212233	부채게	돌킹이
212234	엽낭게	*
212235	참게	춤강이

212236	꽃게	*
212237	소라게	*
212238	그물무늬금게	*
212239	집게발	아강발
212240	갯강구	밥게
212241	말미잘	물조롬, 물또꼬망
212242	성게	귀살, 구살
212243	말뚱성게	숨
212244	군소	굴멍이
212245	새우	새우
212246	불가사리	*
212247	수세미불가사리	*
212248	해파리	물췌에기
212249	낙지	낙지
212250	문어	물꾸럭
212251	서대	*
212252	해삼	미
212253	멍게	*
212254	바닷물고기	바당퀴기
212255	맑다[淸]	맑다
212256	흐리다[濁]	흐리다
212257	잘다[細]	줄다
212258	썩다[腐]	썩다
212259	비늘	비늘
212260	배따다	베블르다, 베갈르다
212261	생선(生鮮)	늘퀴기
212262	미끼	니껍
212263	갯지렁이	계수리
212264	낙시	낙시
212265	낙싯대	춤대
212266	만들다[造]	낙시 ㄹ피다
212267	낙싯줄	퀴기술
212268	붕돌	뽕돌[뽕똥]
212269	참대	왕대
212270	낙다	나끄다
212271	주낙	주낙
212272	주낙배	주낙배

212273	지느러미	*
212274	아가미	구생이
212275	멸치	멜
212276	보리멸	모살치
212277	갈치	갈치
212278	풀갈치	땡기갈치
212279	베도라치	보들레기
212280	말뚝망둑어	*
212281	별망둑	*
212282	매통이	아여리
212283	고생놀래기	고맹이
212284	용치놀래기	술맹이
212285	어랭놀래기	어랭이
212286	실놀래기	썰어랭이
212287	옥돔	오토미, 생성
212288	흑돔	웁이
212289	돌돔	갓돔
212290	감성돔	감은돔
212291	벙에돔	구룻, 구르찌
212292	황돔	황돔, 춤돔
212293	자리돔	자리
212293-1		나끄다, 거리다
212294	고등어	고등에
212295	전갱이	각제기
212296	조기	조기
212297	보구치	백조기
212298	가오리	가오리
212299	오징어	오징에
212299-1		오징에 부찢다
212300	붉바리	북바리
212301	다금바리	다금바리
212302	농어	*
212303	쥐치	객주리
212304	우럭볼락	우럭
212305	볼락	볼락
212306	쭈기미	소치
212307	독가시치	따치

212308	방어	방에
212309	재방어	*
212310	상어	상에
212311	가래상어	*
212312	개상어	*
212313	팽이상어	도롱이, 즈다니
212314	귀상어	*
212315	돌묵상어	*
212316	수염상어	*
212317	두툽상어	*
212318	별상어	*
212319	고래	고래
212320	돌고래	수웨기
212321	귀돔	귀돔
212322	복어	복쟁이
212323	흑산호	무낭

13. 식물

풀

213001	가라지	ㄴ랏
213002	갈대	*
213003	억새	어욱
213004	새풀	미삐쟁이
213005	화승(火繩)	화승
213006	띠[茅]	새
213007	띠밭	새왓
213008	길차다	휘차다
213009	빨기	뽕이
213010	사초	*지
213011	천일사초	*
213012	김의털	쉐터럭
213013	쇠무릎	믈믈작쿨
213014	바랭이	절완지
213015	민바랭이	*
213016	조개풀	*

213017	방동사니	*
213018	마디풀	*
213019	솔새	*
213020	개솔새	*
213021	뚝새풀	*
213022	팽이밥	*
213023	원추리	*
213024	메꽃	머마줄
213025	갯메꽃	*
213026	비름	비눔
213027	쇠비름	췌비눔
213028	개비름	개비눔
213029	참비름	참비눔
213030	땅빈대	빈네쿨
213031	애기땅빈대	*
213032	평의밥	*
213033	여우구슬	독쿨
213034	질경이	베채기
213035	쭈	속
213036	캐다[採]	캐다
213037	쭈떡	속떡
213038	토끼풀	*
213039	개자리	개자리
213040	냉이	난쟁이
213041	방울새풀	*
213042	무릇	물룻
213043	여뀌	여뀌
213044	오이풀	시호
213045	영경퀴	스웁이가시
213046	췌기풀	*
213047	수크령	*
213048	망초	천상쿨
213049	별꽃	진풀
213050	병풀	*
213051	깨풀	복쿨
213052	박조가리나물	*
213053	파리	왕푸케, 하늘푸케

213054	땅파리	푸개
213055	피막이풀	*
213056	도깨비바늘	*
213057	도꼬마리	*
213058	모시풀	모싯쿨
213059	왕모시풀	진, 진대
213060	천남성	*
213061	맥문동	*
213062	밀나물	멜순
213063	살갈퀴	*
213064	차풀	자골
213065	결명자	결명자
213066	까마중	개불낭
213067	하늘타리	하늘레기
213068	노랑하늘타리	하늘레기
213069	부처손	*
213070	방가지뚱	돛수에
213071	닭의장풀	ㄱ네쿨
213072	배풍등	*
213073	췌	꼭
213074	췌덩굴	꼭줄
213075	췌뿌리	꼭불휘
213076	댕댕이덩굴	정동줄
213077	노박덩굴	본지낭, 개웃낭
213078	새박덩굴	생이족박
213079	호자덩굴	*
213080	한삼덩굴	삼수세
213081	함바기	*
213082	담쟁이	담쟁이
213083	송악	굴그락줄
213084	인동	인동줄
213085	멀꿀	*
213086	천문동	*
213087	계요등	*
213088	사위질빵	*
213089	등대풀	등디쿨
213090	수영(승아)	베염술

213091	애기수영	베염술
213092	싸리	근자리
213093	땀싸리	*
213094	명아주	제쿨
213095	갓	갓노물
213096	달래	드룻마농
213097	씀바귀	쓴부루케
213098	고들빼기	*
213099	박하	박하
213100	비수리	첩사리
213101	꿀풀	*
213102	마삭줄	마삭
213103	갯기름나물	방풍
213104	구릿대	수리대
213105	으아리	저슬살이
213106	익모초	익모초, 눈비에기쿨
213107	피마자	피만지
213108	뉴질랜드삼	신사라
213109	양하	양웨
213110	파초	반치
213111	갯강활	*
213112	부들	*
213113	개구리밥	*
213114	줄	*
213115	마름	*
213116	싱경이	늦

꽃

213117	꽃	고장
213118	꽃봉오리	꽃봉, 봉오지
213119	채송화	*
213120	민들레	민들레루
213121	봉선화	봉승아
213122	흰꽃나도사프란	*
213123	분꽃	*
213124	할미꽃	해르비고장
213125	붓꽃	*

213126	참나리	*
213127	맨드라미	*
213128	해바라기	해바레기
213129	진달래	진들레
213130	철쭉	철쭉
213131	피다[開]	피다
213132	쑥부쟁이	*
213133	수국	*
213134	산수국	*
213135	광대나물	*
213136	제비꽃	*
213137	복수초	*
213138	수선화	*
213139	선인장	가시꽃
213140	문주란	*

나무

213141	뿌리	낭빨리
213142	잔뿌리	즌빨리
213143	줄기	나뭇대
213144	가지	가쟁이
213145	잎	낭썸
213146	나무	낭
213147	하다[爲]	허다
213148	삭정이	삭다리
213149	소나무	소낭
213150	솔잎	솔입
213151	솔가리	솔입
213152	솔방울	솔득세기
213153	멜감	진을커
213154	마디다	막디다
213155	갈퀴	글쟁이
213156	도끼	도치
213157	팽나무	폭낭
213158	팽	폭
213159	동백나무	돛박낭
213160	붉다[赤]	빨강허다

213161	멀구슬나무	목쿠실낭
213162	버드나무	버드낭
213163	녹나무	녹낭
213164	아카시아	아까시낭
213165	은행나무	은행낭
213166	음나무	엄낭
213167	삼나무	숙대낭
213168	심다[植]	싱그다
213169	벚나무	사오기
213170	왕벚나무	*
213171	사옥	사오기
213172	느티나무	굴무기
213173	주목	노가리
213174	종려나무	남총낭
213175	윤노리나무	윤노리낭
213176	비목나무	구름푸기
213177	구상나무	구상낭
213178	굴거리나무	굴거리낭
213179	생달나무	신낭
213180	굴나무	미짱낭
213181	따다[摘]	타다
213182	광굴나무	산물
213183	유자나무	댕유지, 대유자
213184	비자나무	비자낭
213185	치자나무	치지낭
213186	비파나무	비파낭
213187	오동나무	오동낭
213188	조롱나무	조례기낭, 줄고락낭
213189	배롱나무	백일홍
213190	감탕나무	*
213191	거망웃나무	개칠낭
213192	팥팥나무	깨팥낭
213193	노린재나무	*
213194	때죽나무	죽낭
213195	마가목	*
213196	말채나무	*
213197	느릅나무	누룩낭

213198	두릅나무	들굽낭
213199	향나무	향낭
213200	웃나무	칠낭
213201	소리나무	소리낭
213202	솔비나무	솔피낭
213203	층층나무	*
213204	닥나무	닥낭
213205	돈나무	덧낭
213206	무환자나무	*
213207	쥐똥나무	깨짱낭
213208	섬쥐똥나무	*
213209	이팝나무	*
213210	가시나무	가시낭
213211	개가시나무	*
213212	종가시나무	벌레낭
213213	호랑가시나무	쥐가시낭
213214	돌가시나무	*
213215	제주가시나무	*
213216	꾸지뽕나무	콧가시낭, 콧낭
213217	덜꿩나무	*
213218	사스레피나무	*
213219	머귀나무	머귀낭
213220	좁머귀나무	*
213221	자귀나무	자귀낭
213222	말오줌때	말오줌낭
213223	중대가리나무	*
213224	예덕나무	다근독낭
213225	참식나무	*
213226	까마귀쪽나무	*
213227	천선과나무	빈독낭
213228	실거리나무	썰거리낭
213229	굴피나무	*
213230	후박나무	*
213231	풍개나무	*
213232	먼나무	먼낭
213233	박달나무	*
213234	떡갈나무	츠낭

213235	상수리나무	*
213236	참나무	츠낭
213237	산딸나무	틀낭
213238	초피나무	조피낭
213239	국수나무	*
213240	사철나무	사철낭
213241	겨우살이	저슬살이
213242	모람	모람
213243	누리장나무	갯낭
213244	아왜나무	아오기낭
213245	순비기나무	슌부기
213246	붉나무	북낭
213247	협죽도	협죽도
213248	담팔수	*

열매

213249	과일	과실
213250	껍질	껍데기, 껍질
213251	까다	까끄다
213252	벗기다	벳기다
213253	딸기	탈
213254	뱀딸기	게염지탈
213255	멍석딸기	보리탈
213256	복분자딸기	한탈
213257	줄딸기	*
213258	산딸기	*
213259	가시딸기	*
213260	검은딸기	*
213261	장딸기	*
213262	개암	*
213263	머루	멀리
213264	개머루	개멀리
213265	까마귀머루	고냉이멀뤼
213266	산머루	등당멀리
213267	상동나무	삼동낭
213268	상동	삼동
213269	시로미	시러미

213270	다래	츄드레
213271	개다래	개드레
213272	보리수나무	풋블레낭
213273	보리수	블레
213274	보리장나무	꼬리블레
213275	앵두나무	에영뒤낭
213276	앵두	에영뒤
213277	매실	매실
213278	매화나무	매화낭
213279	밀감	미깡
213280	밀감나무	미깡낭, 꿀낭
213281	탱자	개탕쉬
213282	탱자나무	개탕쉬낭
213283	감	*
213284	뽕다[柿]	초랍다
213285	감물	감물
213286	홍시	홍실
213287	풋감	풀감
213288	청미래덩굴	멍겅낭
213289	맹감	벨랑귀
213290	짚레나무	질리낭
213291	영실	장득쿨
213292	사과나무	사과낭
213293	사과	사과
213294	배나무	배낭
213295	배	배
213296	돌배	돌배
213297	팔배나무	*
213298	밤나무	밤낭
213299	구실잣밤나무	즈배낭
213300	밤	밤
213301	보늬	*
213302	복숭아나무	복숭개낭
213303	복숭아	복숭개
213304	대추	대추
213305	대추나무	대춧낭
213306	으름	졸겅이줄

213307 오미자 오미자

바다 식물

213308	미역	메역
213309	넓미역	*
213310	미역쇠	메역세
213311	김	짐
213312	파래	퍼래, 파래
213313	툇	툇
213314	패	패
213315	넓패	넙패
213316	지층이	*
213317	다시마	다시마
213318	듬북	*
213319	감태	감태
213320	모자반	몹
213321	청각	청각
213322	우뭇가사리	우미
213323	우미	우미
213324	서슬(까막살)	*
213325	진두발	*
213326	도박	*
213327	갈래곰보	*
213328	풀가사리	가시리